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00-000202-10

2017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I 2017년 문화관광축제 현황 및 평가 1

- 1. 문화관광축제 현황 3
- 2. 문화관광축제 평가 8

II 지자체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종합 15

- 1. 개 요 17
 - (1) 조사개요 • 17
 - (2) 축제 설문 • 18
- 2. 분석대상 및 평가항목 19
 - (1) 종합분석 대상축제 • 19
 - (2) 대상축제 유형 구분 • 20
 - (3) 평가항목 • 22
 - (4) 분석방법 • 23
- 3. 방문객 만족도 결과 종합 24
 - (1) 연도별 만족도 변화 • 24
 - (2) 항목별 만족도 • 25
 - (3) 축제 등급별 만족도 • 26
 - (4) 축제 유형별 만족도 • 31
 - (5) 축제별 만족도 비교 • 36
- 4. 방문객 소비지출 결과 종합 41
 - (1) 전제 • 41
 - (2) 연도별 소비지출 변화 • 41
 - (3) 항목별 소비지출 • 42
 - (4) 축제 등급별 소비지출 • 43
 - (5) 축제 유형별 소비지출 • 46
 - (6) 축제별 소비지출 비교 • 50
- 5. 외지관광객 비율 54
- 6.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 55



서울특별시

- 1. 서울 한성백제문화제 59

부산광역시

- 2. 부산 광안리어방축제 60

대구광역시

- 3.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61

인천광역시

- 4.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62

광주광역시

- 5. 광주 추억의 7080 총장축제 63

대전광역시

- 6.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64

울산광역시

- 7. 울산 용기축제 65

경기도

- 8. 이천 쌀문화축제 66
- 9. 가평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67
- 10.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68

11. 수원 화성문화제	69
12. 시흥 갯골축제	70

강 원 도

13. 화천 산천어축제	71
14. 평창 효석문화제	72
15. 원주 다이내믹댄싱카니발	73
16. 춘천 국제마임축제	74
17. 정선 아리랑제	75
18. 강릉 커피축제	76

충 청 북 도

19. 괴산 고추축제	77
-------------------	----

충 청 남 도

20. 강경 젓갈축제	78
21. 부여 서동연꽃축제	79
22. 서산 해미읍성축제	80

전 라 북 도

23. 김제 지평선축제	81
24. 무주 반딧불축제	82
25. 순창 장류축제	83
26.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84
27. 고창 모양성제	85

전 라 남 도

28.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86
29. 강진 청자축제	87
30. 담양 대나무축제	88
31. 정남진 장흥 물축제	88

32. 보성 다향대축제	90
33. 영암 왕인문화축제	91

경상북도

34. 문경 찻사발축제	92
35. 봉화 은어축제	93
36. 포항 불빛축제	94
37. 고령 대가야체험축제	95

경상남도

38. 산청 한방약초축제	96
39. 통영 한산대첩축제	97
40. 밀양 아리랑대축제	98

제주도

41. 제주 들불축제	99
-------------------	----

IV 전문가현장평가 축제별 결과 101

서울특별시

1. 서울 한성백제문화제	104
---------------------	-----

부산광역시

2. 부산 광안리어방축제	107
---------------------	-----

대구광역시

3.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110
------------------------	-----

인천광역시

4.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114

광주광역시

5. 광주 추억의 7080 총장축제 118

대전광역시

6.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123

울산광역시

7. 울산 용기축제 127

경기도

8. 이천 쌀문화축제 131
9. 가평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134
10.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138
11. 수원 화성문화제 143
12. 시흥 갯골축제 149

강원도

13. 화천 산천어축제 154
14. 평창 효석문화제 157
15. 원주 다이내믹댄싱카니발 161
16. 춘천 국제마임축제 165
17. 정선 아리랑제 169
18. 강릉 커피축제 172

충청북도

19. 괴산 고추축제 175

충청남도

20. 강경 젓갈축제	179
21. 부여 서동연꽃축제	183
22. 서산 해미읍성축제	188

전라북도

23. 김제 지평선축제	193
24. 무주 반딧불축제	196
25. 순창 장류축제	202
26.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206
27. 고창 모양성제	210

전라남도

28.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215
29. 강진 청자축제	220
30. 담양 대나무축제	223
31. 정남진 장흥 물축제	226
32. 보성 다향대축제	230
33. 영암 왕인문화축제	235

경상북도

34. 문경 찻사발축제	240
35. 봉화 은어축제	245
36. 포항 불빛축제	251
37. 고령 대가야체험축제	256

경상남도

38. 산청 한방약초축제	262
39. 통영 한산대첩축제	267
40. 밀양 아리랑대축제	273

제 주 도

41. 제주 들불축제 278

V

축제별 이미지

283

1. 2017년 대표축제 285
2. 2017년 최우수축제 286
3. 2017년 우수축제 289
4. 2017년 유망축제 293

2017 문화관광축제 >>>

I

2017년 문화관광축제 현황 및 평가



K o r e a C u l t u r e & T o u r i s m I n s t i t u t e

1

문화관광축제 현황

(1) 연도별 축제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은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의 전통문화와 독특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지역축제 중 관광 상품성이 큰 축제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음
- 문화관광축제는 특별시·광역시 각 2개 이내, 광역도 각 3개 이내, 특별자치시 1개 이내, 특별자치도 2개 이내의 축제를 추천하면 관광·축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축제 프로그램 등 콘텐츠, 축제 운영 우수성, 축제 발전역량 등을 기준으로 선정함

〈표 1〉 연도별 문화관광축제 선정 현황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개수	18	21	25	30	29	30	37	45	52	52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수	56	57	44	44	45	42	40	44	43	41

(2) 2017년 축제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문화관광축제로 41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대표 축제 3개, 최우수축제 7개,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21개임
- 문화관광축제는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한 등급에서 3회 이상 선정된 축제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축제 일몰제의 문제점(지원이 중단된 축제의 쇠퇴, 문화관광축제 브랜드 가치 하락, 경쟁력 있는 우수 축제 상실 등)을 개선하였으며, 2017년에는 관광 상품성이 큰 신규 축제 5개를 새롭게 발굴·선정함
- 또한, 2015년부터는 명예대표축제(대표축제를 졸업한 축제)를 글로벌육성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17년 글로벌육성축제(3개) : 보령머드축제, 안동탈춤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 2017년 축제 평가지표는 2016년도 평가지표와 동일하게 축제의 콘텐츠 차별성과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를 강화하였으며, 선정된 축제에는 등급별로 관광진흥기금을 지원(대표축제 4.0억원, 최우수축제 2.2억원, 우수축제 1.3억원, 유망축제 0.84억원)하고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종합적인 해외홍보와 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함

〈표 2〉 2017년 문화관광축제 현황

지역	등급	축 제 명	기 간	장 소	주요프로그램
서울 (1)	유망	한성백제문화제	9.21~9.24	올림픽공원 일대	• 한성백제 혼불 채화식, 몽촌토성 성곽돌기, 역사문화거리행렬 등
부산 (1)	유망	광안리어방축제	5.12~5.14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	• 그물끌기 한마당, 어방민속마을, 경상좌수사행렬 등
대구 (1)	유망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5.03~5.07	대구 중구 약령시 일원	• 고유제, 어지전달, 2017명 정성탕 나누기, 200가지 한약재 전시 등
인천 (1)	유망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8.11~8.13	달빛축제공원 일원	•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펜타슈퍼루키, 라이브 딜리버리, 사인회 등
광주 (1)	우수	추억의 충장축제	10.18~10.2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충장로, 금남로 등	• 충장 퍼레이드, 추억전시관, 충장으로 롤러가자 등
대전 (1)	유망	효문화 뿌리축제	9.22~9.24	「효! 월드」 뿌리공원 및 원도심 일원	• 문중 퍼레이드, 중문화예술제, 효문화대상, 효주제관 등
울산 (1)	유망	울산옹기축제	5.4~5.7	외고산 옹기마을 일원	• 옹기 장수촌, 옹기 산적촌, 옹기 장난촌, 옹기 난장촌, 옹기 도깨비촌, 옹기 팔러 나가는 날 등
경기 (5)	최우수	이천쌀문화축제	10.18~10.22	이천시 설봉공원	• 거북이 길놀이, 거북이 경주, 풍년 판놀음, 전통혼례, 저잣거리난장, 농사체험, 거북판굿 등
	최우수	가평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10.20~10.22	자라섬 및 가평읍내 일원	• 재즈 아일랜드, 파티스테이지, 페스티벌 라운지, 재즈팔레트, 재즈 큐브 등
	우수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	9.28~10.2	안성맞춤랜드 일원	• 바우덕이 추모제, 길놀이 퍼레이드, 안성바우덕이 남사당공연, 지역연회공연회 등
	유망	수원화성문화제*	9.22~9.24	수원화성 일원	• 정조대왕 능행차, 개막연 '화락', 무예브랜드 공연, 무과재현, 혜경궁 홍씨 진찬연 등
	유망	시흥갯골축제*	9.22~9.24	시흥갯골생태공원	• 금왕국, 곤충나라, 갈대공작소, 어쿠스틱음악제, 소나무재즈클럽, 갯벌체험, 갯골패밀리런 등
강원 (6)	대표	화천 산천어 축제	1.7~1.29	화천군 화천읍 및 3개면 일원	• 얼음낚시, 루어낚시, 맨손잡기, 산천어 밤낚시, 실내낚시, 얼곰이성, 야간얼음광장 등

<표 계속>

지역	등급	축 제 명	기 간	장 소	주요프로그램
강원 (6)	우수	평창효석문화제	9.2~9.10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원	• 문학의 밤, 문학산책, 메밀꽃, 소원풍등날리기, 거리상항극, 추억의 영화감상 등
	우수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9.19~9.24	따뚜공연장, 젊음의 광장, 원일로 등	• 댄싱카니발, 코리안 환타지 퍼 포먼스, 한국전통예술단 아울, FINAL BEST 15 경연 등
	유망	춘천국제마임축제	5.21~5.28	춘천시 중앙로, 축제극장물깃, 수변공원	• 물 난장, 컬러링 로드, 버블로 드, 우리동네 좋은 날, 거리공 연, 블루 맨, 극장공연 등
	유망	정선아리랑제*	9.29~10.2	아리랑공원, 정선5일장 등	• 칠현제례 및 기로연, 9개 읍· 면 화합한마당 ‘아라리 길늘 이’, 아리랑 경창·경연대회 등
	유망	강릉커피축제*	10.6~10.9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e-zen 일원	• 강릉커피 100인 100미, 커피 로스팅 체험, 커피 추출 체험 커피공예·수공예체험 등
충북 (1)	유망	괴산고추축제	8.31~9.3	괴산군청 앞 광장	• 세계고추전시회, 괴산고추품평 회, 괴산고추홍보관, 고추 속 체험, 대동놀이 등
충남 (3)	우수	강경젓갈축제	10.18~10.2 2	젓갈공원, 젓갈시장, 젓갈전시관, 옥녀봉 일원	• 강경포구 전국마당극 경연대 회, 젓갈김치 담그기, 강경포 구 플래시몹, 강경포구 버스킹 등
	우수	부여서동연꽃축제	7.7~7.16	부여서동공원 일원	• 개막주제공연, 서동요 전국 창 작동요 부르기대회, 서동선화 나이트 퍼레이드 등
	유망	서산해미읍성 축제	10.6~10.8	서산시 해미읍성 일원	• 병영마당, 병영음식마당, 병영 관아/옥사마당, 태종대왕강무 장, 엽전체험, 소원지쓰기 등
전북 (5)	대표	김제지평선축제	9.20~9.24	김제시 일원 (벽골제 중심)	•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 풍년기 원 입석줄다리기, 야(夜)한 밤 에, 웰컴투 조선 등
	최우수	무주반딧불축제	8.26~9.3	무주군 일원	• 반딧불이 주제관, 뗏목체험, 꿈 을 담은 반디별 찾기, 삼베짜 기체험 등
	유망	순창장류축제	10.20~10.2 2	순창전통고추장 민속마을	• 순창 5대명창 추모공연, 순우 리가죽 떡볶이 만들기, 장류상 설 체험장 운영 등
	유망	완주와일드푸드축제	9.22~9.24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 맨손 물고기잡기, 족대체험, 물 고기병체험, 메뚜기잡기, 화덕 체험, 와일드요리체험관 등

〈표 계속〉

지역	등급	축 제 명	기 간	장 소	주요프로그램
전북 (5)	유망	고창모양성제	10.25~10.29	고창읍성	• 개막 출정 퍼레이드, 답성놀이 재연, 강강술래 시연, 고을기 올림행사, 불꽃놀이 등
전남 (6)	최우수	진도신비의 바닷길축제	4.26~4.29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	• 신비의 바닷길체험, 영등살 놀이, 불놀이 퍼레이드, 뽕할머니 제례, 회동무대 공연 등
	최우수	강진청자축제	7.29~8.4	강진군 고려청자 박물관 일원	• 이열치열 화목불가마 체험, 고려청자깨기체험, 점토 밟기, 사랑의 러브레터 메시지 달기 등
	최우수	담양대나무축제	5.2~5.7	죽녹원, 전남도립대학교 일원	• 휴 체험, 죽신제, 담양 별빛여행, 수상체험, 환경퍼레이드, 추억의 죽물시장 재현 등
	우수	정남진장흥물축제	7.29~8.3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 장흥 워터 樂플파티, 별밤수다쟁이, 버닝 세러데이, 물축제 10주년 기념 주제 전시관 등
	유망	보성다향대축제	5.3~5.7	한국차문화공원 및 보성차밭 일원	• 충무공 이순신 오국다례제, 다신제, 한강달빛차회, 한국명차 선정대회, 보성달빛차회 등
	유망	영암왕인문화축제	4.6~4.9	왕인박사유적지, 상대포역사공원 등	• 왕인박사 일본가오! 퍼레이드, 천자문·경전 성독대회, 외국인 미션레이스 등
경북 (4)	대표	문경전통찻사발 축제	4.29~5.7	문경새재 야외 공연장 등	• 사기장의 하루체험, 망각의 찻집, 시가장과의 대화, 찻사발 방송국, 찻사발 전시 등
	우수	봉화은어축제	7.29~8.5	봉화읍 체육공원, 내성천	• 은어반두잡이, 은어맨손잡이, 은어구이체험, 물장난, 은어종이배 경주, 수박서리 및 삼국구이 체험 등
	유망	포항불빛축제	7.26~7.30	영일대해수욕장, 형산강체육공원 일대	• 불빛퍼레이드, Daily 뮤지컬꽃쇼, 전야제, 불빛버스킹페스티벌, 국제불꽃쇼 등
	유망	고령대가야체험축제	4.6~4.9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대가야읍 일원	• 퍼레이드 '대가야 건국신화', 역사재현극 '대가야, 건국의 시대', 대가야 건국 보물찾기 등

〈표 계속〉

지역	등급	축 제 명	기 간	장 소	주요프로그램
경남 (3)	최우수	산청한방약초축제	9.15~9.24	동의보감촌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민서 한방 무료 진료, 동의 보감촌 대장간 체험, 허준 골든벨, 동의 보감 사생대회 등
	우수	통영한산대첩축제	8.11~8.15	문화마당 및 한산대첩광장, 당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순신장군 행렬 및 군점, 한산해전 출정식 및 한산대첩 재현, 공중 한산해전 등
	유망	밀양아리랑대축제*	5.18~5.21	영남루 및 밀양강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무형문화재축제, 실경 멀티미디어쇼 '밀양강오딧세이', 밀양아리랑 역사탐방 등
제주 (1)	우수	제주들불축제	3.2~3.5	제주시 일원(주행사장 :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름불놓기, '희망달집'만들기 경영대회, 집줄놓기 경영, 너동베기 경영대회, 들들들기 경연대회, 사랑의 햇불 대행진 등

2

문화관광축제 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제 구축
-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축제 평가와 환류로 문화관광축제 질적 제고

■ 평가 개요

- 평가기간 : 2017. 1월 ~ 12월
- 평가대상 : 2017년 문화관광축제 41개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3개	7개	10개	21개

- 평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평가내용 : 전문가 현장평가, 소비자 온라인평가, 지자체 자체성과평가

■ 평가 내용

- 전문가 현장평가
 - 전문가 평가단(민간전문가 28인) 중 각 축제별로 민간전문가(3인), 문화체육관광부(1인) 등 총 4명으로 구성
 - 축제 기획 및 콘텐츠(45점), 축제 운영 (25점), 축제의 발전역량(20점), 축제의 효과(10점)
- 소비자 온라인평가
 - 축제 참가 소비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지자체 성과평가
 - 방문객 만족도 조사 및 경제효과(직접 효과) 분석, 방문객 수 집계

■ 평가 결과 활용

- 2018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자료로 활용
 - 전문가 현장평가 결과는 선정 시 40% 반영
 - 문화체육관광부의 소비자 모니터링 결과는 선정 시 10% 반영
 - 지자체의 자체성과평가 결과는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여부 등)
- 축제별 현장평가 및 시·도별 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보고서 발간
- 축제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지자체 개선실적을 축제 평가 및 선정 시 반영

(2) 2017년 평가 내용

■ 추진방향

- 축제 콘텐츠 등 평가 다각화
 - 축제별 평가단을 3명(전문가 2+문체부 1)에서 4명으로 증원하여, 관광 전문가 이외에 유관분야(문화콘텐츠, 지역문화 등) 전문가를 평가단 중 1명으로 포함
 - * 전체 평가위원 증원(17명 내외 → 28명)
 - 축제 콘텐츠에 대하여는 관광전문가와 유관분야 전문가가 함께 평가
- 평가지표 합리성 제고
 - 평가지표 구성을 정리하여 체계화하고, 일부 세부항목지표를 통합하여 심사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상세 설명을 추가하여 평가 용이화
- 평가방식 객관성 제고
 - 현장평가에 ‘분야별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 위원의 주관성 개입 가능성 완화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상/중/하)을 제시하여 평가위원 간 점수부여기준을 균등하게 하고 등급 간 상호 비교평가 유도

■ 전문가 현장평가

- 평가대상 축제 배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위원 활동상황 등을 고려(상피제 적용)하여 평가대상축제 배정(상반기/하반기 구분)

- 평가위원을 2개조로 나누어 역할부여(분야별 심사)
- “콘텐츠(45점)” : 2명(관광학 1, 문화일반 1) 원칙
- “운영·발전 가능성·효과(55점)” : 2명(관광학 1, 문체부 1) 원칙

○ 평가방법

- 축제 기간 중 2일 이상 축제지역에 체류하며 평가
- 축제지역에서 1박 이상, 축제장 내 총 8시간 이상 체류하며, 대표(주제)프로그램 및 주간+야간 프로그램을 고루 체험 후 평가
-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각자 전문지식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되, 축제장 방문 후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평가 소감에 대한 의견 조율 후 점수 부여
- 각 평가위원은 각자 전문지식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되, 축제장 방문 후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평가 소감에 대한 의견 조율 후 점수 부여
- 축제 개선에 대한 제안은 축제 전반에 대하여 살핀 후 서면 평가결과 의견을 통하여 정리된 내용으로 지자체에 전달하며, 가급적 현장에서 개인 단위의 즉흥적인 지적이나 개선 요구는 지양
- 평가결과는 콘텐츠(2명)의 평균점수 및 운영·발전가능성·효과(2명)의 각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100점(감점사항 별도) 부여
- 평가보고서는 주심 평가위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부심 평가위원의 의견을 들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
- 평가위원은 점수부여 시 등급별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 권장

※ 축제등급별 평가점수 배점 범위 (가감점 사항 제외)

- 같은 조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편차가 10점 이상일 경우, 평가 위원 간 협의를 거쳐 편차를 10점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음

현재 등급		상	중	하
대표/최우수 축제	콘텐츠	45 ~ 42	41 ~ 38	37 ~ 31
	운영(등)	55 ~ 51	50 ~ 46	45 ~ 38
우수축제	콘텐츠	43 ~ 40	39 ~ 36	35 ~ 29
	운영(등)	53 ~ 49	48 ~ 44	43 ~ 36
유망축제	콘텐츠	41 ~ 38	37 ~ 34	33 ~ 27
	운영(등)	50 ~ 46	45 ~ 41	40 ~ 33

■ 소비자 평가

-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문화관광축제 ‘관광고객’ 관점에서 축제의 효용에 대한 객관적·실증적 평가 강화 (2016년 평가부터 신규 도입)
 - 2017년 개선사항 : 만족도 이외에 ‘인지도’ 평가를 반영하여 조사결과의 합리성 제고
 - 대상 : 2017년 문화관광축제 41개
 - 시기 : 연중(축제기간 중 또는 축제기간 이후)

- 평가방법
 - 방법 : 축제 참가 소비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인지 조사 : 전국 만 20세 이상 1개 이상 축제 참가자
 - 만족도 조사 : 만 20세 이상 각 축제 참가자
 - 유효표본수 : 전국 지역별 비례할당 (총 12,000명)
 - 대표, 최우수 축제 : 각 200명
 - 우수, 유망 축제 : 각 100명
 - 조사내용
 - 해당 축제에 대한 인지도 (브랜드파워), 축제 만족도(축제 사전 및 현장 안내, 프로그램 운영, 음식/기념품, 편의시설, 연계 관광지 등)

■ 지자체 자체성과평가

- 방문객 만족도 조사
 - 축제 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별 설문조사 시 공통적으로 조사할 설문항목은 반드시 포함

- 축제 경제효과(직접효과) 분석
 - 지역주민과 지역 외 주민의 총 지출액을 구분하여 직접 경제효과 분석(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미인정)

- 축제 방문객 수 산출
 - 축제 주관기관에서 조사하되, 최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 방문객 집계 지침에 따라 산출

(3) 2017년 문화관광축제 평가대상

등급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서울(1)				한성백제문화제
부산(1)				광안리어방축제
대구(1)				대구약령시한방축제
인천(1)				인천펜타포트축제
광주(1)			추억의7080충장축제	
대전(1)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울산(1)				울산옹기축제
경기(5)		이천쌀문화축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시흥갯골축제*
강원(6)	화천산천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춘천국제마임축제 정선아리랑제* 강릉커피축제*
충북(1)				괴산고추축제
충남(3)			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전북(5)	김제지평선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고창모양성제 순창장류축제
전남(6)		강진청자축제 담양대나무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보성다향대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경북(4)	문경찾사발축제		봉화은어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경남(3)		산청한방약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밀양아리랑대축제*
제주(1)			제주들불축제	
계(41)	3개	7개	10개	21개

주 : *는 신규 축제

(4) 2018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 선정 대상

- 2017년 문화관광축제(총 41개)
- 2017년 개최된 지역 축제 중 2018년 문화관광축제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축제
 - 특별광역시 2개 이내, 광역도 3개 이내, 특별자치시 1개 이내, 특별자치도 2개 이내 신규 추천

■ 선정 규모

구분	합계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육성축제
2017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수	41개	3개	7개	10개	21개	-
2018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계획	최대 82개	3개 내외	7개 내외	10개 내외	20개 내외	40개 내외

■ 선정 기준

-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45점), 축제의 운영(25점), 축제 발전 역량(20점), 축제의 효과(10점)
- * (감점) 과도한 예산 지출 프로그램 및 주제 무관 행사 포함 여부, 축제 부실 진행 여부 등 총 9점

■ 추진 일정

- 2018년 문화관광축제 신청서 제출 : 2017.12.7.까지
- 문화관광축제 및 신규 진입 희망 축제 평가 및 결과 발표 : 2017.12월

■ 선정 절차

- 【 2017년 문화관광축제 : 41개 】 ⇨ 등급 등하락 여부 결정

현장평가	소비자평가	분야별평가(서면)	종합평가(서면)
40%	10%	20%	30%
(현장평가위원 심사) 完	(온라인설문) 完	(3차 심사단)	(4차 심사단)

- 【 신규진입희망축제 : 41개 】 ⇨ 유망축제 선정여부 결정 * 광역시도별 추천(추천 수 제한)

1차평가(종합평가) *서면	2차평가(대면평가) *PPT	최종평가
50%	50%	-
(1차 심사단)	(2차 심사단)	(4차 심사단)
* 상위 40% 내외만 대면평가 대상에 포함	* 종합평가+대면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최종 순위 결정	* 유망축제 진입 규모 결정

■ 선정위원회

- 선정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근 현장 평가 및 선정심사위원회에 활동한 경우 배제하고 관광, 여행, 문화, 예술,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각 단계별 심사위원은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하며, 단계별로 10여명 내외로 구성

■ 선정결과

등급	축 제 명(가나다 순)
대표(3)	무주반딧불축제, 얼음나라화천산천어축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최우수 (7)	강진청자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우수 (10)	고령대가야제협축제, 광주추억의충장축제, 논산강경젓갈축제, 보성다향대축제, 봉화은어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안성맛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제주들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유망 (21)	고창모양성제, 광안리어방축제, 괴산고추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동래읍성역사축제, 목포항구축제, 밀양아리랑대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순창장류축제, 시흥갯골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원주와일드푸드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음성품바축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임실N치즈축제, 춘천마임축제, 한산모시문화제
육성 (40)	강릉커피축제, 굿모닝!양림, 단양온달문화축제, 대구치맥축제, 대전국제와인페어, 독일마을맥주축제, 동성로축제, 부산영도다리축제, 부안오복마실축제, 석장리구석기축제, 세종축제, 송도세계문화관광축제, 순천푸드&아트페스티벌, 연수능허대문화축제, 연천구석기축제,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영덕대게축제, 영산강서창들녘역새축제, 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 울산마두희축제, 울산옹기축제, 울산태화강봄꽃대향연, 유성온천축제, 이태원지구촌축제,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정선아리랑제, 제주해녀축제, 종로한복축제, 지용제, 청송도깨비사과축제, 탐라문화제, 태백산눈축제, 파주장단콩축제, 평창송어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 하동섬진강재첩문화축제, 한성백제문화제, 함양산삼축제, 홍성역사인물축제, 횡성한우축제

2017 문화관광축제 >>>

II

지자체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종합



1

개 요

(1) 조사개요

■ 목 적

- 과학적인 표본추출 방법을 통해 2017년 문화관광축제 방문객의 만족도와 소비지출 규모를 조사하여 해당 축제를 진단한 후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고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측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 발전을 도모함
- 축제별로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 및 분석 실시

■ 조사방법

- 조사주체 : 축제를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
- 조사시기 : 축제 전체기간(토·일요일 포함)
- 조사대상 : 지역주민과 외지관광객(타 지역거주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
- 조사항목 : 총 23개 항목
- 유효표본 : 축제별 200명 이상
- 응답방법 : 7단계 측정(매우 그렇다~전혀 아니다)
- ※ 7단계 측정을 임의로 구성하거나 항목을 생략할 경우 '0'점 처리

■ 세부 설문내용

구분	항목 수	주요 내용
방문객 만족도	10개	• 축제의 재미, 프로그램, 먹거리, 살거리, 사전홍보 등
방문객 비용지출	6개	•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타
기타 일반사항	7개	• 성별, 연령, 방문목적, 체류기간, 숙박여부, 재방문, 거주지

■ 조사 및 분석 시 주의사항

- 설문기간은 축제 전체기간에 걸쳐 같은 비율로 설문지를 받아야 하고 무작위적이고 규칙적인 간격으로 표본 추출
- 설문에 응한 방문객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게 된 주된 동기가 축제를 보러온 경우가 아니면 설문조사분석 대상에서 제외

(2) 축제 설문



안녕하세요? 당 축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변 및 정보는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I.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 축제가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축제 관련 프로그램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축제 관련 먹거리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축제 관련 살거리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축제 관련 사전 홍보가 잘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축제장 내 안내·해설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를 알게 됐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축제장 시설이 안전해 보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축제장의 접근성 및 주차장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재방문하거나 타인에게 방문을 유도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 소비지출	아래 금액은 본인 포함하여 (명)이 지출한 총액입니다.	
교통비	_____ 원	축제 개최지역에서 지출한 주유비, 주차료,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 등
숙박비	_____ 원	민박, 호텔, 모텔, 펜션, 콘도 등
식음료비	_____ 원	축제 개최지역에서 지출한 음식값, 음료비
유흥비	_____ 원	축제장 밖에서 지출한 관람료, 노래방, 술값 등
쇼핑비	_____ 원	축제 기념품, 농특산물 구입비 등
기타	_____ 원	체험비, 입장료 등 위에 언급되지 않은 비용

III. 일반사항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녀 <input type="checkbox"/>	연령	_____ 세
방문목적	축제 때문에 일부러 이곳에 왔다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체류기간	지금까지 축제장에 머문 시간 (머물 시간 포함하여 _____ 시간)		
숙박여부	당일 <input type="checkbox"/> 1박 2일 <input type="checkbox"/> 2박 3일 <input type="checkbox"/> 3박 4일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올해 첫 방문 <input type="checkbox"/> 이전에도 방문했음 (총 _____ 회)		
거주지	지역주민 <input type="checkbox"/> 외지인일 경우 (_____ 시·도 _____ 시·군)		

2 분석대상 및 평가항목

(1) 종합분석 대상축제

- 종합분석은 크게 방문객 만족도와 방문객 소비지출로 구분되며, 2017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모든 축제(41개)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함
- 방문객 만족도 분석 대상 : 41개
 - 2017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41개 축제 모두 분석에 반영
- 방문객 소비지출 분석 대상 : 41개
 - 2017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41개 축제 모두 분석에 반영

[종합분석 대상축제 (가나다 순)]

만족도 (41개)	소비지출 (41개)
강경젓갈축제, 강릉커피축제*, 강진청자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고창모양성제, 광안리어방축제, 괴산고추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대구약령시한방축제,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문경찾사발축제, 밀양아리랑대축제*, 보성다향대축제, 봉화은어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순창장류축제, 시흥갯골축제*,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울산용기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이천쌀문화축제, 인천펜타포트축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정남진장홍물축제, 정선아리랑제*, 제주들불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추억의 충장축제, 춘천국제마임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평창효석문화제, 포항국제불빛축제, 한성백제문화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화천산천어축제	강경젓갈축제, 강릉커피축제*, 강진청자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고창모양성제, 광안리어방축제, 괴산고추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대구약령시한방축제,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문경찾사발축제, 밀양아리랑대축제*, 보성다향대축제, 봉화은어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순창장류축제, 시흥갯골축제*,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울산용기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이천쌀문화축제, 인천펜타포트축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정남진장홍물축제, 정선아리랑제*, 제주들불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추억의 충장축제, 춘천국제마임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평창효석문화제, 포항국제불빛축제, 한성백제문화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화천산천어축제

* : 신규축제

(2) 대상축제 유형 구분

- 전체 축제를 2017년 지역축제 총괄표의 축제종류에 따라 전통역사, 문화예술, 지역특산물, 생태자연, 주민화합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전통역사 유형 : 12개
 - 강진청자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고창모양성제, 광안리어방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대구약령시한방축제,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문경찰사발축제, 울산옹기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한성백제문화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 문화예술 유형 : 11개
 - 추억의7080충장축제,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인천펜타포트축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춘천국제마임축제, 평창효석문화제, 포항국제불빛축제, 밀양아리랑대축제(신규), 수원화성문화제(신규)
- 지역특산물 유형 : 9개
 - 괴산고추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보성다향대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순창장류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이천쌀문화축제, 강릉젓갈축제, 강릉커피축제(신규)
- 생태자연 유형 : 6개
 - 무주반딧불축제, 봉화은어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시흥갯골축제(신규), 부여서동연꽃축제
- 주민화합 유형 : 3개
 - 정남진장흥물축제, 정선아리랑제(신규), 제주들불축제

〈유형별 축제 현황〉

전통역사	문화예술	지역특산물	자연생태	주민화합
12개	11개	9개	6개	3개

- 2017년, 2016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의 차이점
 - 2017년에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유형 구분
 - 2016년에는 주민화합형에 해당되는 축제가 없어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에는 주민화합형 축제 3개를 포함하여 총 5개 유형으로 구분
 - 개별 축제의 유형 변경
 - 부여서동연꽃축제 : 문화예술형 → 생태자연형
 - 화천산천어축제 : 문화예술형 → 생태자연형
 - 제주들불축제 : 전통역사형 → 주민화합형

■ 2017 문화관광축제별 유형

축제명칭	유효표본(매)	유형	축제명칭	유효표본(매)	유형
강경젓갈축제	216	지역특산물	시흥갯골축제*	324	생태자연
강릉커피축제*	383	지역특산물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355	문화예술
강진청자축제	397	전통역사	영암왕인문화축제	448	문화예술
고령대가야축제	378	전통역사	완주와일드푸드축제	220	지역특산물
고창모양성제	220	전통역사	울산옹기축제	252	전통역사
광안리어방축제	270	전통역사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272	문화예술
광주추억의충장축제	441	문화예술	이천쌀문화축제	232	지역특산물
괴산고추축제	335	지역특산물	인천펜타포트축제	264	문화예술
김제지평선축제	220	전통역사	자라섬재즈페스티벌	486	문화예술
담양대나무축제	363	지역특산물	정남진장흥물축제	523	주민회합
대구약령시한방축제	238	전통역사	정선아리랑제*	340	주민회합
대전효문화뿌리축제	205	전통역사	제주들불축제	456	주민회합
무주반딧불축제	220	생태자연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470	생태자연
문경차사발축제	492	전통역사	춘천국제마임축제	424	문화예술
밀양아리랑대축제*	499	문화예술	통영한산대첩축제	275	전통역사
보성다향대축제		지역특산물	평창효석문화제	473	문화예술
봉화은어축제	392	생태자연	포항국제불빛축제	470	문화예술
부여서동연꽃축제	219	생태자연	한성백제문화제	228	전통역사
산청한방약초축제	252	지역특산물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334	전통역사
수원화성문화제*	368	문화예술	화천산천어축제	1,392	생태자연
순창장류축제	220	지역특산물	41개		

* : 신규축제

(3) 평가항목

- 축제방문객들의 만족도와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전체 평균값과 대비시켜 각 축제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함
- 2017년에는 만족도 평가항목 10개, 소비지출 평가항목 6개의 2016년에 사용한 측정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만족도의 경우 7단계 측정(매우 그렇다 ~ 전혀 아니다)을 적용하여 분석함

구 분	설 문 내 용
만족도	1 이 축제가 재미있다
	2 축제 관련 프로그램이 좋다
	3 축제 관련 먹거리가 좋다
	4 축제 관련 살거리가 좋다
	5 축제 관련 사전 홍보가 잘 되었다
	6 축제장 내 안내·해설이 좋다
	7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를 알게 됐다
	8 축제장 시설이 안전해 보였다
	9 축제장의 접근성 및 주차장이 좋다
	10 재방문하거나 타인에게 방문을 유도하겠다
소비지출	교통비(주유비, 주차비,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 등)
	숙박비(민박, 호텔, 모텔, 펜션, 콘도 등)
	식음료비(축제 개최지역에서 지출한 음식값, 음료비)
	유흥비(축제장 밖에서 지출한 관람료, 노래방, 술값 등)
	쇼핑비(축제 기념품, 농특산물 구입비 등)
	기타(체험비, 입장료 등 위에 언급되지 않은 비용)

(4) 분석방법

■ 축제 방문객 만족도

- 방문객 만족도는 연도별·항목별·등급별·유형별·축제별 만족도로 구분하여 분석을 추진함
- 연도별 만족도의 경우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문화관광축제 전체에 대한 평균만족도 변화를 비교하였으며, 항목별 만족도는 10개의 만족도 측정항목이 동일하게 측정된 2016년도와 2017년도 만족도 수준을 비교함
- 축제 등급별 만족도는 문화관광축제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2016년도와 2017년도 등급별 만족도 수준을 비교하였으며, 각 세부항목 만족도에 대해 등급 간 비교를 실시함
- 축제 유형별 만족도는 지역축제 총괄표의 축제종류에 따라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전반적인 만족도 및 세부항목 만족도에 대해 축제 유형별 비교분석을 실시함
- 축제별 만족도는 2017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41개 축제 각각의 전반적인 만족도 및 세부항목 만족도에 대해 비교분석을 실시함

■ 축제 방문객 소비지출

- 방문객 소비지출은 연도별·항목별·등급별·유형별·축제별 소비지출로 구분하여 분석을 추진함
 - 연도별 소비지출의 경우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문화관광축제 방문객 소비지출을 항목별로 비교하였으며, 항목별 소비지출은 6개의 소비지출 항목 중 교통비를 제외한 5개 항목에 대해 최근 3년 평균 소비지출과 2017년 소비지출 수준을 비교함
 - 축제 등급별 소비지출은 문화관광축제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소비지출 수준을 비교하였으며, 축제 유형별 소비지출은 지역축제 총괄표의 축제종류에 따라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축제유형에 따른 항목별 소비지출을 비교함
 - 축제별 소비지출은 2017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41개의 축제 전체를 대상으로 항목별 소비지출과 전체 소비지출에 대해 비교분석을 실시함
- ※ 2016년과 비교하지 아니하는 등급별·유형별·축제별 소비지출 분석은 기존 지자체에서 조사한 교통비를 포함하여 6개 항목으로 분석함

3

방문객 만족도 결과 종합

(1) 연도별 만족도 변화

○ 2017년 만족도 평가는 5.24점으로 전년대비 0.2% 증가함

- 전년대비 증가 항목 : 6개 항목(축제 재미, 축제 프로그램, 축제 먹거리, 축제 사전홍보, 축제장 시설안전, 재방문/추천의사)
- 전년대비 감소 항목 : 3개 항목(축제 살거리, 접근성 및 주차장, 지역문화 이해)
- 전년대비 동일 항목 : 1개 항목(축제장 안내·해설)

항목	년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2017	년도	항목
전체만족도 평균 값		4.67	4.70	4.71	4.69	4.68	4.70	4.71	4.78	4.69	4.76	4.84	4.87	5.16	5.23	5.24		전체만족도 평균 값
행사다양		5.00	4.98	5.01	4.96	4.96	4.99	4.97	5.07	4.97	5.03	5.15	5.08	5.38	5.45	5.52		축제재미
행사재미		5.04	5.00	4.99	4.95	4.98	4.98	4.92	5.07	4.97	5.04	5.15	5.09					
체험프로		4.85	4.83	4.94	4.87	4.87	4.89	4.92	4.95	4.83	4.93	5.02	4.96	5.32	5.40	5.45		프로그램
상품다양		4.37	4.41	4.38	4.37	4.34	4.42	4.46	4.50	4.48	4.54	4.58	4.73					
상품품질		4.43	4.50	4.50	4.47	4.46	4.50	4.53	4.54	4.52	4.59	4.61	4.75	4.86	4.95	4.83		축제 살거리
상품가격		4.24	4.31	4.30	4.27	4.25	4.31	4.37	4.36	4.35	4.41	4.45	4.60					
음식다양		4.38	4.51	4.41	4.41	4.34	4.39	4.44	4.45	4.42	4.46	4.57	4.69	5.03	5.15	5.17		축제 먹거리
음식가격		4.16	4.22	4.26	4.28	4.19	4.24	4.32	4.33	4.30	4.35	4.45	4.57					
사전홍보		4.62	4.68	4.75	4.76	4.84	4.81	4.77	4.87	4.73	4.84	4.92	4.74	5.09	5.20	5.21		사전홍보
안내시설		4.72	4.77	4.84	4.85	4.86	4.85	4.89	4.95	4.87	4.93	5.03	4.90					
안내책자		4.88	4.93	4.95	4.93	4.95	5.00	4.98	5.07	4.99	5.00	5.11	5.01	5.11	5.17	5.17		안내해설
요원친절		4.91	4.95	4.98	4.98	5.00	5.02	5.02	5.05	4.98	5.01	5.12	5.26				-	-
신속대응		-	-	-	-	-	-	-	-	-	-	-	5.11	-	-	-		-
접근용이		5.51	5.44	5.44	5.32	5.36	5.35	5.25	5.42	5.26	5.26	5.35	5.35	4.82	4.87	4.83		접근성 및 주차장
주차편리		4.23	4.21	4.31	4.33	4.30	4.28	4.30	4.40	4.25	4.42	4.43	4.62					
휴식공간		4.45	4.40	4.41	4.46	4.44	4.35	4.51	4.55	4.48	4.59	4.65	4.71	-	-	-		-
화 장 실		4.59	4.70	4.64	4.66	4.62	4.64	4.67	4.73	4.57	4.66	4.71	4.79	-	-	-		-
공간배치		-	-	-	-	-	-	-	-	-	-	-	4.95	-	-	-		-
문화이해		4.93	5.04	4.94	4.88	4.85	4.85	4.81	4.92	4.82	4.89	4.98	4.99	5.19	5.32	5.31		문화이해
시설안전		-	-	-	-	-	-	-	-	-	-	-	5.06	5.25	5.31	5.34		시설안전
절대만족		-	-	-	-	-	-	-	-	-	-	-	5.00	-	-	-		-
상대만족		-	-	-	-	-	-	-	-	-	-	-	5.01	-	-	-		-
감정만족		-	-	-	-	-	-	-	-	-	-	-	5.07	-	-	-		-
계속참여		-	-	-	-	-	-	-	-	-	-	-	5.27	5.39	5.47	5.52		재방문 및 추천의사
추천의향		-	-	-	-	-	-	-	-	-	-	-	5.34					

(2) 항목별 만족도

- 2017년 만족도 중 가장 높은 항목은 「축제 재미」와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로 5.52점(7.0만점)을 기록함
 - 그 다음으로 「축제 프로그램」 5.45점, 「축제 시설안전」 5.34점, 「지역문화 이해」 5.3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가장 낮은 항목은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와 「축제 살거리」로 4.83점을 기록함
 - 그 다음으로 「안내해설」, 「먹거리」 5.17점, 「사전홍보」 5.21점 순으로 낮게 나타남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가 5.52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반적인 축제 방문 및 평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으로 분석됨
- 축제 만족도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축제 재미」와 「축제 프로그램」 만족도가 각각 5.52, 5.45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문화관광축제가 방문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으로 판단됨
- 또한 방문객 만족도에 대한 항목 중 6개 항목이 2016년에 비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접근성 및 주차장」 관련 항목은 만족도 수준이 매년 지속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부문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줌

항목 연도	축제 재미	축제 프로그램	축제 먹거리	축제 살거리	축제 사전홍보	축제장 안내해설	지역 문화이해	시설 안전	접근성 및 주차장	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
2016년	5.45	5.40	5.15	4.95	5.20	5.17	5.32	5.31	4.87	5.47
2017년	5.52	5.45	5.17	4.83	5.21	5.17	5.31	5.34	4.83	5.52



[문화관광축제 항목별 만족도 비교(2016, 2017년)]

(3) 축제 등급별 만족도

- 2017년도 문화관광축제는 대표축제 3개, 최우수축제 7개,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21개를 선정하여 지원·추진함
-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부합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모든 축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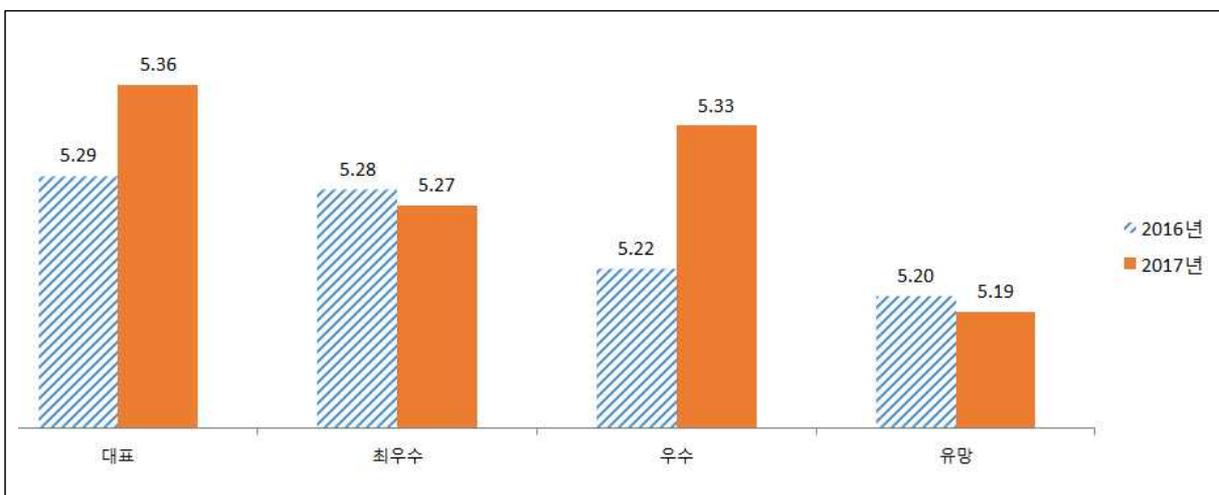
■ 대표축제가 가장 높은 만족도 보임

- 등급별 만족도 평균에서는 대표축제 5.36점, 최우수축제 5.27점, 우수축제 5.33점, 유망축제 5.19점 순으로 나타나 대표축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2016년에는 등급이 상향될수록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2017년에는 우수축제가 최우수축제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남. 이는 우수축제들의 최우수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 유추해 볼 수 있음

■ 전년대비 등급별 만족도

- 2017년 대표축제, 우수축제의 만족도는 전년대비 향상되었으나 최우수축제, 유망축제의 만족도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 \ 등급	대 표	최 우수	우 수	유 망
2016년	5.29	5.28	5.22	5.20
2017년	5.36	5.27	5.33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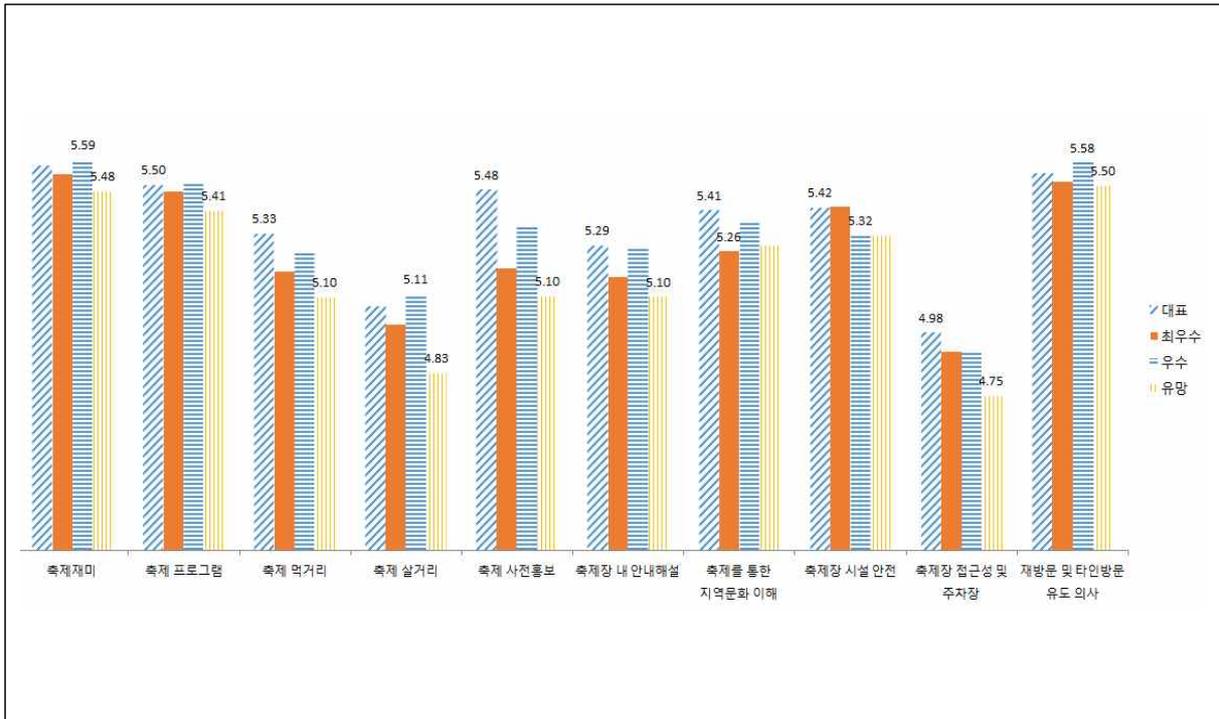


[문화관광축제 등급별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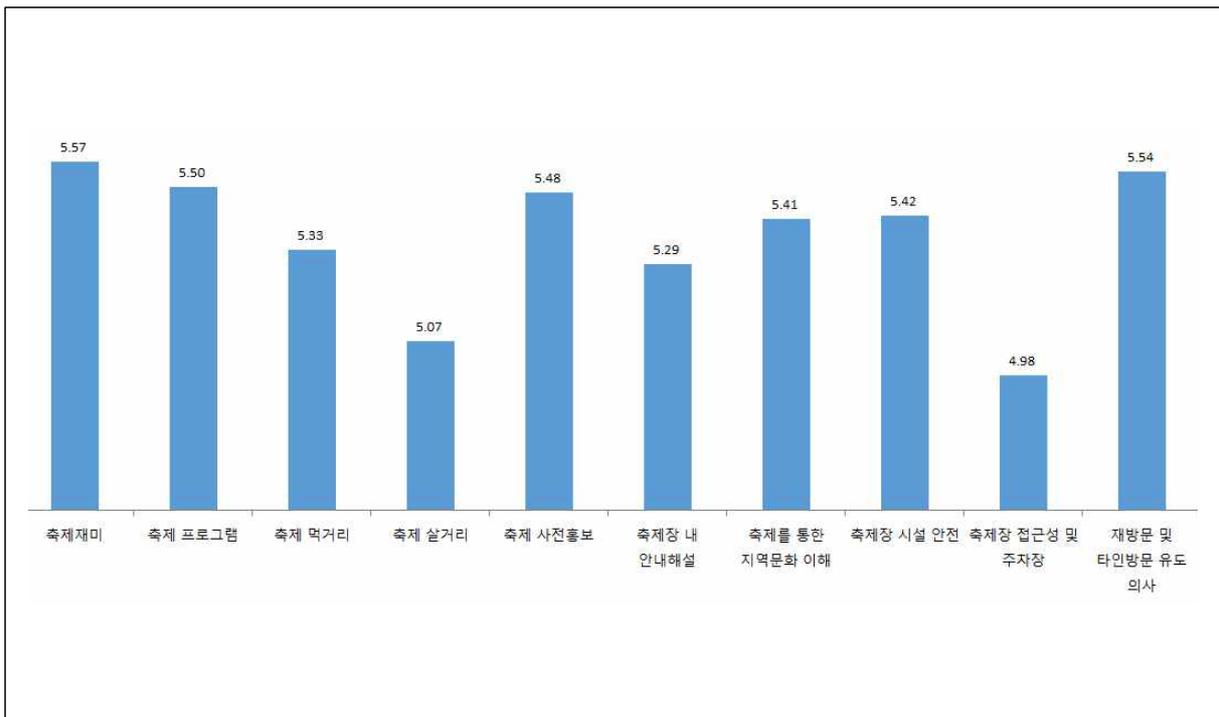
■ 등급별 상위항목 및 하위항목

-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경우에는 「축제 재미」가 가장 높았던 반면, 유망축제는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가 가장 높게 분석됨
 - 유망축제의 경우에도 「축제 재미(5.48)」가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5.50)」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
- 모든 등급에서 「축제 재미」는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축제 재미」 만족도 : 대표축제 5.57점, 최우수축제 5.54점, 우수축제 5.59점, 유망축제 5.48점
 - 축제 재미 항목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그 동안 문화관광축제가 방문객의 축제 방문 욕구에 부합하는 컨셉 및 프로그램 발굴 등에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가장 낮은 항목으로는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모두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으로 나타나,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으로 분석됨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 : 대표축제 4.98점, 최우수축제 4.91점, 우수축제 4.91점, 유망축제 4.75점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항목의 경우 모든 등급에서 낮은 수준의 만족도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나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선정 및 셔틀버스 등의 운영시스템 개선과 주차장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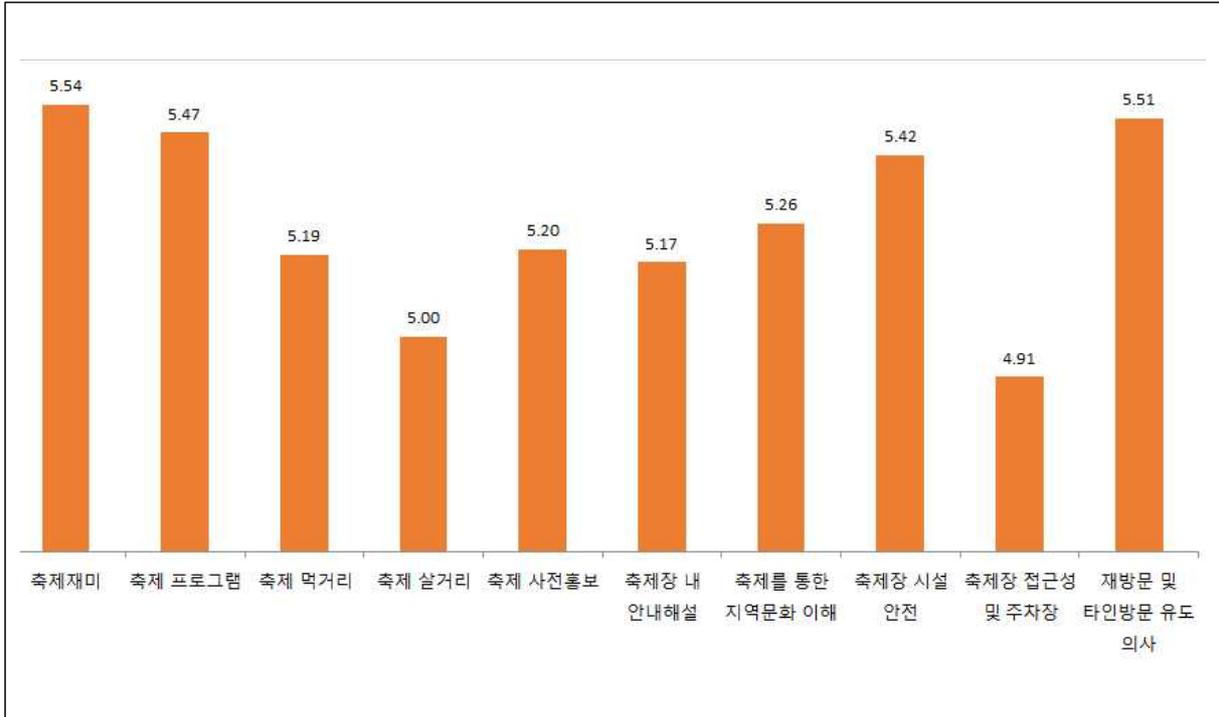
항목 \ 등급	대 표	최 우수	우 수	유 망
평균 값	5.36	5.27	5.33	5.19
축제 재미	5.57	5.54	5.59	5.48
축제 프로그램 좋음	5.50	5.47	5.51	5.41
축제 먹거리 좋음	5.33	5.19	5.27	5.10
축제 살거리 좋음	5.07	5.00	5.11	4.83
축제 사전홍보 우수	5.48	5.20	5.35	5.10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5.29	5.17	5.28	5.10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5.41	5.26	5.37	5.29
축제장 시설 안전	5.42	5.42	5.32	5.32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4.98	4.91	4.91	4.75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5.54	5.51	5.58	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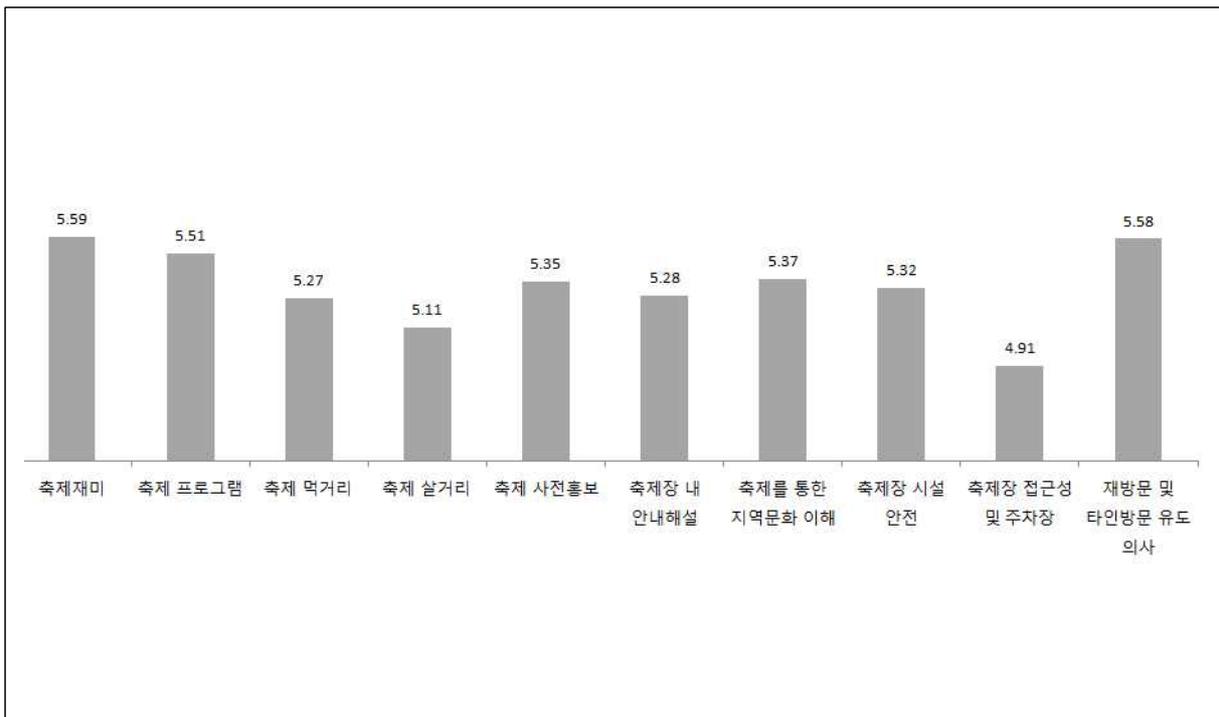
[2017년 문화관광축제 등급별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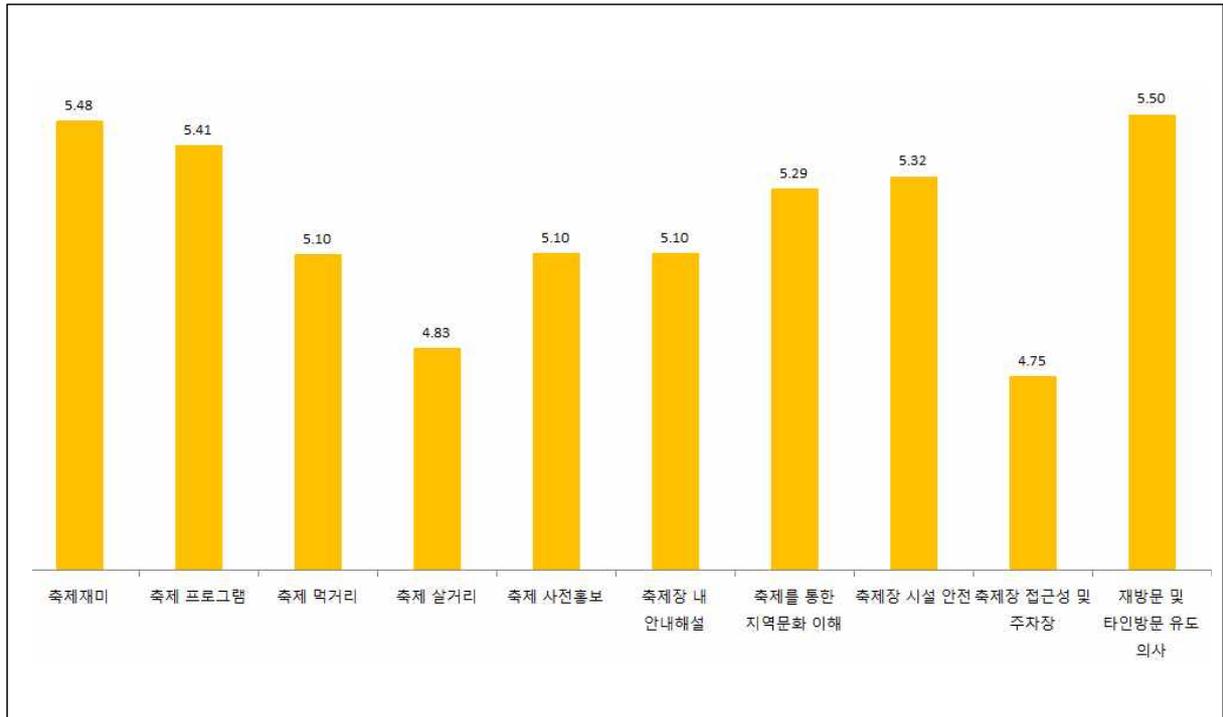
[2017년 대표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2017년 최우수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2017년 우수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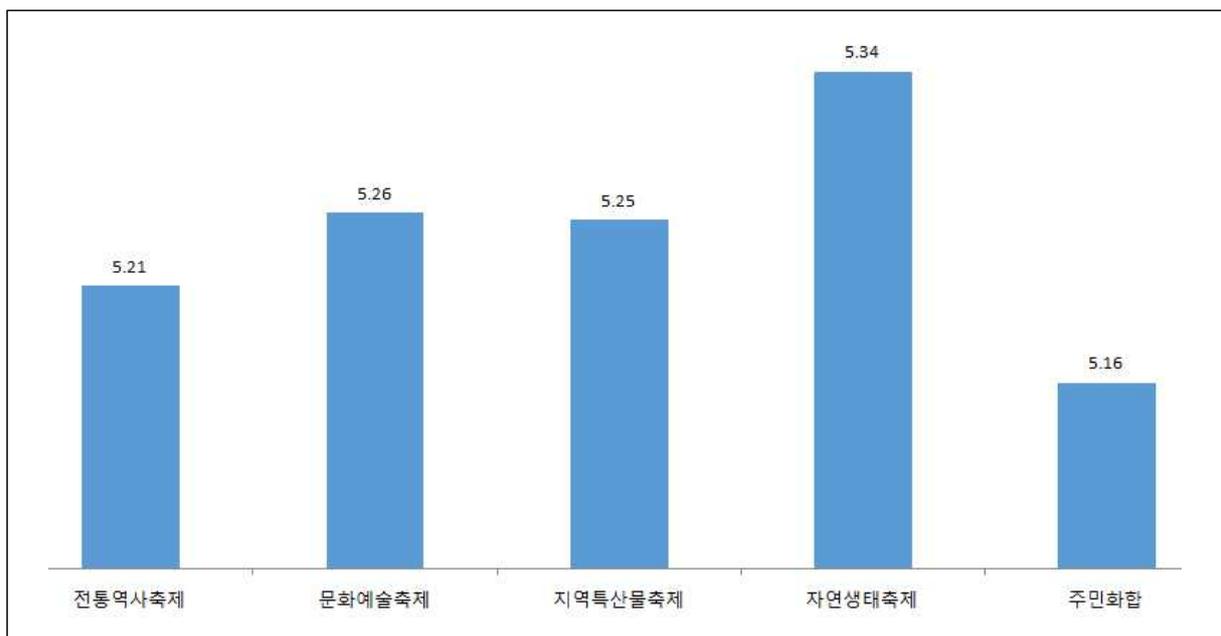
[2017년 유망축제 세부항목 만족도]

(4) 축제 유형별 만족도

- 전체 축제를 2017년 지역축제 총괄표의 축제종류에 따라 전통역사축제, 문화예술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생태자연축제, 주민화합축제로 구분함
- 총 41개의 문화관광축제는 전통역사축제 12개, 문화예술축제 11개, 지역특산물축제 9개, 생태자연축제 6개, 주민화합축제 3개로 구분됨
 - 2016년에는 주민화합에 해당되는 축제가 없어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에는 주민화합축제 3개를 포함하여 총 5개 유형으로 구분
 - 부여서동연꽃축제 : 문화예술형 → 자연생태형
 - 화천산천어축제 : 문화예술형 → 자연생태형
 - 제주들불축제 : 전통역사형 → 주민화합형

■ 자연생태축제가 높은 만족도 보임

- 축제 유형별로 전반적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자연생태축제가 5.34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문화예술축제 5.26점, 지역특산물축제 5.25점, 전통역사축제 5.21점, 주민화합축제 5.16점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 지역특산물 5.26점, 생태자연 5.24점, 문화예술 5.22점, 전통역사 5.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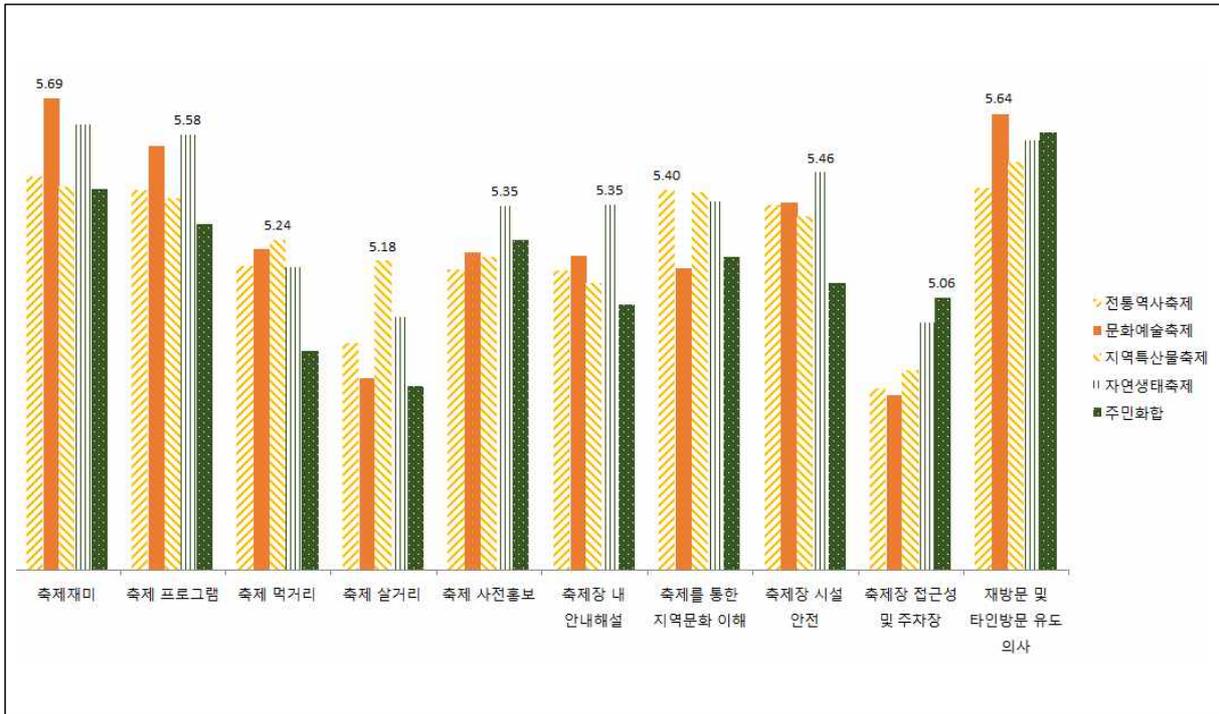
[2017년 문화관광축제 축제 유형별 전반적 만족도 비교]

■ 항목별로 축제유형에 따라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항목들이 상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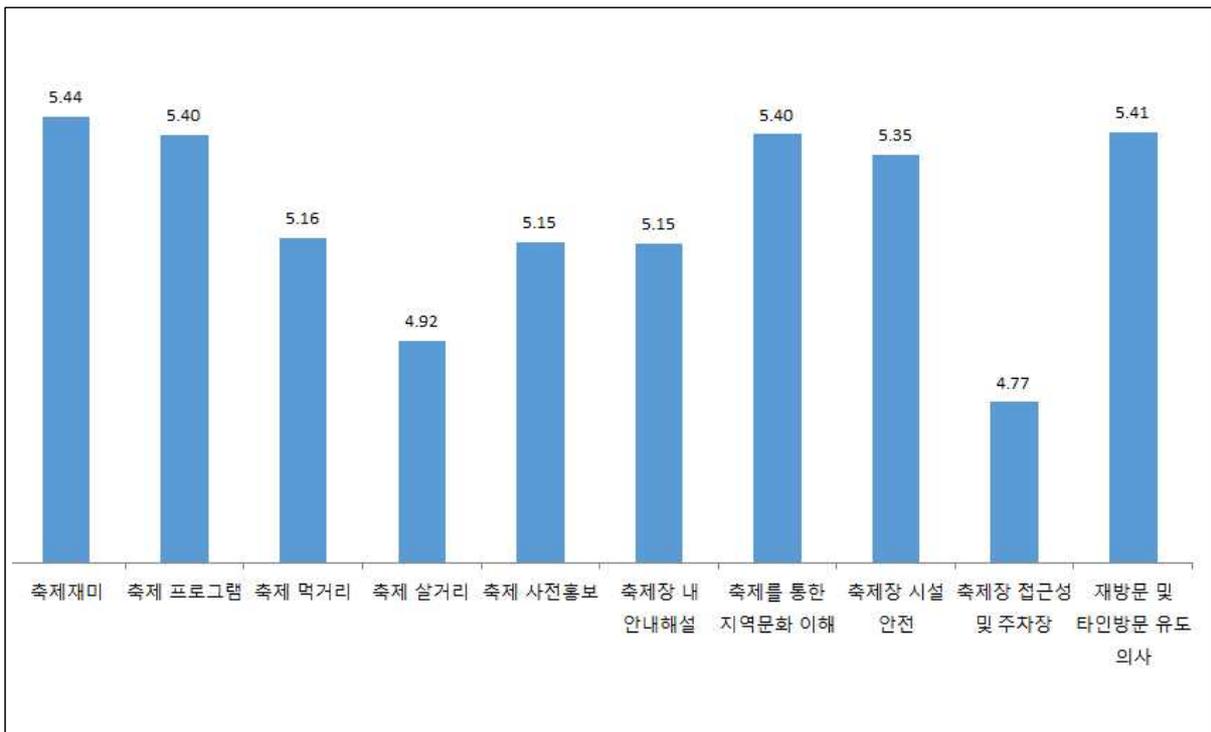
- 유형별로 만족도가 5.40점 이상이 되는 항목
 - 전통역사축제 : 「축제 재미」, 「축제 프로그램」, 「지역문화의 이해」,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항목
 - 문화예술축제 : 「축제 재미」, 「축제 프로그램」,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항목
 - 지역특산물축제 : 「축제 재미」,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항목
 - 생태자연축제 : 「축제 재미」, 「축제 프로그램」, 「시설 안전」,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항목
 - 주민화합축제 : 「축제 재미」,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항목

- 세부항목별 축제유형에 따른 만족도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각각의 축제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항목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5.40점 이상)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축제유형 구분이 적절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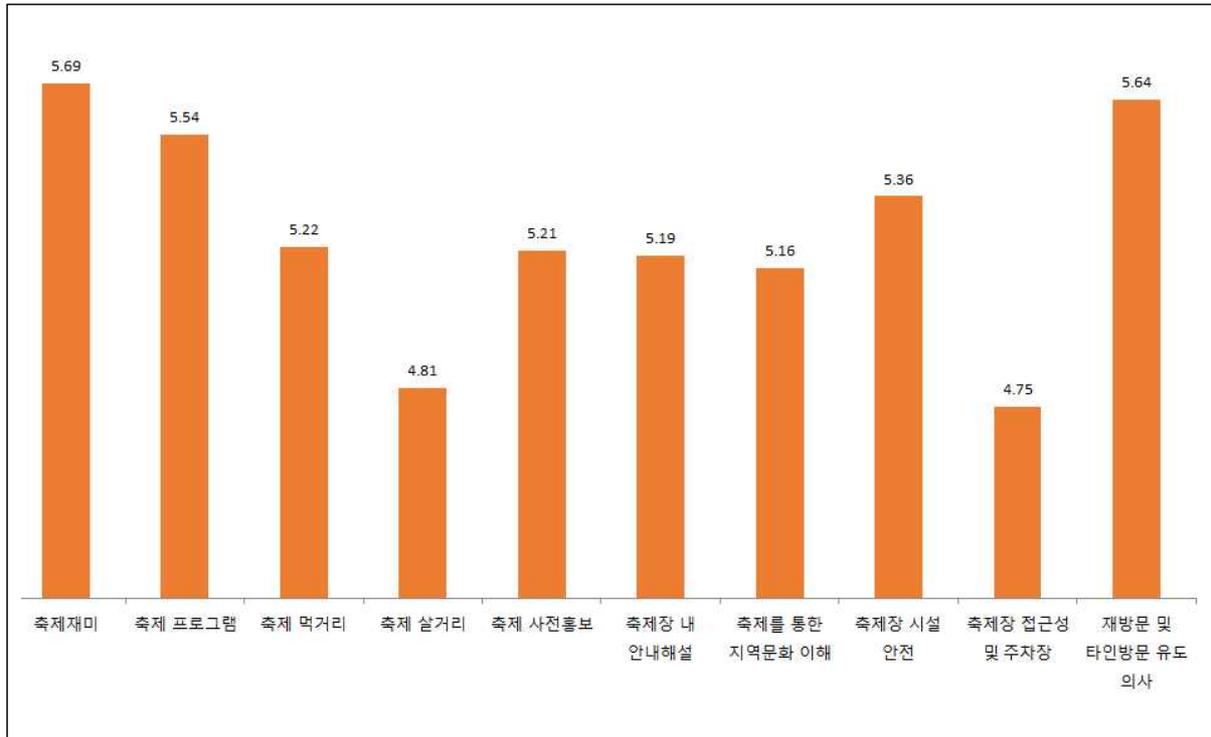
구 분	전통역사 축제	문화예술 축제	지역특산물 축제	생태자연 축제	주민화합 축제
평균 값	5.21	5.26	5.25	5.34	5.16
축제 재미	5.44	5.69	5.41	5.61	5.40
축제 프로그램 좋음	5.40	5.54	5.38	5.58	5.29
축제 먹거리 좋음	5.16	5.22	5.24	5.16	4.89
축제 살거리 좋음	4.92	4.81	5.18	5.00	4.78
축제 사전홍보 우수	5.15	5.21	5.19	5.35	5.24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5.15	5.19	5.10	5.35	5.04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5.40	5.16	5.39	5.36	5.19
축제장 시설 안전	5.35	5.36	5.32	5.46	5.11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4.77	4.75	4.83	4.98	5.06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5.41	5.64	5.49	5.56	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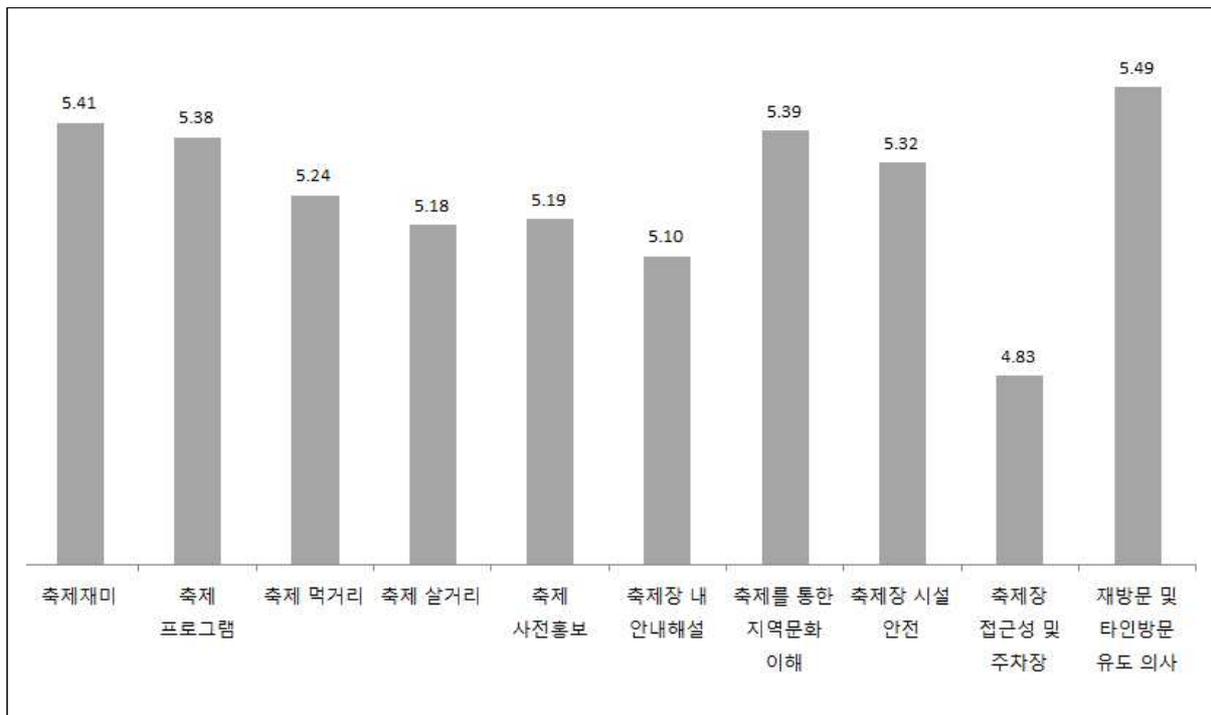
[2017년 문화관광축제 축제유형별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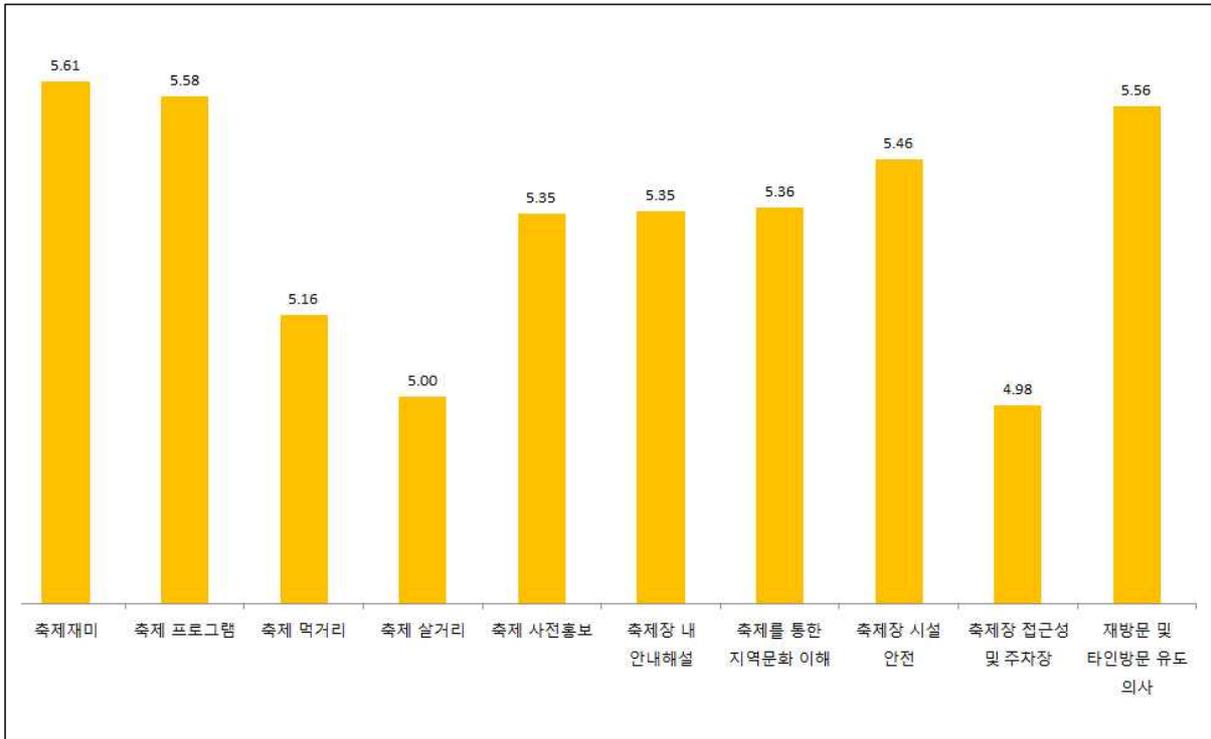
[전통역사축제 유형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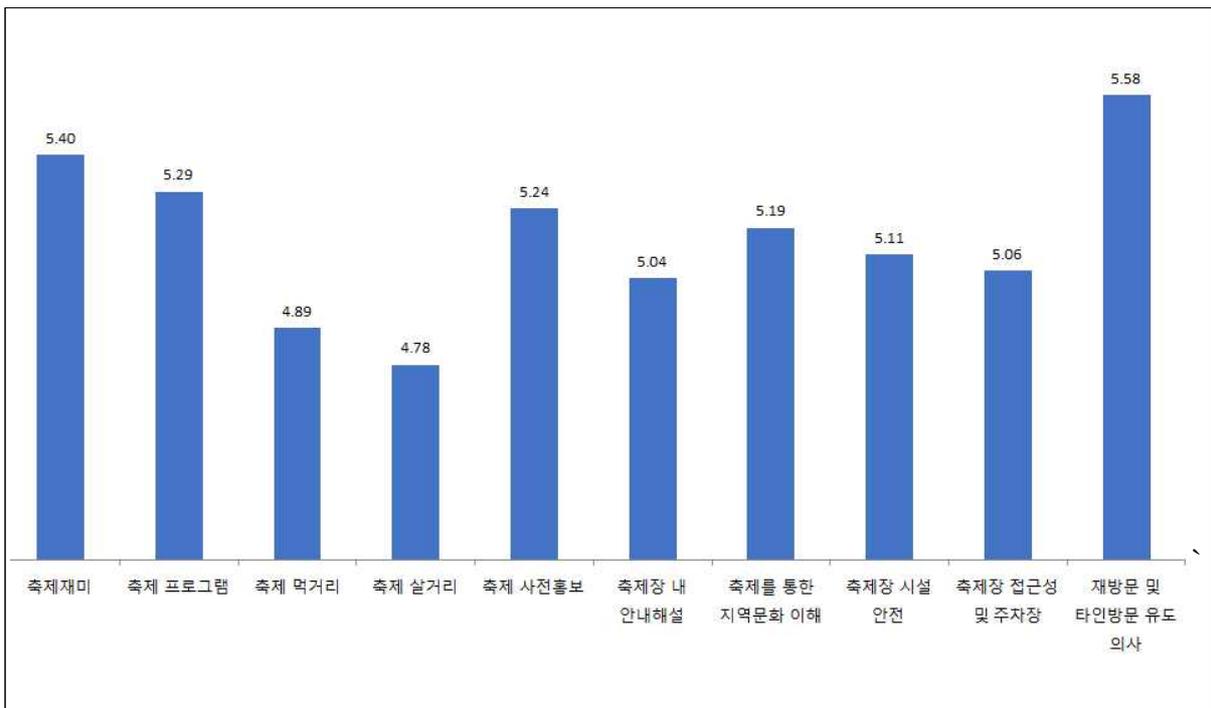
[문화예술축제 유형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지역특산물축제 유형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생태자연축제 유형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주민화합 축제 유형 세부항목 만족도 비교]

(5) 축제별 만족도 비교

- 본 보고서의 축제별 방문객 만족도는 각 축제별 주최 측이 제출한 자체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서, 축제마다 서로 다른 평가기관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방문객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축제 간 우열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음
- 다만 각 축제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문화관광축제의 전체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임
- 축제별 만족도 비교 대상
 - 대표축제 : 3개 축제
 - 최우수축제 : 7개 축제
 - 우수축제 : 10개 축제
 - 유망축제 : 21개 축제

■ 전체축제 비교 (문화관광축제 등급 순)

축제 등급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항목	전체평균	화천 산천어	김제 지평선	문경 찾사발	평균	이천 쌀문화	자라섬 재즈	무주 반딧불
전체만족도	5.24	5.30	5.55	5.23	5.36	5.33	5.25	5.23
축제재미	5.52	5.71	5.70	5.30	5.57	5.45	6.18	5.52
프로그램	5.45	5.58	5.63	5.29	5.50	5.49	5.94	5.50
먹거리	5.17	5.07	5.75	5.16	5.33	5.30	5.30	5.15
살거리	4.83	4.81	5.33	5.07	5.07	5.37	4.47	4.88
사전홍보	5.21	5.52	5.73	5.20	5.48	5.10	5.13	5.35
안내해설	5.17	5.28	5.46	5.12	5.29	5.24	5.20	5.26
지역문화	5.31	5.28	5.59	5.36	5.41	5.40	4.48	5.36
시설안전	5.34	5.24	5.67	5.35	5.42	5.38	5.21	5.45
접근성/주차장	4.83	4.85	5.03	5.05	4.98	4.92	4.68	4.49
재방문/추천의사	5.52	5.67	5.61	5.35	5.54	5.60	5.95	5.29

<표 계속>

축제 등급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항목	전체평균	강진청자	담양 대나무	진도 바닷길	산청한방	평균	광주충장	안성 남사당
전체만족도	5.24	5.27	5.13	5.02	5.65	5.27	5.42	5.53
축제재미	5.52	5.37	5.37	5.05	5.83	5.54	5.46	5.75
프로그램	5.45	5.31	5.30	5.02	5.76	5.47	5.38	5.77
먹거리	5.17	4.95	5.18	4.74	5.71	5.19	5.20	5.60
살거리	4.83	4.90	4.90	4.71	5.78	5.00	4.92	5.34
사전홍보	5.21	5.36	4.93	4.94	5.61	5.20	5.53	5.23
안내해설	5.17	5.18	4.96	4.91	5.46	5.17	5.67	5.38
지역문화	5.31	5.54	5.21	5.08	5.78	5.26	5.49	5.53
시설안전	5.34	5.61	5.29	5.19	5.82	5.42	5.51	5.60
접근성/주차장	4.83	5.12	4.87	5.24	5.03	4.91	5.17	5.26
재방문/추천의사	5.52	5.39	5.29	5.35	5.69	5.51	5.90	5.82

축제 등급		우수축제					
항목	전체평균	평창호석	원주댄싱 카니발	강경전갈	서동연꽃	장흥물	봉화은어
전체만족도	5.24	5.21	5.08	5.43	5.92	5.11	5.30
축제재미	5.52	5.55	5.47	5.62	5.97	5.63	5.68
프로그램	5.45	5.39	5.05	5.62	6.08	5.58	5.64
먹거리	5.17	5.23	5.07	5.81	5.82	4.88	5.15
살거리	4.83	4.92	4.87	5.80	5.96	4.80	4.82
사전홍보	5.21	5.11	4.98	5.48	5.81	5.11	5.46
안내해설	5.17	5.01	4.86	5.20	6.04	4.93	5.44
지역문화	5.31	5.40	4.69	5.72	5.78	4.94	5.33
시설안전	5.34	5.22	5.35	5.04	5.93	4.98	5.40
접근성/주차장	4.83	4.73	4.87	4.87	5.90	4.76	4.56
재방문/추천의사	5.52	5.50	5.58	5.10	5.89	5.46	5.53

〈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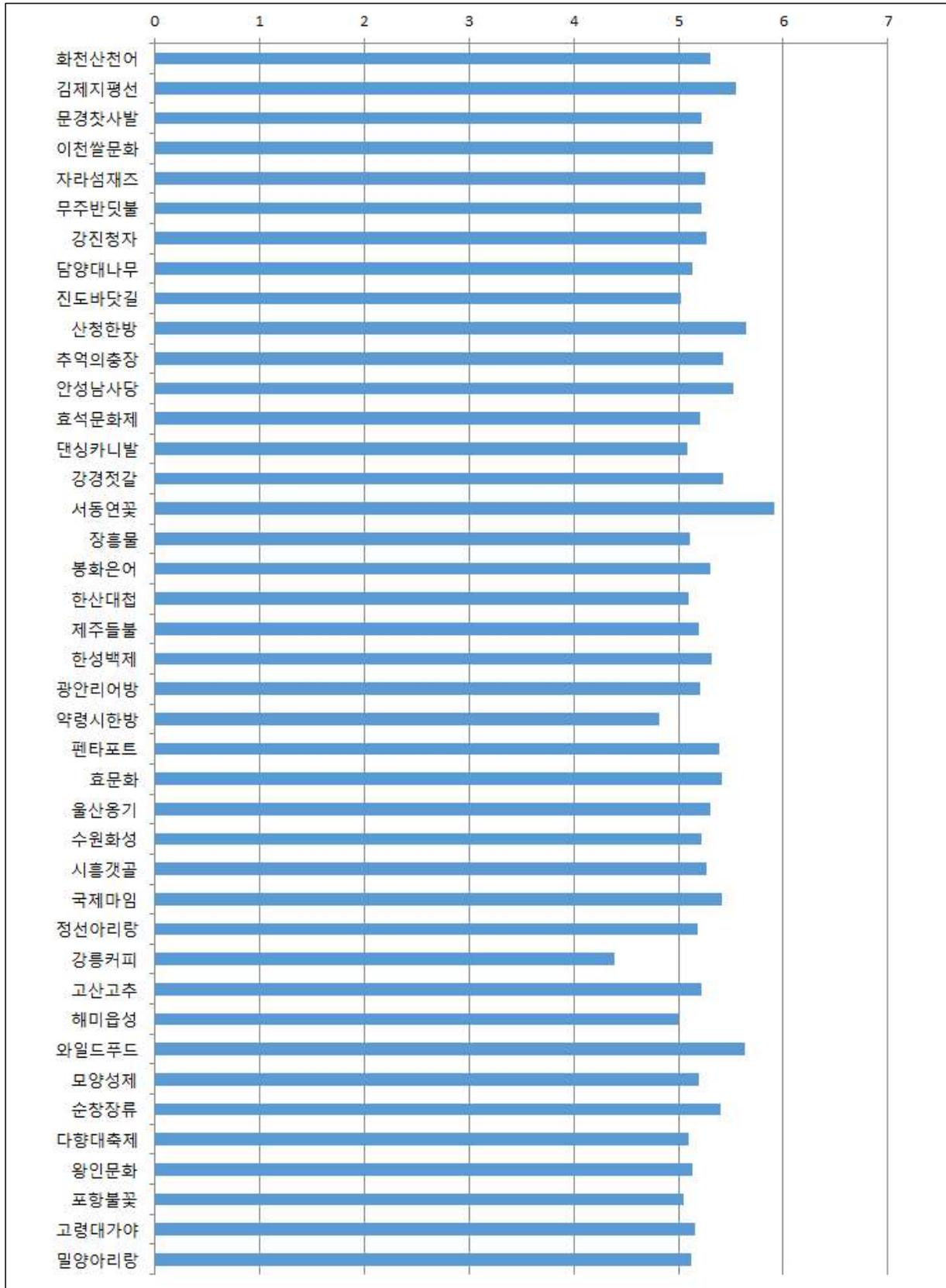
축제 등급		우수축제			유망축제			
항목	전체평균	한산대첩	제주들불	평균	한성백제	광안리 어방	약령시 한방	펜타포트
전체만족도	5.24	5.10	5.19	5.33	5.32	5.21	4.81	5.40
축제재미	5.52	5.56	5.20	5.59	5.72	5.59	5.05	6.00
프로그램	5.45	5.52	5.02	5.51	5.72	5.46	5.07	5.74
먹거리	5.17	5.27	4.64	5.27	5.22	5.17	4.66	5.40
살거리	4.83	4.87	4.82	5.11	4.76	4.89	4.69	4.90
사전홍보	5.21	5.07	5.75	5.35	4.75	5.14	4.72	5.29
안내해설	5.17	4.97	5.29	5.28	5.39	5.15	4.75	5.60
지역문화	5.31	5.48	5.33	5.37	5.39	5.37	5.06	4.82
시설안전	5.34	5.16	5.00	5.32	5.47	5.50	4.74	5.79
접근성/주차장	4.83	3.75	5.19	4.91	5.29	4.45	4.25	4.78
재방문/추천의사	5.52	5.36	5.66	5.58	5.47	5.40	5.11	5.64

축제 등급		유망축제					
항목	전체평균	효문화	울산옹기	수원화성	시흥갯골	국제마임	정선아리랑
전체만족도	5.24	5.42	5.30	5.22	5.27	5.42	5.18
축제재미	5.52	5.31	5.67	5.67	5.70	6.06	5.38
프로그램	5.45	5.25	5.54	5.59	5.63	6.02	5.28
먹거리	5.17	5.56	5.24	5.11	5.00	5.11	5.15
살거리	4.83	5.34	4.87	4.49	4.81	4.80	4.72
사전홍보	5.21	5.36	5.08	5.40	5.02	5.22	4.87
안내해설	5.17	5.46	5.03	5.21	5.19	5.16	4.89
지역문화	5.31	5.45	5.61	5.54	5.34	5.38	5.29
시설안전	5.34	5.51	5.54	5.41	5.52	5.38	5.34
접근성/주차장	4.83	5.48	4.91	4.23	4.85	5.12	5.23
재방문/추천의사	5.52	5.48	5.52	5.55	5.61	5.90	5.62

<표 계속>

축제 등급		유망축제					
항목	전체평균	강릉커피	고산고추	해미읍성	와일드푸드	모양성제	순창장류
전체만족도	5.24	4.39	5.22	5.00	5.63	5.20	5.41
축제재미	5.52	4.58	5.27	5.42	5.76	5.37	5.42
프로그램	5.45	4.54	5.19	5.38	5.78	5.30	5.44
먹거리	5.17	4.26	5.04	4.86	5.73	5.21	5.42
살거리	4.83	4.31	5.03	4.59	5.41	4.97	5.13
사전홍보	5.21	4.45	5.25	5.04	5.63	5.07	5.29
안내해설	5.17	4.20	5.10	4.93	5.52	5.13	5.19
지역문화	5.31	4.46	5.48	5.23	5.59	5.30	5.56
시설안전	5.34	4.54	5.34	5.09	5.56	5.26	5.54
접근성/주차장	4.83	3.46	5.04	4.13	5.46	4.93	5.15
재방문/추천의사	5.52	5.05	5.49	5.30	5.86	5.46	5.93

축제 등급		유망축제					평균
항목	전체평균	다향대축제	왕인문화	포항불꽃	고령대가야	밀양아리랑	
전체만족도	5.24	5.10	5.13	5.05	5.16	5.13	5.19
축제재미	5.52	5.38	5.42	5.71	5.23	5.32	5.48
프로그램	5.45	5.26	5.36	5.41	5.32	5.31	5.41
먹거리	5.17	4.74	5.12	5.01	4.86	5.23	5.10
살거리	4.83	4.85	4.79	4.50	4.73	4.89	4.83
사전홍보	5.21	4.97	5.11	5.19	5.26	5.07	5.10
안내해설	5.17	5.07	5.05	4.90	5.17	5.08	5.10
지역문화	5.31	5.32	5.17	4.97	5.42	5.25	5.29
시설안전	5.34	5.35	5.25	5.05	5.33	5.23	5.32
접근성/주차장	4.83	4.69	4.58	4.29	4.90	4.58	4.75
재방문/추천의사	5.52	5.40	5.45	5.49	5.42	5.29	5.50



[2017년 문화관광축제 축제별 전체 만족도 비교]

4 방문객 소비지출 결과 종합

(1) 전제

- 2017년 축제 소비지출 분석에서는 응답자들의 교통비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조사한 교통비 항목을 포함하여 분석함
 - 2016년까지 교통비 항목을 제외한 이유 : 오류 발견
 - 원칙적으로 방문객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할 때 교통비 항목은 축제를 개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한 비용만을 기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신의 총교통비용(거주지→경유지→축제장)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
 - ※ 단, 연도별 축제 소비지출 비교에서는 교통비 항목 제외(2016년까지 자료 없음)
- 아울러, 각각의 설문조사기관에서 집계한 소비지출 금액이 너무나 큰 편차를 보임. 일부는 객관성이 다소 미흡한 수치들이 발견되므로, 결과적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숫자는 단순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2) 연도별 소비지출 변화

- 2017년도 문화관광축제를 찾은 방문객의 소비지출 금액은 1인당 53,661원으로써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으나 최근 3년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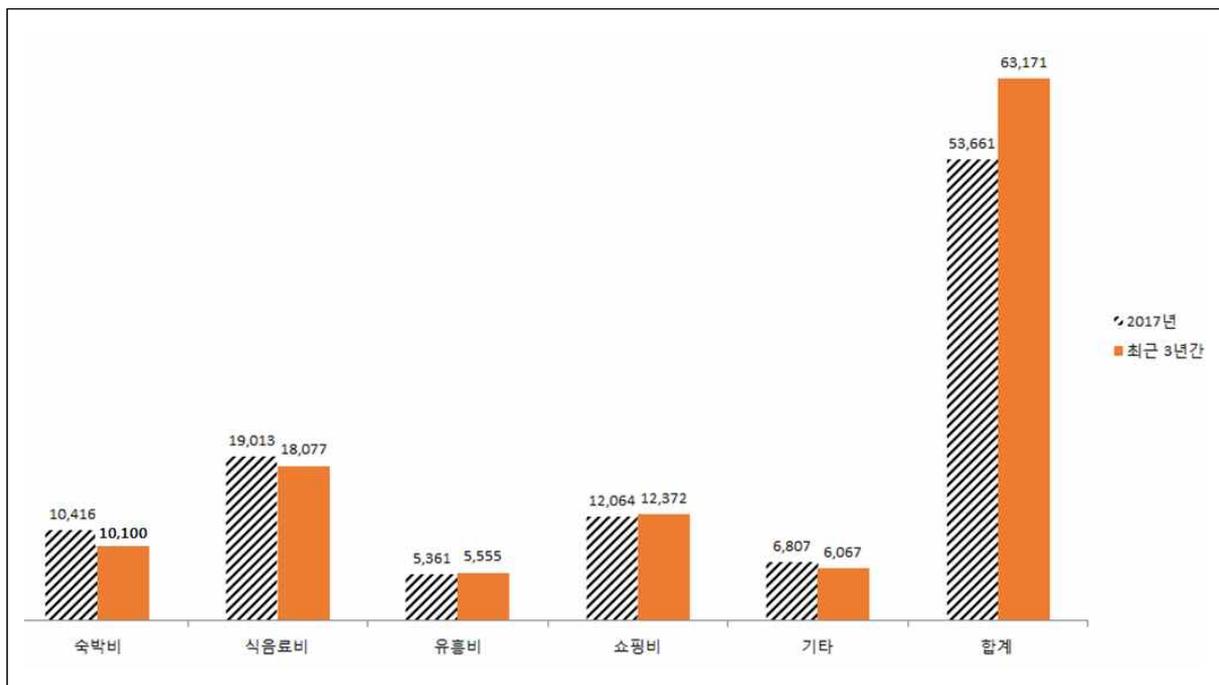
(단위 : 원)

년 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2006	9,542	15,382	5,056	14,886	4,108	48,974
2007	8,521	16,761	5,605	17,317	4,708	52,912
2008	7,707	15,128	5,150	14,876	5,393	48,254
2009	7,944	16,902	4,695	14,974	5,601	50,116
2010	8,712	16,163	4,777	14,846	4,112	48,610
2011	10,287	17,502	5,488	14,970	4,570	52,817
2012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2013	9,395	17,392	5,709	12,285	5,349	50,131
2014	11,135	21,099	5,548	13,233	5,445	56,460
2015	9,478	16,144	4,978	10,607	6,924	48,131
2016	9,688	16,987	6,140	13,275	5,833	51,923
최근 3년 평균	10,100	18,077	5,555	12,372	6,067	52,171
2017	10,416	19,013	5,361	12,064	6,807	53,661

(3) 항목별 소비지출

- 2017년도 축제방문객의 소비지출을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식음료비가 35.4%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쇼핑비 22.5%, 숙박비 19.4%, 기타비 12.7%, 유희비 11.0% 순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과 비교해 보면, 식음료비·숙박비·기타비는 증가한 반면, 유희비·쇼핑비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여기서 주목할 점은 축제장 외부에서의 지출항목인 식음료비와 숙박비가 증가함으로써 축제에 인한 지역 연계성이 강화된 반면, 축제장 내부에서의 지출항목인 살거리인 쇼핑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임
 - 이에, 향후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축제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축제운영 및 살거리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됨

		숙박비	식음료비	유희비	쇼핑비	기타	합계
2017년	금액 (원)	10,416	19,013	5,361	12,064	6,807	53,661
	구성비(%)	19.4	35.4	10.0	22.5	12.7	100.0%
최근 3년	금액 (원)	10,100	18,077	5,555	12,372	6,067	52,171
	구성비(%)	19.4	34.6	10.6	23.7	1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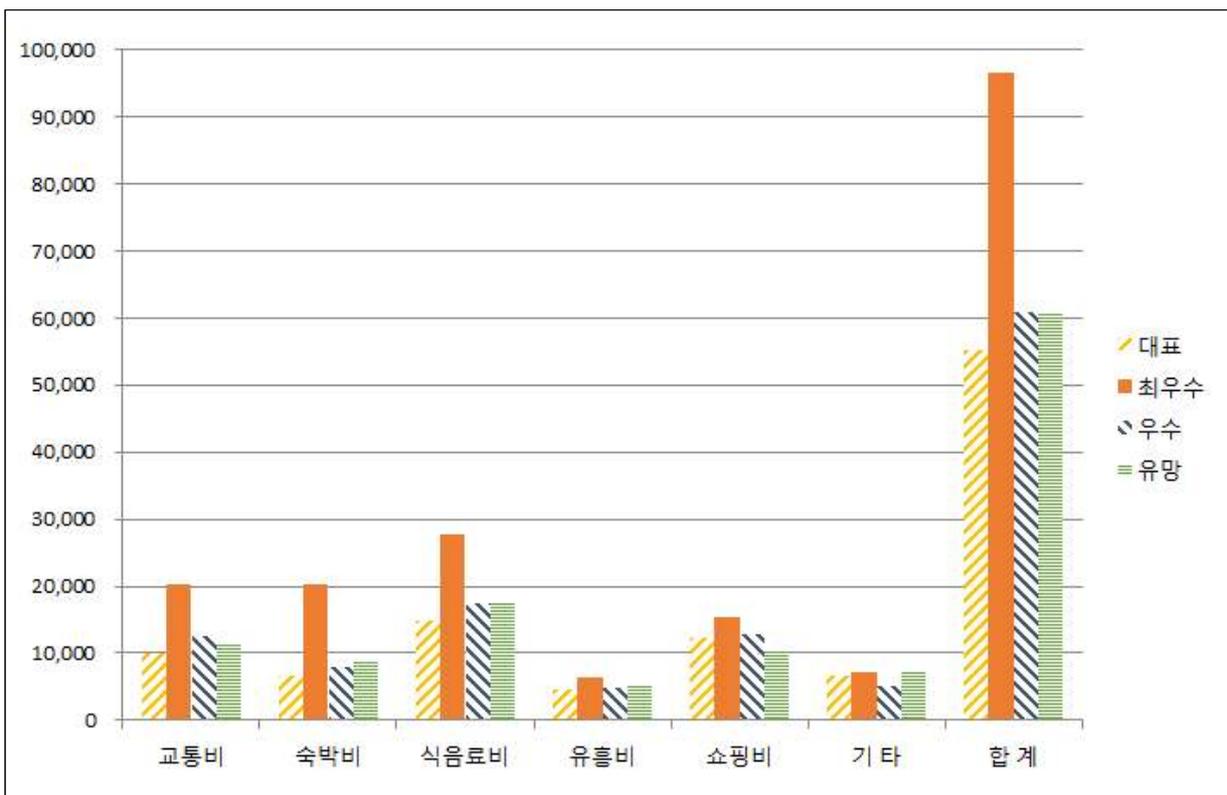
[2017년 문화관광축제 소비지출 세부항목 비교]

(4) 축제 등급별 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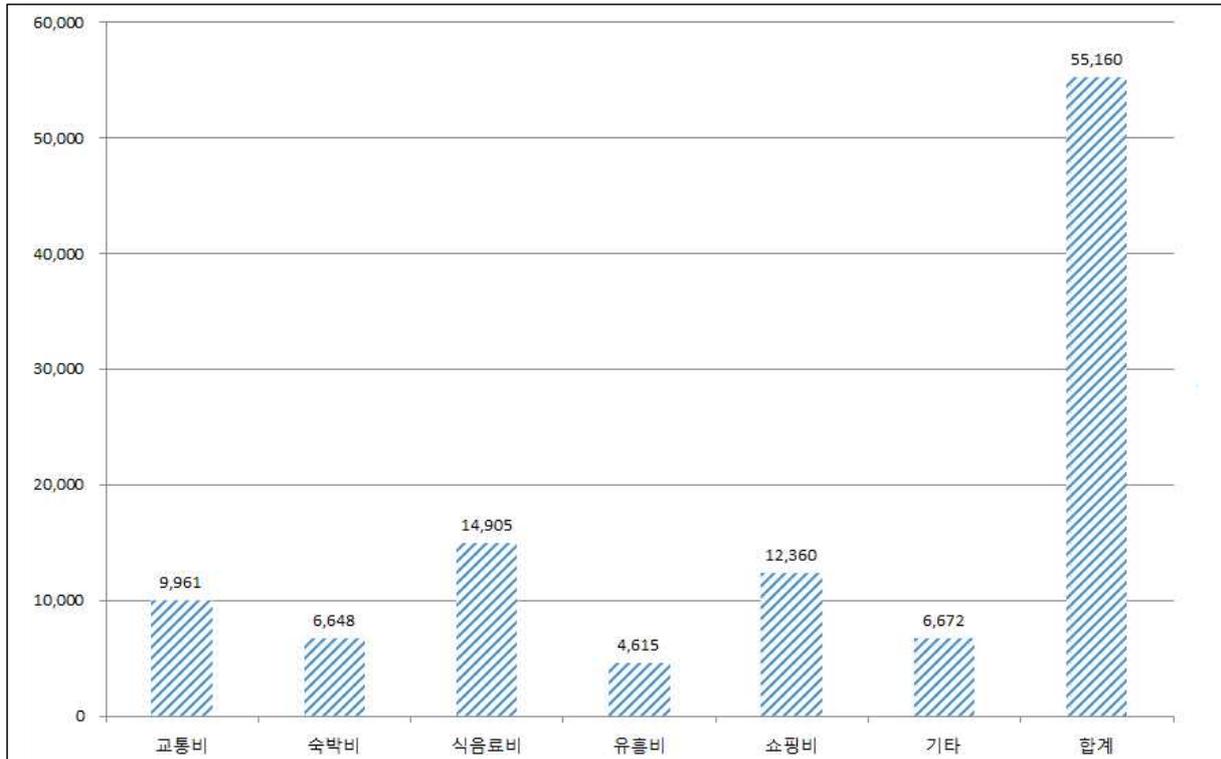
- 다른 년도와 소비지출을 비교했을 때는 자료 확보의 문제 및 데이터 오류성으로 인해 교통비를 제외하였으나, 2017년 문화관광축제 소비지출만을 분석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포함함
- 2017년도 문화관광축제 방문객의 1인당 평균 소비지출을 축제 등급별로 비교해 보면 최우수축제가 96,701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유망축제 61,033원, 우수축제 60,996원, 대표축제 55,160원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문화관광축제 등급별 소비지출과 동일한 결과를 보임
- 등급별 소비항목별로 살펴보면, 모든 축제등급에서 식음료비가 가장 높았으며 모든 축제등급에서 유희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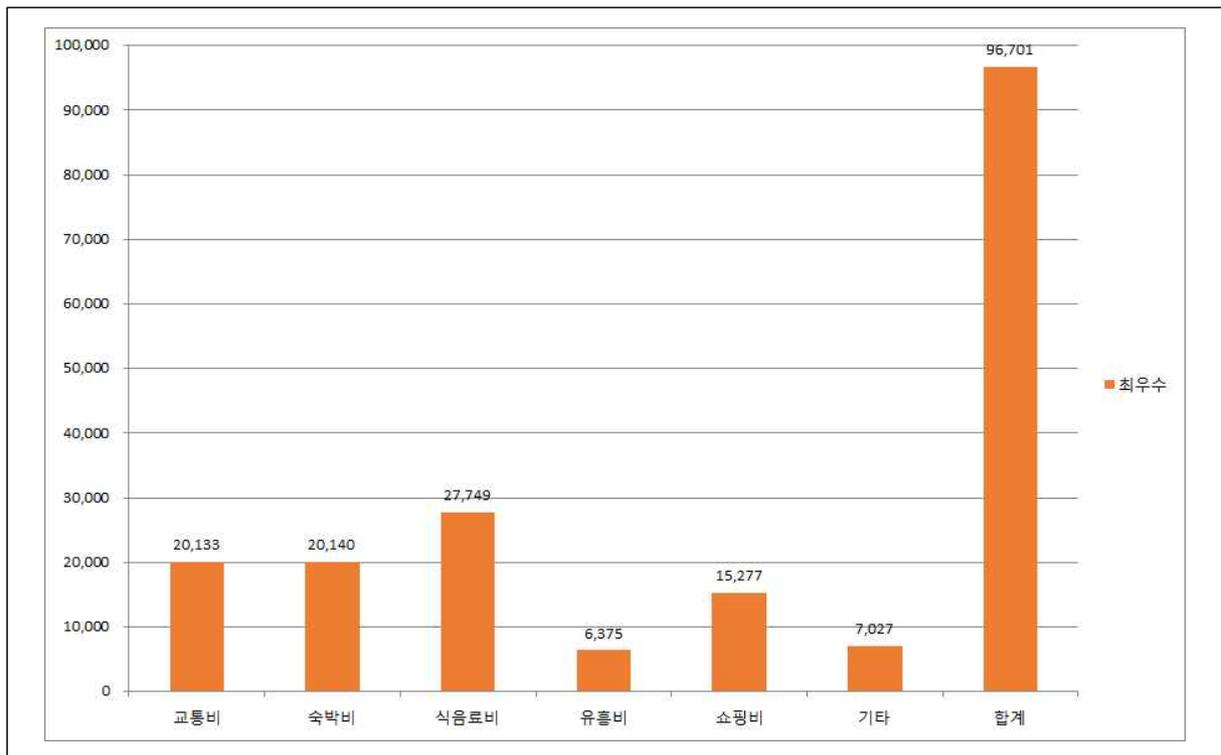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희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전 체	13,023	10,416	19,013	5,361	12,064	6,807	66,684
대 표	9,961	6,648	14,905	4,615	12,360	6,672	55,160
최우수	20,133	20,140	27,749	6,375	15,277	7,027	96,701
우 수	12,631	7,910	17,569	4,952	12,872	5,061	60,996
유 망	11,276	8,906	17,376	5,324	10,566	7,584	61,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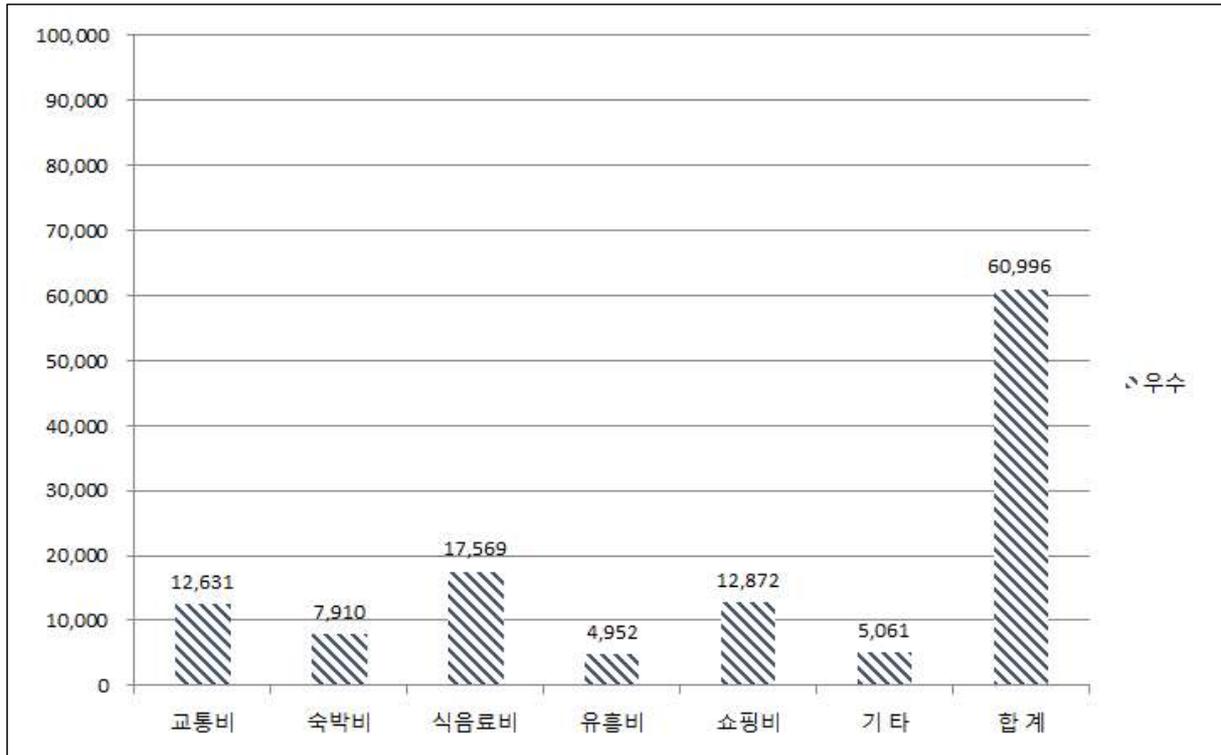
[2017년 문화관광축제 등급별 소비지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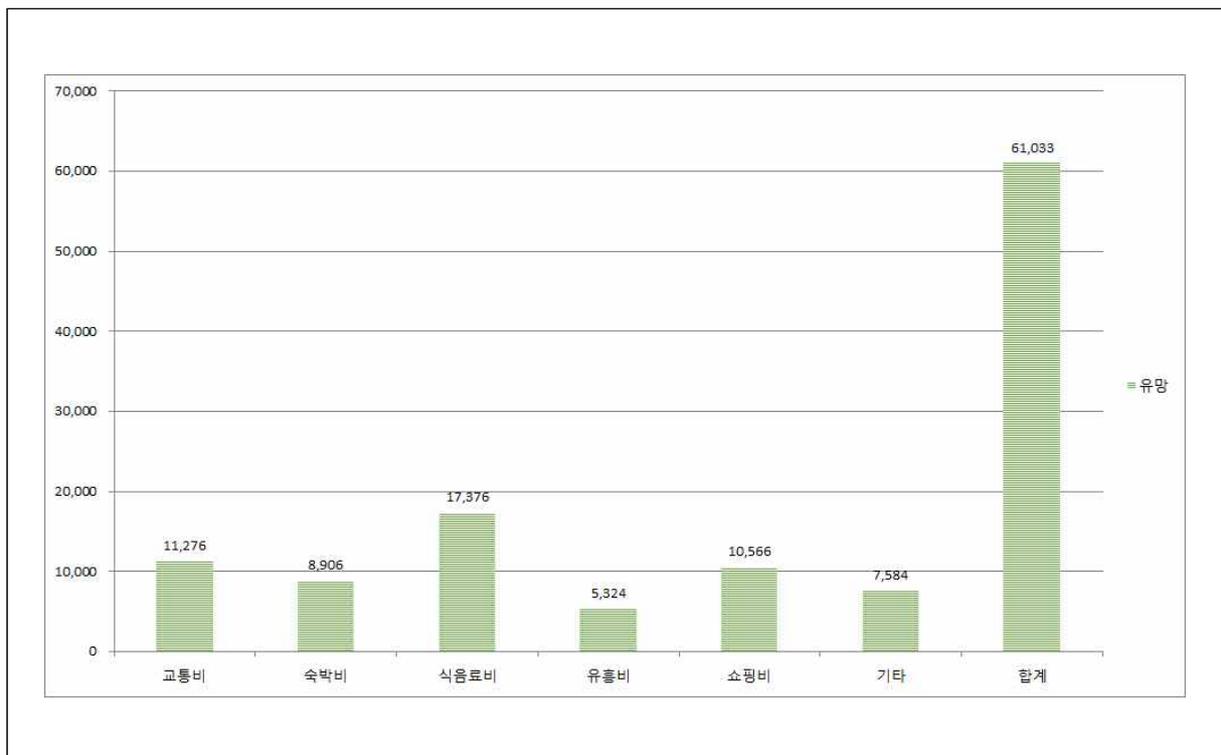
[2017년 대표축제 세부항목 소비지출]



[2017년 최우수축제 세부항목 소비지출]



[2017년 우수축제 세부항목 소비지출]



[2017년 유망축제 세부항목 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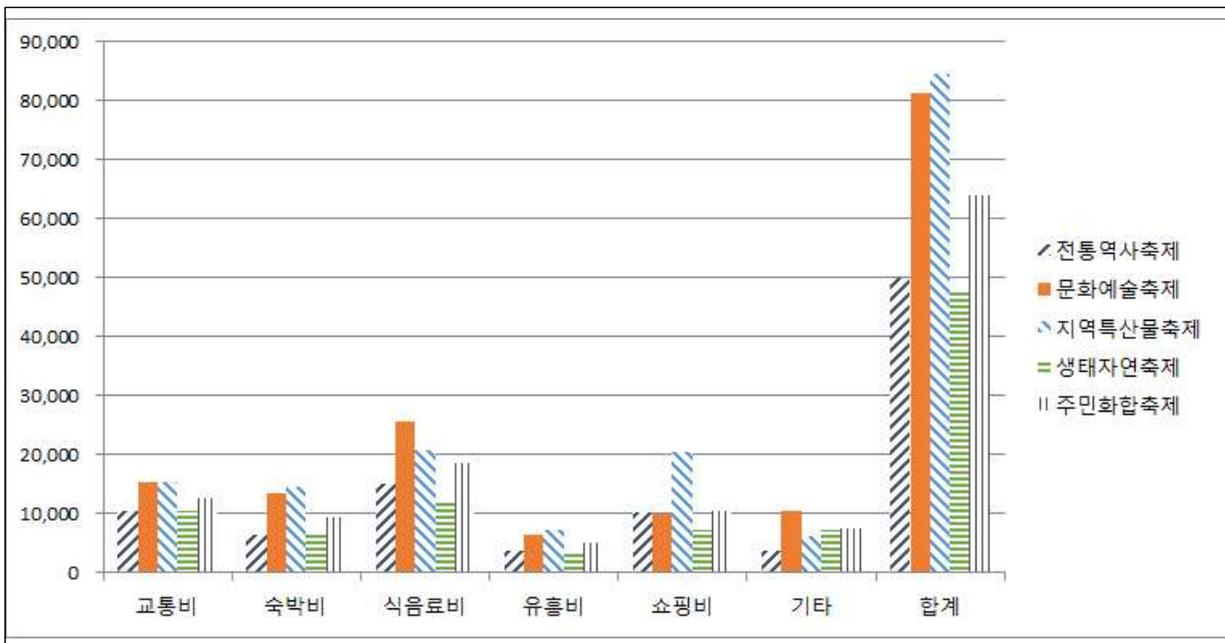
(5) 축제 유형별 소비지출

※ 2017년 축제 유형별 소비지출 분석에서는 교통비를 포함하여 산정
 - 2016년 이전에는 교통비를 제외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도별 비교시 교통비를 제외하였으나, 2017년에는 방문객들의 교통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하여 포함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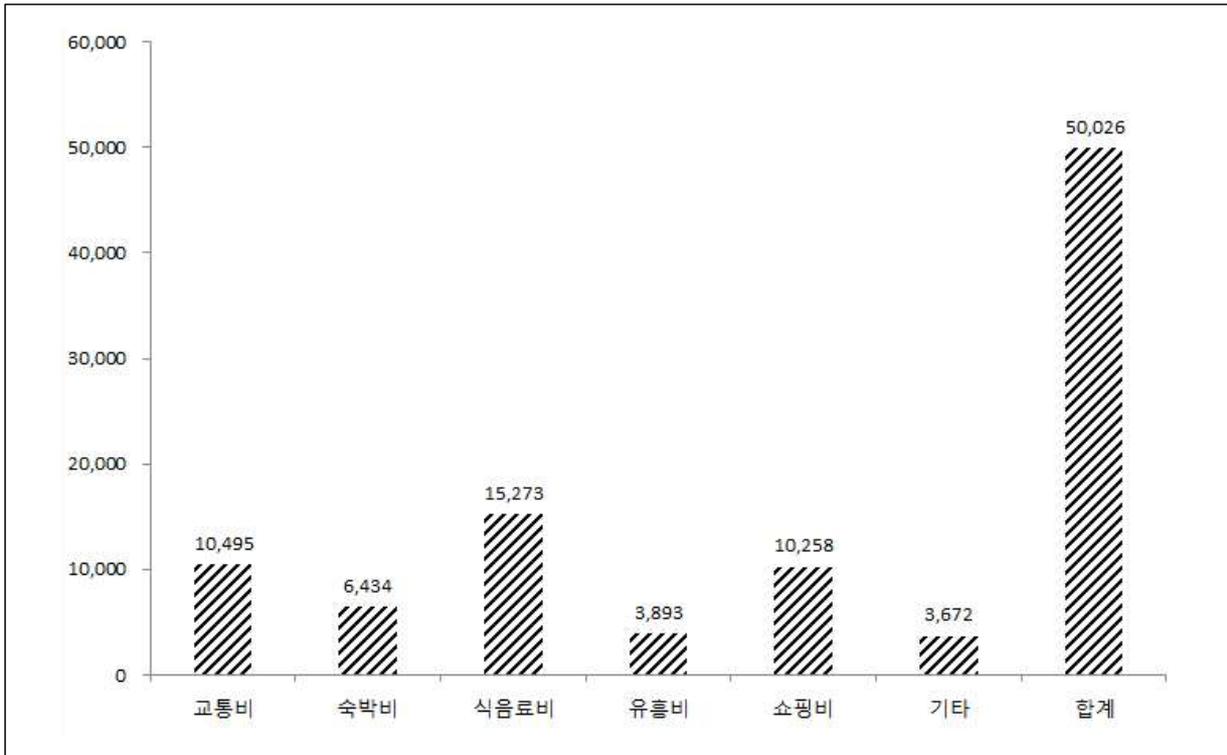
- 2017년도 문화관광축제 유형별 소비지출은 전통역사축제, 문화예술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생태자연축제, 주민화합축제로 구분하여 비교함
- 유형별 평균 소비지출액은 지역특산물축제가 84,55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축제(81,198원), 주민화합축제(64,117원), 전통역사축제(50,026원), 생태자연축제(47,869원) 순으로 나타남
- 예전과 같이 교통비를 제외할 경우에는 지역특산물축제(69,176원), 문화예술 축제(65,915원), 주민화합축제(51,444원), 전통역사축제(39,531원), 생태자연축제(37,292원) 순으로 순위 변동은 없었음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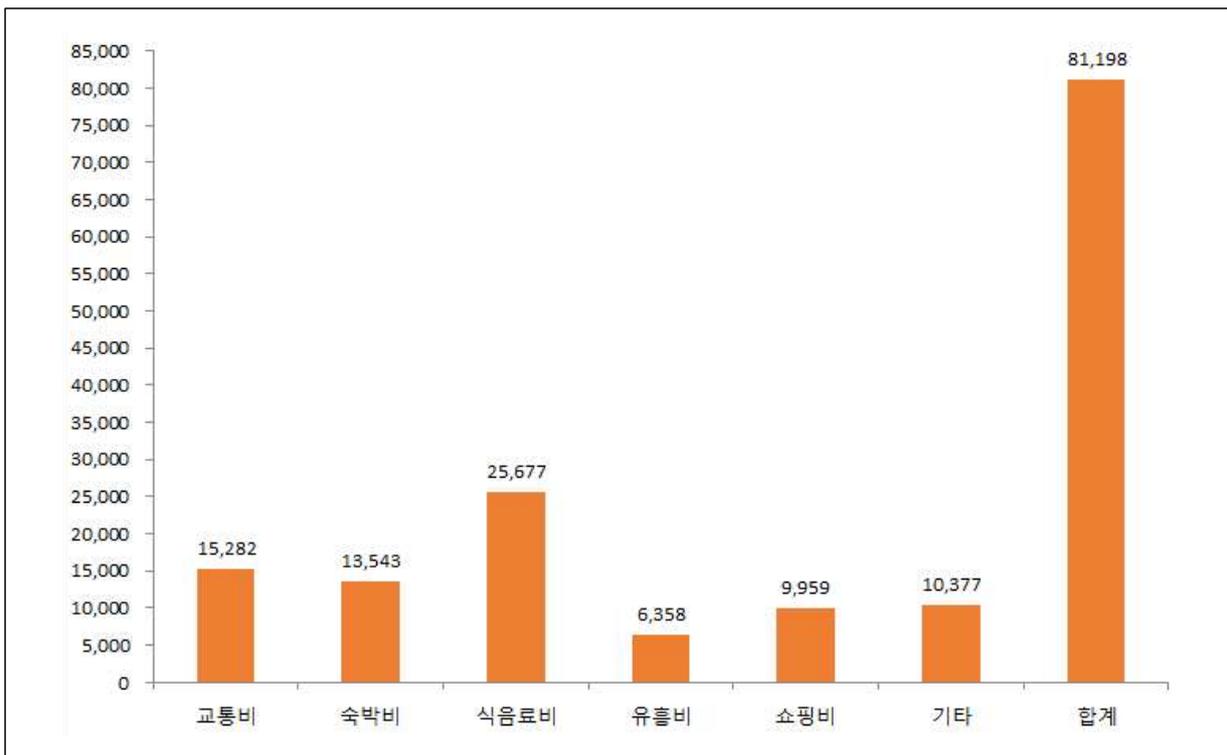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희비	쇼핑비	기타	합계
평 균	13,023	10,416	19,013	5,361	12,064	6,807	66,684
전통역사축제	10,495	6,434	15,273	3,893	10,258	3,672	50,026
문화예술축제	15,282	13,543	25,677	6,358	9,959	10,377	81,198
지역특산물축제	15,378	14,540	20,684	7,194	20,666	6,092	84,554
생태자연축제	10,577	6,901	11,980	3,782	7,429	7,200	47,869
주민화합축제	12,673	9,537	18,595	5,231	10,468	7,614	64,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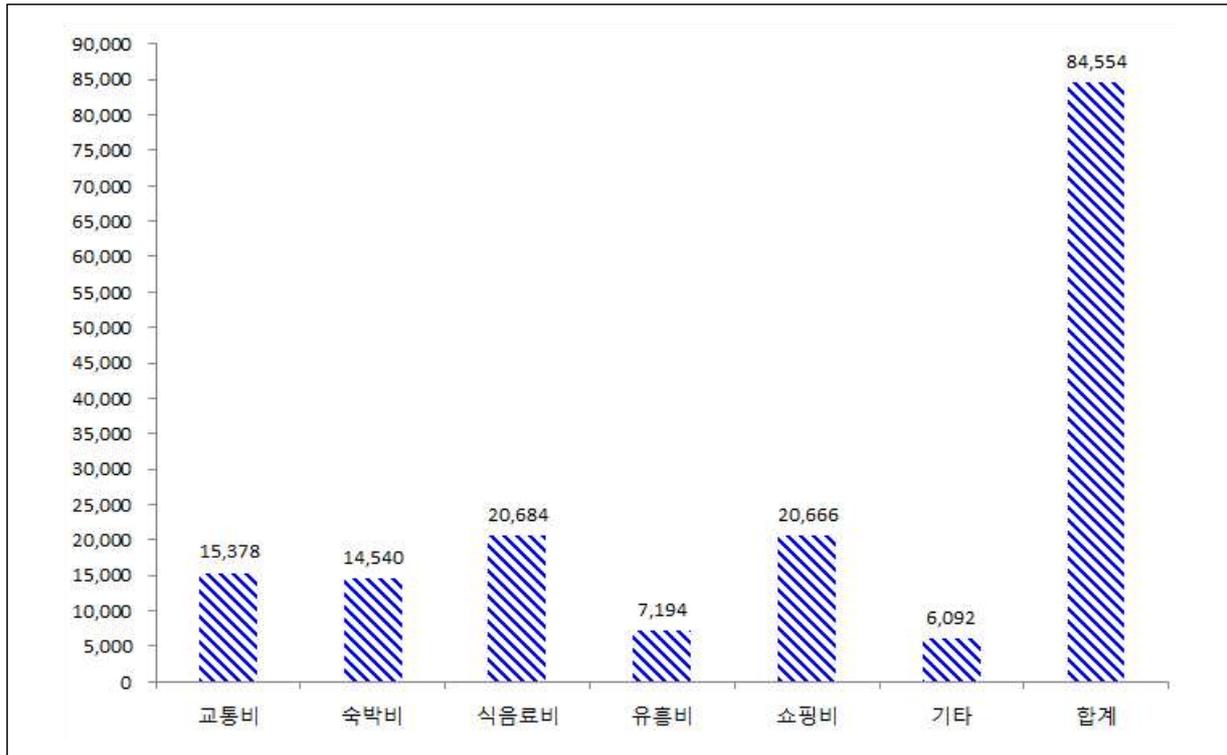
[2017년 문화관광축제 축제유형별 소비지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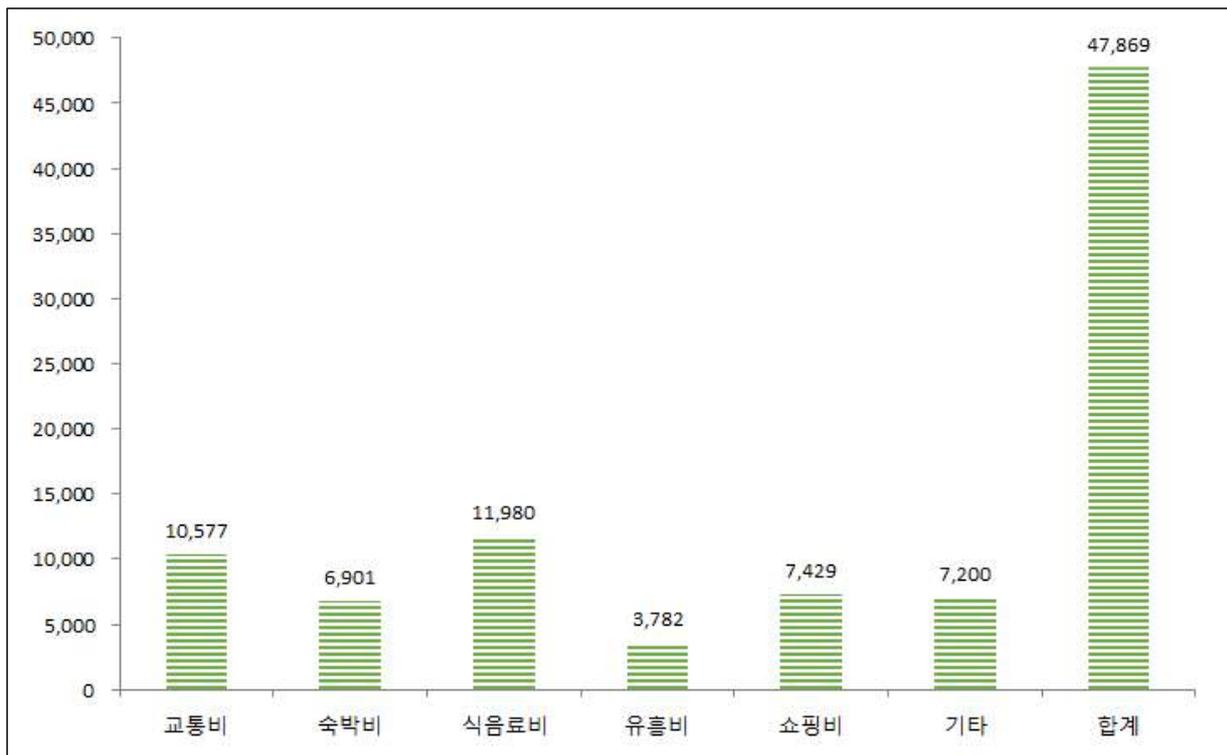
[2017년 전통역사축제 유형 세부항목 소비지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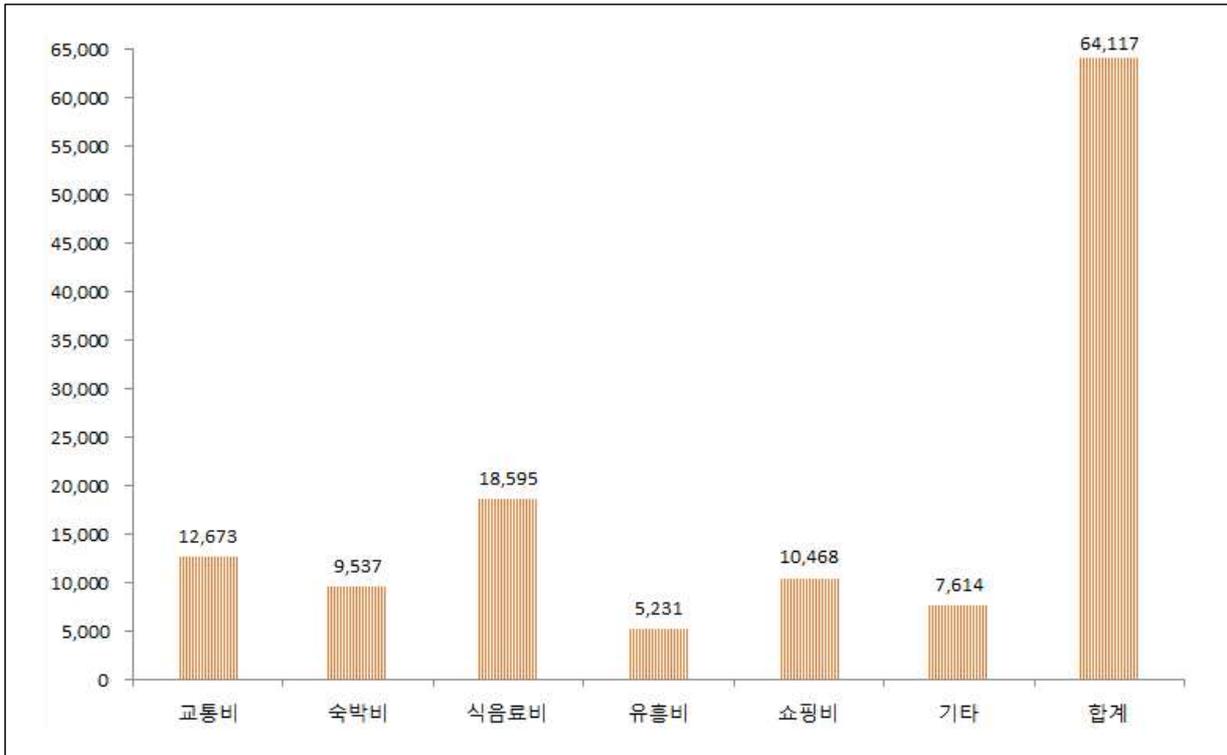
[2017년 문화예술축제 유형 세부항목 소비지출 비교]



[2017년 지역특산물축제 유형 세부항목 소비지출 비교]



[2017년 생태자연축제 유형 세부항목 소비지출 비교]



[2017년 주민화합축제 유형 세부항목 소비지출 비교]

(6) 축제별 소비지출 비교

■ 소비지출이 가장 높은 축제 : 가평자라섬페스티벌

- 2017년에 문화관광축제 중 소비지출이 가장 높은 축제는 ‘가평자라섬페스티벌(242,530원)’으로 나타나며, 교통비를 제외해도 ‘가평자라섬페스티벌(189,532원)’가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강릉커피축제(181,524원), 인천펜타포트축제(144,824원), 산청한방약초축제(120,376원), 완주와일드푸드축제(111,557원), 춘천국제마임축제(105,434원) 순으로 높았음
 - 교통비를 제외해도 강릉커피축제(151,765원), 인천펜타포트축제(126,753원), 산청한방약초축제(108,887원), 춘천국제마임축제(94,514원), 완주와일드푸드축제(84,313원) 순으로 유사하게 나타남

■ 항목별로 소비지출이 높은 축제

- 교통비
 - 가평자라섬재즈페스티벌(52,998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릉커피축제(29,759원), 완주와일드푸드축제(27,244원), 고창모양성제(22,890원), 평창효석문화제(22,295원), 강진청자축제(21,189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숙박비
 - 가평자라섬재즈페스티벌(57,335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릉커피축제(54,646원), 산청한방약초축제(34,741원), 춘천국제마임축제(29,780원), 인천펜타포트축제(19,151원), 통영한산대첩축제(18,561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식음료비
 - 가평자라섬재즈페스티벌(101,231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완주와일드푸드축제(36,000원), 인천펜타포트축제(33,790원), 고창모양성제(33,530원), 강릉커피축제(33,255원), 정남진장흥물축제(26,667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유흥비
 - 강릉커피축제(23,459원)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춘천국제마임축제(19,004원), 산청한방약초축제(17,842원), 고창모양성제(10,140원), 가평자라섬재즈페스티벌(9,216원), 추억의충장축제(8,888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쇼핑비
 - 완주와일드푸드축제(29,127원)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괴산고추축제(27,478원), 강릉 커피축제(27,406원), 이천쌀문화축제(26,455원), 강경젓갈축제(26,350원), 산청한방약초축제(26,197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타비
 - 인천펜타포트축제(60,654원)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청한방약초축제(13,953원), 춘천국제마임축제(13,607원), 강릉커피축제(12,999원), 산청한방약초축제(12,952원),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11,515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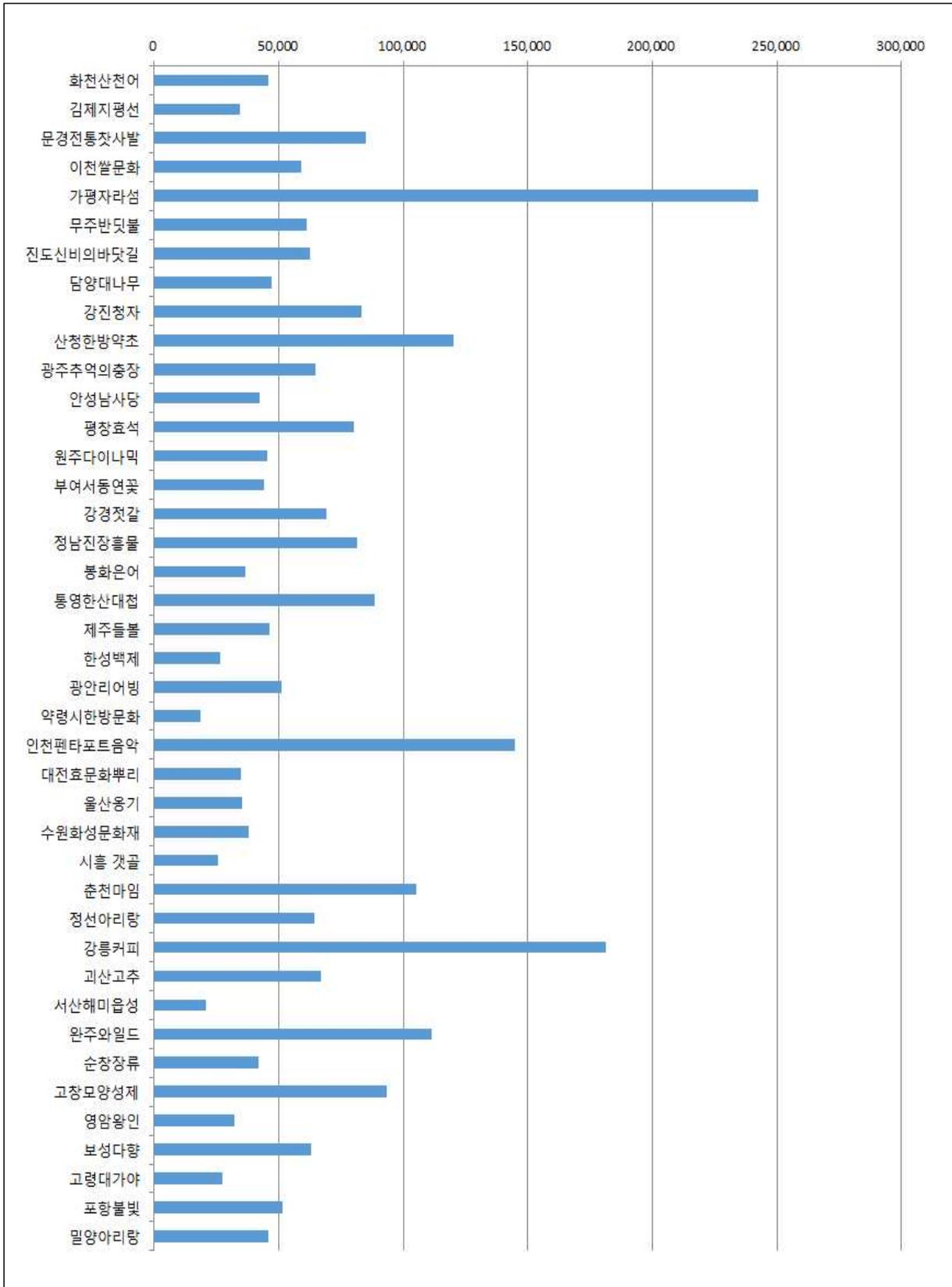
(단위 : 원)

축제등급	축 제 명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형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평 균		13,023	10,416	19,013	5,361	12,064	6,807	66,684
대표	김제지평선	8,775	2,313	10,857	2,304	7,965	2,362	34,576
	화천산천어	6,993	-	16,482	3,462	5,947	12,952	45,836
	문경찾사발	14,115	17,631	17,375	8,078	23,167	4,703	85,068
최우수	이천쌀문화	9,761	3,338	15,841	1,598	26,455	2,231	59,223
	가평자라섬	52,998	57,335	101,231	9,216	13,542	8,208	242,530
	무주반딧불	15,980	14,386	17,184	2,858	6,393	4,672	61,473
	진도바닷길	18,472	11,636	4,310	6,228	10,518	11,515	62,678
	담양대나무	11,040	6,755	17,654	1,983	5,839	3,911	47,181
	강진청자	21,189	12,791	21,869	4,901	17,995	4,700	83,445
	산청한방약초	11,489	34,741	16,154	17,842	26,197	13,953	120,376
우수	광주추억의총장	8,436	6,084	15,951	8,888	19,846	5,663	64,868
	안성남사당	7,781	2,236	15,261	2,215	12,221	2,601	42,315
	평창효석	22,295	8,238	21,790	6,917	14,758	6,210	80,210
	원주댄싱	9,037	4,102	17,245	5,006	7,085	2,915	45,390
	부여서동연꽃	6,995	8,623	11,395	3,080	10,867	3,036	43,996
	강경젓갈	14,300	6,250	21,055	623	26,350	445	69,023
	정남진장홍물	18,232	11,975	26,667	7,300	8,943	8,266	81,383
	봉화은어	10,822	6,760	14,681	4,244	3,985	7,123	47,613
	통영한산대첩	18,994	18,561	20,432	6,436	16,905	7,391	88,719
	제주들불	9,421	6,272	11,215	4,813	7,758	6,963	46,442

〈표 계속〉

(단위 : 원)

축제등급	축 제 명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희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평 균		12,759	10,416	19,013	5,361	12,064	6,807	66,420
유망	한성백제	4,162	588	15,118	824	2,588	3,382	26,662
	광안리어빙	9,710	5,660	21,380	5,660	5,600	3,210	51,220
	약령시한방문화	2,189	635	4,406	2,323	7,937	1,002	18,492
	인천펜타포트	18,071	19,151	33,790	7,083	6,075	60,654	144,824
	대전효문화	5,774	5,471	9,349	3,072	8,355	3,021	35,042
	울산용기	9,843	3,124	10,029	507	11,027	985	35,516
	수원화성	6,597	3,024	13,535	2,898	7,934	3,827	37,815
	시흥갯골	4,201	-	7,827	2,820	6,867	3,904	25,619
	춘천마임	10,920	29,780	18,111	19,004	14,012	13,607	105,434
	정선아리랑	10,367	10,364	17,903	3,580	14,702	7,612	64,527
	강릉커피	29,759	54,646	33,255	23,459	27,406	12,999	181,524
	괴산고추	13,320	1,789	16,023	4,623	27,478	3,943	67,176
	서산해미읍성	-	2,143	10,156	1,919	4,775	1,785	20,778
	완주와일드	27,244	3,909	36,000	7,059	29,127	8,218	111,557
	순창장류	10,217	2,859	13,026	3,468	9,598	2,946	42,114
	고창모양성제	22,890	7,120	33,530	10,140	13,220	6,640	93,540
	영암왕인	8,954	3,485	13,060	1,350	2,306	3,034	32,189
	보성다향	11,275	16,570	17,145	4,095	7,545	6,185	62,815
	고령대가야	8,296	1,174	8,781	553	3,558	4,889	27,250
포항불빛	11,092	11,965	15,091	4,552	4,404	4,497	51,601	
밀양아리랑	11,924	3,578	17,385	2,811	7,370	2,931	45,999	



[2017년 문화관광축제 축제별 전체 소비지출 비교]

5

외지관광객 비율

■ 전체 외지관광객 비율은 69.3% 차지

- 2017년 문화관광축제를 방문한 참가자 중에서 외지관광객은 69.3%, 지역주민은 30.7%로 나타나, 외지관광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축제별 외지관광객 방문 비율을 살펴보면,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이 97.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무주반딧불축제 96.4%, 담양대나무축제 95.0%, 정남진장흥물축제 92.9%, 평창효석문화제 92.8% 순으로 나타남
- 외지관광객 방문에 비해 지역주민 방문 비율이 높은 축제는 총 7개로 나타나며 이 중, 대구약령시한방축제가 94.5%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는 제주들불축제 74.8%, 한성백제문화제 66.8%, 시흥갯골축제 65.4%, 춘천국제마임축제 63.9%, 수원화성문화제 57.3%, 울산옹기축제 53.6%순임

축제명칭	비율(%)		축제명칭	비율(%)	
	지역주민	외지관광객		지역주민	외지관광객
강경갯갈	27.8	72.2	시흥갯골*	65.4	34.6
강릉커피*	33.2	66.8	안성남사당	35.2	64.8
강진청자	10.3	89.7	영암왕인문화	15.2	84.8
고령대가야체험	9.6	90.4	완주와일드푸드	15.9	84.1
고창모양성제	40.0	60.0	울산옹기	53.6	46.4
광안리어방	33.6	66.4	원주다이내믹	22.3	77.7
광주추억의충장	33.6	66.4	이천쌀문화	21.1	78.9
괴산고추	18.2	81.8	인천펜타포트	42.0	58.0
김제지평선	19.5	80.5	자라섬재즈	2.1	97.9
담양대나무	5.0	95.0	정남진장흥물	7.1	92.9
대구약령시한방	94.5	5.5	정선아리랑제*	40.6	59.4
대전효문화뿌리	48.8	51.2	제주들불	74.8	25.2
무주반딧불	3.6	96.4	진도신비의바닷길	14.0	86.0
문경차사발	13.0	87.0	춘천국제마임	63.9	36.1
밀양아리랑대*	41.3	58.7	통영한산대첩	34.5	65.5
보성다향	-	-	평창효석문화제	7.2	92.8
봉화은어	7.4	92.6	포항국제불빛	48.3	51.7
부여서동연꽃	10.5	89.5	한성백제문화제	66.8	33.2
산청한방약초	33.2	66.8	해미읍성역사체험	29.0	71.0
수원화성문화제*	57.3	42.7	화천산천어	7.4	92.6
순창장류	20.0	80.0	평균	30.6	69.4

6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

■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 85.6% 차지

- “○○축제가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된 주 동기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즉,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사람의 비율은 85.6%로 높게 나타남
 - 2016년 86.5%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남
-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이 높은 축제
 - 화천산천어축제와 이천쌀문화축제가 10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97.3%, 정남진장흥물축제 96.7%, 무주반디불축제 95.9%, 자라섬재즈페스티벌 95.7%, 시흥갯골축제 94.1%,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94.0%, 대전효문화뿌리축제 93.6%, 밀양아리랑대축제 93.3% 순으로 높았음
-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이 낮은 축제
 - 강릉커피축제 54.3%, 수원화성문화제 60.4%, 통영한산대첩축제 66.5%, 춘천국제마임축제 67.8%, 담양대나무축제 72.2%, 광안리어방축제 74.3%, 제주들불축제 76.2%, 한성백제문화제 76.5% 순으로 분석됨

축제명칭	비율(%)	축제명칭	비율(%)	축제명칭	비율(%)
강경젓갈	91.5	밀양아리랑	93.3	자라섬재즈	95.7
강릉커피	54.3	보성다향	-	정남진장흥물	96.7
강진청자	79.9	봉화은어	80.9	정선아리랑제	88.5
고령대가야체험	93.1	부여서동연꽃	90.9	제주들불	76.2
고창모양성제	85.9	산청한방약초	87.4	진도신비의바닷길	94.0
광안리어방	74.3	수원화성문화제	60.4	춘천국제마임	67.8
광주추억의충장	82.5	순창장류	90.9	통영한산대첩	66.5
괴산고추	83.3	시흥갯골	94.1	평창효석문화제	92.6
김제지평선	91.8	안성남사당	81.4	포항국제불빛	85.6
담양대나무	72.2	영암왕인문화	86.8	한성백제문화제	76.5
대구약령시한방	81.8	완주와일드푸드	97.3	해미읍성역사체험	79.3
대전효문화뿌리	93.6	울산옹기	90.1	화천산천어	100.0
무주반디불	95.9	원주다이내믹	91.2	-	-
문경찾사발	88.0	인천펜타포트	90.1	평균	85.6 (보성다향 제외)

2017 문화관광축제 >>>

III

지자체의
축제별 설문조사
분석결과



K o r e a C u l t u r e & T o u r i s m I n s t i t u t e

1

서울 한성백제문화제

만족도

한성백제문화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며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사전홍보'를 제외한 9개 항목에서 전년 대비 높았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살거리, 사전홍보, 재방문/추천의사 만족도가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전홍보 전략과 지역의 특색 있는 특산물 발굴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4,592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40.0%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항목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교통비·숙박비·유흥비·쇼핑비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 특히 식음료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체류시간 확대를 통한 숙박비·유흥비·쇼핑비 지출의 유도가 필요함



2

부산 광안리어방축제

만족도

광안리어방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7년 전체 축제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안내해설’을 제외한 9개 항목에서 전년 대비 높았으나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는 사전홍보, 안내해설, 접근성 및 주차장, 재방문/추천의사가 낮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전홍보 강화 및 안내해설체계 강화, 접근성 및 주차장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7,102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76.8%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숙박비·쇼핑비·기타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숙박비·유희비·쇼핑비·기타비는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체류시간 확대를 통한 소비지출의 유도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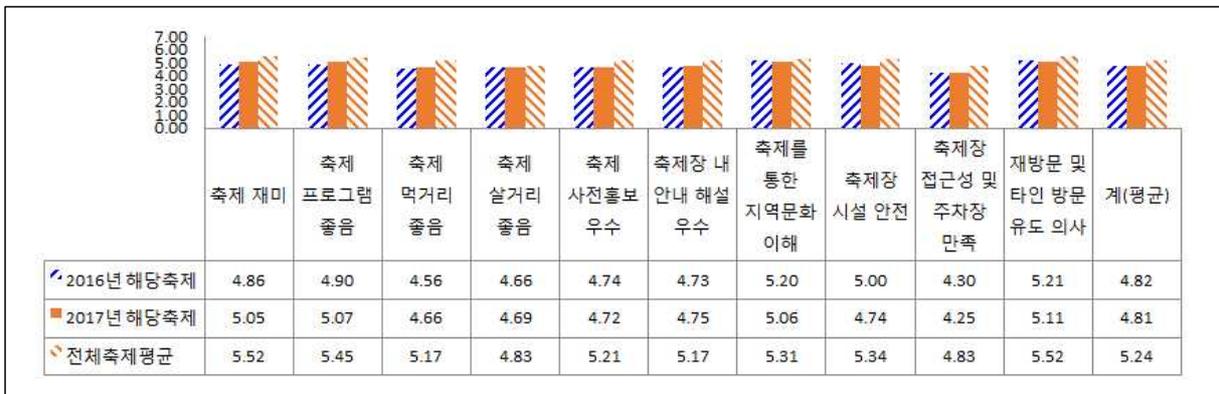


3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만족도

약령시 한방문화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도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축제의 재미, 프로그램, 먹거리, 살거리 등이 향상되었으나 전년 대비 사전 홍보, 지역문화의 이해, 시설안전, 접근성 및 주차장, 재방문/추천의사가 낮게 나타남.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모든 항목에서 낮게 나타남.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콘텐츠 강화 및 축제 기반시설 강화 등이 필요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5,288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27.7%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체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으며, 유희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체류시간 확대 및 특색 있는 축제 상품 발굴을 통한 소비 지출의 유도가 필요함



4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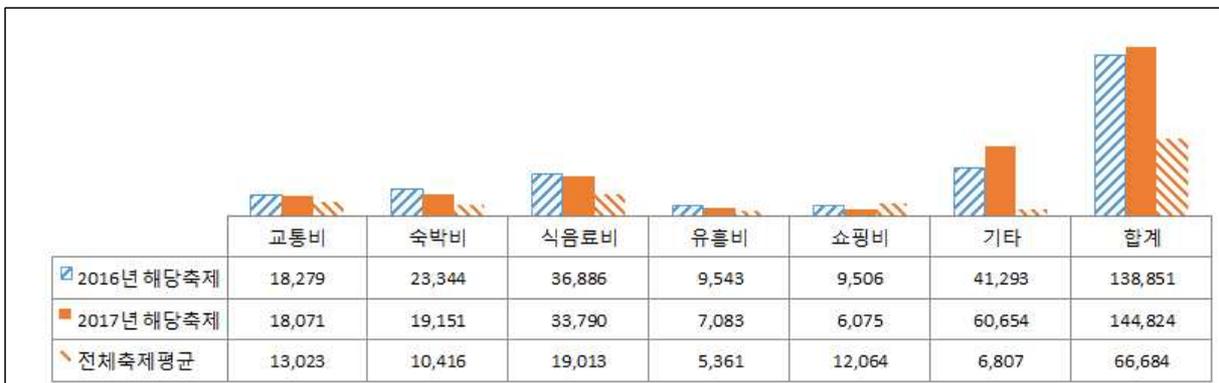
만족도

펜타포트 음악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접근성 및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개선되었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해서도 지역문화 이해, 접근성 및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높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방문자들을 위한 접근성 체계 및 주차장 등 교통체계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5,973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217.2%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당 축제 소비지출이 전국 평균이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높은 입장료에 기인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쇼핑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나 기타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컨셉에 부합하는 상품, 기념품 등의 발굴이 필요함



5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만족도

추억의 총장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며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 축제의 재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높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문객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스토리 및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축제의 재미를 높여야 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7,602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97.3%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숙박비·식음료비·기타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식음료비는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특색 있는 향토음식 등 다양한 먹거리 발굴 등이 필요함



6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만족도

효문화뿌리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는 높았음.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먹거리, 살거리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높았으나 축제 재미, 프로그램, 재방문/추천의사 항목은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문객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스토리 및 프로그램 발굴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4,828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52.5%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기타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체류시간 확대 및 주변 지역과 연계한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발굴 등이 필요함



7 울산 용기축제

만족도

용기축제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는 높았음.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축제 재미, 접근성 및 주차장, 재방문/추천의사 만족도가 낮았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사전홍보, 안내해설 만족도가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사전홍보 강화 및 인적·비인적 안내해설체계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4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53.3%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교통비·식음료비·유희비·기타비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체류시간 확대 및 주변 지역과 연계한 먹거리, 즐길거리 발굴 등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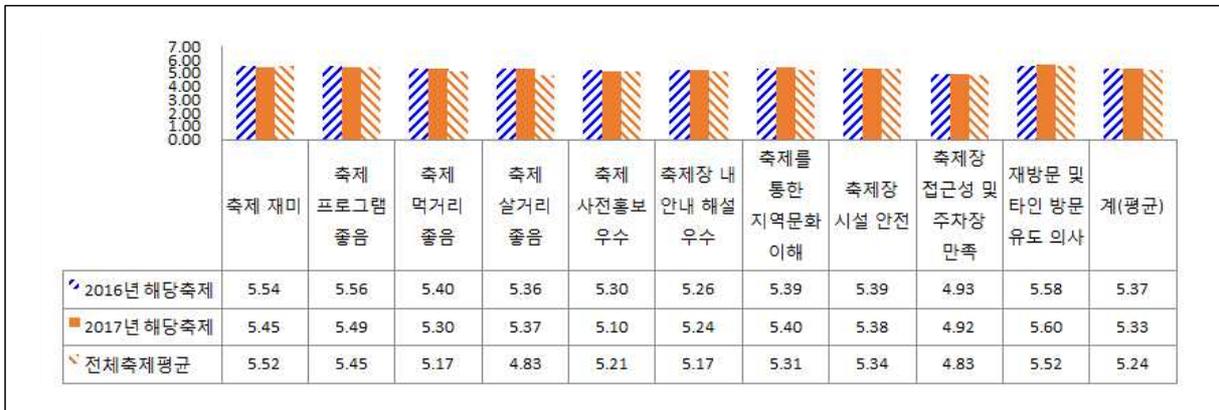


8

이천 쌀문화축제

만족도

쌀문화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는 높게 조사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살거리, 지역문화 이해, 재방문/추천의사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축제 재미, 사전홍보를 제외하고는 높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문객 욕구에 부합하기 위한 축제 콘텐츠 발굴 및 적극적인 사전 홍보 전략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797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88.8%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쇼핑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교통비·유희비·기타비는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숙박시설 확충 및 지역 향도음식 등 먹거리 발굴, 즐길거리 발굴 등이 필요함



9 가평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만족도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며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도 다소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 살거리, 사전홍보, 시설안전,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가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특산품 개발과 축제 기반시설 및 접근체계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48,700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363.7%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또한 기타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증가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10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만족도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며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먹거리, 살거리, 사전홍보, 지역문화 이해 만족도가 낮았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모든 항목에서 높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 특산품의 발굴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사전 홍보가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3,749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63.5%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쇼핑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증가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방문객의 체류시간 확대, 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 개발 등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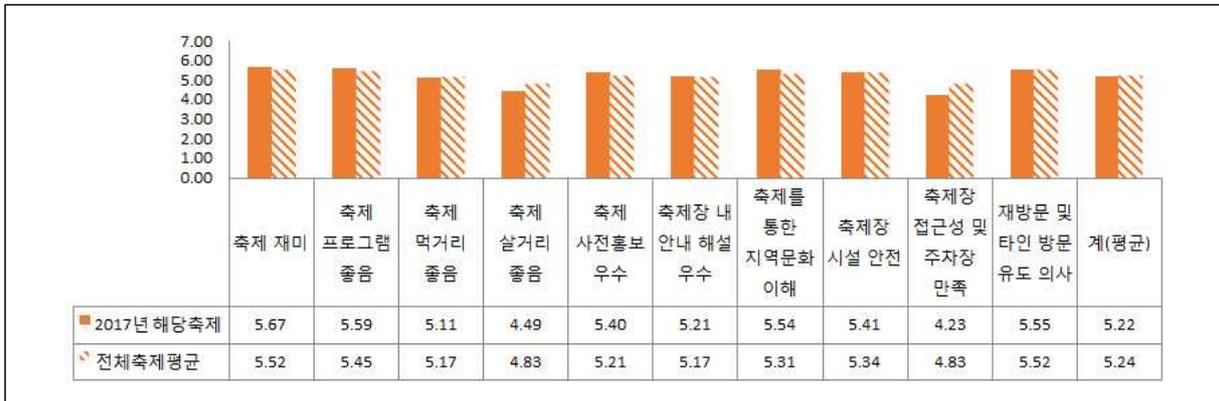


11

수원 화성문화제

만족도

수원 화성문화제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신규축제인 관계로 전년도 비교는 불가능함. 항목별로는 먹거리, 살거리,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높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먹거리와 살거리 개발이 필요하며 방문객 수용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가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56.7%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과 함께 주변 지역과 연계한 체류시간 확대 방안이 필요함



12

시흥 갯골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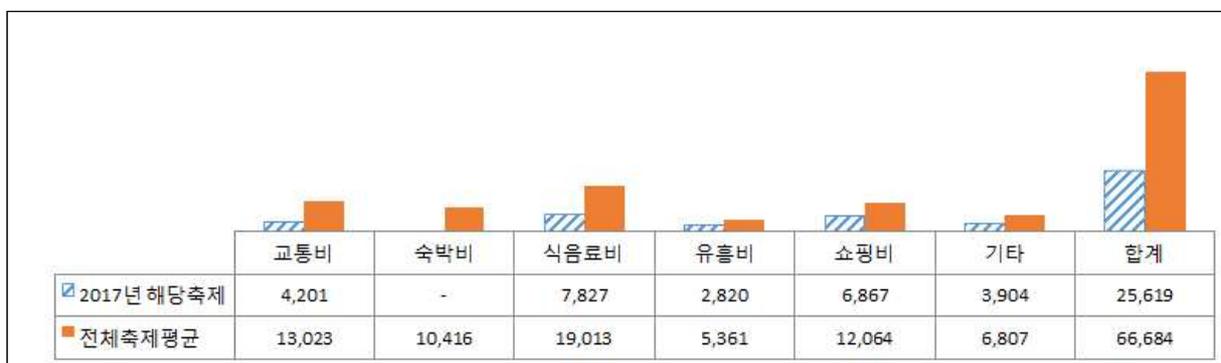
만족도

시흥 갯골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았으며, 신규축제인 관계로 전년도 비교는 불가능함. 항목별로는 전체 평균에 비해 먹거리, 살거리, 사전홍보 만족도가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 특성에 부합하는 먹거리와 살거리 개발이 필요하며 축제 붐 조성을 위한 사전홍보 강화 전략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38.4%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수익 창출계획을 수립하고 특색 있는 음식, 상품, 체험거리 등의 개발과 함께 주변 지역과 연계한 체류시간 확대 방안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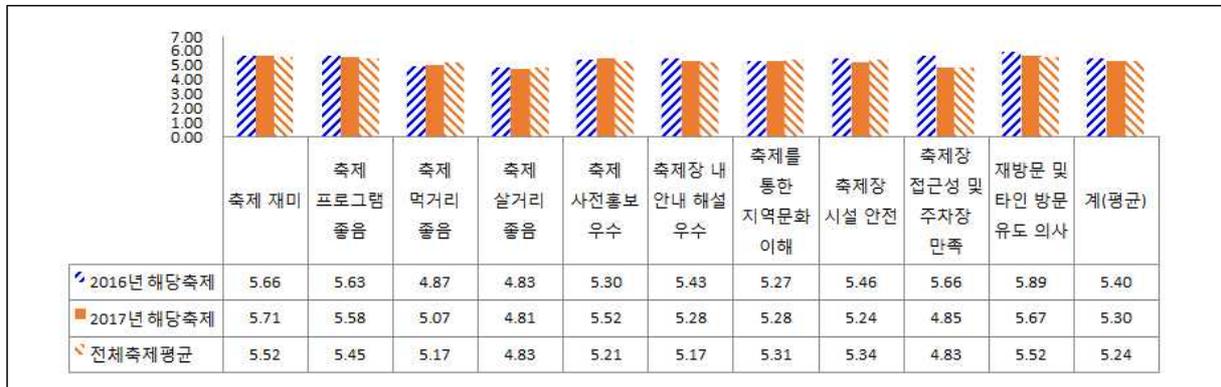


13

화천 산천어축제

만족도

산천어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축제 프로그램, 살거리, 안내해설, 시설안전, 재방문/추천의사 만족도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는 크게 감소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절성을 감안하여 시설 안전, 주차장 확보 등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8,251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68.7%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기타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교통비·숙박비·식음료비·기타비는 전년 대비 감소함(조사결과 숙박비가 0원인 것은 조사상 오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체류시간 확대 및 특색 있는 축제 상품 발굴을 통한 소비 지출의 유도가 필요함



14

평창 효석문화제

만족도

효석문화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17년 전체 축제 평균에 비해서도 낮음.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축제 프로그램, 사전홍보, 안내해설, 시설안전, 접근성 및 주차장, 재방문/추천의사 만족도가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축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재검토를 통해 방문객 욕구에 부합하는 축제 발전계획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3,464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120.3%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식음료비·유희비·쇼핑비 항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증가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체류시간 확대 및 숙박시설 확충 방안이 필요함



15

원주 다이내믹댄싱카니발

만족도

다이내믹댄싱카니발의 만족도는 전체 축제 평균에 비해 낮았으며 신규축제인 관계로 전년도 비교는 불가능함. 항목별로는 살거리, 시설안전, 접근성 및 주차장, 재방문/추천의사 만족도는 높았으나 축제 재미, 프로그램 등 방문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족도는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문객 욕구에 부응하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 발굴, 사전 홍보 강화전략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8,158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68.1%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교통비·숙박비·유흥비·기타비는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숙박시설 확충 및 특색 있는 축제 상품 발굴, 주변지역과 연계한 즐길거리 개발이 필요함



16

춘천 국제마임축제

만족도

국제마임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며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살거리, 안내해설,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가 낮았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 먹거리, 살거리, 안내해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먹거리, 살거리 발굴 및 안내해설체계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9,040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158.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식음료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기타비는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특색 있는 향토음식, 다양한 축제 메뉴 등 먹거리 개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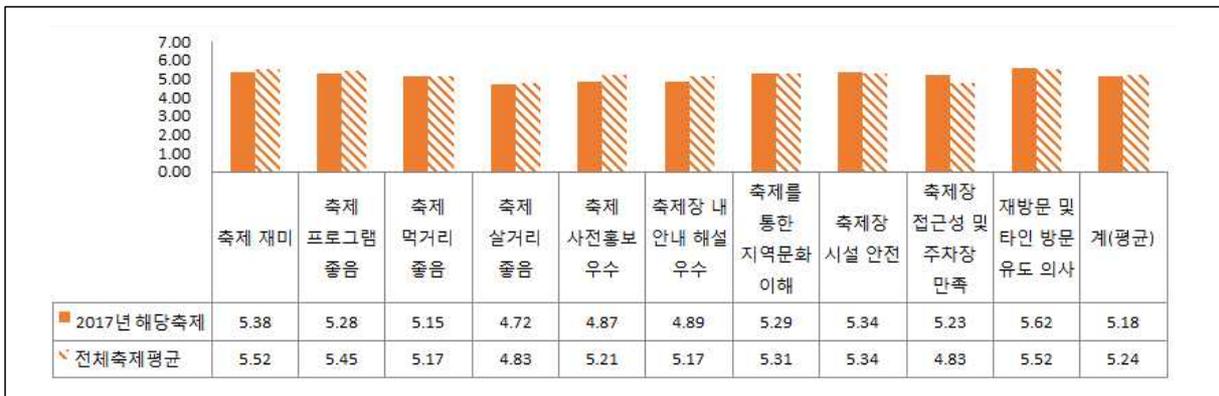


17

정선 아리랑제

만족도

정선 아리랑제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신규축제인 관계로 전년도 비교는 불가능함. 항목별로는 접근성 및 주차장, 재방문/추천의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만족도가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선아리랑' 브랜드를 활용한 차별화된 스토리, 프로그램, 시설 개선 및 안내, 홍보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96.8%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숙박비·식음료비·유희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체류시간 확대 방안과 특색 있는 향토음식, 다양한 축제 메뉴 등 먹거리 발굴, 주변 지역과 연계한 즐길거리 개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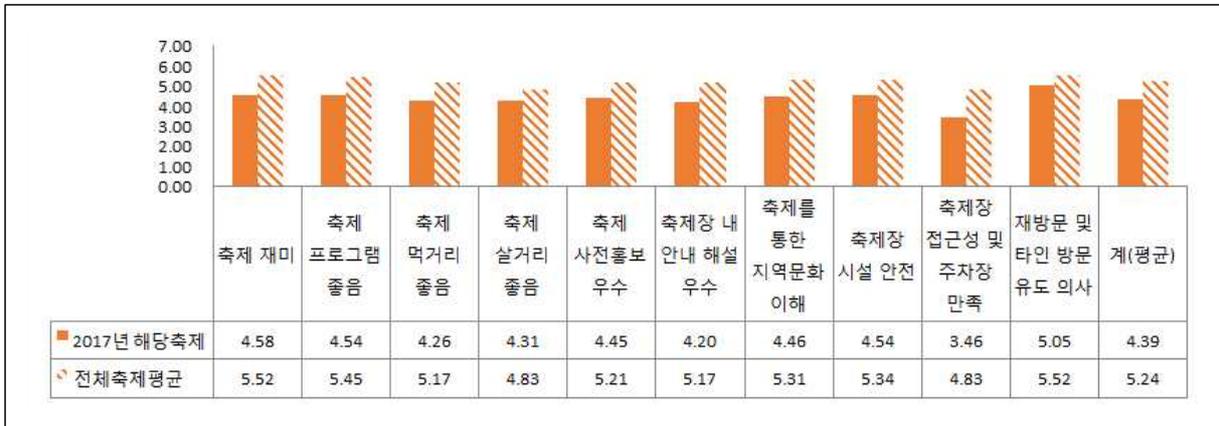


18

강릉 커피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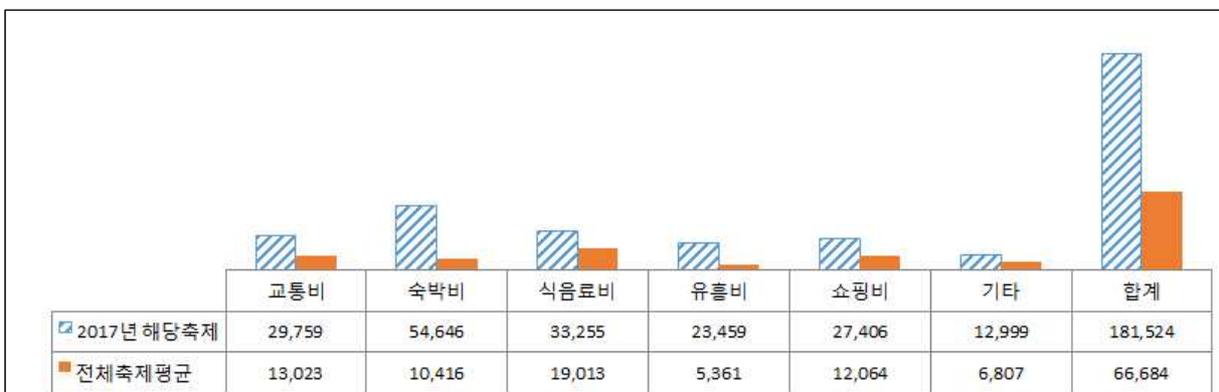
만족도

강릉 커피축제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에 비해 낮았으며, 신규축제인 관계로 전년도 비교는 불가능함. 항목별로는 모든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 전반에 걸친 새로운 접근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커피라는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차별화된 스토리, 프로그램, 시설 개선 및 안내, 홍보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272.2%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음.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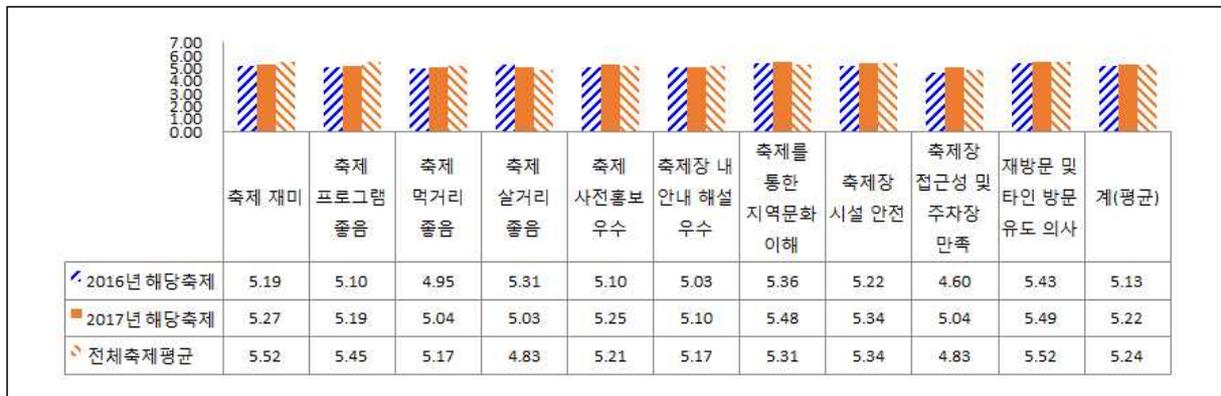


19

괴산 고추축제

만족도

고추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나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는 낮았음.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살거리를 제외한 모든 만족도에서 높았으나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 재미, 프로그램, 먹거리, 안내해설, 재방문/추천의사 만족도가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 컨셉에 부합하고 방문객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먹거리 개발, 안내해설체계 개선 등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5,116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100.7%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숙박비·식음료비·유흥비·기타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체류시간 확대, 숙박 시설 확충, 특색 있는 지역 음식 및 축제 상품 발굴이 필요함



20

강경 첫갈축제

만족도

첫갈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며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 재방문/추천의사를 제외한 항목에서 높았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시설안전, 재방문의사/추천의사 항목에서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장으로의 접근성 개선 및 시설안전 강화 방안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9,953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103.5%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숙박비·유희비·기타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증가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숙박시설 확충 및 주변 지역과 연계한 즐길거리 발굴이 필요함



21

부여 서동연꽃축제

만족도

서동연꽃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다소 향상되었으며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도 높았음. 항목별로는 전체 축제 평균에 비해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전년 대비 사전홍보, 지역문화 이해, 시설안전, 재방문/추천의사 만족도는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 발굴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전략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615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66.0%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유희비는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전반에 걸친 수익창출 방안과 체류시간 확대 방안이 필요함



22

서산 해미읍성축제

만족도

해미읍성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및 2017년 전체 축제 평균 대비 모두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축제 재미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낮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과 방문객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발전방안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9,514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31.2%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교통비·숙박비·식음료비는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야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숙박객 유도, 다양한 축제 상품 개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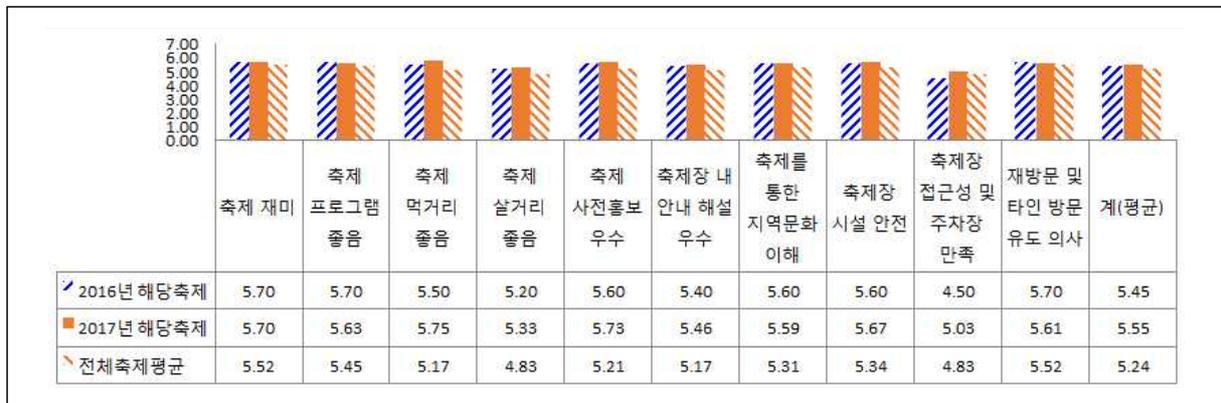


23

김제 지평선축제

만족도

지평선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며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축제 프로그램, 지역문화 이해, 재방문/추천의사 만족도가 낮았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지역 컨셉에 부합하고 방문객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발굴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1,577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51.9%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과 함께 주변 지역과 연계한 체류시간 확대 방안이 필요함



24

무주 반딧불축제

만족도

반딧불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와 2017년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먹거리, 살거리,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가 낮았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먹거리, 접근성 및 주차장, 재방문/추천의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 메뉴 및 특산물 개발이 필요하고 주차장 등 교통체계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9,762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92.2%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식음료비·유희비·쇼핑비·기타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쇼핑비는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특색 있는 축제 상품 발굴 및 향토 음식을 활용한 메뉴 개발 등이 필요함



25

순창 장류축제

만족도

장류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는 높았음.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재방문/추천의사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해서는 축제 재미,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축제 모니터링을 통한 발전방안이 요구되며 특히, 축제 컨셉 및 트렌드에 부합하는 축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6,393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63.2%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교통비·식음료비·쇼핑비는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특색 있는 축제 상품 발굴 및 향토 음식을 활용한 메뉴 개발 등이 필요함



26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만족도

와일드푸드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며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축제 프로그램, 사전홍보, 지역문화 이해,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재방문/추천의사 만족도가 감소했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인 살거리 향상 방안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68,645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167.3%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숙박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증가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체류시간 확대 및 지역 숙박시설과의 연계 전략, 특히 전주시로의 숙박객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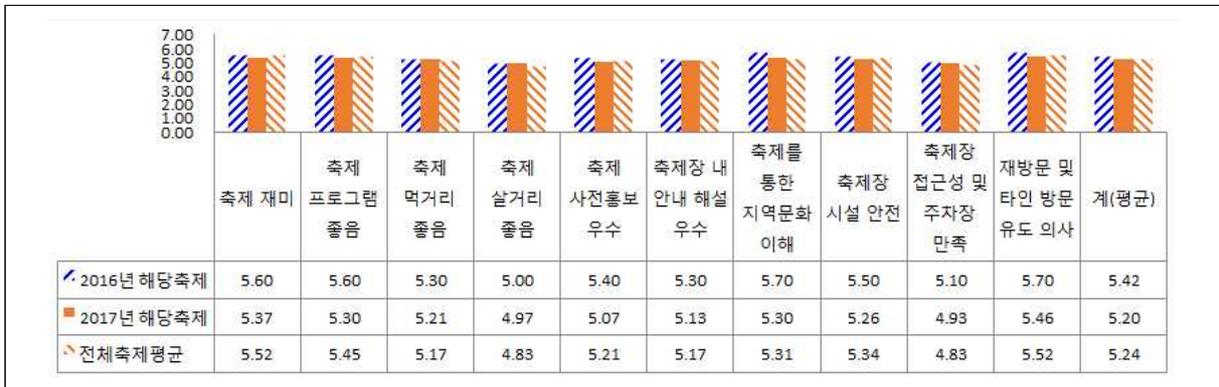


27

고창 모양성제

만족도

모양성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도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낮았으며 전체 축제 평균에 비해 축제 재미, 프로그램, 사전홍보, 안내해설, 지역문화의 이해, 시설 안전, 재방문/추천의사 만족도가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접근 전략이 요구되며 특히, 축제 컨셉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발굴, 시설안전 및 안내해설체계 개선, 다양한 홍보전략 수립 등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5,746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140.3%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숙박비·기타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숙박비는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체류시간 확대 및 야간 프로그램 강화, 지역 숙박시설과의 연계 전략 등 숙박객 증대 방안이 필요함



28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만족도

신비의 바닷길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및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접근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 전반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특히, 축제 컨셉에 부합하고 방문객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발굴, 시설 개선, 다양한 홍보전략 수립 등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3,379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94.0%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식음료비·쇼핑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교통비·식음료비·쇼핑비는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지역 특유의 향토음식 및 메뉴 개발, 차별화된 축제 상품 발굴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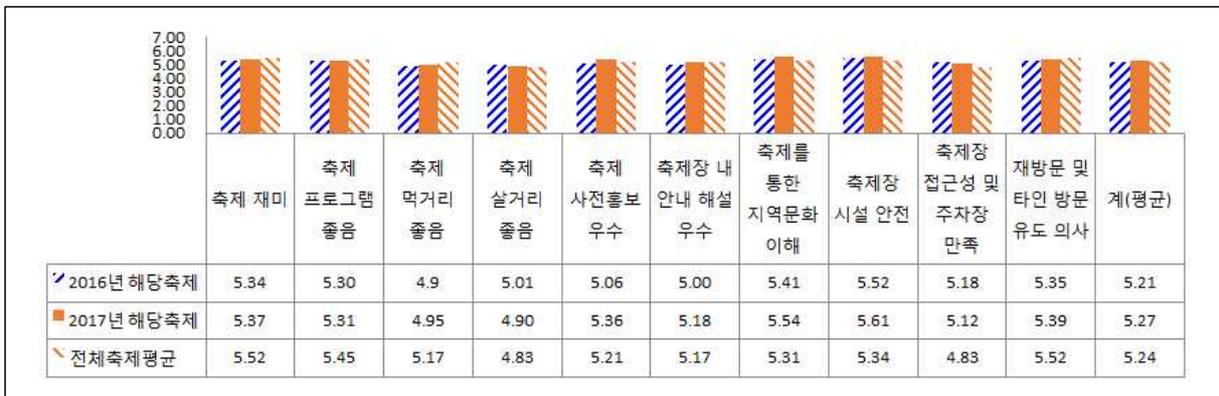


29

강진 청자축제

만족도

청자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며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살거리,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가 낮았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 축제 재미, 프로그램, 먹거리, 재방문/추천의사 만족도가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 컨셉과 방문객 욕구에 부합하기 위한 축제 스토리 및 프로그램 발굴 등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0,295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125.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유희비·기타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증가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다양한 즐길거리, 체험상품 개발이 필요함



30

담양 대나무축제

만족도

대나무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나 2017년 전체 축제 평균에는 미치지 못함.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사전홍보, 안내해설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향상되었으나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먹거리, 살거리,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만이 높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 컨셉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발굴 및 적극적인 사전 홍보, 안내해설체계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735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70.8%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교통비·유희비는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특색 있는 축제 상품 및 특산물 발굴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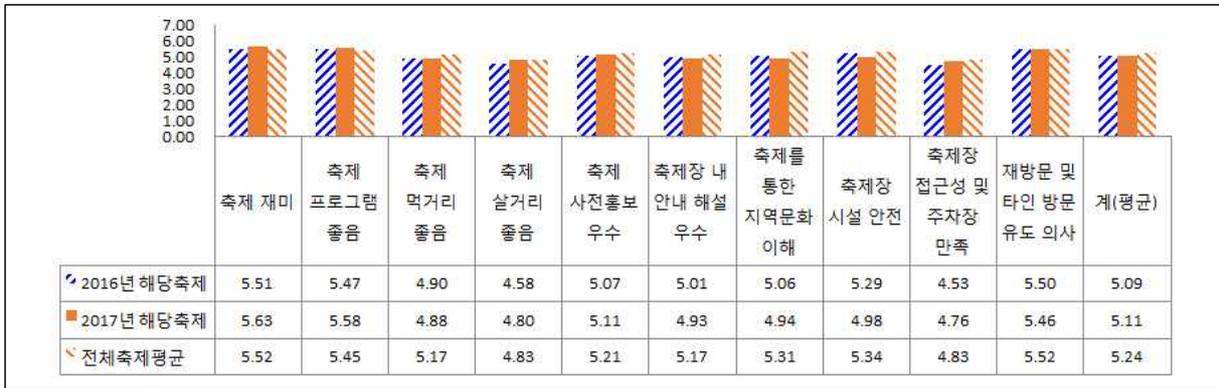


31

정남진 장흥 물축제

만족도

정남진장흥물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나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는 낮았음.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먹거리, 안내해설, 지역문화 이해, 시설 안전, 재방문/추천의사 만족도가 낮았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축제 재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먹거리, 살거리 발굴 및 축제 안내/정보체계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1,309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122.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쇼핑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교통비·숙박비·식음료비는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체류시간 확대 및 특색 있는 축제 상품 발굴,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32

보성 다향대축제

만족도

다향대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나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는 낮았음.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향상되었으나,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살거리, 지역문화 이해, 시설안전 등을 제외한 항목에서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 컨셉 및 방문객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전략, 축제 안내/정보체계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5,909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94.2%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식음료비·유흥비·쇼핑비·기타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교통비·식음료비·유흥비·쇼핑비는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장 내 다양한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개발을 통한 수익창출 방안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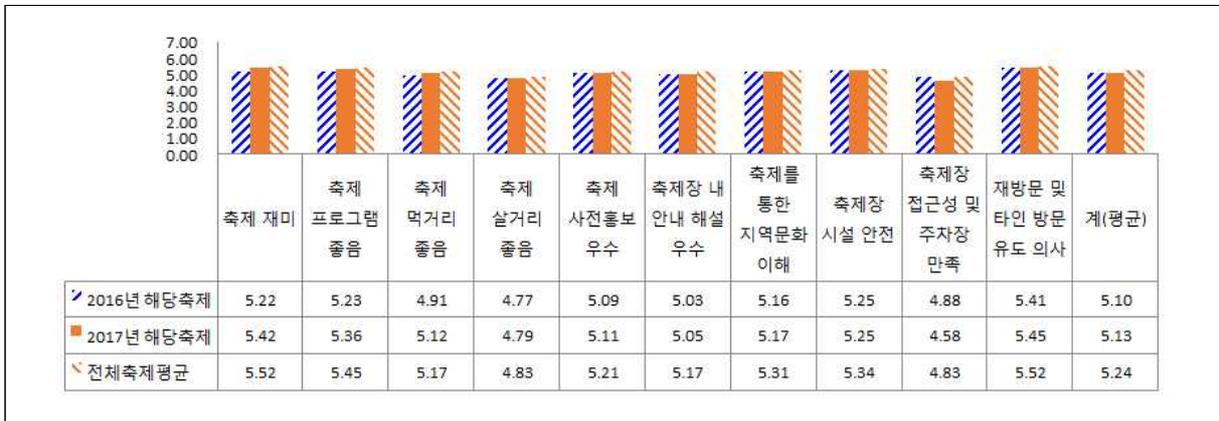


33

영암 왕인문화축제

만족도

왕인문화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나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는 낮았음.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 외에는 모두 높았으나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모든 항목에서 낮게 나타남. 전국 수준의 축제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축제 모니터링 및 축제 트렌드에 부합하는 발전계획 수립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4,669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48.3%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유희비·쇼핑비·기타비는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체류시간 확대 및 특색 있는 축제 상품 발굴이 필요함



34

문경 찻사발축제

만족도

찻사발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나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는 낮았음.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축제 재미, 프로그램, 시설안전, 접근성 및 주차장, 재방문/추천의사 만족도가 낮았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축제 재미, 프로그램, 먹거리, 사전홍보, 재방문/추천의사 만족도가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문객 욕구와 트렌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발굴이 무엇보다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6,364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127.6%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식음료비·기타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교통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대비 증가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체류시간 확대 및 특색 있는 축제 상품 발굴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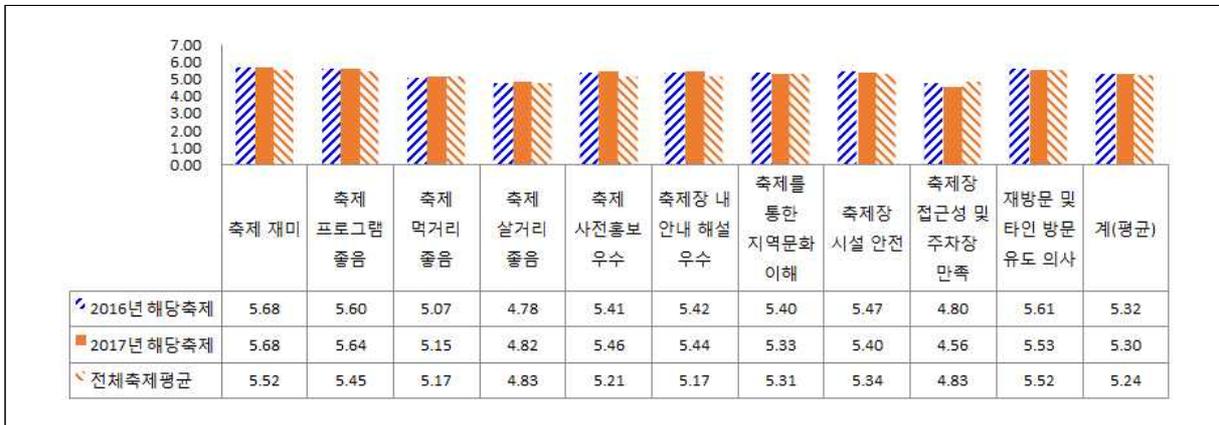


35

봉화 은어축제

만족도

은어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는 높았음.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지역문화 이해, 시설 안전, 접근성 및 주차장, 재방문/추천의사 만족도가 낮았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먹거리, 살거리,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가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장 기반시설 및 교통체계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6,985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71.4%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기타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교통비·쇼핑비는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체류시간 확대 및 특색 있는 축제 상품 발굴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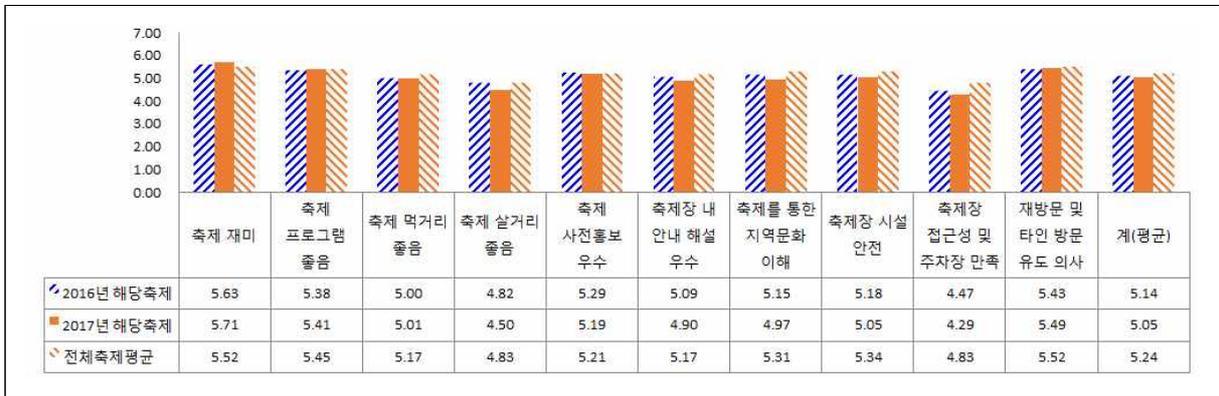


36

포항 불빛축제

만족도

국제불빛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도 낮았음.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축제 재미, 프로그램, 재방문/추천의사를 제외한 항목의 만족도가 감소하였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축제 재미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 전체의 모니터링 추진 및 방문객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발전계획 수립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8,933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77.4%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숙박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교통비·유희비·쇼핑비는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체류시간 확대 및 특색 있는 축제 상품 발굴이 필요함



37

고령 대가야체험축제

만족도

대가야체험축제의 만족도는 전년과 동일했으나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는 낮았음.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축제 재미, 프로그램, 먹거리, 접근성 및 주차장, 재방문/추천의사 만족도가 낮았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축제 재미, 프로그램, 먹거리, 살거리, 시설안전, 재방문/추천의사 만족도가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 컨셉 및 트렌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먹거리, 살거리 발굴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486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40.9%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교통비·숙박비·유흥비·쇼핑비는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체류시간 확대 및 특색 있는 축제 상품 발굴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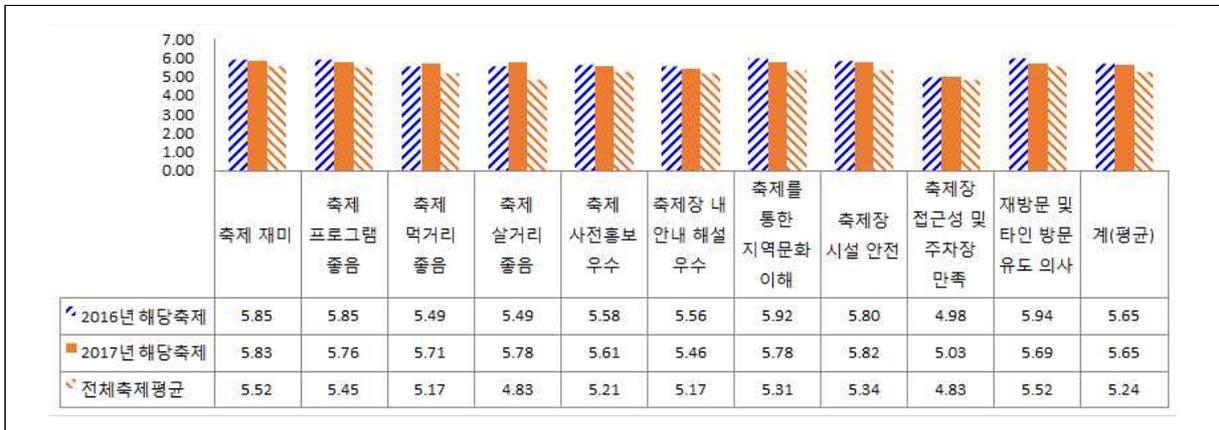


38

산청 한방약초축제

만족도

한방약초축제의 만족도는 전년과 동일했으며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 높았음.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축제 재미, 프로그램, 안내해설, 지역문화 이해, 재방문/추천의사 만족도가 낮았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낮은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통체계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6,538원 증가하고 전국 평균의 180.5% 수준으로 크게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식음료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교통비·숙박비는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체류시간 확대 및 특색 있는 축제 상품 발굴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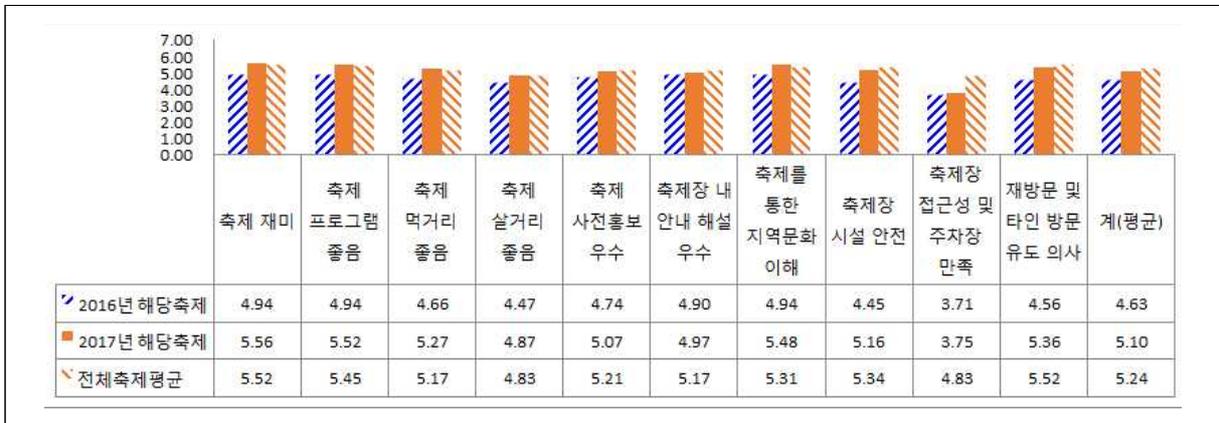


39

통영 한산대첩축제

만족도

한산대첩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나 2017년 전체 축제 평균보다는 낮았음.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향상되었으나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사전홍보, 안내해설, 시설안전, 접근성 및 주차장, 재방문/추천의사 만족도가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전 홍보 및 안내/정보체계 개선, 축제 기반시설의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8,594원 감소하였으나 전국 평균의 133.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았으며, 교통비·숙박비·식음료비·유희비는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체류시간 확대 및 특색 있는 축제 상품 발굴이 필요함



40

밀양 아리랑대축제

만족도

밀양 아리랑대축제의 만족도는 2017년 전체 축제 평균에 비해 낮았으며, 신규축제인 관계로 전년도 비교는 불가능함. 항목별로는 먹거리, 살거리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 컨셉 및 방문객 욕구에 부합하는 축제 컨셉 및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며 축제 홍보, 안내/정보체계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69.0%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체류시간 확대 및 특색 있는 축제 상품 발굴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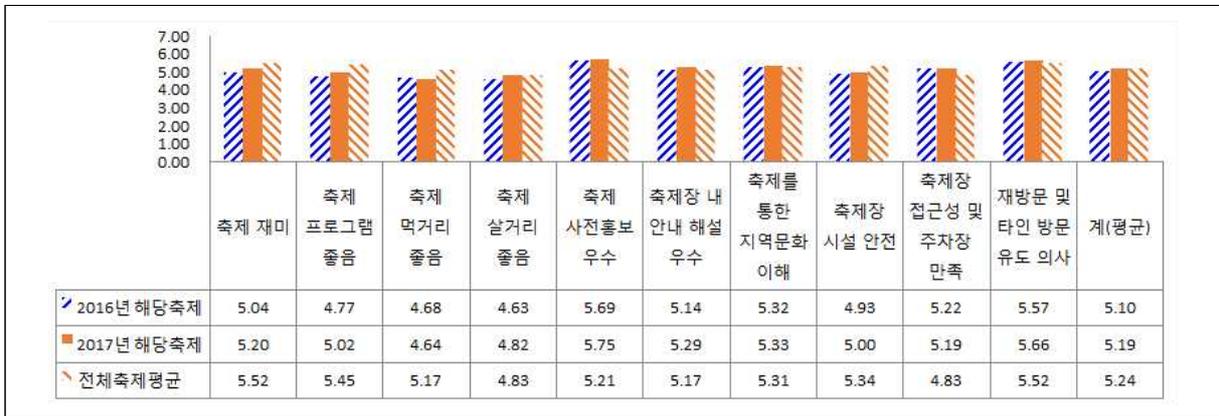


41

제주 들불축제

만족도

들불축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나 2017년 전체 축제 평균에 비해 낮았음. 항목별로는 전년 대비 먹거리,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도가 낮았으며, 전체 축제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축제 재미, 프로그램, 먹거리, 살거리, 시설안전이 낮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 컨셉과 방문객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소득 창출을 위한 먹거리, 살거리 발굴이 요구됨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7,748원 감소하고 전국 평균의 69.6%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기타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감소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 체류시간 확대 및 특색 있는 축제 상품 발굴이 필요함



2017 문화관광축제 >>>

IV

전문가 현장평가 축제별 결과



K o r e a C u l t u r e & T o u r i s m I n s t i t u t e

개 요

- 문화관광축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과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질적 제고를 위하여 매년 문화관광축제에 대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현장 평가를 위하여 관광 및 문화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외부평가단을 구성하고, 각 축제별로 민간전문가(3인), 문화체육관광부(1인) 등 4명의 평가위원은 축제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직접 축제 현장을 방문하여 ‘참관평가 항목기준’에 의거 평가함
 - 축제 기획 및 콘텐츠(45점), 축제 운영 (25점), 축제의 발전역량(20점), 축제의 효과(10점)

〈2018년 문화관광축제 참관평가 항목기준〉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1) 축제기획서	○ 축제 기획서의 전반적인 분야(축제 목적 및 방향, 콘텐츠, 운영, 발전가능성 등)
2) 축제의 특성/ 축제 콘텐츠	○ 축제 주제(소재)관련 대표 프로그램(Killer Contents)의 완성도
	○ 타 축제와의 소재 및 프로그램 차별성과 매력성 - 축제 방문객에 위한 특색있는 참여·체험 프로그램/축제 캐릭터 개발 등
3) 축제의 운영	○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관된 프로그램 개발 - 연계투어/ 체류형 야간프로그램 등
	○ 자원봉사자 교육시스템 등 행사장내 운영 효율성 ○ 축제 기획·운영 전문성 및 평가결과의 활용정도 ○ 축제 홍보의 효율성과 적절성 등 - 타 지자체 등과 축제 홍보·마케팅 협업, 지역 외 전국단위 홍보 등
	○ 접근성·공간배치 등 행사장 환경 및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운영 적절성
	○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협조 수준
4) 축제발전성	○ 축제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등 관람객 안전관리 체계 확립
	○ 지방자치단체장의 육성의지 등 성장가능성 ○ 안정적인 축제(상설)조직체 구성 및 운영여부, 축제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 여부
5) 축제의 성과	○ 축제 관련 관광객 유발 정도 및 국내외 인지도(홍보효과 등)
	○ 방문객 만족도 및 지역경제 효과
	○ 방문객 수 집계외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정도

1

서울 한성백제문화제

(1) 개요

- 기간 : 2017년 9월 21일(목) ~ 9월 24일(일) / 4일간
- 장소 : 올림픽공원 일대
- 주최 : 송파구청
- 주관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개·폐막식 및 축하공연
 - 특화 프로그램 : 한성백제 혼불 채화식, 몽촌토성 성곽돌기, 역사문화거리행렬 등
 - 체험 프로그램 : 한성백제 어울마당, 전통놀이 및 문화체험 등

(2) 총 평

■ 잘된 점

- 올해 축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 축제기간 4일간 4명의 왕을 선정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매우 적절한 프로그램의 기획이었음
- 축제 역사문화거리 행렬을 예년과 달리 장소를 이전하여 지역의 대표관광자원인 롯데월드타워와 연계한 점 또한 연계관광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 축제 예산의 많은 부분을 기업을 협찬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축제 진행에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
- 관광객의 축제장소로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축제장소가 시민들의 일상 생활권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점은 타 축제가 가질 수 없는 장점임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장기적 관점에서 축제의 장소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축제 개최를 위한 축제 장소선정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축제 홍보를 위한 다양한 도구 활용에 있어서 홈페이지, 모바일 등에 대한 축제 홍보의 효율

- 성이 다소 떨어짐. 쉬운 접근성과 정보 등 수요자 관점에서의 홍보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체험부스의 공간구성이 효율적인 동선과 체험, 판매 등 속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 축제장내 화폐를 교환하여 축제장에서 사용하게 하는 의도는 좋으나 환전 시 신용카드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중심의 먹거리 장터 운영의 의도는 좋으나 신용카드사용과 메뉴의 중복성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축제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기획의 명확성과 주제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문화유산인 백제유산 가운데 한성 백제를 국내외 홍보하기 위한 축제로서 축제를 기획하였고 올해엔 다소 추상적인 한성백제 알리기보다 한성백제 시대 4명의 왕을 선정하여 축제중 해당 왕의 날로 명명하고 그 시대의 사건을 프로그램화 함으로서 축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축제주제와 무관한 프로그램은 체험마을과 분리하여 과거와 현재를 표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임 ○ 대표 프로그램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프로그램의 관광객 인식도가 아직 미진함. 한성백제시대의 체험마을은 축제의 대표 체험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주제를 표현함 - 거리퍼레이드의 경우 백제와 무관한 소재를 제외하였고 매사냥시연, 백제각저, 공성전체험은 가족 동반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음 - 공성전체험은 역사적사실과 현재의 게임인 앵그리버드의 퓨전을 통해 표현한 점이 참신함 ○ 지역 특색문화 소재 활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 몽촌토성을 활용한 성곽돌기, 별헤는 밤 프로그램은 축제의 정체성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올해 처음선보인 도미나루 소원의 배는 도미나루에 대한 고증이 뒷받침된다면 송파구만의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음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홍보 등 관광객 유치활동의 적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동반 어린이 고객을 타겟으로 한 홍보는 성공적이며 지역의 타 축제(석촌호수 벚꽃축제)와의 연계한 홍보효과가 큼 - 모바일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현수막 등의 오프라인 광고는 최소화하고 모바일광고 등에 집중함으로써 홍보효과를 향상시켰음 - 모바일 및 홈페이지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임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 현장운영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및 5호선 올림픽공원역, 9호선이 내년에 개통예정으로 교통수단은 매우 훌륭한 편임 - 몽촌토성을 활용하여 한성백제를 잘 표현하고 있으나 올림픽공원 전체를 축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이니 체험마을 내 홍보부스, 먹거리장터 시설물의 통일이 필요함. 또한 먹거리 장터의 음식메뉴의 다양성 혹은 차별성이 떨어짐 - 미야보호센터, 구급차대기, 이동파출소, 안전전담부스배치와 위험지역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여 위험방지를 노력함 ○ 인적 현장운영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요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은 사전교육 및 현장교육을 통해 행사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친절하나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해 보임 -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중심의 음식부스운영은 매우 체계적임
3) 축제의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사회에 뿌리 내림 정도 및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성백제추진위원회에 주민대표자의 참여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축제를 진행함 - 먹거리 장터의 판매 및 조리 공간과 취식공간의 분리는 매우 적절한 운영으로 보여짐 -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먹거리 장터는 지역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축제 추진체계의 체계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축제추진조직에 전담팀을 구성한 점은 체계적 접근이며 향후 축제의 전문성과 축제고도화를 위한 전문 인력의 채용이 필요함 - 축제담당자나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은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자립 및 자생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축제예산의 50%를 기업협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험부스 등의 판매 등을 통해 재정자립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으며 유료화, 기념품 개발 등을 통한 자립방안을 마련해야 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분석의 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 집계를 위한 부스설치 및 안내 현수막 게시 등을 충실히 수행함 - 관광객 추산의 정확성을 위해 전문 직원 배치 및 평가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인근지역 관광활성화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초고왕 어가행렬 신설, 역사문화거리 행렬의 구간변경을 통해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올림픽공원의 운영시간 등의 제약이 있다면 축제장의 이동 또는 확대를 통해 야간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

2

부산 광안리어방축제

(1) 개요

- 기 간 : 2017년 5월 12일(금) ~ 5월 14일(일) / 3일간
- 장 소 :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 주 최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주 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대표프로그램(3) : 어방그물끌기 한마당, 진두어화, 경상좌수사행렬
 - 주제프로그램(3) : 어방민속마을, 수문장교대식, 무형문화재공연
 - 참여·체험행사(9) : 맨손으로 활어잡기, 활어요리경연대회, 생선회 깜짝경매, 어기영차! 그물끌자, 좌수영 성벽 쌓기 및 유물발굴 등
 - 문화·공연행사(7) : 개막공연, 청년연극제, 폐막공연, 부산풍물대축제 등
 - 부대행사(8) : 윈드서핑대회, 먹거리장터, 소망등, 문화예술의거리, 비치씨네마 등

(2) 총 평

- 잘된 점
 - 광안리 해변이라는 축제장소가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며, 지역의 소규모 축제를 통합해 수영지방의 어업협동체인 ‘어방(漁坊)’이라는 역사성 있는 주제를 도입하여 규모성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나가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본 축제의 목적은 고품격 해양문화도시로 발전하고자하는 기획의도가 분명했으며, 금년에는 “꽤지나 칭칭! 수영이 들썩! 신명나는 어방!”이라는 주제로 5개 테마 30개 프로그램들이 지역주민의 주도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관람객 참여도가 높은 체험위주로 구성됨
 - 특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개막식 행사의 공연프로그램들이 가수 초청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적으로 주민 참여형으로 이루어진 점과 관람객과 함께하는 ‘어방그물끌기 한마당’은 대표프로그램으로 차별성이 돋보였고 관람객 몰입도도 높았음, 또한 30척의 어선과 햇불로 수영강 하구의 고기잡이 풍경을 재현한‘진두어화’는 야간프로그램으로서 적절한 기획이었다고 판단됨

- 전반적으로 축제의 기획과 콘텐츠의 도입 및 운영 등에 있어서 수군과 어민간의 공동체적 어로활동인‘어방’이라는 주제와 부합시키려는 의도가 좋았으며, 킬러콘텐츠인 어방그물끌기 공연행사가 관람객 참여형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연자들이 외국인관광객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였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주제인 ‘어방(漁坊)’이라는 용어는 일반관광객들에게 생소함으로 캐릭터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어방의 개념과 이미지 전달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어방그물끌기 한마당은 스토리 전달이 미흡하여 이해도가 떨어졌으며, 공연장 관람석은 앞줄에 뒷줄로 이어지는 통행로와 그늘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축제장의 광범성(광안리해수욕장 전역)으로 인해 주요프로그램 개최시기가 중복되는 현상을 초래함으로 시간조정 및 방송안내 등이 요구됨
- 어방 및 병영체험장을 좀 더 규모성 있게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병영시범의 무대 뒤로 관람객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등 산만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몰입도가 떨어짐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어촌민속마을 및 어등 설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규모화 및 물고기의 종류에 대한 이해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어방그물끌기 행사는 신기성이 높은 체험으로, 미군이나 외국인 등을 참여시켜 어방의 협동정신을 한미 또는 글로벌 협동문화로 승화시키는 점도 고려해 볼만함
-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서 외국어 홍보자료 및 안내요원 배치를 보완하고, 외국인들이 쉽게 안내부스를 찾을 수 있도록 부스 타이틀을 크게 할 필요가 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으로 경상좌수영의 수군과 양민들의 협력문화인 ‘어방’이라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축제의 기획의도가 명확하며, 어방그물끌기 한마당, 경상좌수사행렬, 진두어화 등을 대표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지난해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특히 ‘어방’이란 주제는 타 지역의 축제와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며 3개의 대표 프로그램이 지역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체험형 콘텐츠로 승화시킨 점이 돋보였음 ○ 어방그물끌기 한마당에서는 즉석에서 관람객을 참여시켰으며, 관람객과 함께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올려 잡힌 물고기를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등 관람객과 동화된 콘텐츠로 발전시켰으며, 수영구 어선들이 참여로 이루어진 진두어화는 야간프로그램으로서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기에 적절한 콘텐츠였다고 사료됨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로 도입된 좌수영 성벽쌓기 및 유물 발굴 등 9개의 참여·체험프로그램들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있었음 ○ 축제장의 광범성으로 인한 행사의 분산 개최에 따른 산만한 분위기를 해소하여 규모화 및 집적화된 축제의 이미지 전달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지로서 인지도가 높은 광안리 해수욕장은 ‘어방’이라는 주제의 축제장으로 적합하며, 해변에 줄지어 배치된 갈대 파라솔 쉼터의 조성은 관람객들에게 이색적인 분위기를 선사함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체험장을 전통적인 모습으로 꾸미려는 노력이 돋보였으며, 공간을 주제별로 구분하고 이동구간에 물고기 등 전시, 버스킹 공연 등으로 이동 동선의 지루함을 최소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 어방수라간을 확대 운영하여 물고기 맨손잡이체험, 그물끌기 체험 등에서 잡은 횡감 물고기를 손질해 주는 등 축제장내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한점도 관람객의 호평을 받았음 ○ 어방민속마을의 전통놀이 체험은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은 곳으로 이 곳에는 외국인 편의시설을 겸한 안내부스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축제는 관 주도형축제이나 수영구에서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획부터 실제 추진 과정까지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높은 축제로 발전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 민락어촌계의 참여로 먹거리장터와 진두어화를 연출하는 등 지역민의 축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며 발전의지가 강함 ○ 아직까지 관주도형 성격이 강함으로 전문화된 조직이 필요하며 재정자립을 위한 유료체험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축제는 우리 선조들의 협동정신이 녹아들어있는 ‘어방’이라는 특이한 전통문화와 고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사료됨 ○ 축제장소가 해수욕장이라는 특성상 주 출입구가 없는 개방형으로 방문객 집객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나 특정 지점을 선정하여 집계요원을 배치하는 등 ‘방문객 집계지침’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였음 ○ 수영8경의 하나인 ‘진두어화’를 야간대표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관광객의 숙박을 유도한 점과 소망등 및 어등 설치 등으로 야간의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려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 해수욕장 주변의 횡집단체에서 횡집을 운영하며 저렴하게 횡감을 제공하는 등 축제시기의 일시적인 수입보다는 인심 좋은 곳이라는 홍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 바람직했음 ○ 광안리 주변의 주요관광자원 소개는 미흡했으며, 어촌민속마을의 야간프로그램개발, 어등설치의 규모화 등을 모색했으면 함

3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1) 개요

- 기간 : 2017년 5월 3일(수) ~ 5월 7일(일) / 5일간
- 장소 : 대구 중구 약령시 일원
- 주최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 주관 : (사)약령시보존위원회
- 주요행사
 - 식전행사 : 고유제(약령시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제례의식)
 - 개막행사 : 어지전달, 개막식, 세리모니, 2017명 정성탕 나누기, 축하공연
 - 본 행사 : 200가지 한약재 전시, 전승기에 경연대회, 약령청춘투어, 동의보감 진서의 퍼레이드 등 5개 분야 60여개 프로그램

(2) 총 평

■ 잘된 점

- 2017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는 359년 대구 약령시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강조한 차별화된 콘텐츠 운영과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약령시의 부활과 한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방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고 특히 매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전문적이고 완성도 있는 축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는 다른 축제와 차별화 형태의 기획과 프로그램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 특히 축제장의 협소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축제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는 축사, 개회사, 내빈소개, 공연 등의 개막식을 역사적 사실인 어지전달을 통해 개막식을 연출하였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무게감 있는 개막공연을 대신해서 가볍고 재미있고 스토리가 확실한 주제공연을 마당극 형태의 뮤지컬로 구성하여 축제기간동안 반복적으로 공연함으로 주제전달에 크게 기여함
- 한방문화축제라는 테두리 아래 약초터널, 약초동산, 200가지 한약재 전시관, 한약방체험, 한방 환 만들기, 사상체질 체험관, 한방힐링체험(한방진료 및 무료상담), 한방 족

욕체험 등 한방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특히 한 의사 등의 전문가 상담과 진료를 통하여 치료 혜택을 누리는 등 연결성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돋보임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예전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에 대한 큰 지적이 젊은 층을 어떻게 축제장으로 흡수 할 것인가와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한 재미를 줄 것인가 이었음
- 금년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는 아직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많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약령시의 역사와 전통, 우수성 등에 고민을 할 시기임. 대구가 왜 한방문화축제를 개최하는지 약령시를 통하여 확실히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음
- 약령시 일원을 중심으로 축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약령시 상인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나 아직은 전체 상인이 축제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 같지는 않음. 축제를 주관하고 주최하는 측에서는 약령시 상인들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축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축제 전시체험판매 부수들이 도로중앙을 점유하고 있고, 상가에서는 약재판매를 위해 가판대를 설치하여 협소한 축제장의 어려움을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이를 위해 약령시 동편에서 서편으로 일자형으로 구성된 축제장을 작은 부스들만이라도 골목으로 조금씩 분산시켜 관람객의 동선을 다양하게 만들어 조금이나마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장소인 약령시는 시장거리형의 소로형으로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축제와 달리 프로그램의 변화와 참신한 구성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획이 탁월하였음 - 특히 개막식의 경우, 다른 개막식에서 시행되는 개회사, 축사, 식전공연, 개막공연 등의 순서를 과감히 없애고 어지전달, 개막 세레모니 겸 내빈소개, 축하공연(주제공연 갈라쇼), 정성탕 퍼포먼스, 행사장투어 등으로 색다른 개막과 짧은 시간으로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훌륭한 개막식이었음 - 주제공연의 경우도 15분 정도의 짧은 뮤지컬로 젊은이들에게 한약재의 우수성을 표출하는 스토리로 부담 없이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잘 꾸며졌고, 무엇보다 마당극처럼 관람객을 공연에 참여시킴으로 관람객의 몰입도와 재미가 배가 되었음. 단,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관람객 수가 적어서 아쉬움이 있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초동산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약초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200가지 한약재 전시에서 한약재를 직접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 보는 경험을 하게 되며, 사상체질 체험관과 한방힐링센터에서 체질분석과 한방진료 체험, 한방 환 만들기와 한약방 체험 등, 한방이라는 큰 주제로 연결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구성하였음 ○ 금년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의 기획의도는 ‘젊음’과 ‘역사성’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축제기간 내내 축제장 곳곳에 버스킹, 뮤지컬, 프린지 등을 편성·운영하여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자 하였으나 축제소재인 한방문화의 관련성이 떨어져 축제와 겹도는 느낌을 주었음 ○ 359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 약령시의 우수함을 축제장 곳곳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음. 박물관을 통해 약령시의 역사와 전통을 알 수 있지만 축제장을 둘러보고 축제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느낄 수 있도록 축제장을 꾸미고 프로그램에 부각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메인무대 1곳과 보조무대 2곳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서편무대의 경우는 버스킹 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편무대는 버스킹과 주제공연으로 활용이 다소 부족하고 더운 날씨에 관람객 없는 버스킹은 공연자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음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 구성에 있어 전시, 체험, 판매부스가 기존에는 몽골텐트로 운영되었지만, 금년에는 한약방 체험마당은 전통초가형태, 200가지 한약재 전시관 및 한방 환 만들기 체험관은 기와형태로 사면을 개방하였고, 그리고 중간에 약초터널, 공연장, 거리무대를 조성하여 시야의 개방성 확보 및 전통한방테마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구축하였음 ○ 축제 홍보를 위하여 다른 축제들과 동일하게 온·오프라인과 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대구 미군부대 군인들의 축제방문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 다른 축제에서도 SNS를 이용하여 축제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 아니라 대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인들을 대상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홍보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였음 ○ 축제장 안내소는 동편, 서편, 수협은행 안내소 등으로 운영요원, 자원봉사자, 통역안내원 등 적절히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행사시간, 프로그램 위치 등의 미 숙지, 근무시간 미 협의, 해설자의 장소 부재, 통역안내요원의 비적극적 서비스 등, 안내소에 배치되어 있는 요원들에 대한 보다 세심한 교육과 사전협의를 통한 운영의 묘가 필요함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사)약령시보존위원회 사무국은 약령시한의약박물관을 위탁·운영하는 상시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및 조직, 운영의 안정감이 있음. 특히 축제 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 약령시 상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약차방이나 인삼튀김은 상업적 목적보다는 시골장터의 구수한 인심을 느끼게 하였고, 구역별로 위생·안전, 편의시설(식수, 화장실 등) 등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예산의 대부분이 지원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축제 수익금은 일부 체험프로그램과 약차방 운영 등 10% 미만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재정자립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사)약령시보존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구광역시와 중구가 같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임 ○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의 발전과 성공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은 약령시 상인들의 몫이므로 (사)약령시보존위원회와 대구광역시, 중구는 약령시 상인들과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축제의 발전이 곧 약령시의 발전이며 상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축제기획, 프로그램, 운영 등 모두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임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 인근에는 젊은이의 거리인 ‘동성로’와 근대문화골목 등이 위치하고 있어 축제관람을 목적으로 온 일부 타지역 방문객에게는 연계관광상품 운영을 통한 체류시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저녁 7~8시 이후에 비계획적으로 유입되는 방문객도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약령성문, 약초터널, 약령 포토존, 약초동산 등 경관조명을 활용한 야간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를 주최/주관하는 측은 축제를 통한 약령시의 한약재 판매는 증대 되었다고 하는 반면 약령시 몇몇 상인들은 축제를 통한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집계를 통하여 정확한 지표를 제시하여 축제의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4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1) 개요

- 기간 : 2017년 8월 11일(금) ~ 8월 13일(일) / 3일간
- 장소 : 송도 달빛축제공원
- 주최 : 인천광역시
- 주관 : 인천관광공사, (주)에스컴
- 주요행사 :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펜타슈퍼루키, 라이브 딜리버리, 사인회
 - 공연 프로그램
 - 펜타포트 스테이지(메인스테이지):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 라이브 콘서트
 - 드림 스테이지(서브스테이지): 락을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실력과 뮤지션들의 개성 넘치는 라이브 공연
 - 하이네켄 스테이지(서드 스테이지):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즐길 수 있는 가설무대, 밴드공연, 페레이드, 영화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부대프로그램
 - 아티스트 Meet & Greet : 국내외 아티스트 사인회 약 15팀
 - 이벤트 존 : 지역단체 및 협찬사와 함께 구성하는 존으로 각종 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 색다른 페스티벌의 재미를 주는 콘텐츠
 - 기타
 - 푸드 존 : 질 높은 음식과 음료를 합리적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시설 운영
 - 캠핑 존 : 공연장 옆에 대규모 캠핑공간을 구성하여 2박 3일의 페스티벌을 온전히,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운영

(2) 총 평

■ 잘된 점

- 2012 ~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6년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된 국내의 대표적 대중음악축제임

- 축제 장소인 달빛축제공원은 지속적으로 음악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넓은 녹지와 주위에 별다른 시설물이 없어 주민으로부터 민원발생의 가능성도 적고, 축제의 운영 역시 홈페이지, 블로그 등 사전안내 뿐 아니라, 꽃가마 셔틀버스, 현지 정보안내, 주차장 관리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 축제장 내 각 부스 및 참여업체들의 입점 및 홍보시설이 잘 되어 있어 축제장의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축제장소인 달빛축제공원이 갖는 지리적 독립성은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유료 축제의 특성상 울타리를 치고 메인 출입구로만 이동이 가능함에 따라 관람객들과 지역주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임
- 아울러 운영관리에 있어 대행업체가 주로 수행하고, 대형 스폰서기업을 중심으로 축제장 내 부스 운영권을 부여함에 따라 지역의 업체들이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음
- 또한 축제 공연 역시 해외 유명 음악가들을 초청하여 일회적으로 공연하듯이 유명 아티스트 중심으로 라인업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반면, 축제와 지역이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노력이 부족함. 물론 ‘루키프로젝트’나 ‘찾아가는 공연(라이브딜리버리)’이 있으나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의 규모에 비해 인지도나 락페스티벌에서의 영향력은 미미한 편임
- 종합적으로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는 음악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축제가 가져야 하는 지역과의 연계에 대한 노력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락”을 소재로 하여 공연예술로 해석한 기획임. 기획자체의 차별성 보다는 음악가들의 지명도를 통한 차별화에 핵심을 두고 있음 ○ 프로그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예술축제로서 프로그램의 특성은 시대를 선도하는 프로그램으로의 구성보다는 대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프로그램의 지역적 연계를 통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락페스티벌이 아닌, 인천에서만 할 수 있는 락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미약함. 물론, 펜타슈퍼루키나, 라이브 딜리버리 등의 지역과의 연계 노력이 있었지만 피상적인 노력에 불과하고, 올해의 경우 펜타슈퍼루키 공연은 인천이 아닌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축제의 지역화 노력은 미흡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로서 '락'의 다양한 활용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락'을 축제의 소재로 활용함에 있어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단순한 공연행사로 운영하는 아쉬움이 있음. 축제 소재로서 '락'은 공연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지만, 축제의 기획과정에서 '공연'으로 한정함에 따라, 축제의 성과가 지역의 음악관련 인프라를 구축에 기여하지 못해, 여타의 상업적인 공연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함 ○ 비전의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축제가 가지는 비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물론 성공한 음악 축제로서 인천을 음악도시로 알리는 '도시브랜드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바도 있지만, 상업적 공연과 달리 공공재가 투입된 지역 축제로서 펜타포트음악축제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천이 가지고 있는 '락'의 메카로서의 정체성과도 연계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냄. 향후 비전의 재설정을 통해 축제가 단순한 유료상업공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비전의 수정이 요구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 내의 운영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종합상황실, 프레스센터, 티켓부스, 메인게이트, 의료센터, 경찰, 소방, 주차장 등 시설의 배치가 적절했고, 동선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스태프도 적절히 배치되어 있었음 - 다만, 축제장 내 운영관리가 매끄러웠던 반면, 귀가 시 교통안내 체계는 매우 허술하여 축제장 내 운영과 대조를 이룸. 교통안내를 따라 출구를 선택해 나가면 내비게이션에도 나타나지 않는 길로 안내하여 길을 잃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음식 부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운영기간 중 푸드 존에서 입점해 있는 외식 및 주류업체의 경우 독점운영권을 부여함에 따라 메뉴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점을 나타냄. 향후에는 지역의 외식업체와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축제홍보 등 관광객 유치활동의 적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대상 홍보는 적절하나, 외국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의 외국어 서비스가 전부일 정도로 미흡함. 축제장에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였으나 외국으로부터 축제방문을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가 명실상부 글로벌 축제로 성공하기 위해 그에 부합하는 적절한 홍보 전략이 요구됨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기획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임. 지역과의 연계는 150명의 자원봉사자와 지역에서 개최되는 라이브 딜리버리 등이 전부이며 축제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정도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평가항목	평가내용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지역주민들이 갖는 성공한 음악축제로서의 인식은 지역주민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지역사회에 뿌리내렸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축제 추진주체의 체계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축제의 운영은 전문 업체에 의한 위탁운영 형식으로 이루어짐. 다만, 현재 주관사인 (주)에스컴의 역할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즉 민간업체가 주관사로서 축제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지역축제를 운영하는 방식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러한 운영의 노하우가 지역에 축적되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 이런 점에서 현 축제의 운영방식 및 조직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여타의 축제에서 민간조직과 지역의 협력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로 성공한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운영의 노하우가 인천 내에 축적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분석의 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 집계지침에 따라 방문객 수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노력함. 계수지점도 중복측정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었음 ○ 인근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개최에 따른 인근지역 관광 활성화에 명시적인 노력은 없었음. 축제기간 혹은 축제 전후로 축제 방문객들이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미약한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5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1) 개요

- 기간 : 2017년 10월 18일(수) ~ 10월 22일(일) / 5일간
- 장소 : ACC일원, 금남로(1~3가), 총장로 일원
- 주최 : 광주광역시 동구
- 주관 : 추억의 총장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7개 분야 27개 프로그램
 - 공식행사 : 개막식, 폐막식
 - 대표행사 : 추억 전시관, 총장 퍼레이드, Again Stage, 총장으로 롤러가자(추억의 롤러장), 커뮤니티 아트 '무등산 사계'
 - 공연행사 : 시네마 파라다이스, 세대공감 콘서트, 패션 7080, 지역 우수문화공연(지역 문화그룹공연, 총장한복쇼, 총장헤어쇼, 국악의 희노애락)
 - 경연행사 : 대학가요제 리턴즈, 90년대 댄싱 경연대회
 - 교류연계 : 전국주민자치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전국 G-POP경연대회
 - 체험참여 : 총장 달빛캠핑, 총장 플레이그라운드, 추억의 챔피언(복싱체험), 나도 추억의 스타(추억의 광고 포토존), 청바지 페스티벌
 - 연계행사 : 코리아세일 페스타, 금남로공원 빛 조형물, 미술관오딧세이, 궁동예술두레마당, 우리 집 먹거리 전국요리 경연대회 등

(2) 총평

■ 잘된 점

- 축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7080세대에 국한된 축제에서 90년대 대중문화를 추억의 소재로 포함시켜 추억의 확장성을 가져오고 문화트렌드 및 소비계층의 변화를 반영하였음
- 개막식에 다양한 층의 시민합창단 참여와,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폐막식 구성 및 각 계층의 지역문화인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참여의 폭 확대 및 화합의 장 연출하고 있음

- 축제장 안내 시설(행사장 위치도, 주차장, 화장실 등)이 대폭 확대 되고 공연장에 날짜별, 시간별 안내판 설치, 교통약자 및 어르신들을 위한 퍼레이드 관람석 480석 배치와 각종 편의시설(수유실, 유모차·휠체어 대여소, 물품 보관함, 핸드폰 충전소, 장애인 화장실 등)이 신규 추가 되어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축제장이 조성됨
- 축제장 중 비교적 소외 지역에 ‘추억의 전시관’을 설치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와 동선을 연계하였으며, 지역의 청년 상인들과 상가의 상인들이 직접 참여한 매대 운영을 통하여 상인 만족도 제고 및 축제장 전반에 관람객 확대가 효과가 있음
- 축제와 연계된 부대행사로 140명의 지역 작가가 참여하여 400여점의 작품을 30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전시 판매하는 ‘무등아트 페스티벌 4’, 전시 관람에 문화예술 이벤트를 접목시킨 ‘미술관 오딧세이’, 예술의거리 상인 및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음
 - 특히 ‘공동예술 두레장터’와 시민들과 지역 작가들이 2일간 함께 만든 대규모 커뮤니티아트 퍼포먼스 ‘무등의 사계’는 작업과정에 시민과 전문작가들이 함께하는 의미 뿐만 아니라, 작품 완성 후 축제의 결과물을 구청에 기증하여 상시 전시하는 등 문화행사로 의미와 풍성한 볼거리 제공으로 하여 호평 받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다양한 안내판 및 홍보판이 설치되어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구간별 도로 입구에 설치된 홍보용 아치에 구간(골목)별 특성 설명 부재와 골목콘텐츠 부족은 아쉬움 점이 있음
- 지역 특화 음식존 운영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지역 특화음식을 발굴한 취지는 매우 좋으나, 참여 업소에서 특화 음식 외 추가 판매 음식의 종류가 많아 차별성을 살리는데 미흡함. 따라서 사전 특화음식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선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시대별로 무대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였으나, 일부 공연팀이 무대 진행자와 사전협의 없이 자의적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도심의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추억’이라는 주제를 선점하여 기획한 축제로 올해로 제14회를 맞이하고 있음. 그동안 7080세대의 추억에 대한 한계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축제의 제목을 ‘7080 추억의 충장축제’에서 ‘추억의 충장축제’로 변경하였음. 특히 문화트렌드 및 소비계층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90년대 대중문화와 관련된 추억을 소재로 확대함으로써 참여계층의 폭이 늘어나 관람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기획단계에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축제기획, 스토리텔링, 바이럴 마케팅, 디자인, 사진, 음악, 연극, 문화) 참여로 축제의 새로운 변화 시도 하고 있으며 구역별 시대 콘셉트(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부여하여 시대별 음악과, 춤, 포토 존을 통해 시간여행을 표현하고 축제 캐릭터를 시대별 특징을 살리고 있음. 단, 시대별 문화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되지 않고 있어 시대별 문화에 대한 정확한 준거가 필요함 ○ 축제의 대표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추억의 전시관은 추억관련 디피와 공간별 조성이 주제와 부합되게 이루어 졌으며, 추억의 변사극, 교실 상황극 등 프로그램 내용이 관객과 잘 어우러져 호응도가 매우 높고 축제의 주제와 잘 부합됨 ○ 축제 행사장중 가장 소외 시 되고 있는 충장로 4~5가 지역에 전시관과 공연 무대를 위치하고 대한민국 최대의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와 동선을 연계하여 지역상인 참여와 관객 유도 등이 원활이 이루어 졌으며, 행사장 전 지역에 관객이 대폭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 ○ 충장퍼레이드, 추억의 고고장과 특히, 신규 프로그램으로 90년대 추억을 불러오는 ‘대학가요제 리턴즈’, ‘90년 커버댄스’ 등은 주제와 부합되면서도 관객에게 인기 있는 대표프로그램이었으며, 지역 특화음식 발굴을 위해 처음 시행된 충장음식 특화존과 축제 주무대 광장에서 시민들과 전문 미술인들이 참여하여 펼쳐졌던 커뮤니티 퍼포먼스 ‘무등의 사계’ 등은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기획이라 평가됨 ○ 광주충장축제가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추가되고 90세대들을 위한 콘텐츠가 보강되어 알찬축제로 평가 됨. 단, 킬러콘텐츠의 강화가 필요하며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제시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됨. 따라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70, 80, 90 및 현세대를 아우르는 주제정체성과 변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가 광주의 상징적 거리인 충장로, 금남로, 5·18민주광장, 아시아문화전당, 예술의 거리 등 많은 장소에서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고, 적절한 교통통제와 동선 배치로 혼잡도를 줄이고 있음 ○ 무료 주차장 15개소, 할인 주차장 총 32개소 축제장 내 화장실 66개가 준비되는 등 축제 관련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됨. 또한 화장실 및 주차장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짐과 동시에 물품보관함, 핸드폰 충전소 등이 신규 배치되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 ○ 축제장 곳곳에 A형, T형 안내판과 배너를 설치하여 무대별 행사 및 주요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위험시설인 지하철 환풍기를 이용한 대형 행사장 안내도와 무대별 1일 일정표, 시간별 일정표를 비치하여 관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단, 지적한 바와 같이 골목별 아치를 설치해놓고도 설명이나 주제가 없어 좋은 자원을 이용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 향후 추억의 명물 골목을 만드는 아치로 활용되길 바람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미성과 주제성을 강조한 포스터와 추억의 광고를 모티브로 한 대규모 포토존 조성, 메인포스터 키 비주얼을 활용한 무대 배경 및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이 제작되어 일관된 미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음. 그리고 축제기간 일일 300명 총 1,500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 운영하고 있고 종합안내소에 광주광역시 관광협회와 연계 영어, 중국어, 일본어 통역 서비스와 특히, 문화해설사를 통한 관광 투어를 실시하는 등 관광객 편의를 제공한 점은 높이 평가 함. 단, 보다 많은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 무대별 담당 공무원과 무대 관리 현장운영요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특히, 기관장 지시사항으로 3개조 각 10명의안전점검반 상시 운영과 도심 축제로 교통통제 등이 많은 사항에서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주목됨 ○ 광주광역시 관광협회와 연계 관광업 종사자 총장축제 펌투어 실시와 축제연계 훈이오빠 바이크관광투어를 관광해설과 병행해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운영의 묘가 돋보임. 또한 광주광역시의 협조를 얻어 수도권 전광판 및 광고판 홍보와 축제 홈페이지에 타 지역 축제 연계 상호홍보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홍보방안으로 평가됨 ○ 축제기간 중 코리아세일 페스타와 연계하여 총장로 상가 280개 상가가 세일에 참여함으로써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취약지역도 참여하는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음 - 단, 본 축제가 지적상가의 수익과 직결되는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축제임을 감안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걸 맞는 “소규모 계절 총장 축제” 의 개최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축제 발전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로 구성된 실행위원들이洞주민들과 직접 퍼레이드를 기획, 연출 참여하고, 퍼레이드 심사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모바일 평가단과 전문심사위원들이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축제퍼레이드의 신뢰성과 질적 개선이 이루어짐 ○ 각계각층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막식 합동공연과, 폐막식에 전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합창과 연출로 바람직한 개폐막식을 연출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로의 발전역량을 보여주고 있음 ○ 140명의 지역 작가가 참여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전시 판매하는 ‘무등아트 페스티벌 4’, 전시 관람에 문화예술 이벤트를 접목시킨 ‘미술관 오딧세이’, ‘궁동 두레장터’ 와 시민들과 지역 작가들이 2일간 함께 만든 대규모 커뮤니티아트 퍼포먼스 ‘무등의 사계’ 는 작업과정에 시민과 전문작가들이 함께하는 의미 뿐 만 아니라, 작품 완성 후 축제의 결과물을 구청에 기증하여 상시 전시하는 등 예술문화 축제로서의 가치성을 잘 표출하고 있음 ○ 총장상추튀김, 총장빈대떡, 총장홍어 등 향토음식 발굴을 위해 ‘총장음식 특화존’ 을 운영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지역 상인들의 세일참여, 매대운영, 화장실 개방 등 적극적인 참여로 축제가 풍성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3) 축제 발전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기획, 문화, 관광, 음악, 사진, 디자인, 홍보, 미술, 스토리텔링, 바이럴마케팅(SNS전문가), 주민 및 상인대표 등이 참여하는 축제위원회 구성을 통해 2017년 축제 방향 설정 및 축제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음. 다만, 광주충장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관점이 필요 함. 즉, 광주가 갖고 있는 대중가요, 그림, 문학, 시와 소설, 역사적인 고찰, 광주근대사의 새로운 조명 등에 대한 백지상태에서의 분류작업들이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축제 전담조직을 구청직제변경으로 상시운명을 통해 연속성 확보하고 광고참여 기업에 프로그램시상 신설과 기업홍보영상 상영, 홍보부스설치 등 다양한 참여방안 마련됨. 이에 기업홍보 참여가 확대되었고, 먹거리, 체험 및 추억관련 물품 판매부스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되는 결과를 가지고 옴 ○ 본 축제가 다양한 표적시장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세부시장에 맞는 프로그램들의 제시는 높이 평가됨. 단, 광주충장축제가 보다 한 차원 높은 축제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다양한 국가와 대중가요나 대중문화를 접목한 국제네트워크 연계작업들이 향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봄. 특히 본 축제를 충장의 축제로 좁힐 것이 아니라 충장로를 중심으로 한 광주시민전체축제로 개념을 정립하고 광주시와 상호역할분담을 통한 글로벌축제로 지향하기를 바람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축제의 가장 큰 효과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시내에서 개최되면서도 관광객과 지역민이 상가를 통해 소통하고 있어, 지역상가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된다. 특히 평소에는 다소 손님들이 비교적 한산한 가게도 축제를 통해 가게를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축제의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즉시 기여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임. 단, 지역민이면서 상인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치우칠 수 있어 이들도 축제에 적극 동참시킬 수 있는 유인과 설득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축제 홈페이지 등에 축제장 인근지역에 호텔, 호스텔, 한옥형, 외국인전용 게스트하우스, 템플스테이, 일반숙박 시설에 대한 안내와 음식의 거리와 동구의 맛집, 이색골목거리, 카페거리 안내 등 다양한 숙박시설과 먹거리 등의 정보를 제공함. 특히, 인근 관광지를 감성·청춘·힐링·낭만투어 코스별로 홍보하여 남도의 대표 축제로 가을 관광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음 ○ 전국주민자치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추억의 G-POP페스티벌, 대학가요제 리턴즈, 90년대 커버댄스 경연대회와 별밤캠핑, 추억의 동창회, 충장시네마 등의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아시아음식문화거리에서 개최된 우리 집 건강 먹거리 전국요리 경연대회 등을 통한 숙박형 관람객 유치효과를 증대시키고 있음 ○ 5.18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충장로, 예술의거리, 동명동 카페의거리, 웨딩의 거리, 남광주시장,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등을 연계한 역사적인 장소 설명, 명인, 명장, 명소, 숨은 맛 집 등의 자전거 관광투어는 관광효과와 더불어 추억을 생산하는 효과도 발생시키고 있음

6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1) 개요

- 기간 : 2017년 9월 22일(금) ~ 9월 24일(일) / 3일간
- 장소 : 「효! 월드」 뿌리공원 및 원도심 일원
- 주최 : 대전광역시 중구
- 주관 : 대전효문화뿌리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공식 행사 : 개막행사, 폐막행사
 - 문중참여행사 : 문중 ‘역사인물’ 퍼레이드경연대회, 중문화예술제, 효 스토리 문중밥상, 문중어울림한마당, 문중문화체험관, 효문화대상
 - 뿌리체험마을 : 외국인유학생 한글이름지어주기, 함께 달려 효 미션레이스, 3대 하족 효스튜디오, 효자 사주 체험, 성씨커 만들기, 불효자 옥살이, 효서당효초리체험 등
 - 효 체험마을 : 효 주제관, 사랑의 효 전화, 1111 효 캠페인, 효 스토리텔링, 증강현실 효컬러팡, 전통시장 치맥축제 등

(2) 총 평

- 잘된 점
 -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효’라는 주제를 활용한 차별화된 축제로서, 우리나라 성씨 문중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의미 있는 축제임
 - 또한 본 축제를 통하여 젊은 세대에게 효와 뿌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여, 축제의 공익적,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문중퍼레이드는 다른 축제에서 진행되는 퍼레이드와는 독창적이고 차별화 된 프로그램으로, 매년 퍼레이드의 주제를 달라하고 경연대회의 형식을

취함으로 문중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음. 금년의 퍼레이드 주제는 역사인물로 참여 문중에서 자랑하고픈 역사적 인물을 퍼레이드에 형상화함으로써 각 문중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음

- 대전효문화뿌리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참여와 자부심이 어느 축제 보다는 강함. 효를 대전광역시 중구의 이미지로 정착시킴으로서 효를 선도하는 유일한 자치단체의 브랜드로 구축하였고, 더불어 축제를 통하여 효 테마공원인 뿌리공원, 한국 족보박물관, 효문화진흥원 등 효 월드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효를 테마로 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하였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대전효문화뿌리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문중퍼레이드가 평일(금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관계로 젊은 세대가 참여하지 못하고 문중 어르신들만의 프로그램으로 축소되는 아쉬움이 있음. 문중 어르신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 시간이겠지만, 좀 더 논의하여 시간 변경이나 요일 변경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대전효문화뿌리축제가 개최되는 장소인 효 월드 뿌리공원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음. 축제의 대부분이 주무대 앞과 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프로그램들이 성씨비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열기구 체험이 있는 국궁장, 만성산 숲길과 국화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축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효 월드 뿌리공원의 잘 가꾸어진 아름다움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대표프로그램인 '전국 문중역사인물퍼레이드경연대회'는 전국 150여개의 성씨 문중이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어르신들이 퍼레이드에 참여함으로써 문중에 대한 자부심과 같은 문중 사람들과의 소통, 타문중과의 경쟁 등을 통하여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음 ○ 특히, 전국문중문화예술제에서 장기자랑, 줄다리기, 민속씨름 등으로 문중이 하나로 뭉치는 기회가 되었으며 어르신들의 즐거운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음. 단,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갑작스럽게 체력을 소모하여 건강의 이상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레크리에이션을 가미하여 경쟁과 놀이를 동시에 즐기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효를 주제로 인해 단순하거나 무거울 수 있는 축제를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을 통하여 남녀노소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변모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를 들어 재미와 감동, 궁금증을 유발 할 수 있는 사전 홍보영상 제작, CF송 형식의 축제 주제가 제작, 외국인 한글이름 짓기, 김봉근훈장의 효초리 체험, 나의 성씨집 만들기 등의 기획은 축제를 통해 주고자 하는 효의 메시지와 더불어 효를 즐거운 것으로 형상화한 탁월한 기획이었음 ○ 다른 축제장에서는 햇볕을 막기 위해 종이모자를 나누어 주는데 반해, 본 축제는 종이로 제작한 패랭이 모자를 직접 만들어서 쓰고 다니도록 했으며, 거리를 두고 보면 실제 대나무로 제작한 패랭이 모자같이 보일 정도로 잘 만들어져 선풍적인 인기를 끌 ○ 축제를 첫날 문중프로그램, 둘째날 청소년 프로그램, 셋째날 가족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세대가 함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이 본 축제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 생각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를 찾는 많은 차량으로 인하여 축제장의 진입로가 다소 좁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골목길을 잘 활용하여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절히 일방통행로를 설정하여 진입의 문제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였음 ○ 축제장 입구 하천변에 음식부스를 설치하여 주무대와 완전히 분리되어 프로그램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음식부스의 경우 동별로 지역주민과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함께 운영함으로 음식의 양, 가격, 맛 등이 모두 우수하고 만족스러웠음. 특히 축제를 관람 후 돌아가는 길에 전통시장치맥 부스를 설치하여 축제의 뒷이야기와 동반자들과 교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은 특별한 재미를 더할 수 있는 구성이었음 ○ 축제 주무대 옆을 포함하여 넓은 축제장 곳곳에 그늘집, 휴게테이블, 잔디마당 그늘막 등의 편의시설이 풍부하게 마련되어 주요 방문객인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함 ○ 축제장 주변 만성산 숲길과 성씨비 위쪽의 산책길과 국화꽃밭 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또한 열기구체험은 바람으로 인한 위험 때문에 뜨지 못해 관람객이 찾지 않고, 그로 인해 옆에 있는 에어바운스 놀이터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차라리 국궁장을 그대로의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문중의 어르신들이 모여 진행되는 축자이다 보니 문중부스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는데, 어르신들을 통제하기 어려움은 이해하나 개선책이 필요함으로 부스의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따라 장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대표프로그램인 문중퍼레이드에 참석하는 문중의 경우 축제 주최측에서 경비 지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임차하여 문중의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때 전국 문중이 축제에 대한 애정과 참여의지는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축제에 가장 큰 힘이며 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최근 젊은 세대들에게 문중의 의미가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축제를 통하여 문중의 활성화와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획이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임 ○ 3대가 참여하는 퍼레이드 경연에 아침부터 17개 동 단위 팀에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남녀노소 참여함으로 이 축제는 주민이 주도한 축제임을 알 수 있었고,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 팀을 일일이 환경하고 격려하는 것을 통하여 축제육성의 의지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대전효문화뿌리축제장은 효 테마공원인 뿌리공원, 한국족보박물관, 효문화진흥원 등의 효 월드로 잘 구성되어 있으며, 야간 조명까지 아름답게 설치하여 주·야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변모해 왔으며 제2 뿌리공원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축제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임 ○ 축제 운영에 있어 이제까지는 공무원 중심의 운영체계였다면 실질적으로 축제추진위 중심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축제전문가 육성, 권한과 예산의 확대 등을 통하여 민간주도형 축제로 변화해 나가야할 것임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광역시 중구는 대전효문화뿌리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효 관련 시설물들로 인해 효문화 중심도시라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도시 브랜드를 구축과 아울러 효를 테마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효과를 얻음 ○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아름다운 축제장 조성을 통하여 축제 방문객은 35만여 명,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23억원이라는 평가를 받음으로 그동안 침체되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됨 ○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대전의 유일한 문화관광체육부 지정 문화관광유망축제로 대전광역시 중구가 주관하는 축제이지만 대전광역시의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7

울산 옹기축제

(1) 개요

■ 기 간 : 2017년 5월 4일(목) ~ 5월 7일(일) / 4일간

■ 장 소 : 외고산 옹기마을 일원

■ 주 최 : 울주군

■ 주 관 : 울산옹기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주요 프로그램
 - 옹기 장수촌, 옹기 산적촌, 옹기 장난촌, 옹기 난장촌, 옹기 도깨비촌, 옹기 팔러 나가는 날(퍼레이드)
- 체험 프로그램
 - 옹기가마 소원장작 넣기, 옹기 만들기 체험, 옹기 김치담그기 체험, 전통민속놀이 체험, 옹기가마 먹거리 체험(10초 삼겹살, 감자굽기 등), 옹기에 그림그리기 체험, 창의 교구 체험, 전통혼례체험, 전통의상 체험, 옹기다례 체험, 전통씨름 체험
- 전시 프로그램
 - 울산옹기박물관 상설전, 세계옹기특별전, 옹기공모전 입상작전, 옹기마을 역사관, 울주민속박물관, 순창장류홍보관, 사생대회 입상작전, 울주군공예협회전 등
- 참여 프로그램
 - 옹기장독대 소원지 달기, 옹기마을 사생대회, 관람객 참여마당, 외국인 참여마당, 제4회 대한민국옹기공모전, 스마트폰 사진 콘테스트, 나만의 옹기만들기 대회, 옹기 깜짝 경매
- 문화공연
 - 개막주제 공연, 마당극 공연, 제5회 전국 옹기 가요제, 옹기종기 어린이 합창제, 울주 전국 시낭송 대회, 전국청소년예술제 “발악”, 2018년을 기약하며(대동놀이), 울주민속 공연마당, 어린이날 특별 공연, 옹기 버스킹 페스티벌
- 야간 프로그램
 - 옹기도깨비 야간 불빛전, 옹기도깨비들의 저녁식사, 옹기가마 모닥불 콘서트, 옹기공원 가족캠프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 기획의 명확성과 주제 관련성이 높고 축제장소가 적합함
 - 울산 용기축제는 울주군 외고산 용기마을에서 용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자 하는 기획의도가 명확하며,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집단으로 마을을 이루어 용기를 굽는 축제의 주제와 관련성이 높음
- 축제장소의 명소 가능성이 높음
 - 일년 365일 가운데 4일간만 축제를 개최하지만, 축제를 통하여 외고산 마을의 명소성을 개발한다면 년중 외래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이 높음
 - 축제장소와 10여분 정도 거리에 입지한 '간절곶'의 경우 전국 및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관광지로 외고산 용기마을의 명소화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됨
 - 축제장 내에 위치한 용기박물관내에는 기네스에 등록된 세계최대 용기가 보관되어 있음
- 용기 발전 관계자들의 추진 의지가 높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 높음
 - 일성통기(신일성), 가야신라토기(장성우), 경남요업(서종태) 등 유명한 용기 장인 및 용기 생산업체들이 입주하여 거주하는 용기마을과 이를 바탕으로 축제화 시키려는 축제 사무국은 축제 추진 주체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축제 발전의 지속가능성이 높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 대표 프로그램의 개발 미흡
 - 대표프로그램이 축제의 중심 소재와 주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전국적인 축제수준에서는 아쉬움
 - 주요 프로그램인 용기 장수촌, 산적촌, 장난촌, 난장촌, 도깨비촌, 용기팔러 나가는 날 등이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가 추구하는 외래 관광객 유치적인 측면에서는 규모나 프로그램 완성도 차원에서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 골목길 게릴라 퍼포먼스, 용기 퍼레이드 등은 문화관광축제 수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규모가 작고 퍼포먼스의 완성도가 낮았던 것으로 판단되어 아쉬움
 - 용기 산적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용기 경매를 제외하고 O,X 퀴즈, 산적 의상 체험, 민속놀이 등도 규모나 진행 면에서 미흡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 용기 관련 체험프로그램의 량적 증가 및 질적 수준 제고
 - 용기 가마 소원장작 넣기 및 용기가마 먹거리 체험 등 11가지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관광객들이 재미를 느끼고 관광객들의 흡입력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 옹기가마 먹거리 체험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어했으나 민속놀이나 의상체험 등을 통해 일정한 자격(스탬프 받기)을 갖추어야 해서 아이들을 동반하지 않은 어른들의 경우 참여율이 낮았음
- 낮은 참여율은 민속놀이나 의상체험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스탬프를 획득하게 진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 옹기 가마 먹거리 체험의 경우 참여율이 낮은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시키지 말고 단독 프로그램으로 강화시켜 완성도를 높였더라면 축제 발전 역량 평가 부분에서 독창적인 먹거리 장터 운영의 가능성도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

○ 축제장 운영 및 공간의 연계성 부족

- 크기는 2부분으로 세부적으로는 5부분으로 축제장을 구분하여 축제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프로그램의 연계성 및 관광객들의 동선 연계가 미약하여 축제장 공간의 효율성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됨
- 가장 큰 문제는 옹기마을과 공원지구 공연마당의 연계가 미흡하여 프로그램 별 관광객 참여율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 관광객들의 참여율 저조는 축제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흥겨운 축제장 분위기 연출이 어려움

○ 축제 계획서와 행사장내 리플렛의 프로그램 명칭 및 내용의 불일치 문제

- 주요프로그램으로 제시된 옹기 팔러 나가는 날(퍼레이드)가 축제장 홍보물에는 옹기퍼레이드로 표기되었고, 농악놀이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있었음
- 과거 옹기를 팔러 나갈 때를 재연 하면서 현대적인 재미성을 더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더라면 방문객들의 흥미유발과 관람도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고산 옹기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옹기축제의 기획의도가 분명하고 축제의 주제가 명확함 - 축제 주제와 무관한 전국 청소년 예술제 및 울주 전국 시낭송 대회 등의 옹기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국내 축제 소재로서 희소한 ‘옹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기획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확대 및 원활한 운영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고산 옹기마을의 물적 현장운영이 우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곳곳의 옹기 및 이동 동선에 따른 조경은 축제장의 정체성을 구축함 ○ 인적 현장 운영 부분이 미흡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들 중심의 관광객 수용태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지역 어르신들의 골목길 작은 판매활동은 판매를 위해서 라기 보다는 자리지킴 정도여서 향후 신명나고 활발한 축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잔치를 여는 주인의 마음으로 적극적인 참여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축제 홍보 등 관광객 유치 활동의 아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으로 유명한 ‘간절곶’ 관광지에 옹기축제에 관련된 홍보물 비치 및 안내가 없어서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이들의 연계를 이루어진다면 문화관광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옹기 장수촌의 판매부스 인력의 진행요원들의 호객행위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옹기 공원지구에 도입된 각종 판매부스의 운영요원들이 일반 시장에서와 같은 관광객 호객 행위는 옹기축제의 이미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옹기축제는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진행됨으로써 기획부터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의존도가 높아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옹기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인 옹기만들기 체험 등이 지역주민에 의해 진행됨으로 지역주민 주체의 축제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단, 지역민들의 참여가 옹기만들기 체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옹기관련 체험프로그램의 확대 및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자립 및 자생 가능성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옹기의 제작 및 판매 등의 경제적 효과는 축제의 자립 및 자생 가능성을 높임. 그러나 축제기간에는 다양한 가격의 축제용 상품개발 및 판매에도 노력해야 할 것임 - 옹기의 특성상 무게와 이동시 파손의 위험으로 선 듯 구매하지 못하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적당한 규격의 축제 상품개발 및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안전하게 휴대할 수 있는 포장재 및 유통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임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분석의 객관성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 용역기관에 의뢰해 방문객을 집계하여 관광객을 추산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관광객 만족도 조사는 축제 전 기간에 걸쳐 시행함으로써 축제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축제기간 중 절정기라 할 수 있는 기간에 한정되어 축제 전반적인 평가에는 무리가 있을 것임 ○ 인근 지역 관광활성화 기여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연계 관광지라 할 수 있는 ‘간절곶’의 경우 축제기간내에 전국적인 외지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나 이들의 축제장 연계는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문화관광축제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가 외지 관광객의 유입이라면 옹기축제의 경우 간절곶이라는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옹기축제에 참여하러 전국에서 외고산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보다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간절곶’의 경우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만큼 이들의 연계는 숙박관광의 가능성을 높여 체류시간을 높일 수 있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도 제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8

이천 쌀문화축제

(1) 개요

■ 기 간 : 2017년 10월 18일(수) ~ 10. 22(일) / 5일간

■ 장 소 : 이천시 설봉공원

■ 주 최 : 이천시

■ 주 관 :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풍년마당 : 거북이 길놀이, 거북이 경주, 풍년 판놀이, 전통혼례, 저잣거리난장, 농사 체험, 거북놀이 체험, 거북판굿 등
- 기원마당 : 지신밟기, 축제 기원제, 타악, 뽕과전, 햅쌀대동놀이, 세시풍속민속놀이 등
- 공연마당 : 진상마차행렬, 가을날 뮤직페스티벌, 통기타 음악여행, 얼쑤 국악한마당 등
- 농경마당 : 벼짚공예 시연, 방문객 짚공예경진, 손모내기, 탈곡, 도정과정 보여주기 등
- 동화마당 : 유치원 발표회, 마임 & 마술, 미운아기오리, 햇님달님, 이천쌀과 의좋은 형제, 피노키오 모험 등
- 쌀밥카페 : 이천쌀밥 명인전, 가마솥이천명이천원, 글로벌 쌀문화 체험, 오늘의 쌀밥명인, 쌀요리 시연(셰프) 등

(2) 총 평

■ 잘된 점

- 이천쌀문화축제는 “오! 행복한 밥상~ 쌀 맛나는 세상”이란 주제로 총 11개의 마당 및 거리로 구분, 각 구역별 특색 있게 공간을 구성하여 우리나라 농경문화 및 이천시의 문화 등을 다양하게 기획함으로써 방문객에게 풍성한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함
- 가마솥밥이천명이천원, 600m 무지개가래떡, 이천쌀밥명인전, 등의 기존 인기 프로그램 이외에 야간 체류형 관광객 유도 및 관광지 연계를 위한 사기막골, 구만리뜰 등에서 처음으로 논두렁 햇불행진 등의 프로그램을 시도하여 변화와 발전을 꾀함
- 우리나라 전통과 농경문화를 주제로 하는 축제답게 대형 무대를 탈피하고 마당놀이 형태의 구성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농촌이미지 제공을 위하여 짚을 활용하는 등

한국적 농촌 축제 분위기를 충분히 살렸음

- 이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회원들에게 타 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문화체험부스가 아닌, 축제에 주도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이천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이천쌀문화축제에 대해 자부심을 갖도록 하였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설봉공원은 이천도자기축제장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장소로서 농촌축제 이미지와 딱히 어울리는 장소로 보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축제장의 지리적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난의 가중 현상과 야간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제약을 받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으므로 중장기적 발전차원에서 축제 장소와 활용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임
- 축제 인기 대표 프로그램인 가마솔이천명이천원, 이천쌀밥 명인전 등은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호응하는 모습에서 인기 프로그램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실제 운영과 시설 등에서 디테일한 면이 부족하여 프로그램 명성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었음. 우리나라 최고의 농경문화축제로 가는 길목에서 향후 인기 프로그램을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 그리고 행사장 곳곳에 대한 세밀함과 섬세함이 요청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공간의 광역화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사기막골, 전통시장, 구만리뜰, 농업테마공원 등에 부대행사장을 조성하여 연계하고자 하였음 ○ 이천의 지명과 이천쌀의 상징적 장소인 구만리뜰에 전설과 관련된 금송아지를 연상하도록 짚으로 만든 소와 벼이삭, 허수아비 모형물 설치하였으며, 구만리뜰 눈두렁에는 전기등과심지 불을 밝혀 상징성을 강조하였음 ○ 야간관광을 통한 숙박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천농경문화의 상징인 구만리뜰에서 야간행사를 개최하였으나, 관광객의 호응과 방문은 아직 정착되지 못하였음 ○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회원들이 자국의 농경문화와 공연, 음식 등을 보여주고 체험하도록 하는 글로벌 쌀문화 체험 부스 운영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음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대항 줄다리기 대회 운영에서 해당 주민 이외에도 방문객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린 축제를 지향하였음 ○ 야간에 구만리뜰 조명 경관을 구경하기 위한 접근 도로변에 별다른 조명이나 가로등이 없어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음 ○ 행사장 초입에 있는 풍년마당의 벽돌바닥으로 이루어진 공간에 벼짚을 자연스럽게 널부러지게 뿌려 놓음으로써 농경문화를 위한 축제장의 분위기를 효율적으로 연출하였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를 홍보하고 축제장 전역을 돌아보며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앱깁go, 스탬프 받go, 선물받go 이벤트를 실시하였음 ○ 쌀밥카페 구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천쌀밥 명인전은 축제주제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행사로 기획되어 운영하고 있었으나,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마솔이천명이천원행사 쿠폰 대기자 줄에 가려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공간의 동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 가마솔이천명이천원 프로그램은 매우 인기가 높은 반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의자 등의 제공이 충분하지 못하여 맨바닥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닥이 지지분해 청결 문제가 대두되어 이에 대한 운영의 개선이 필요해 보임 ○ 행사장 정문 초입에 세워진 대형 행사안내판의 설치 위치가 방문객 입구 주 동선에서 살짝 벗어난 위치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행사장 곳곳에 세워진 안내판의 경우에는 방문객의 현 위치를 표시하지 않아 행사장이해하고 가고자 하는 행사장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농경마당에서는 버나돌리기 공연 같은 다양한 전통놀이 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관객 천막 뒷편에서 서서보는 방문객들은 천막 천정 가장자리에 공연이 가려 잘 볼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설치 천막의 형태와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행사장 각 마당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진행요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매우 돋보였으며, 특히 놀이마당에서 어린이 방문객들을 맞아 함께 놀아주는 스태프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축제는 지역의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직능 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며, 제장 잡상인 통제를 철저히 하여 축제장에서의 소득 효과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음 ○ 축제를 처음 개최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천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적으로 담당해오고 있었으며, 일반공직과 달리 보직이동이 없는 특성으로 인해 축제경영 노하우의 축적과 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비전도 밝다고 볼 수 있음 ○ 이천쌀 브랜드 및 이천쌀문화축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자긍심은 매우 높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이 주 방문을 이루고 있어 축제의 지속발전 가능성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들의 동선을 축제장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장터까지 유인할 수 있도록 기존 동선과 공간배치를 개선하였음 ○ 축제장 공간 확장 및 야간 체류를 유도하기 위한 구만리뜰에서의 논두렁 횃불행진 및 금송아지 노래자랑 프로그램은 방문객의 참여가 저조하여 시민 위주의 행사가 됨 ○ 축제장 먹거리 역할을 하고 있는 주막거리 식당들의 간판에는 영문표기로 작게 식당명을 표기하였지만, 정작 식사 메뉴와 관련해서는 영문표기가 없어 외국인 관광객을 배려하는 측면이 부족해 보였음 ○ 설봉공원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사기막골 도예촌에서라쿠소성 이벤트를 기획하여 상생적 협력을 꾀하였음

9

가평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1) 개요

- 기간 : 2017년 10월 20일(금) ~ 10월 22일(일) / 3일간
- 장소 :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 및 가평읍 내 일원
- 주최 : 가평군
- 주관 : (사)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 주요행사
 - 주요무대 : 17개소(유료 2개소, 무료 15개소)
 - 재즈 아일랜드(유료), 파티 스테이지(유료), 페스티벌 라운지, 재즈팔레트, 재즈 큐브, 웰컴 포스트, 어쿠스틱 스테이지, 빌리지 가평, 팝업 스테이지, 미드나잇 재즈카페 등
 - 주민참여프로그램
 - 가평 유스프로그램, 빌리지 가평, 가평에 빠지다, 페스티벌 기념음료 등
 - 부대 프로그램
 - 이스라엘 포커스, 자라섬 뮤직 클래스, 찾아가는 자라섬 재즈, 올나잇 시네마 등

2) 총 평

■ 잘된 점

- 올해 14회째인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축제와 환상의 섬, 자라섬/자연, 가족, 휴식, 그리고 음악’이라는 주제에 부합되게 자라섬 생태 공원에서 자연친화적 공간 연출과 야경의 어우러짐 속에 음악의 향연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해마다 국내외의 유명 아티스트의 초청공연으로 재즈매니아들과 음악인들의 관심을 끌며 안정적인 관람객층을 확보하고 있음
- 금년에도 국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22개팀(94명)의 외국초청팀을 비롯하여 총 43개팀(274명)이 참여하여 수준 높은 공연으로 성황을 이루며 관람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등 대표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음

- 특히 전국의 재즈뮤지션 및 모든 장르의 밴드와 공연팀, 그리고 크루 등 오프밴드 아티스트들을 모집함으로써 36개팀(150명)이 참여할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었으며, 가평군의 초·중·고등학교 오케스트라와 밴드 등이 참여하는 유스 프로그램과 도심 속에서 펼쳐진 미드나잇재즈카페, 올나잇시네마 등을 기획함으로써 재즈문화 중심의 음악도시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이 돋보였음
- 또한 가평군의 관광두레와 협력으로 우수 농산물을 소재로 한 축제상품인 ‘피크닉박스’ 도시락을 개발은 물론 자라섬뱅쇼, 재즈막걸리 등 축제음료를 개발했으며, 가평의 향토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빌리지 가평’을 지역민들이 운영하게 하는 등 관람객에는 음식편의 제공, 지역주민의 관심도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사회와 밀착하려는 기획의도가 분명하였음
- 해마다 다른 국가를 선정하여 집중 소개하는 ‘국가별 포커스 프로그램’(2017년 이스라엘)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으며, 뮤직캠프를 운영하여 세계 최정상급의 아티스트 및 국내 예술분야 크리에이터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과 프랑스, 말레이시아, 일본 등 세계 주요 재즈 축제와 MOU를 체결하고 교류함으로써 글로벌 축제로서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또한 지난해 평가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축제의 발전의지가 높은 것으로 사료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관람객층이 재즈메니아들과 음악 애호가들로 해마다 재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어 음악공연축제로서는 성공적이라 볼 수 있으나, 일반인들은 음악에 대한 전문성 부재와 입장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문화관광축제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인 인지도는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 음악공연을 소재로 하는 축제의 특성상 킬러콘텐츠의 구성이 평소 접할 수 없는 국내외 유명아티스트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자체가 축제의 매력성으로 음악메니아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되나 문화관광부 지정축제의 관점에서 비교적 낮은 지역사회의 참여도는 여전히 극복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음
- 오후 늦게 시작되는 메인행사 참가위주의 관람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계로 수준 높은 공연팀의 연주에도 불구하고 주간공연장과 주민들이 운영하는 ‘빌리지 가평’의 부스 이용객들이 적어보였으므로 주간 관람객층 확보를 위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을 위한 전용동선과 관람석, 주차장, 카트운영 등을 준비한 점은 높이 평가되나 장애인 화장실이 입구에서 멀리 떨어져있어 위치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빌리지 가평’의 경우 입장권 제시에 따른 할인율을 확대하는 등 소비촉진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함

- 문화관광부 지정 최우수축제로서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상품개발과 안내 체계 등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즈 중심소재의 음악공연축제로서 14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획서가 짜임새 있게 작성되고 실행되었으며, 최우수축제답게 기획의도가 명확하고 특히 핵심콘텐츠인 유료공연프로그램은 국내외 유명아티스트의 공연이 일정별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축제의 품격을 높여주었으며, 무료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았음 ○ 해마다 일정국가를 선정하여 대표프로그램속의 주제공연을 설정함으로써 차별성도 도모하고 재방문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초청국가의 대사 등이 참여할 정도로 국제교류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주 관람객층 재즈메니아 및 음악공연 애호가들이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어필될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의 속성을 좀더 살릴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음 ○ 지역문화를 활용하고 주민의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판단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를 거듭할수록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의 인지도가 높고 메니아들의 호응도가 높은 관계로 축제장 접근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주차장에서부터 메인공연장까지 도보로 이동함에 있어서도 곳곳에 포토존을 조성함으로써 이동구간이 지루하지 않았음 ○ 특히 자라섬의 자연경관에 야경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메인공연이 끝나 밤길을 걸어나오는 과정도 운치가 있었음 ○ 롯데제이티비와 협력하여 서울-가평 간 특별 셔틀버스 운영으로 관람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 해마다 초청의미가 있는 국가의 대사관, 문화원 등을 통해 초청팀을 선정(금년에는 이스라엘)한다는 점과 프랑스의 '재즈 술레 포미에', 말레이시아의 '페낭 아일랜드 재즈 페스티벌', 일본의 '타카츠키 재즈 스트리트', '스키야키 및 더 월드' 등 세계 주요 재즈 축제와 MOU를 맺고 매년 방문하며 교류함으로써 글로벌축제로서의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음 ○ 또한 마스터 클래스, 크리에이티브 토크 등 대표적인 뮤직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주제의 음악에 대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성 향상 등 음악공연예술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등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축제운영을 위한 진행요원들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자들도 유경험자로 선별하고 현장교육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등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즈메니아들의 두터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음으로 표적시장이 분명하며, 축제홍보를 위해 서울시내에서 홍보를 위한 공연을 펼치는 등 적극성을 보였음 ○ 아쉬운 점은 최우수 축제임에도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과 외국인관광객 안내시스템 등 수용태세 부분이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됨 ○ 읍내의 카센타를 공연장으로 활용한다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실행된 것처럼, 연계관광활성화, 지역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 지역사회와 밀착된 축제로 이미지 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축제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천군 및 대기업 등의 참여와 협조로 축제가 이루어지며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한 축제테마의 식음료상품개발 등을 통해 농민들에게도 축제참여를 확산시키려나가고 있으며, 군민을 상대로 재즈소식지, 가평소식지 등을 통해 축제개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려 노력하고 있음 ○ 특히 가평읍내의 상가와 심지어 카센타에서도 공연장소를 제공할 정도로 읍내전역에 재즈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관람객들을 읍내로 유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축제 전문조직인 (사)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는 재즈/월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와 문화교 육사업을 수행할 정도로 체계화되어있으며, 재즈분야의 세계적인 공연기획가 인재진 감독의 전문성과 노하우로 축제의 지속성과 발전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공연축제의 성격상 핵심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은 주민참여가 한계가 있으며 부대행사의 영역을 확대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으로 축제에 대한 긍정적인인식을 제고시켰으면 함 ○ 입장료 수입과 관내에 입지해있는 기업들의 스폰서 유치로 재정자립도를 확보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입장료수입이 지역주민참여 부스에 환원되도록 할인율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면 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를 통하여 불모지였던 자라섬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었으며 관광시설 기반여건 조성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음 ○ 가평군을 공연문화예술의 도시로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야간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방문객 집계는 입장권판매로 정확하게 집계되며, 읍내공연장의 경우에도 전요원이 상시 배치되어 있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통식품 푸드트럭 운영으로 우리 전통식품의 홍보효과를 거양함 ○ 축제의 메인행사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주간에는 지역내의 관광자원을 둘러볼 시간이 충분함에도 이에 대한 연계성이 다소 미흡했음

10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1) 개요

- 기간 : 2017년 9월 28일(목) ~ 10월 2일(월) / 5일간
- 장소 : 안성맞춤랜드 일원
- 주최 : 안성시
- 주관 :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공식행사
 - 바우덕이 추모제, 길놀이 퍼레이드, 개막 축하공연, 폐막 축하공연 등
 - 상설행사
 - 남사당바우덕이 주제공연, 안성바우덕이 남사당공연, 전통연희공연, 가을밤 오색나들이, 해외민속 초청공연, 월드 퍼레이드 등
 - 특별행사
 - 바우덕이 선발대회, 바우덕이 주제창작마당극, 가족 맞춤공연, 야간특화공연,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 등
 - 체험행사
 - 어름산이 체험, 남사당놀이 6마당 체험, 1865 안성장터 스토리, 남사당 캐릭터 이벤트, 조선시대 시간여행, 농경축산체험, 민속놀이체험, 세계음식문화 등
 - 시민참여행사
 - 안성시민예술무대, 청소년 어울림 마당 등

(2) 총 평

■ 잘된 점

-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는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및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사당놀이를 소재로 기획된 축제로 ‘안성 바우덕이, 온나라의 신명이 되다’ 라는 주제에 걸맞게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에게 흥겨움을 선사함

- 전년도 축제평가 결과 및 평가위원 지적 등을 토대로 5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등 축제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며 특히 바우덕이 선발대회, 바우덕이 창작마당극, 바우덕이 홍보관 등 바우덕이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여 축제의 정체성을 제고함
- 축제 담당자의 축제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이 매우 높았으며 전년도 축제평가결과와 전문가의 자문결과 등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축제 발전에 대한 의지도 매우 높았음
- 축제프로그램의 운영과 축제장의 관리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한 점도 높게 평가됨
- 축제장의 기반시설이나 녹지공간 등 하드웨어가 잘 갖추어져 있어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관람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안성장터의 고층 재현 등을 통해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색다른 볼거리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
- 체류시간 확대를 위한 야간프로그램의 강화로 야간에도 많은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았으며 이는 축제장 내 지출증대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바우덕이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축제의 정체성을 제고하였으나 ‘바우덕이’라는 콘텐츠가 축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적합한 그리고 유효한 콘텐츠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함
- 관람객에게 신선한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남사당놀이를 과거의 유산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현재와 미래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전향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함
-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에 대한 매력성과 상품성을 개선하여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이 대부분 방문객의 참여가 제한적인 공연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방문객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함
- 안성시가 축제의 기획과 운영에서 역할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동시에 남사당공연단이나 민간부문의 축제 기획·운영에 대한 역량 강화 방안 마련도 필요함
- 축제 프로그램을 좀 더 일찍 확정하여 최소한 축제 개최 1~2개월 전에는 일정을 포함한 축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축제장의 분위기를 해치는 정치적 행위나 방송사의 프로그램 진행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맞춤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연예집단인 남사당의 놀이 문화를 주제로 기획된 축제로 남사당공연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방문객에게 신명나는 볼거리를 제공함 ○ 대표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고 있는 남사당바우덕이 주제공연의 경우 남사당공연단이 직접 공연내용을 기획하는 등 축제의 콘텐츠 개발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주제공연의 내용적 완성도가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며 공연기획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공연의 질을 높여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해외공연단의 민속공연은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각국의 전통 민속공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공연 자체도 축제의 주제인 '신명'에 부합되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축제장의 흥겨움을 높이는데 기여함 ○ 남사당놀이는 농악과는 차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사당놀이를 구성하고 있는 여섯 마당 중 하나인 풍물놀이로 인해 농악과의 차별성이 일반인에게 제대로 부각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남사당놀이의 핵심인 연희성을 강화한 콘텐츠의 발굴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축제의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남사당놀이라는 과거의 형태에 얽매어 있어 신선한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사당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LED복장이나 장비 등을 활용한 야간 남사당 공연의 개발은 야간 볼거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해외민속공연의 경우 공연내용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소한 실내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만이라도 공연내용에 대한 정보를 전광판 자막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유료로 진행되는 남사당바우덕이 주제공연의 경우 750객석 중 약 10% 정도의 관람객만이 입장하여 관람객 추가확보 노력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유료정책은 유지하되 입장권 판매추이 등을 고려하여 경품으로 입장권이나 할인권 등을 제공하여 관람객을 확보하여야 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수의 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청결이나 안전 등 축제장 관리도 매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평가항목	평가내용
<p>2) 축제의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의 기반시설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어 행사의 진행이나 방문객 수용 등에 있어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 ○ 메인무대의 경우 3,500석의 대규모 객석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커버하는 차양막을 설치하고 시민예술무대에도 우산으로 차양막을 설치하는 등 방문객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임 ○ 4,800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한 후 주차차량을 빈 주차장으로 체계적으로 인도하고 주차장과 행사장은 7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축제장에서 문제로 대두되는 극심한 차량정체나 주차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음 ○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메인무대, 장터무대, 시민예술무대 간 소리간섭이 심하여 공연관람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메인무대와 시민예술무대 간 공연간섭은 심각한 수준이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시간이나 무대배치 조정 등을 통해 공연이나 행사가 진행되는 각 무대간 소리간섭을 최소화하여야 함 ○ 중요행사가 진행되는 공간만 해도 메인무대, 장터무대, 시민예술무대, 실내공연장 등으로 다양하고 동시에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일부 행사장의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수준 등에 비해 매우 적은 수의 방문객들만이 관람하는 문제가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행사에 대해서는 공연시작 전 안내방송이나 LED 광고 공지 등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며 특히 세계민속공연 등 실내공연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함 ○ 축제기간 중 경기방송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축제의 주제나 성격에 맞지 않는 방송국만의 프로그램에 그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축제장에서의 지역 언론이나 방송의 무분별한 자체 프로그램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축제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축제가 임박해서야 인터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축제정보의 획득이나 방문일정을 계획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서둘러 최소한 1~2달 전에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축제장 주 출입구 앞에서 군복차림의 특정단체 회원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서명 활동을 벌여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 축제가 정치적인 목적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야 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담당 팀장의 경우 7년간 축제업무에 종사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이 매우 높으며 민간의 기획홍보전문가를 채용하여 축제 기획·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음 ○ 시민이나 방문객이 주인공이 되는 다수의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시민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축제 참여를 도모함 ○ 조선후기 3대 장터 중 하나였던 안성장터를 재현하여 대장간이나 유기전 등의 차별화된 볼거리와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함 ○ 단체관광객에 대한 일체의 지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방문객이 많았던 점도 축제의 자생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판단됨 ○ 안성을 대표하는 음식점을 선별하여 입점시켜 단순한 축제장 음식이 아닌 안성의 대표음식을 한자리에서 맛 볼 수 있었음 ○ 축제의 기획과 운영이 안성시 행정부서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축제의 핵심주체인 시립 남사당공연단이 축제의 기획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에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하여 방문객 행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도모하였으며 이후 격년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축제의 효과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할 계획임 ○ 체험부스의 경우 지역 업체의 비율이 80%에 달하는 등 축제의 혜택이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산물 판매장의 경우에도 협회단위로 입점시켜 판매에 따른 수익이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함 ○ 야간에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메인무대를 중심으로 많은 방문객이 축제장을 방문하였으며 축제장에서의 체류증대는 먹거리장터를 중심으로 한 지출로 이어져 축제장에 입점한 지역업체들의 매출이 증대됨 ○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상품이 개발되었으나 상품의 종류나 상품의 품질 등을 고려할 때 상품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캐릭터상품의 다양화 및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품질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축제기간 동안에만 안성옛장터가 재현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안성옛장터 자체가 방문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관광매력물이 될 수 있으므로 주말을 중심으로 상설화하여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1

수원 화성문화제

(1) 개요

- 기 간 : 2017년 9월 22일(금) ~ 9월 24일(일) / 3일간
- 장 소 : 화성행궁, 행궁광장, 수원천, 창룡문(연무대) 등 수원화성 일원
- 주 최 : 수원시
- 주 관 : 수원문화재단
- 주요행사
 - 대표프로그램
 - 정조대왕 능행차, 개막연 ‘화락(和樂), 무예브랜드 공연 ‘야조(夜操), 무과재현, 혜경궁 홍씨 진찬연
 - 전야 프로그램
 - 화령전 고유별다례, 전야경축타종, 낙성연
 - 화성행궁프로그램
 - 화성행궁 프로그램(남사당놀이, 장용영 수위의식), 세계의상페스티벌, 한의약 체험행사, 이성지보 전시, 규방공예전시, 조동언의 지등 퍼포먼스, 전통연희 솟대타기, 전통연희 사자놀음, 마당-놀음, 조선의 공방체험, 조선별미극장
 - 행궁광장 프로그램
 - 국제자매도시의 밤, 광장연희-마술사 이훈의 근대마술, 광장연희-마샬아츠 퍼포먼스, 광장연희-전통연희 잡기놀이
 - 화성일대 프로그램
 - 수원화성 축성체험, 수원화성 깃발체험, 달빛 등 만들기, 방화수류정 달빛음악회, 수원화성에서 놀~자, 수원등불축제, 수원예술축전, 수원청개구리 패밀리가 떴다
 - 시민참여프로그램
 - 시민예술한마당, 누구나 가수, 청년재능한마당 꿈의 장터, 조선의 거리악사, 수원화성 미술제 예술체험, 어린아-청소년 한마당, 태견한마당 화성따라 택전따라, 함께 불러요 행궁에서, 나는 정조대왕, 응답하라 자손들아, 시민 누구나 오늘은 시인이 되자, 호령 지기, 오래된 미래, 진찬연 체험, 수원아리랑 체험, 시민과 함께 하는 사진체험

(2) 총 평

■ 잘된 점

- 정조대왕 능행차를 비롯하여 혜경궁 홍씨 진찬연, 무과재현, 무예브랜드 공연 ‘야조’ 등 수원화성을 주제로 하는 대표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역사문화축제로서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음
-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수원화성 일원을 축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역사문화축제로서의 장소성과 현장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구도심 일원까지의 축제공간 확장을 통해 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대하고 있음
- 시민주도형 축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 발굴,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 기부금 모금 활동 등 축제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축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였음
- 인근 지역주민이 절대 다수를 접하는 지역 편중성, 그리고 단기 방문으로 인한 체류관광객의 부재 등을 극복하기 위해 야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기획, 구성하고 별도의 홍보물을 제공하여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시도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대부분의 대표프로그램들이 관람형 공연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의 참여나 접근성이 제한되어 대다수 방문객들이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대표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화성행궁 및 행궁광장에서 진행된 체험 및 전시프로그램의 질적 편차가 심해 좀 더 집약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축제공간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올해 최초로 정조대왕 능행차가 3개 지자체 연대로 공동재현 됨에 따라 변화된 정조대왕 능행차와 수원화성문화제 사이의 유기적 결합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윤2월에 이루어진 을묘년 원행의 역사적 사실, 프로그램의 규모 확장에 따른 독립된 행사로서의 성격 강화, 3개 지자체 공동재현방식에 따른 수원시만의 고유 행사 성격 약화, 국가행사로의 전환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의 장기적 발전전망을 고려할 때 정조대왕 능행차는 독립된 축제형태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화성행궁, 행궁광장, 수원천, 연무대, 화성일원으로 확장된 축제공간 사이의 연계 동선 및 안내체계가 미흡하여 행사장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요구됨
- 대부분의 체험프로그램이 주간에만 운영되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야간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체험프로그램의 교육적 기능 강화가 필요함
- 수원화성문화제의 방문객 지역편중, 체류관광객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간 관람·전시·체험 프로그램의 확대 개발과 더불어 지역의 다양한 장소 및 자원과의 연계된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수원화성문화제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종류나 규모, 연계행사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축제기간 3일은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축제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원화성문화제의 명확한 축제 정체성을 위해서는 시민참여형 축제인지 역사문화축제인지 축제의 목적 및 컨셉을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기획의 명확성과 주제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 화성은 조선왕조 제22대 국왕 정조에 의해 추진된 성곽이자 도시로서 18세기 성곽 문화의 중심유적이자 동서양 군사 건축물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수원화성문화제는 바로 수원 화성이 간직한 고유한 역사문화적 가치와 현재적 의의를 축제를 통해 재조명하고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수원화성문화제는 수원화성 축성 기간 중 행해진 정조의 화성행차(을묘년 원행) 행사 전반을 재연하는 것을 축제의 기본형식으로 삼고 있으며, 축제의 핵심프로그램을 통해 수원 화성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요소의 재연이나 재창조를 추구하고 있어 축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축제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축제의 주제인 수원 화성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전통문화 소재의 전시, 공연, 체험프로그램을 배치하여 역사문화축제로서의 특성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표 프로그램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조대왕 능행차, 혜경궁 홍씨 진찬연, 친림과거시험 무과재현과 같이 철저한 역사적 고증에 기초한 역사재현 프로그램, 그리고 수원화성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공연예술화한 개막연, 무예브랜드 공연 ‘야조’등의 공연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문화적 가치 및 의의, 프로그램의 완성도 및 대중적 소구력 면에서 수원화성문화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음 - 수원시, 서울시, 화성시가 공동 재현한 정조대왕 능행차는 1795년 을묘 원행 이후 최초로 능행차 전 구간을 완전 재현했다는 역사적 의의 외에도 출궁의식부터 배다리 퍼포먼스, 풍물놀이, 격쟁, 자객대적공방전 등 역사적 고증과 현대적 해석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를 전 구간에 걸쳐 제공함으로써 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국가문화행사로서의 발전가능성을 보이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 수원시 구간에서 진행된 정조대왕 능행차는 역사적 고증을 통한 재현과 시민이 참여한 현대적인 퍼레이드 형식을 적절히 결합하여 수원화성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지역의 현재적 문화성까지 동시에 전달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관광파급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래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프로그램 구조를 마련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조대왕 능행차는 수원시, 서울시, 화성시가 공동재현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규모가 한층 확대되면서 수원화성문화제의 단위 프로그램이기보다는 수원화성문화제와 독립된 병행 행사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전체 축제의 기획과 구성에서 정조대왕 능행차를 축제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공동재현방식, 프로그램의 규모나 예산투입 규모, 국가문화행사로의 전환이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의 장기적 발전전망을 고려할 때 독립된 행사로서의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795년 정조대왕의 화성 원행 시 진행된 혜경궁 홍씨 회갑연을 재현한 혜경궁 홍씨 진찬연, 무과별시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한 친림과거시험 무과재현, '여민동락의 길'이라는 축제 주제를 바탕으로 한 마당형식의 창작뮤지컬 개막연 '화락', 정조의 야간군사훈련과 무예24기를 주제로 한 대형야외실경공연인 무예브랜드공연 '야조'등은 수원화성의 역사성을 표현하는 재연프로그램이나 공연예술로서의 대표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음. 다만 1회성 관람형 공연프로그램으로 대다수 방문객들의 참여나 접근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대다수의 방문객들이 축제기간 중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대표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지역 특색문화 소재 활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화성문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정조와 혜경궁, 화성의 축성, 조선 무예, 궁중문화 등 수원화성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역사콘텐츠로서 다른 지역의 역사문화축제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 수원화성문화제의 또 다른 중심축인 수원화성 자체의 장소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좀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 현장운영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행궁, 행궁광장, 연무대(창룡문) 등 수원화성의 역사적 공간을 축제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역사문화축제로서의 장소성이나 현장성을 확보함 - 화성행궁과 연무대에 집중되어 있던 축제공간을 화성 일원으로 확대하고 공연, 체험, 전시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축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주 행사장인 화성행궁 및 행궁광장의 제한된 장소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되다보니 음향간섭 등 프로그램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어 축제장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화성행궁, 행궁광장, 수원천, 연무대, 구도심 일원으로 축제공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행사장소 간의 연계 동선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도로나 대중교통을 제외한 다른 이동수단이 제공되지 않아 각 행사장 마다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참여나 관람에 어려움이 있음. 화성행궁과 연무대를 잇는 수원천 주변의 거리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수원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행궁동 왕의 골목여행과 같이 각 행사장 간의 이동 자체를 프로그램화한 관광코스를 제공함으로써 축제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대 관람석 뒤편 조명기구 등을 화성행궁도가 디자인된 천막을 사용하여 가리는 등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야간에도 조명이 설치된 성벽을 따라 이동하며 도심 경관, 행사장 경관 등을 즐길 수 있는 경관조망 여건이 잘 구축됨 ○ 인적 현장운영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궁광장의 종합안내소부터 연무대 종합안내소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모든 곳에서 축제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방문객들의 축제 참여를 도움 - 공연시간 변경, 능행차 출발지연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였으며, 주차장 관리나 일부 체험부스 운영에 있어 운영요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나 불성실한 태도가 노출되고 있어 운영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정조대왕 능행차나 무예브랜드 공연의 경우 안내요원 및 진행요원의 배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체험부스의 운영이 대부분 오후 이른 시간대에 종료되고 있어 오후 5시 이후 가족단위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없으므로 가족단위가 야간에 참여할 수 있는 야간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축제 홍보 등 관광객 유치 활동의 적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수원화성문화제에서는 수원화성문화제 홈페이지(shcf.sw.cf.or.kr)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홈페이지(www.kingjeongjo-parade.kr)를 이원화하여 운영함 - 정조대왕 능행차는 서울시, 수원시, 화성시 3개 지자체와의 연계운영과 프로그램 확장으로 인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노출빈도도 많은 것으로 평가되나 정조대왕 능행차에 홍보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수원화성문화제 자체에 대한 홍보는 위축된 것으로 보여 균형 잡힌 홍보전략이 요구됨 - 20대와 30대 청년층의 축제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원문화재단 및 수원시의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주요 SNS계정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함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 뿌리내림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개 분과, 25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시민추진위원회가 시민참여 프로그램 발굴,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 기부금 모금 활동 등 수원화성문화제 준비를 주도하면서 지역주민과 단체, 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 시민추진위원회가 제안한 프로그램 10개와 시민공모를 거쳐 선정된 프로그램 5개 등 총 15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축제기간 동안 운영되었으며, 축제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참여 캠페인을 통해 5억여 원의 기부금을 모금함 -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참여프로그램 및 행사 전반에 걸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확장해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다만 시민참여프로그램에서도 단순히 시민참여만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역사문화축제로서의 정체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정비 등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평가항목	평가내용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추진주체의 체계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수원문화재단이 출범한 이후 수원문화재단이 축제의 기획 및 운영을 전담하여 각종 민간 영역의 단체들과의 협력이나 다양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 무예전수자 등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함 - 시민추진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수원문화재단의 축제운영의 전문성과 시민추진위원회의 자율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축제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자립 및 자생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조대왕 능행차 시 수원화성 행궁광장에 유료 특별관람석 520개 좌석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일부 프로그램의 유료프로그램화를 추진하고 있음 - 유료화 가능성이 확인된 정조대왕 능행차 관람석을 확대 설치하여 축제의 자생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분석 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문기관에 축제평가와 방문객집계를 위탁하여 성과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노력함 - 전반적으로 방문객집계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나 다른 축제와는 달리 4개의 축제장소에서 집계방식을 달리한 방문객 실측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방문객을 종합적으로 실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문객 집계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인근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방문객은 75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되었으나 수원 및 경기지역 방문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류기간이 당일에 그쳐 축제의 관광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숙박방문객들을 유도하기 위해 화성행궁 야간 연장 개장 및 야간 해설 제공, 수원시립미술관의 미디어작품 전시 및 수원등불축제 등 야간 특별전시 등 야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별도의 컬러 나이트 전용 홍보물로 야간 프로그램 관람정보 제공 및 관람동선을 제시함 - 야간 프로그램과 연계 행사는 주간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원화성문화제를 보완하면서 방문객 체류시간을 연장시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야간형 문화향유·체험 프로그램인 '문화재 야행'의 하나로 8월에 진행된 수원야행 프로그램에 비해 관광객 참여는 소수에 그친 것으로 평가됨 - 야경(夜景)·야화(夜畵)·야로(夜路)·야사(夜史)·야설(夜設)·야식(夜食)·야시(夜市)·야숙(夜宿) 등 8야(夜)를 주제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 수원야행과 같이 본격적인 야간프로그램으로 확대 개발하여 경제적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12

시흥 갯골축제

(1) 개요

- 기 간 : 2017년 9월 22일(금) ~ 9월 24일(일) / 3일간
- 장 소 : 시흥갯골생태공원
- 주 최 : 시흥시
- 주 관 : 시흥갯골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자연속 놀이와 체험 : 소금왕국, 곤충나라, 갈대공작소 등 10가지 프로그램 존
 - 자연속 예술과 공연 : 어쿠스틱음악제, 소나무재즈클럽 등 6가지 프로그램 존
 - 대표 프로그램 : 갯벌체험 및 갯골패밀리런(가족이 함께하는 오리엔티어링 미션놀이)

(2) 총 평

■ 잘된 점

- 경기도 유일의 내만갯골의 자연 속에서 '신나고 유익한 생태예술놀이터'라는 주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함. 주제에 맞게 자연 속 놀이와 체험과 자연 속 예술과 공연이라는 2가지 테마를 나누어 총 15가지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알차게 진행하고 있음. 단순히 나열한 것이 아니라 주제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배치한 것이 주목됨
- 축제가 진행되는 시흥갯골생태공원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살렸음. 딱딱한 몽골부스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특성과 자연환경에 맞게 특별 제작된 부스는 공간 연출적인 부분에서 아주 좋았음. 공원에 있는 소금, 갈대, 곤충, 꽃, 바람, 하늘 등 자연을 소재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어 공간과 콘텐츠 간의 시너지효과가 발생함
- 의전행사를 과감하게 없애고 축제장에 방문한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집중한 점은 인상적임. 모두가 즐기는 축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흥시 교육단체, 환경단체, 문화예술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임. 특히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축제의 기획의 가치성을 공유하여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축제로 승화되고 있으며 전진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축제로 평가 됨

- 시흥갯골축제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축제장입구에 차량진입을 전면 통제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적인 통제와 함께 관광객이 도보로 걸음으로써 시흥 갯골축제의 차별성을 강화시키고 있음. 또한 시흥시 17개 동과 시흥시청 인근에 마련한 임시주차장에 매시간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교통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음. 특히 시흥시 자원봉사센터의 지휘 아래 각 17개동 자원봉사센터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의 안전한 탑승과 하차를 담당하고 있어 시민참여가 돋보임
- 축제장 인근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마련,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 휠체어 대여소 운영, 보호자 없이 방문한 장애인을 위한 라운딩 서비스 등 누구나 불편함 없이 즐기는 Barrier Free 축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긍정적임. 특히 다양한 시정홍보부스 운영으로 시흥시의 시정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고 부스별 특색 있는 체험 및 이벤트로 많은 방문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본 축제에 임하는 시흥시의 각종 정책들을 시민들에게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최소한의 인위적인 구조물을 설치하여 축제장의 자연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지만 넓은 축제장에 비해 쉼터 등 편의시설 공간이 부족함.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구조물의 경우 단순한 쉼터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생태축제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갯골축제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한 매력 있는 주막 촌이나 야생풀이나 나무를 활용한 생태주막을 만들어 축제전체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즉, 세계최초의 고유성을 가진 “시흥생택주막”을 만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것이 곧 시흥축제의 중요한 풀(pull)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축제 방문객의 대부분이 내국인이지만 축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축제를 안내하고 홍보할 방안이 필요함. 우선적으로 수도권인 경기도에서 유일한 생태보고인 시흥갯골의 가치를 본 축제를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 함. 실제적으로 축제의 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은 외국인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유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됨. 최근 증가하는 모슬림권역의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체계정비와 그들을 위한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표적시장별 외국어안내체계 및 콘텐츠를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관광객들이 수월히 축제에 동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람코스의 정비가 필요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션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곳곳에 전체 프로그램 일정표 및 공간 배치도를 추가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효율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시흥갯골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지역 내 다른 관광지 및 관광상품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관광 연계방안의 수립으로 외래 방문객의 시흥시 관내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특히 시흥지역내의 붐업조성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평가 됨. 실제적으로 시흥시와 축제장이 다소 격리되어 있어 축제와 시민들이 따로 분리된 공간에서 활동하는 상황들이 전개 됨. 따라서 전야제나 야간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시흥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시흥갯골축제의 의미와 가치를 우선적으로 시흥시민들 전체가 인식할 수 있는 내부마케팅이 연중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나고 유익한 생태예술놀이터’ 라는 주제가 명확히 나타남. 2가지 테마 안에 15가지 프로그램 존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순 나열식 프로그램이 아닌 주제 및 공간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함 ○ 축제장 곳곳을 가족과 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갯골패밀리런’ 대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자연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함. 공원 내 생태자원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콘텐츠를 기획하고 인공적인 구조물을 최소화함 ○ 시흥을 대표하는 플라마켓인 시흥아트마켓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여 방문객에게 볼거리뿐만 아니라 예술품, 수공예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 ○ 시흥시 지역화폐추진회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체험 및 먹거리부스 전체에 처음 시범 운영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축제공간에서 공생적으로 이루어짐 ○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잘 기획되어있으나, 프로그램간의 공간 및 동선 배치가 보다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핵심내용 위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가 필요함 ○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시흥갯골의 가치성에 대한 폭발적인 스토리텔링의 개발이 필요하며, 시흥갯골의 진정한 정체성을 세계인 공유할 수 있는 기획안들이 생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내 주차공간이 없어 별도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각 동민센터에 셔틀버스를 배차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차 없는 축제’ 로 추진하여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환경 친화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고 있음 ○ 각 프로그램존별 공간에 맞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환경을 연출하여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짐. 단, 향후 보다 지속가능한 시흥갯골이 되기 위해서는 시흥의 갯벌을 더욱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강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딱딱한 몽골부스를 최소화하고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부스를 제작하여 환경연출이 자연과 조화로움을 연출하고 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자원봉사센터 750여명, ‘갯골히어로’의 공개 모집된 50여명의 지역 자원봉사자 등으로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축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밀한 부문들은 높이 평가되나,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마스트플랜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봄 ○ 본 축제는 무엇보다 바닷물이 육지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 생태골을 형성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관점을 조금만 관점을 바꾼다면, 글로벌축제로 수월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창녕우포늪이 랍사르총회가 개최됨으로써 세상에 그 가치를 알린 것과 같이 세계적인 생태이벤트나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시흥생태골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범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보다 광역적이고 거시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함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체와 협업하여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협업하여 운영함으로써 축제를 통해 지역단체가 성장하고 그 단체를 통해 축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지적인 바와 같이 시흥시민 전체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범시민적 축제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일본의 마쓰리나 강릉단오축제의 시민들이 모두 거리퍼레이드 참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집안의 그릇 등을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는 등 전혀 비용도 들지 않고 동참하게 할 수 있음 - 즉, 특정한 시흥시내지역을 선정하여 모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전야제나 이벤트프로그램을 적극개발 할 필요가 있음 ○ 전문성 있는 청년들이 축제사무국에서 근무하며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축제추진위원회, 축제사무국, 행정지원단과의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축제를 완성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지역청년의 동참을 유도하고 젊은 문화축제 기획자를 양성하는 ‘시흥청년 축제학교’를 사전에 운영하여 지역청년을 축제 운영시스템으로 활용하여 축제를 경험하게 함. 단, 야간에 젊은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함 ○ 10대 시흥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어 끼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 오디션을 거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메인공연에 관내 청소년 공연팀의 무대를 마련하여 인상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이러한 집중력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보다 발전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향후 SNS나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전략이 연중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에서 유일한 생태자원의 보고인 시흥이 축제를 통해 그 가치를 세상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본 축제의 의의와 기대효과는 매우 크다고 평가됨. 단, 이러한 시흥 갯골의 가치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연중 알리는 작업들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식업증양회 시흥시지부와 협업하여 관내 일반음식점을 공개모집하여 먹거리 부스를 구성하고, 지역 청년들이 푸드트럭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푸드트럭이나 음식점을 추계장에서 운영할 시 시흥에서 생산되는 자원들을 특화(specialization)하여 지역소득에 기여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것은 축제를 통한 새로운 시흥특화음식을 탄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으로 봄 ○ 지역특산품인 ‘연’가공품을 판매하여 전국에 ‘연’의 우수성과 알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연꽃씨가 뿌리내린 곳 관곡지와 연꽃테마파크까지 자연스럽게 홍보되어 외래 방문객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생명도시 시흥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여기에 더하여 별로 유관성이 없는 연과 시흥축제의 이미지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들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흥갯골축제를 통해 시흥시가 향후 생태관광 도시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졌고 축제를 통해 많은 자원들과 전문가들이 연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시흥갯골의 가치가 경기도나 한국의 것만이 아닌 먼 훗날 우리 자손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인에게 그 가치를 축제를 통해 알려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함. 따라서 본 축제가 이러한 이념을 갖고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정확한 방향성정립이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평가됨

13

화천 산천어축제

(1) 개요

■ 기 간 : 2017년 1월 7일(토) ~ 1월 29일(일) / 23일간

■ 장 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3개면 일원

■ 주 최 : 화천군

■ 주 관 : 재단법인 나라

■ 주요행사

- 산천어 체험 : 얼음낚시, 루어낚시, 맨손잡기, 산천어 밤낚시, 실내낚시 등
- 눈, 얼음체험 : 눈썰매, 봅슬레이, 얼곰이성, 야간얼음광장, 화천카트레일카 등
- 문화 이벤트 : 대한민국 창작얼음 썰매콘테스트, 사랑의 소망등 달기 등
- 편의, 안전시설 : 종합안내센터, 몸눅임쉼터, 아이들 평상쉼터, 이동도우미 등
- 먹거리, 살거리 : 산천어 식당, 향토주전부리장, 푸드트럭 등
- 선등거리 페스티벌 : 선등거리, 선등거리 공연, 하트터널 등
- 시가지연계행사 : 실내얼음조각광장, 산천어 공방, 산천어 커피박물관 등
- 사랑방 마실: 바로파로 겨울축제(간동면), 사방거리 동동축제(상서면) 등

(2) 총 평

■ 잘된 점

- 2017 화천 산천어 축제는 컨슈머인사이트 조사 결과 작년에 이어 지역축제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확실한 위상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축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여 전체 방문객 1,564,133명의 7.4%인 110,447명이 축제장을 찾았음
- 이러한 성과는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우리나라 관광비수기 타개책으로도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박2일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체재객 야간무료낚시”는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성공적인 축제장의 장소 마케팅 전략으

로 평가받을 수 있었음

- 눈과 얼음이 있는 겨울축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개발한 “산타 우체국”은 축제장을 찾은 어린이들에게는 꿈을,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가족중심형 프로그램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상하의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에게는 색다른 흥밋거리였다는 평가를 받았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산천어 축제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축제 주제인 산천어가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물고기로 현대인들의 환경친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임
그러나 산천어 얼음낚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양식된 수많은 산천어를 축제기간 중 구이나 회 등으로 대량으로 소비하는 행위는 축제의 긍정적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자연친화적인 이미지의 산천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천어축제의 자연친화적 이미지 유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기후 온난화로 인해 축제개최시기를 변경한 것이 이번 산천어 축제운영에 가장 큰 어려움이었음. 따라서, 매년 되풀이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즉, 얼음결빙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IT기술을 접목한 첨단 기상예보시스템 도입 등 예측 가능한 축제운영 시스템을 시급하게 구축해 나가야 함
- 1972년 일본 삿포르 동계올림픽 개최는 삿포르 눈 축제를 세계적인 겨울관광축제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
- 따라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는 화천 산천어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의 도약을 위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동계올림픽과 산천어 축제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천어 축제는 관광객들의 선호도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개발 되고 축제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음.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축제경영은 바람직한 면도 있으나 산촌지역인 화천의 정체성이나 지역문화와 관계없이 지나치게 편의중심의 박제화 된 축제가 될 위험성이 높음. 따라서 지역정체성이나 지역문화 콘텐츠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성을 줄여갈 필요가 있음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천어축제장 낚시터, 산천어 구이장, 눈썰매장 등 혼잡한 곳에 줄서기 안내원을 배치하여 질서유지, 안내 필요함 ○ 산천어낚시터 주변에 설치한 쉼터는 관광객들의 피한처 및 휴식처로 활용도가 높았고, 축제의 디테일 서비스 제공 면 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음 ○ 청소년 및 젊은 계층의 축제장 방문이 많아짐에 따라 이들의 편리성 제공을 위해 설치한 휴대폰 충전기는 SNS홍보에 긍정적으로 활용되어 호평을 받을 수 있었음 ○ 축제장내의 쓰레기통 및 설치물에 산천어를 형상화한 다양한 디자인을 게시한다면 축제 및 축제장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천어축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축제장이 지나치게 테마파크나 도시공원의 형태를 띠게 됨으로써 지역의 고유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따라서 축제 프로그램이나 각종시설에 화천만이 지니고 있는 자연성, 야생성, 지역성 등의 특성을 잘 반영해야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향후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비한 축제개최시기, 축제기간, 축제장 인프라 구축 등 축제운영전반에 대한 대응전략수립이 시급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천어 축제의 성공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관광비수기를 타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기존에 서울 및 특정관광지로 한정되어 있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목적지를 화천산골까지 그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였음 ○ 또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가속화 되고 있던 이농현상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을 심어 준 것은 산천어 축제의 큰 성과라 할 수 있음 ○ 산천어 축제를 통해 지역관광 개발동력을 새롭게 얻은 것도 축제의 또다른 성과라 할 수 있음

14

평창 효석문화제

(1) 개요

■ 기 간 : 2017년 9월 2일(토) ~ 9월 10일(화) / 9일간

■ 장 소 :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원

■ 주 최 : 평창군

■ 주 관 : (사)이효석문학선양회

■ 주요행사

- 대표 및 주제프로그램으로 문학의 밤, 문학산책 및 문학특강이 있음
 - 문학의 밤은 메밀꽃이 활짝 핀 청명한 초가을 저녁, 기타의 선율에 맞추어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과 시 낭독, 그리고 마임공연으로 구성된 문학 프로그램
 - 문학산책 및 문학특강은 해설사와 함께 소설을 따라 걸어보는 시간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 소재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메밀꽃 밭 조성, 「메밀꽃 필 무렵」의 명장면을 재현하는 거리상황극과 마당극, 메밀꽃 강통 열차, 허생원 나귀체험, 흥정천 뗏목체험 등이 있음
 - 메밀꽃 강통열차는 드럼통으로 만든 꼬마열차를 타고 축제장 사이의 메밀꽃 밭을 한바퀴 순회하는 유로의 인기 프로그램
 - 허생원 나귀체험은 나귀를 타고 메밀밭을 한바퀴 돌아봄으로써 소설속의 주인공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체류형 야간 프로그램으로 소원풍등 날리기, 추억의 DJ-BOX, 추억의 영화감상, 빛을 그리다 등이 있음
 - 소원풍등 날리기는 눈이 내린 듯 하얗게 핀 달밤의 메밀밭 테마포토존에서 소원을 빌어 풍등을 날리는 감동의 체험 프로그램
 - 추억의 DJ-BOX는 메밀밭 테마포토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도록 DJ박스를 설치한 후 올드 팝 음악을 배경으로 방문객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일종의 추억의 음악다방 프로그램
- 기타, LED로 테마공간을 연출한 야간 상설프로그램 ‘빛을 그리다’, 그리고 평창군의 난

타, 용평면의 둔전평농악, 미탄면의 아라리, 봉평면의 대취타 등 평창군내 마을별 전통 민속놀이 공연 프로그램이 있음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장은 이효석의 소설 속 배경으로써 공간적으로 아름답고 서정적이며, 축제장 공간 구획(문학마당, 자연마당, 전통마당, 봉평장마당)이 소설속의 무대와 조화될 뿐만 아니라 공간별 프로그램 배치가 적절하여 축제의 주제와 크게 연관됨을 느낄 수 있음
- 개막식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축제위원장, 군수, 의회의장 등)의 상투적인 축사 대신에 시와 소설의 한구절을 낭독함으로써 그 자체가 문학의 밤으로 착각할 정도로 인상적이었음
- 드넓은 메밀밭, 이효석문학관 및 생가 등 축제장의 주요 지점에 대형 안내판 및 플랭카드를 적절히 설치함으로써 시간대 별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하는데 어렵지 않았음. 핵심 프로그램은 특별히 소형안내판으로 별도로 제작 설치하였고, 특히 휴대하기 쉽고 보기 편하게 제작한 목걸이 형태의 안내 리플릿은 축제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메밀 씨앗을 함께 동봉함으로써 그 자체가 관광기념품으로 손색이 없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개막식까지 만개하지 못한 메밀꽃이 다소 아쉽게 느껴지며, 이 보다 메밀밭에 조성된 포토존과 자연마당의 물가동네에 설치된 빛 체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관광객을 사로잡을 참여 및 야간 프로그램이 부족한 점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 판단하였음
- 가산공원의 주무대 옆 음식부스는 음식과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장점보다는 오히려 문학의 밤 등 중요 프로그램이 주는 서정성과 감성을 느끼는데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소 소란스러워 몰입을 방해할 수 있음
- 축제장 주변의 무이미술관과 허브농원 등 연계관광지에도 더욱 많은 방문객들이 평창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폐교를 창작공간으로 개조한 무이미술관에는 30년 간 메밀꽃을 그려온 정연서 화백의 빼어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봉평을 처음 방문한 외지의 관광객(특히, 어린이 및 고령자)을 위하여 주무대의 야간 프로그램을 관람할 때 쌀쌀한 날씨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후 정보를 축제 홍보와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p>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기획의 명확성과 주제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릿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가산 이효석 선생의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여 ‘소설처럼 아름다운 메밀꽃, 메밀꽃여행’을 주제로 개최된 「2017평창 효석문화제」는 가산의 대표작 ‘메밀꽃 필 무렵’의 한 구절처럼 소설 속 메밀밭이 주는 서정성과 감동을 느끼고, 아울러 가산의 문학적 가치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문객들이 함께 공감하고자 기획한 것임 - 19년의 역사가 말해주듯 주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축제의 정체성이 명확히 표현되고 있음 ○ 대표 프로그램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은 들판에 핀 아름다운 메밀꽃, 봉평이라는 정감있는 시골의 정서에 더하여 문학의 감성이 어우러진 효석문화제는 문학의 밤, 해설사를 따라 걸으면서 소설 속의 공간을 체험하는 문학산책, 청명한 초가을 밤 메밀꽃밭에서 풍등날리기 등 관람객을 이효석의 문학공간 안으로 불러들여 진한 감동을 느끼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음 - 특히, 문학의 밤은 다소 쌀쌀하였지만 초가을 깊어가는 밤 기타연주와 잔잔한 음악의 선율에 따라 마음 공연을 곁들여 가산의 시와 소설 속의 구절을 낭독할 때, 이 순간 관람객들은 이효석과 그의 문학공간에 완전히 빠져들 수 있었음 - 효석문화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산의 문학적 업적을 널리 알리고 평창의 도시브랜드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축제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p>2) 축제의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 현장운영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은 몇 십만 평에 이르는 소설 속의 무대가 된 메밀꽃 밭을 중심으로 각기 특징적인 네 가지 공간으로 구성함으로써 관람객을 소설 속의 공간으로 불러들여 특화된 소설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음 - 예컨대, 전통마당은 소설 속 시골장터 분위기를 연출한 먹거리마당으로 구성하였고, 자연마당은 소설의 주요 소재인 메밀꽃과 개울가를 활용하여 포토존으로 구성하였음 - 테마포토존은 활짝 핀 메밀꽃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로 아름답고 서정적이었음. 이효석문학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문학마당은 이효석의 문학 향기를 느끼고 문학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요약하면, 관람객들은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소설속의 공간인 봉평장, 충주집, 섯다리, 물레방앗간을 돌아다니며 소설속의 주인공을 체험하기에 충분하였음 - 그러나 메밀꽃의 개화시기를 맞추지 못하여 일부 빈터가 다소 보기에 거슬렸으며, 적극적인 체험과 야간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현장운영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으로 구성된 축제사업부는 축제의 기획, 홍보, 자원봉사 등 부문별 책임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의 유관기관 혹은 개인으로부터 지원과 협찬을 얻어내기에 용이하였음.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의 운영과 안내를 담당하고, 군 산하 공무원들이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기타 군부대는 주차장 및 시설물 관리와 교통지도를 담당함으로써 내부 인력간 유기적인 업무분담이 이루어졌음. 이처럼 책임이사제에 의한 조직 운영과 유관 조직들간의 유기적인 협조시스템의 구축으로 축제의 운영 및 안내 체계가 전년에 비하여 괄목할 정도로 개선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 간과한 점은 물가동네의 섭다리과 2018 평창올림픽둘레다리가 있는 자연마당에 야간 안전요원을 적절히 배치하지 못하였음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 뿌리 내림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석문화제는 메밀밭이 축제의 무대이자 소재라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주민들의 메밀밭 제공 없이는 축제 개최가 불가능할 수 있음. 매년 메밀밭 경작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주민들의 메밀밭 1평 갖기 운동 전개와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메밀 특산품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함을 통하여 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자긍심을 얻을 수 있음 - 축제 담당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통하여 각종 축제 물품 협찬과 운영인력의 동원에 유리한 측면이 많다는 점도 축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 ○ 축제 추진주체의 체계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추진체로서 (사)이효석문학선양회와 축제위원회가 있으며, 전자는 선양사업부와 축제사업부를 둬으로써 문학 선양과 축제업무로 이원화하였음. 특히, 축제사업부는 민간을 주축으로 상설화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자원봉사 등 부서별 책임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역 유관기관 혹은 개인으로부터 지원과 협찬 유도가 용이하였음 ○ 재정자립 및 자생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테마포토존의 하나인 메밀꽃밭의 입장료는 2,000원이므로 효석문화제는 사실상 유료 축제로 분류할 수 있음. 모든 방문객이 테마포토존에 입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장료와 축제 후 메밀수확을 통하여 얻는 수익이 총 운영비의 15~20%를 충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효석문화제는 군단위 축제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분석 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측정 및 유료 티켓팅 각각 1개소를 제외하고 무인측정 2개소를 계획서와 달리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음. 전반적으로 집계는 충실히 이행되었으나, 야간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계시간이 계획서대로 이행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 인근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운영중인 이효석문학관과 함께 이효석 생가터의 복원이 완료되면 봉평은 연중관광객을 유치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예상됨 - 가족, 연인, 친구 등 방문객 유형을 불문하고 대규모 관광객이 방문하기 때문에 향후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함께 허브나라 농원과 대관령의 하늘목장 등 매력적인 연계관광지에 대한 홍보가 강화된다면 축제가 연중관광객을 더욱 유치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한층 굳건해 질 것으로 판단됨

15

원주 다이나믹댄싱카니발

(1) 개요

- 기간 : 2017년 9월 19일(화) ~ 9월 24일(일) / 6일간
- 장소 : 따뚜공연장, 젊음의 광장, 따뚜주차장, 원일로, 중앙시장, 혁신도시 우산동, 태장문화마당, 문막읍
- 주최 : 원주시, 제36사단
- 주관 : (재)원주문화재단
- 후원 : 강원도, 제1군사령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국방부
- 주요행사
 - 개막식 및 폐막식
 - 개막식 : 코리안 환타지 퍼포먼스, 한국전통예술단 아울
 - 폐막식 : FINAL BEST 15 경연 및 시상식
 - 댄싱카니발 (전국 150여개 이상의 단체 참가)
 - 시민자율참가 및 전국 최대 공모형 거리퍼레이드
 - 120m의 초대형 퍼레이드 무대
 - 원주시, 전국, 도내 시민동아리 및 문화예술단 참여, 軍부대
 - 해외 참가팀 퍼레이드(러시아, 필리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 문화예술공연
 - 군악의 날, 클래식&합창의 날, 댄싱카니발의 날
 - 축제포럼 & 축제아카데미
 - 축제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축제 전문가 포럼
 - 축제에 관심 있는 아마추어 기획자 및 시민을 위한 축제기획 아카데미

- 프린지 페스티벌
 - 예술단체들이 함께하는 야외공연장 공연 (문화의 거리, 중앙시장, 혁신도시, 따뚜푸드 스테이지, 따뚜야외공연장)
- 부대행사
 - 그린세이프놀이터, 다이내믹프리마켓, 지역대표 먹거리, 푸드트럭, 군문화체험, 추억의 DDR 등

(2) 총 평

■ 잘된 점

- 메인 댄싱카니발을 일자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문화예술 공연을 펼쳤으며 지난해와 달리 문막읍 등에서 거리퍼레이드를 하는 등 찾아가는 공연으로 문화소외지역 주민들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축제를 통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획의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주 무대가 조성된 따뚜공연장에는 5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댄싱팀들이 공연이 가능할 정도로 120m의 초대형 퍼레이드 무대가 설치되어 있어 규모화된 공연축제로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에 충분했으며, 반원형의 관람객석은 공연관람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주무대 주변으로 관람석을 배치하여 공연 중에도 출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 관람객 몰입도가 높았음
- 지역의 향토음식과 푸드트럭, 한우축제 등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프린지공연을 보면서 테이크아웃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늘막을 설치하고 식탁을 배치한 점도 관람객을 배려한 공간으로 호평을 받았음
- 지난해와 달리 사전 예선제 도입으로 경연시간을 최소화하고 BEST 15경연을 스페셜과 파이널로 구분해 2일간 진행하는 등 운영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음
- 시민기획단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민합창단 및 시민심사단 도입, 지역민을 위한 ‘골목카니발’ 운영 등으로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해를 거듭할수록 국내외의 대회참가팀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유일의 대규모 국제댄싱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사료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댄싱주제에 부합되는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하며, 댄싱팀들을 직접 만나고 싶고 사진도 같이 찍고 싶어 하는 관람객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푸드트럭과 향토음식점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식탁을 마련한 점은 좋았으나, 음식쓰레기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며 일부관람객들이 방치해버린 음식물들을 처리하고 청결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함
- 프린지와 길거리 공연으로 원일로 및 중앙시장에 5일간 차량을 통제함으로 인해 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도도 있음으로 상인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요구됨
- 인터넷조사결과 채점방식공개 및 채점결과의 신속한 발표, 경연참가팀의 대기 장소와 관람객동선 분리 등도 개선점으로 요구됨
- 외국인 참가팀이 증가하는데 비해 종합안내소에서는 외국어 안내자료가 비치되지 않았으며, 안내원도 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문화관광부 지정우수축제로서 다소 미흡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댄싱경연대회를 대표프로그램화 하여 축제로 승화시켜, 국내외 152팀 12,000여 명의 공연팀이 참여할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다양한 장르의 춤의 소재성으로 인하여 관람객들의 신기성과 흥미도를 높였으며,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대표프로그램의 주제성과 완성도가 높았음 ○ 금년에는 ‘길·사람·소통’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거리 퍼레이드로 예선전과 경연대회를 치루고 시내는 물론 문막읍 까지 프린지공연을 확대함으로서 시가지 전역에서 축제의 붐을 조성하는 기획력이 돋보였으며, 개막식에서 진부한 인사말 대신 댄싱퍼포먼스와 세계의 다양한 춤들을 선보여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음 ○ 경연대회도 다이나믹팀과 스페셜팀으로 구분하고, 스페셜팀을 일반부, 해외팀, 읍면동/실버, 아동/청소년, 군부대 등 5개 분야별로 개최함으로서 다양한 계층 및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시민참여도를 높였음 ○ 오직 춤과 음악으로만 구성된 대표 콘텐츠들이 오후 6시 이후부터 시작됨으로 주간에는 군사도시로서 원주시만의 독특한 군문화 체험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호응도가 높았고, 프린지공연, 다양한 먹거리들로 메인경연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지 않았으며, 규모성 있는 메인무대와 관람석 배치로 관람객의 몰입도가 높았음 ○ 다만 댄싱 주제와 부합되는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여러 나라에서 참가한 댄싱의 스토리가 부족하여 단순히 순간적 흥미와 보는데 그침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00여석의 반원형 따뚜공연장을 중심으로 길이 120m, 폭 15m의 특설무대설치와 무대주변으로 좌석을 배치하여 가까이서 공연관람이 가능케 한 점과 공연 중에도 관람객들의 진출입이 자유롭게 공간구성을 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축제장 전반에 걸쳐 관람객 동선을 잘 구성하였고, 도심과 행사장 곳곳에 프로그램 안내판 설치와 프린지공연 및 길거리 공연관람 후에도 메인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간배정이 잘 이루어졌으며, 진행요원과 안내원들이 친절하게 관람객을 맞이하였음 ○ 특히 군문화 체험부스에서 군인들의 친절한 안내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체험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관람객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군사도시로서 원주시의 긍정적 이미지가 향상되었다고 판단됨 ○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어린이부터 실버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자원봉사자 300명에 대한 사전교육도 잘 이루어졌으며 '추자' 라는 특화된 명칭을 부여하여 자긍심을 높여주었음 ○ 수도권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축제관광열차 및 시티투어 버스 운행 등 홍보에 집중했으며, 아시아축제국가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 홍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음 ○ 아쉬운 점은 푸드트럭의 배치공간에 비해 향토음식 부스의 공간이 협소해보였으며, 이동통로와 식탁이 놓여진 공간도 다소 혼잡한 분위기였으며, 테이크아웃 음식쓰레기 등이 미관과 청결성을 해치고 있어 개선이필요함 ○ 또한 공설운동장을 개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며, 외지에서 온 관광객을 위해 교통안내요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에 비해 3000만원의 상금을 증액하고 원주시장이 직접 댄싱그룹에 합류해서 춤을 추는 등 지자체장의 발전의지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국내외 참가팀들이 늘어나고 원주시의 원일로, 우산동, 태장동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문막읍 등 읍 단위까지 공연장소를 확대함으로써 시가지 전역을 축제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주민호응도를 높여간다는 측면에서 발전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음 ○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대만 등 아시아국가의 대표적인 거리축제국가들과 협의체를 발족하여 '아시아축제네트워크' 구축으로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음 ○ `2017 한국축제&여행박람회'에서 퍼포먼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축제의 인지도를 높였으나 축제의 재정자립도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 축제는 역대최대규모인 152팀 1만 2,000여명의 국내외 참가자들로 성황을 이루었으며, 연인원 51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함으로써 축제의 위상을 드높임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사료됨 ○ 특히 해외에서 13개팀 1600명이 참가하여 퍼레이드를 펼침으로서 글로벌축제로 이미지 거양은 물론 사회문화적으로 역동적인 원주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지역주민의 자긍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 예비 축제 기획자를 양성하는 축제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하여 기획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등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민중심의 발전토대 구현 ○ 축제의 메인행사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주간에는 지역내의 관광자원을 둘러볼 시간이 충분함에도 이에 대한 연계성이 다소 미흡했음

16

춘천 국제마임축제

(1) 개요

■ 기 간 : 2017년 5월 21일(일) ~ 5월 28일(일) / 8일간

■ 장 소 : 춘천시 중앙로, 축제극장몸짓, 수변공원

■ 주 최 : (사)춘천마임축제, KBS춘천방송총국, 춘천MBC

■ 주 관 : (사)춘천마임축제 운영위원회

■ 주요행사

○ 물의 도시(아수라장)

- 주제공연, 물 난장, 컬러링 로드, 버블로드, 블루 맨 등

○ 봄의 도시

- 찾아가는 공연, 우리동네 좋은 날, 거리공연, 극장공연 등

○ 불의 도시(도깨비난장)

- 주제공연, 공간 별 공연, 체험 및 놀이 프로그램, 불구이 포장마차 등

○ 기획프로그램

- 물火일체, Culture In Pavilion Project, 청년 Together Project, 마임아카데미, 클레젠트 부케's Day 등

(2) 총 평

■ 잘된 점

○ 올해로 29회째를 맞은 춘천 국제마임축제는 일반인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예술적인 영역의 마임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영역의 마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거리공연이나 찾아가는 공연, 화염 머신 등 매년 새로운 시도를 통해 변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축제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음

○ 축제의 기획과 운영이 전적으로 민간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축제기획의 창의성과 자율

성이 보장되고 있으며 춘천시는 철저히 필요한 지원업무만 수행하여 축제 기획과 운영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일반적으로 마임은 몸짓과 표정만으로 표현하는 난버벌 퍼포먼스로 이해되고 있으나 실제 많은 공연이 목소리나 악기 등의 음향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이러한 공연이 마임이라는 축제의 주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연관되고 이해되어야 하는지 방향제시가 필요함
- 축제장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철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기간 실제 방문객 수는 10만명 내외로 추산되어 축제의 콘텐츠나 지리적 이점 등을 고려할 때 만족스럽지 못한 방문객 수를 보여주고 있음
- 이는 축제 자체의 홍보 부족과 함께 ‘마임’이라는 주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예술성으로 인해 많은 일반인들이 ‘마임’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있어서는 마임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축제의 대표적인 콘텐츠인 물의 나라나 불의 나라를 중심으로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의 도시, 물의 도시, 불의 도시 등 축제의 각 세부테마를 설정하고 테마 별로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차별화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 ○ 마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예술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가로부터 일반인까지 두루 즐길 수 있도록 마임공연 공간을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바람개비 무대, 신진작가들의 실험작품을 공연하는 독립무대, 광장형 장르의 메인 프로그램이 공연되는 광장무대, 소규모마임이나 오브제 시어터가 공연되는 예술적 무대인 내림무대 등 4개의 공간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으로 1년 여간 연구해온 ‘야외공간에서의 대형 불 공연 기술개발 사업’ 을 통해 개발된 15m 이상 불기둥이 솟구치는 fire machine 50대를 설치하여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장관을 연출하는 등 매년 새로운 시도를 통해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 예술가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깨비)와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축제로 특히 60여명의 시민배우를 캐스팅하여 진정한 의미의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를 구현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p>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들의 반응이 좋은 물의 도시: 아수라장의 경우 개막일에 행사가 진행되어 또 다른 대표 테마인 불의 도시와는 일주일의 시차가 있어 물의 도시와 불의 도시를 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1주일 간격으로 춘천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축제를 여는 의미로서 개막일에 물의 도시: 아수라장을 개최해야만 한다면 불의 도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도 아수라장 프로그램을 추가로 진행하여 불의 도시를 찾은 방문객에게 물의 도시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수라장’이라는 주제에 맞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적인 놀이 참여가 인상적이었으며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공연으로 관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냄 ○ 스페인 국적의 배우들과 한국 배우들이 함께 공연을 펼치면서 동서양의 융합이라는 멋진 무대를 선보였고 공연 내용도 상당히 수준 있는 공연으로서 관객들에게 축제에 몰입할 수 있는 재미를 더해 줌 ○ 개막식 날은 ‘물’을 활용한 축제인 만큼 물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이 펼쳐졌으며, ‘물총 쏘기’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충분히 수행함 ○ ‘물총 쏘기’ 프로그램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확보는 매우 긍정적인데 반해서, 참여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청소년과 20대로 이루어짐으로써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며 진정한 축제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조금 미흡함 - 30대와 40대, 그 이상의 세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필요 ○ ‘아수라장’은 물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물이 확보되지 않아 참여자가 지하기도 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참가자들의 몰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춘천 마임축제의 미션은 자유로운 몸과 움직임을 통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된 몸의 난장을 창조하는 것이나 불의 나라에 참여한 방문객들의 경우 그들이 진정한 축제의 주역이라고 보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음 - 불의 나라에서도 몸의 난장을 창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
<p>2) 축제의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야간 공연이 메인 프로그램임을 고려하여 야간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였으며 안내요원의 축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판단됨. 다만, 축제 주무대와 임시주차장을 가로지르는 대로상의 횡단보도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못한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수변공원은 주거 공간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써 화염머신을 통한 파이어쇼, 레이저 본의 락 공연, 라퍼커션의 타악기 퍼포먼스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공연하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임 ○ 그러나 주무대의 가림막 바깥쪽은 축제장을 오가는 유일한 인도와 접하고 있는데, 이곳에 전날 행사 후의 폐소품, 폐건축 자재 등 쓰레기가 방치되어 미관상 매우 좋지 않았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주무대(도개비난장)인 공지천 수변공원까지 오는데 택시와 자가용을 제외하고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 불꽃놀이 허가 지연으로 인해 프로그램 확정이 늦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안내책자나 팸플릿별로 프로그램 일정이 다른 문제점이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관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가능한 일찍 진행하여 프로그램 일정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일부 부스의 경우 축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부스가 운영되지 않아 축제장의 분위기를 반감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시간에는 모든 부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 ○ 토요일의 경우 행사가 16시부터 시작되나 행사장이 햇볕을 피할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해가 지기까지 방문객들이 더위에 지쳐 물을 많이 찾게 되나 행사장내에 물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곳이 없어 방문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수회사의 협찬을 받아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또는 행사장 내에 생수를 판매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던 설치조형물 불태우기가 조형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제대로 불이 붙지 않는 문제점을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구조물이나 조형물 등에 대한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요 ○ 축제 홈페이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기가 어렵고 필요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축제 홈페이지의 전면 재구축이 요구됨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주민과 공동 기획·제작하여 동네만의 축제를 즐기는 ‘우리동네 좋은 날’과 지역의 장애인, 노인, 병원을 방문하여 공연하는 ‘찾아가는 공연’ 등을 통해 춘천시 전역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음 ○ 청년 Together 프로젝트와 2개월간 축제를 함께 만들어 갈 축제 코디네이터 그룹 깨비단 등 지역 청년 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축제 기획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축제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방문객에게 의외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초대받지 않은 예술가나 일반인들도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공연이 가능한 프린지축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운 5번가 상인회의 후원과 요청을 받고 브라운 5번가에서 거리공연을 실시하는 등 지역 기업의 후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기업과의 공동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춘천마임축제의 자생력과 대중성을 높이고 있음 ○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축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마임의 대중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서울 등 수도권에서 좀 더 많은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정교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17

정선 아리랑제

(1) 개요

- 기간 : 2017년 9월 29일(금) ~ 10월 2일(월) / 4일간
- 장소 : 정선읍 아리리공원 일원, 정선5일장 무대, 아리리촌, 녹송공원, 아리랑센터 등
- 주최 : 강원도, 정선군
- 주관 : (사)정선아리랑제위원회
- 주요행사
 - 축제의식
 - 칠현제례 및 기로연, 9개 읍·면 화합한마당 ‘아리리 길놀이’
 - 주제공연
 - 2017 세계무형유산 등재 종목 행사공모지원 사업 ‘정선아리랑 대합창극 아리랑 무극’ 개막식 및 생방송(CJ), 경기국악당 ‘판 깨는 소리’, 북한 백두한라예술단 ‘서도 아리랑’, 폐막식 및 폐막공연 ‘아리랑 - 빛을 받하다’
 - 아리랑 경창·경연대회
 - 제42회 정선아리랑제 전국아리랑 경창대회, 제42회 정선아리랑제 전국아리랑 학생 경창대회, 제42회 정선아리랑제 어르신 정선아리랑 합창대회, 제8회 주도 전산옥 선발대회
 - 학술교육·전시홍보
 - 아리랑 포럼, 수석전시(정석회), 대한민국기능전승자회 전통공예기능 전시회 및 체험, 정선군 관광 안내 및 캐릭터 홍보, 자연보호 사진전시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 운영, 제7회 필정회전(정선아리랑 서예전시)
 - 창작공연
 - 정선아리랑 창작공연, 정선아리리 인형극, 정선아리랑 문학콘서트 및 청소년 문학상 시상

- 전통문화교류
 - 정선아리랑제 전통문화 재현 및 교류공연 ‘관노가면극’, ‘강강술래’, ‘줄타기’, ‘이리 향제줄풍류’, ‘경산중방농악’, ‘영남민요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교류 공연-카자흐스탄, 스리랑카, 중국 ‘경극’·‘기예단’

(2) 총 평

■ 잘된 점

- 정선아리랑제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인 정선아리랑의 보존과 계승·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소리문화 축제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음
- 이번 제42회 정선아리랑제는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와 연계 운영됨에 따라 두 축제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무형문화재인 정선아리랑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유형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존·계승이 어려운 무형문화재를 아리랑제를 통해 잘 보존·계승하고 있으며 아리랑에 대한 아카이브(archive)기능 확대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아리랑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정선아리랑제에는 현재 40-50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2017 정선아리랑제 자체평가보고서 : 50대 30.0%, 40대 21.5%)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인 정선아리랑의 보존·계승을 위해서는 젊은 계층의 축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메인행사장과 축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아라리촌 및 아리랑 센터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축제 프로그램 재배치 및 축제 공간 재편성이 필요함
- 축제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정선아리랑의 내용과 의미 등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 방송, 외국어 관광통역안내사 배치, 외국어 팸플릿 비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프로그램 중 공연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아 ‘부대행사 및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2017 정선아리랑제 평가보고서) 이 같은 결과는 공연프로그램이 축제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공연 프로그램의 종류가 많고 상시 운영되기 때문에 참여나 관람의 기회가 많은 것에 기인하고 있음 ○ 그러나 전통문화 재현프로그램이나 축제 주제와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축제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정선5일장 내에 상설공연장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공연을 함으로써 전통시장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정선아리랑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기획이라고 평가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선아리랑제의 행사내용의 재미, 기념품, 음식에 대한 만족도조사 중 축제가 재미있다는 항목의 평점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 같은 결과는 (2017 정선아리랑제 평가보고서) 축제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와 축제운영에 대한 만족도의 복합적인 결과임. 따라서 축제운영은 비교적 우수했던 것으로 판단됨 ○ 정선아리랑제의 홍보·안내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외지 관광객들은 상대적으로 홍보부족을 느끼고 있으므로 SNS 홍보, 전국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됨 ○ 축제장 인근의 주차장 확보가 전년대비 확대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축제 환경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분석됨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선아리랑제는 관광객들에게 정선지역의 지역문화이해도를 넓혀 과거 탄광지역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사회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선아리랑제는 아라리공원, 정선5일장 상설무대, 아라리촌, 녹송공원, 아리랑센터 등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제의 기반이 되고 있음
4) 축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선아리랑제는 2013년부터 대한민국 아리랑축전과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이를 통한 프로그램 강화와 아리랑의 고장이라는 지역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음 ○ 연계 진행에 대해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는 답변이 99.4%로 나타난 것만 보아도(2017 정선아리랑제 평가보고서)정선아리랑제가 지역사회에 순기능적 요소가 많음을 알 수 있음 ○ 2017정선 아리랑제에는 전체 390,146명이 방문하여 약 8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남

18

강릉 커피축제

(1) 개요

■ 기 간 : 2017년 10월 6일(금) ~ 10월 9일(월) / 4일간

■ 장 소 :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e-zen 일원

■ 주 최 : 솔향 강릉시

■ 주 관 :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 주요행사

- 강릉커피 100인 100미, 커피 로스팅 체험, 커피 추출 체험 커피공예·수공예체험, 강릉 커피세미나, 브라질 등 커피 주요생산국 대사관들의 축제행사

(2) 총 평

■ 잘된 점

- 일단 커피라는 평상시 많이 접하지만 이를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서 ‘강릉커피 100인 100미’ 주체 프로그램 등 나름 경쟁력 있는 기획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만들고자 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 보임
- 강릉이라는 도시의 관광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커피라는 아이템을 통해 강릉지역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향성을 설정하였다는 점. 강릉녹색체험센터라는 상설공간을 활용해서 ‘커피찌꺼기 환경캠페인’ 등 재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친환경적인 커피축제로서 이미지 구축에 노력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임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의 기획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이를 구체화하여 실제 다양한 아이템들로 참가한 관광객들에게 다가서는 데에 있어서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기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나 실제 이를 구체화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곳도 있었음)
-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교통이나 안내판(고속도로에서의 안내판, 축제장 출입할 수 있는 곳은 많은데 안내 표지판이 많지 않음) 등, 우천 시에 대한 대비 등이 미

흡하여 이와 같은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많이 보임

-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동선 설계, 교통 통제의 한계로 인해서 축제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 등 참가자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배려가 부족
- 지역의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먹거리가 축제장에 없는데 향후 축제 참가자들에 대한 배려와 지역경제에 도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축제 운영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하여 축제장에서 축제 참가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교통 통제, 주차서비스, 관광객 안내서비스, 하루 축제 마감 후 청소 및 정리정돈 등)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커피 100인 100미’ 라는 커피 축제의 주제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된 콘텐츠의 기획 및 구성 등은 우수하였으나, 기타 축제의 기획과 실제 콘텐츠들이 축제 참가자들에게 잘 다가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니,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었음 ○ 커피라는 명확한 주제와 대상층에 따른 핵심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기획하였으나, 실제 체험 프로그램과 다소 즐길 거리가 제한적이지 않았으나 판단됨. 구체적으로 커피와 강릉시와 결합을 통한 스토리텔링,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일반 카페에서 할 수 없는 체험 및 콘텐츠 개발 등의 확대전략이 필요함 ○ 행사 일자별, 주말, 야간 등에서 특화 프로그램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영화상영 및 재즈 음악회 등도 커피축제의 상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타켓별 체험프로그램의 차별화, 가족단위 및 커플, 전문가 층의 구분 및 차별화 등에 미흡) ○ 커피라는 보편적 주제를 강릉 지역에 맞게 스토리텔링과 활용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특히 첨단 ICT를 활용한 VR, AR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폰과 연계하는 노력도 필요 ○ 커피축제를 통해 인근 강릉의 주요한 관광지와의 연계 프로그램의 강화, 숙박 및 장기 참가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한데 참가자들을 위한 시내 및 연계 숙박 수용능력이 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행사장 진입 도로가 축제장 입구의 양쪽 도로에 주차를 허용하다보니, 혼잡하고 편의시설 등이 미흡하여 참가자들이 행사장을 방문하는데 곤란을 겪고, 처음 방문하는 참가자들이 혼동을 줄 수 있는 이정표, 안내 표시판 등은 참가자들의 접근성에 다소 미흡함 ○ 축제 행사가 명절기간과 겹치면서 많은 참가자들이 오는 것에 대해 대비를 하지 못한 점, 특히 개막식 날엔 비가 오다보니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미흡, 15분마다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행사장 진입시 5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4-50분이나 지체되는 등 참가자들에게 불편을 줌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을 출입할 수 있는 출구는 많은데 반해서 관광객들의 출입 동선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우천/폭염 등에 대비한 휴식공간, 앉을 자리 마련 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 ○ 축제참여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커피 주제에 집중해 장터 부스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청년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푸드트럭 배치는 이해하지만, 참가자들이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벤치 등의 확보, 강릉지역 10대 향미, 지역의 특색있는 한과 등을 축제장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특색 있는 장터를 개설하면 지역을 홍보하고, 먹거리 소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듦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주제인 커피라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강릉시가 선점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음 ○ 축제평가를 처음하다 보니, 축제의 경쟁력, 축제의 기획과 실천방안 등이 다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기획능력은 우수한 것으로 보임. 향후 축제실행시 기획 등과 좋은 협업을 가진다면 긍정적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등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및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관심 갖는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참가자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고 특히 중년여성들이 많은데 반해 젊은 층을 위주로 한 콘텐츠 기획을 한 것 보이는데, 좀더 참가자들의 성향파악을 통해 이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며 유망축제의 경쟁력은 더 커질 것이라 보임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국민들의 새로운 기호식품으로 자리를 잡은 커피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켜서 지역 축제의 장을 넓혀주었다는 점 ○ 강릉이 왜 커피축제를 하는지? 를 홍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커피 생산 국가 대사관들의 참여를 통해 향후 커피축제의 가능성이 긍정적임 ○ 강릉의 관광도시에 커피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함으로써 이로 인해 강릉지역을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조성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됨

19

괴산 고추축제

(1) 개요

■ 기 간 : 2017년 8월 31(목) ~ 9월 3(일) / 4일간

■ 장 소 : 괴산군청 앞 광장 일원

■ 주 최 : 괴산군

■ 주 관 : 괴산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고추별별마당 : 세계고추전시회, 괴산고추품평회, 괴산고추홍보관, 고추 속 체험
- 고추놀이마당 : 대동놀이(개폐막식, 괴산임걱정선발대회, 전문공연단체 및 지역단체 공연 등), 소소놀이(황금고추를 찾아라, 속풀이 고추난타, 고추유랑극단, 고추이벤트 등)
- 괴산문화마당 : 전시(군민종합작품전시, 사진전시, 수석전시, 공통공예품전시), 행사(풍년기원제, 한시백일장, 괴향문화학술발표회, 출향인사간담회 등)
- 괴산어울림마당 : 문화·놀이기반 체험부스 및 유관기관 홍보부스 등
- 물장구마당 : 물총대전, 고추달린 물고기 잡기, 기타 물놀이 이벤트
- 고추잡자리마당 : 전국 캠핑대회(100팀)
- 고추장터 : 11개 읍면 고추장터, 고추방앗간, 쉼터, 농특산물 판매장, 읍면장터
- 먹거리마당 : 간이음식점(푸드트럭 및 부스형), 아시아 핫푸드존, 향토식당, 읍면식당 등

(2) 총 평

■ 잘된 점

- ‘고추’라는 지역특산물을 테마로 ‘고추야 놀자! 더 신나게 Go! Go!’ 주제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볼거리와 놀거리를 풍성하게 만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아빠와 함께하는 체험 고추요리’, ‘고추난타’, ‘아시아핫푸드존’ 등 새롭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한 점과 ‘황금고추를 찾아라’, 먹거리 경연대회 등의 프로그램들을 개선 및 보완하

는 노력을 기울였음

- 지역특산물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축제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뛰어남. 예를 들어 부잣집 호상일 경우 장례식 전날 밤에 빈 상여를 메고 망자의 자손과 친척집을 돌아다니는 놀이의식인 대돋움놀이, 소설 임궽정의 저자인 벽초 홍명희선생의 출생지로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임궽정 선발대회 등의 임궽정 관련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음
- 방문객의 동선과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인 축제장 배치를 통하여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함. 주차장, 특산물 판매장, 전시관, 주무대 등을 일직선상으로 배치하여 방문객의 동선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고추판매장, 방앗간, 대기쉼터 등 관련성 있는 장소를 함께 배치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높였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주제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다채롭게 구성하였으나 운영상의 아쉬운 부분들이 있음. 예를 들어 ‘황금고추를 찾아라’의 경우 현장에서 참가자를 모집하다보니 중간에 새치기나 어른들이 아이들을 밀치고 들어가는 등의 혼란이 있었는데, 이는 온라인예약이나 축제장에서 사전예약으로 최소한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지역의 전통문화 발굴의 노력은 있었지만 축제장 방문객을 지역 관광지로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연계한다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유망축제가기는 하지만 프로그램 상에 외국인 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장에 외국인 안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추축제에 적합한 ‘매움과 즐거움’ 을 주제로 설정하고 주제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였으며,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과 기존의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콘텐츠를 대폭 확대함 ○ 특히, 킬러콘텐츠인 ‘황금고추를 찾아라’ 의 경우는 짝어서 찾는 방법에서 손으로 만져 촉각으로 찾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참가자의 체감도를 높이는 등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함 ○ 아쉬운 부분은 바로 행사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하다보니 새치기, 어른들이 어린이 밀리기 등의 통제되지 않은 무질서한 모습들이었음. 온라인예약이나 행사장 사전예약을 통하여 최대한 무질서한 모습이 사라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고추관련 프로그램에 더불어 대돋움놀이, 임꺽정 등의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축제 프로그램으로 기획함으로써 고추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음 ○ 단, 괴산 고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시나 정보전달에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돋움놀이나 임꺽정이 괴산과의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어떠한 전통문화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전달이 부족한 것 같음 ○ 기존의 과도한 의례식순, 행사들은 사라졌으나 이를 대체한 개막행사가 다소 산만하게 진행되었으며 관객과 소통하는 행사이기 보다는 참여자들만의 행사로 다소 아쉬움이 있었음. 치밀한 연습과 음향, 조명과의 일치, 연기자의 자연스러움이 관객과 어우러져야 할 필요가 있음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방문객이 주차장, 특산물 판매장, 고추전시관, 체험존, 주무대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충분히 축제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였고, 하천을 중심으로 물놀이마당, 하천 건너편에 향토음식점 등을 배치하는 등 축제장 활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음 ○ 우수한 품질의 괴산 고추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방문객들의 구매가 높았고, 구매와 동시에 고추를 뺄 수 있는 방앗간을 설치하여 필요에 맞게 고추 또는 고춧가루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추를 뺄 동안 대기를 할 수 있는 대기실터를 마련함과 아울러 축제장 인근 방앗간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자의 편의를 높였음 ○ 고추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품인 찰옥수수, 백련초, 흑미가루 등 지역의 농산물 홍보를 위하여 옥수수 막걸리, 찜빵 등의 축제 먹거리를 등을 제공하였음 ○ 올해 고추 작황이 좋지 않음에도 작년보다 더 많은 양의 품질 좋은 고추를 저렴하게 제공하다보니 축제 개장과 동시에 오전에 모든 고추가 판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그로 인해 오후에는 방문객이 고추를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됨 ○ 향후에는 시간대별로 일정량을 판매하던지, 아니면 지역의 고추판매처 정보를 제공하여 축제장뿐만 아니라 괴산의 다양한 곳에서 고추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농촌지역이다 보니 어르신들의 축제방문이 많았는데 축제장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과 임꺽정 주막에서 지역민들과 운영원들이 어울려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됨. 아니면 임꺽정 주막을 하천 쪽으로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도내 유일한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지역민의 자부심과 더불어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민의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주도형 축제로 발전시킴 ○ 괴산군은 축제전문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축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주민화합형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고취와 농산물 판매수익의 증대로 인한 주민참여의식이 강화되었고, 지역문화와 농산물을 결합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3) 축제의 발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주제인 고추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역사적 스토리 구성과 구체적인 설명을 통한 정보 전달을 바탕으로 괴산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축제추진위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주도적인 축제 운영위한 제도개선 및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고 지자체는 추진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맡는 등 업무 분할로 안정적인 축제 운영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방문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먹거리마당 확대 및 카드결제 등을 추진하였으나 향토 식당의 경우 타 축제에 비해 음식가격이 높았고 음식 맛도 우수하다고 하기는 의문이 있었으며 카드결제의 경우도 거부하는 식당이 다수 있었음. 설득과 점검을 병행하여 축제 추진하는 측과 참여하는 측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산군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개선 및 확대를 통하여 전년대비 39% 방문객 증가라는 성과를 올렸으며, 농특산물 판매도 전년대비 약 2억 원 정도 증가하여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음 ○ 괴산군의 특산품인 고추 판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고추관련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였고, 괴산군의 전통문화 발굴하고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관내 초·중·고 및 대학교, 학군교 등의 참여로 한층 젊어진 축제로 거듭나는 효과를 가짐 ○ 축제장의 환경개선,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하여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훌륭하나 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관광상품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수려한 자연환경, 지역문화제, 체험거리 등을 축제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을 알리고 지역관광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이 필요함

20

강경 젓갈축제

(1) 개요

- 기간 : 2017년 10월 18일(수) ~ 10월 22일(일) / 5일간
- 장소 : 젓갈공원, 젓갈시장, 젓갈전시관, 옥녀봉 등
- 주최 : 논산시
- 주관 :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5개 분야 74개 행사 / 편의시설 19개소
 - 대표프로그램(2개) :
 - 강경포구 전국마당극 경연대회, 젓갈김치 담그기
 - 공식문화행사(26개)
 - 강경포구 플래시몹, 강경포구 버스킹, 강경포구 변사극, 포구나이트 “이용식의 강경포구 차차차”, 강경포구 인형극장, 팔씨름왕, 풍물한마당, 청소년 포구어울마당 등
 - 체험행사(15개)
 - 가마솥 햅쌀밥과 젓갈시식, 강경포구 탐방, 민속놀이, 젓갈딱지왕, 소원성취 종이배 띄우기, 왕새우잡기, 어린이 물고기잡기 체험, 양념젓갈 만들기 등
 - 특별행사(11개)
 - 전국 드론 경연대회, 전국어린이동요제, 강경포구 사생대회, 놀피 백일장, 전국 궁도대회, 청소년 가을희망, 축제한마당, 강경포구 국악 한마당, 젓갈김장열차, 부여국립국악단 공연, 사랑의 나눔 바자회, 축제연계공연 등
 - 상설행사(20개)
 - 강경포구 레스토랑, 젓갈 특선판매장, 조선3대시장 홍보관, 강경 포구주막, 국화 포토존, 놀피대장간, 강경포구 “夜”한 거리 등
 - 부대행사(2개)
 -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각설이 공연 등

(2) 총 평

■ 잘된 점

- 지역브랜드와 축제 컨셉의 일치성 보유
 -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젓갈을 컨셉으로 추진한 축제로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전국 생산량이 가장 많아 인지도도 높음
- 축제 전문위원제도 도입 : 전문성 강화
 - 축제사무국에서 축제/공연을 위한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축제 전체를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 대학교수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축제 추진
- 교통체계 극복을 위한 노력
 - 축제기간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내체계를 개선하고 안내요원을 다수 확보하였으며 행사장을 둔치에서 젓갈시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주차문제 해결
- 체계적인 자원봉사 시스템 운영
 - 논산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축제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수급 시스템 구축
 - 자원봉사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축제 소양교육을 1년에 2회 실시함으로써 자원봉사자 수준 높임
- 지역 상권과 축제장 연계 강화
 - 2016년 넓은 수변 둔치에서 개최되던 행사장을 젓갈시장 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지역 수익 창출 효과 도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 공간의 스토리 발굴 필요
 - 우수한 축제 컨셉에 비해 축제 스토리 미흡하고 단순나열식 시설 및 체험 위주로 되어 있어, 축제 공간의 흥미 한계
- 논산 도심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 축제 행사장과 도심이 떨어져 있어, 지역으로의 관광 파급효과가 미흡한 실정. 현재 숙박시설 이외에는 영향이 미흡

- 또한, 논산 관광자원의 경우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축제 방문객들을 위한 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
- 여행사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치 노력 필요
 - 현재 코레일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여행사 연계 노력이 필요
-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필요
 - 강경젓갈이라는 주제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임. 특히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왕새우잡기’의 경우 1일 1회로 한정해서 참여에 한계. 어린이들이 많이 아쉬워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역사성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경 젓갈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역사를 지닌 지역 콘텐츠로서 지속성과 정통성 보유 ○ 축제 전문위원제도 도입 :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사무국에서 축제/공연을 위한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축제 전체를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 대학교수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축제 추진 ○ 지역브랜드와 축제 컨셉의 일치성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젓갈을 컨셉으로 추진한 축제로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전국 생산량이 가장 많아 인지도도 높음 ○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경젓갈이라는 주제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임. 특히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왕새우잡기’의 경우 1일 1회로 한정해서 참여에 한계. 어린이들이 많이 아쉬워함 ○ 대표 프로그램의 확대 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대표프로그램인 젓갈김치담그기의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행사장소도 눈에 띄지 않아, 행사 및 체험객 참여 확대를 통해 축제 활성화를 도모함 ○ 축제 공간의 스토리 발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축제 컨셉에 비해 축제 스토리 미흡하고 단순나열식 시설 및 체험 위주로 되어 있어, 축제 공간의 흥미 한계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자원봉사 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축제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수급 시스템 구축 - 자원봉사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축제 소양교육을 1년에 2회 실시 ○ 지역 상권과 축제장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넓은 수변 둔치에서 개최되던 행사장을 첫갈시장 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지역 수익 창출 효과 도모 ○ 행사장 확대 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갈시장 내로 행사장을 옮기면서 지역 밀착형 축제로 변모하였지만 향후 다양한 행사 추진을 위해서는 행사장 확대에 대한 방안 필요 ○ 교통체계 극복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기간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내체계를 개선하고 안내요원을 다수 확보하였으며 행사장을 둔치에서 첫갈시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주차문제를 해결 ○ 타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축제 활성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창군, 괴산군과 MOU를 체결하여 상호 축제를 참여하여 공연하고 부스 운영 ○ 추억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발굴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는 포토존 설치, 지인들에게 기념편지를 쓸 수 있는 빨간우체통 설치(우정국 협조, 기념카드 판매 가능) 등 ○ 축제와 지역 숙박을 연계하는 체류형 상품 개발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야간 이벤트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을 지역에 머무르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사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치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코레일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여행사 연계 노력이 필요 ○ 지역대학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양대, 공주대와 협력하여 매년 축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다음 축제에 반영 ○ 논산시청 적극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와 관련하여 관광과 뿐만 아니라 전사적 차원에서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지역 다수의 다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축제 활성화에 기여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 도심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행사장과 도심이 떨어져 있어, 지역으로의 관광 파급효과가 미흡한 실정. 현재 숙박시설 이외에는 영향이 미흡 - 또한, 논산 관광자원의 경우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축제 방문객들을 위한 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

21

부여 서동연꽃축제

(1) 개요

■ 기 간 : 2017년 7월 7일(금) ~ 7월 16일(일) / 10일간

■ 장 소 : 부여서동공원(공남지)

■ 주 최 : 부여군

■ 주 관 : 부여서동연꽃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공식행사

- 개막식, 폐막식(주제공연: 태평천하만민희곡, 한여름 밤의 공남지 판타지)

○ 공연프로그램

- 개막주제공연(서동의노래), 개막축하공연(연꽃愛빛과 향을 품다), 개막축하공연(화천월지), 사랑콘서트(대전MBC), 아름다운 연꽃애(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초청공연), 실경 판타지 공연, 폐막식공연(태평천하만민희곡), 지역예술단체공연

○ 경연 및 전시 프로그램

- 경연프로그램 : 서동요 전국 창작동요 부르기 대회, 제15회 서동공원 연꽃 사생대회
- 전시프로그램 : 시화전, 연 음식 전시 시식, 세계유산사진전
- 경관조명시설 : 로맨틱존, 서동선화존, 설화존, 순결존, 정열존, 패밀리존, 이궁존

○ 특화 및 체험 프로그램

- 특별이벤트 : 서동선화 나이트 퍼레이드, 연희단거리패, Love Food Village 등
- 패밀리존 프로그램 : 연꽃 인형극장, 얼음체험장, 연꽃 영화관, 서동선화 물풍선놀이 등
- 체험프로그램 : 서동선화 쪽배체험, 카누연지탐험, 부여스탬프투어 등
- 상설체험행사 : 연지탐험, 연밥인형 만들기, 연씨 팔찌만들기, 종이연꽃 만들기 등
- 병행행사 : 사비야행, 백마강 달밤 야시장

(2) 총 평

■ 잘된 점

- 부여서동연꽃축제는 궁남지의 역사문화적 요소를 활용한 공연프로그램 및 공연퍼포먼스, 연꽃을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집중적인 기획 및 구성을 통해 축제의 주제인 ‘서동+연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성공함
- 서동연화쪽배체험과 가족패밀리존 구성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축제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방문객들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함
- 야간공연프로그램 확대, 야간경관조명을 활용한 테마존을 확대 운영하는 등 야간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야간형 축제로서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함
-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지라는 역사성과 연꽃단지라는 자연생태경관을 보유한 궁남지를 축제행사장으로 선정함으로써 다른 연꽃축제와의 차별성을 확보함
- 관람객 편의 쉽터 공간 확대, 가족체험형 쉽터 조성,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등 방문객 수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ICT 기술을 활용한 종합안내소를 운영하여 키오스크 등을 활용한 축제홍보, 대화형 플랫폼을 이용한 관광객 설문조사, VR/AR체험 등을 제공함으로써 진일보된 안내기능을 선보임
- 부여사랑상품권을 최초로 도입하여 축제 체험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줌으로써 지역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부여서동연꽃축제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축제콘텐츠의 발굴 및 대표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 연꽃 및 연꽃경관 관람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꽃단지의 구역화, 연꽃탐방로의 설계 및 조성, 경관포인트 설정 등 관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야간공연프로그램을 주제공연프로그램 중심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야간공연프로그램의 주제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야간경관조명시설의 경우 대폭적인 투자를 통해 빛과 조명을 활용한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발전시키거나 연꽃축제의 본질에 맞게 야간 연꽃관람을 보조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축제방문객의 급증에 대응하여 축제방문객들을 위한 숙박시설, 식당시설, 연계관광시스템 등 지역 전체의 관광객 수용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부여서동연꽃축제의 주제를 반영하여 역사문화형축제와 자연생태형축제가 결합된 축제

의 이중구조, 주간은 연꽃 및 경관감상, 체험프로그램, 야간은 야간공연프로그램과 경관조명으로 이루어지는 이원적 프로그램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축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기획의 명확성과 주제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서동연꽃축제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궁원지(宮苑池)인 궁남지의 역사문화적 요소와 자연생태적 요소를 기반으로 ‘서동+연꽃’을 주제로 축제의 기획과 운영이 이루어짐 - 전체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 궁남지를 조성한 백제무왕과 연관된 역사적 사실과 무왕 탄생설화 및 서동설화 등 설화적 요소를 소재로 한 공연프로그램 및 공연퍼포먼스, 그리고 연꽃, 연잎, 연밥 등 연꽃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을 축제의 핵심프로그램으로 기획구성함으로써 축제 주제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데 일정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됨 ○ 대표 프로그램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서동연꽃축제의 주제를 반영하고 대표이미지를 형성하며 축제방문객의 대다수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대표프로그램은 궁남지 연꽃단지의 50여 종에 달하는 연꽃과 연꽃군락이 빚어내는 연꽃경관으로 판단됨 - 부여서동연꽃축제에서는 연꽃 및 연꽃경관 감상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야간 공연프로그램과 이용한 야간경관조명시설을 대표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축제방문객들이 축제 대표프로그램으로 인지하고 있는 공연프로그램 가운데 개막주 제공연인 ‘서동의 노래’, 폐막주제공연인 ‘태평천하만민희곡’, 실경공연인 ‘한여름밤의 궁남지 판타지’등은 부여서동연꽃축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으나, 짧은 공연시간이나 공연 완성도 등을 고려할 때 완성된 공연콘텐츠로 보기에는 한계를 가짐 - 정열존, 순결존, 로맨틱존, 서동선화존, 이궁존, 설화존 등 7개 테마구역으로 구획하여 설치한 야간경관조명은 부여서동연꽃축제를 대표하는 야간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으나, 올해 처음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물빛축제’나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의 일루미아와 같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본격적인 빛/조명축제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임 - 서동공원 연꽃단지는 규모가 크고 정형화되지 않은 연지들이 연속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꽃단지를 연꽃의 종류, 또는 체험의 특성 등의 기준에 맞추어 구역화하고 연꽃탐방로를 계획적으로 설계 조성, 경관 포인트 설정 등을 통해 연꽃 및 연꽃경관 감상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야간시간대에 진행되는 공연프로그램은 주제공연프로그램, 지역예술단체 공연 프로그램, 연예인초청 공연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볼거리를 제공하는 단순한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부여서동연꽃축제를 상징할 수 있는 주제공연프로그램이나 퍼포먼스를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 발전시키거나 새롭게 개발하여 핵심콘텐츠 중심으로 야간프로그램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야간경관조명시설의 경우 대폭적인 투자를 통해 빛과 조명을 활용한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발전시키거나 연꽃축제의 본질에 맞게 야간 연꽃관람을 보조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 특색문화 소재 활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부여서동연꽃축제에서는 공남지를 활용한 서동선화쪽배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여 야간경관조명을 확장하고 야간에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함 - 축제의 병행프로그램으로 연계 운영된 사비야행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인 정림사지나 다른 문화시설과 연계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 현장운영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서동연꽃축제 행사장인 서동공원은 부여 터미널 및 부여군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남 - 축제방문객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부여대교·백마대교 하상주차장을 증설하고 임시주차장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다만 임시주차장까지의 유도체계나 셔틀버스 요금 징수에 대한 일부 방문객들의 불만이 제기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주차 및 안내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관람객 편의 쉼터 공간 확대 조성, 가족체험형 쉼터 조성,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연지주변 편의시설 확장 등 방문객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함 - 전년도 축제에 비해 축제프로그램, 프로그램 장소, 축제장의 전체적인 지도를 표시한 안내판을 증설하였으나, 축제장에 갈림길이 많고 미로형태로 이어져 있어 정확하고 세부적인 위치와 가는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방문객이 있었으므로, 보다 세부적인 길안내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축제장 주진입구에 설치된 ICT 종합안내소는 키오스크/태블릿PC/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축제홍보, 대화형 플랫폼을 통한 관광객 설문조사, VR/AR 스토리텔링 체험 등 ICT와 결합된 진보된 안내기능을 선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됨 ○ 인적 현장운영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공모 방식으로 외국어통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배치함 - 부여서동연꽃축제 행사장은 인공연못으로 수난사고의 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통제선 설치, 구명보트 및 119 구조요원을 축제장 곳곳에 배치하여 방문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홍보 등 관광객 유치 활동의 적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영어, 일본어로 부여서동연꽃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보다 세부적인 정보 제공은 미흡하여 외국어 페이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본 17개 여행사 방문 홍보·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서울, 대전, 부산 3개 도시에 찾아가는 ICT축제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 - 부여군에서 4色빛깔 시티투어 코스에 공남지를 추가하여 부여의 관광명소와 축제를 연계하고자 시도함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 뿌리내림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안내, 환경정비, 교통질서, 수상안전에 관내 9개 단체 1,20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등 지역주민의 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수준이 매우 높았음 - 한국예총부여지회, 부여군충남국악단, 백제제례관현악단, 부여군판소리보존회, 백제기악보존회, 부여문화원 등 지역예술단체가 기획·주도한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지역의 문화수준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함 ○ 축제 추진주체의 체계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축제부터 ‘부여서동연꽃축제 육성조례’에 의해 설립된 부여서동연꽃축제조직위원회가 축제를 주관하여 축제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여군청 주도의 축제추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서동연꽃축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의 축제역량과 전문성이 축제에 결합될 수 있는 축제추진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립 및 자생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지역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축제에서 처음 부여사랑상품권을 도입하여 야간경관 프로그램 입장료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교환해주었으나 축제장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지역상품권을 받지 않아 지역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분석 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문기관에 축제평가와 방문객집계를 위탁하여 성과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노력함 - 전반적으로 방문객집계지침을 준수하여 방문객 실측이 이루어졌으며 방문객 실측을 기반으로 관광객 추산, 지역경제 효과 추정 등이 이루어짐 ○ 인근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비야행, 백마강 달밤야시장과 같은 병행 프로그램을 축제기간 중 확대 운영하여 부여서동연꽃축제의 지역효과를 공간적으로 확장시키고자 노력함 - 야간공연프로그램 및 야간경관조명시설 확대 등 야간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축제로서의 전환을 시도함

22

서산 해미읍성축제

(1) 개요

■ 기 간 : 2017년 10월 6일(금) ~ 10월 8일(일) / 3일간

■ 장 소 : 서산시 해미면 해미읍성 일원

■ 주 최 : 서산시

■ 주 관 : 서산시해미읍성축제추진위원회(서산문화원)

■ 주요행사

- 공식행사 : 고유제, 개막식, 폐막식 등
- 주제마당 : 병영마당(병영체력장, 병영훈련체험, 칼·활 만들기 체험, 병영무기타각 체험, 병영전투체험, 병사 선발대회), 병영음식마당(주먹밥체험, 주전부리체험), 병영관아·옥사마당(곤장·형틀체험, 옥사체험, 관아마당극, 옥사상황극), 태종대왕강무장(태종대왕강무행렬, 수문장교대식, 성벽순라행렬), 역사마당(천주교 순교 마당극, 역사인물 마당극: 정순왕후, 오청취당, 경허선사), 어린이 인형극(이순신과 돌격하라 거북성)
- 상설마당 : 엽전체험, 소원지쓰기, 말타기 체험, 활쏘기 체험, 방문가족 가훈써주기, 설위설경·유료점집, 대장간체험, 탁본체험, 해미읍성 상설프로그램(전통주막, 전통찻집, 전통 공예체험) 등
- 연계행사 : 서산시 농악사물경연대회, 시티투어, 바둑·장기 대회 등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장의 역사성과 정통성이 우수하여 축제 공간으로 우수함
 - 해미읍성은 태종 17년(1417년)부터 세종3년(1421년)사이 축성되어 약 230여년간 종2품 병마절도사가 주둔하던 충청도의 군사중심지로서 국방은 물론 내란 방지 토포(討捕)의 임무를 맡기도 하였던 곳이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선조12년(1579년)에 병사영의 군관으로 10개월간 근무하기도 하였던 곳임. 또한 조선후기 천주교를 탄압하면서 1천여 명의 천주교 신자를 처형했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순교성지이기도 한 역사성이 높은 곳임

- 해미읍성은 성곽둘레 1800m, 높이 5m, 면적은 약20만㎡의 규모로 구성되어 약 600여 년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그 형태가 잘 보존된 정통성이 높은 곳으로 축제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공간환경이 우수함
- 주제 및 부제, 프로그램의 기획의도가 돋보임
 - 주제를 ‘해미읍성 600년 시간여행’, 2017년의 부제를 ‘조선시대 병영성의 하루’라 정하고 축제장을 각 마당별로 구획하여 조선시대 병영관련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음
 - 구체적으로 조선시대 병영성의 모습을 병영체력장, 병영훈련체험, 칼·활 만들기 체험, 병영무기 타격체험, 병사 선발대회, 전투체험(석전) 등으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음
- 축제장 기반시설이 우수함.
 -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공간인 해미읍성 내부가 축제장으로 조성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축제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이 가능함
 - 근본적으로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된 축제장내 안전 및 쾌적성이 확보됨
 - 성내부가 전체적으로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공원화된 상태로 축제장의 미적 분위기 조성 및 방문객들의 축제장 이용에 편리함
 - 성내 관아시설 및 성곽시설은 다른 축제장과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시설임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의 기획 의도는 분명했으나 축제 프로그램의 연출 및 운영의 아쉬움
 - 약 600여년을 간직한 역사적인 축제공간에서 진행된 축제 프로그램의 진행은 진행자들의 전문성 미흡으로 인해 기획했던 의도가 제대로 축제 방문객에게 전달되지 못했고, 관람객들의 몰입도가 떨어져 아쉬웠음
 - 프로그램 진행을 인근지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이 주로 수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은 진행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미흡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 축제 진행자들이 전문가들일 필요는 없으나 사전에 충분히 연습하고 준비하여 축제에 참가는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축제 방문객들은 다른 축제장도 방문하여 체험함으로써 축제 프로그램 경험을 비교 분석할 수 있고, 만족도도 상대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인해 축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축제장내 편익시설의 아쉬움
 - 메인 무대 및 역사 마당극장의 무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오랜 시간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보는 관람객들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음
 - 더욱이 관람객들이 뜨거운 햇빛에 노출됨으로써 무대 프로그램이 끝날 때 까지 관람이 어려웠음. 특히 마당극장의 경우 차양막이 좁게 설치되어 주 무대보다 여건이 더 불편했음
 - 그늘막 뿐만 아니라 앉을 자리도 마련되지 않거나 적어서 햇빛아래 서서 잠깐 보다 이동하는 행태가 이어졌음
- 축제장 프로그램 부스 운영의 아쉬움
 - 상설장터 마당 및 체험 프로그램 부스의 설치가 햇볕에 직사광선으로 노출되어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자도 불편할 뿐 만 아니라 체험을 위해 부스를 방문하는 축제 방문객들도 많지 않았음
 - 부스 설치 시 햇빛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함으로써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외지 방문객들의 축제장 방문은 오전보다는 오후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부스의 열린 방향은 서향으로 오후 내 부스 내부가 햇빛에 노출됨)
 - 판매물의 신선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판매 부스 운영의 아쉬움
 - 판매장 부스의 가격표를 각 부스마다 펜으로 적어서 부착하는 것보다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최소한 프린트하여 제시함으로써 미관상 좋고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즉흥적으로 메뉴 및 가격표를 수정함으로써 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구매력도 낮아질 것으로 사료됨
- 야간 프로그램이 진행 및 주간 프로그램 연장 운영이 필요함
 - 오후 6시에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됨으로 인해 5시 이후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정리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서 아쉬움이 있었음
 - 축제 방문객을 외지인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서산 시민들의 경우 저녁시간까지 축제장에서 머물며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인근 도시에서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도 공원 분위기인 읍성을 초저녁까지 즐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폐장 분위기가 형성됨으로써 축제장을 퇴장하였음
 - 가을저녁 잔디공원과 같은 좋은 환경의 축제장이 야간 조명이 설치되지 않아 어두운 환경에서 축제장을 산책하는 방문객들이 많아서 위험스러워 보였으며, 9시에는 폐문하여 통행을 금지하여 야간 프로그램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600년전의 해미읍성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2017년도 축제 부제를 ‘병영성의 하루’로 설정하고 축제를 기획하고 콘텐츠를 마련하여 축제 기획 의도가 명확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기획의도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대표프로그램으로 진행된 태종대왕 행렬 및 강무재현의 경우 다른 축제에서 일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과 유사해서 해미읍성 축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미약한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해미읍성 축제의 대표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문장 교대식도 다른 축제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성벽위에서 성벽을 따라 진행된 성벽 순라행렬의 경우 특별한 가시성이나 방송 및 진행상황이 읍성 내부 축제장 관광객들에게 잘 인식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었음 ○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타 지역의 축제와 차별성이 있으나 1일 1회 짧은 시간에 진행되어 향후 보완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진행요원들도 화장 및 의상만 분장만 조선시대 형상이지 박해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진지하게 연출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의 특색문화소재를 충분히 활용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야간 문화공연을 축제 개막일에 1회 진행함으로써 축제의 기획에 아쉬움이 있었음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까지의 접근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성의 특성상 해미읍 중앙에 위치한 축제장은 축제방문객들이 축제장 방문을 하기에는 편리하였음 - 주차장이 읍성을 둘러 곳곳에 조성됨으로써 가까운 출입문을 이용하여 축제장내로 진입하기도 용이하였음 ○ 축제장 분위기 우수하고 활용하기에 최적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600여년을 잘 보존해온 해미읍성은 현대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훌륭하게 하고 있었고, 현대화된 성 밖과 분리하여 ‘조선시대’로의 시간여행을 진행하기에는 매우 적절한 공간이었음 - 그러나 축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구역화한 공간들의 동선구성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시설물들이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공간별 진행상황이 소리의 간섭으로 인해 방해를 받았고, 좁은 통로로 인해 이동의 혼잡현상이 나타났음 ○ 축제장 시설물의 양적 질적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무대설치 및 그늘막, 의자 등의 충분한 준비가 보완되어 축제 방문객의 쾌적하고 편리한 참여를 통한 만족도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디밭이 편안하여 앉아서 무대 공연을 관람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기대하였겠지만, 성인들의 외출복 차림 축제 방문객들은 잔디밭에 그대로 앉기 보다는 서서 관람하여 오래서서 관람하지 않고 이동하였음 - 요즘은 썬크가무시병 등으로 인하여 야생풀밭에 앉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짐 - 의자가 아니더라도 편안히 앉아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축제장 조성이 필요함 - 수십만 명이 방문하였다고 하면 그들이 축제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현장 운영의 아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 진행요원, 자원봉사자, 부스 인력등 대부분이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로 이루어져 젊은 분위기는 좋았으나 자칫 장난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 진지한 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있었음 - 많은 대학생들이 전공학과 관련 실습으로 인식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라기 보다는 의무감으로 진행하는 듯 한 분위기가 아쉬웠음(현장 인터뷰 결과)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주관의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해미읍성 축제는 서산시 문화원에서 주관하여 기획부터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지역사회와 연계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문화의 중심체라 할 수 있는 문화원 구성원들의 모두 합심하여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축제의 지속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문화원이라고 하는 조직의 안정성 및 핵심인력의 장기적 근무가 담보되어 축제의 원형유지는 매우 우수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지역 내,외부 축제 방문객들의 재방문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분석 객관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방문객 집계는 축제 방문객 숫자도 중요하지만, 축제 관리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축제 방문객 집계는 차기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편익시설물의 공급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집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집계요원의 사전 교육을 통해 집계목적을 인지하고 정확하게 집계하여야 함.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여야 합리적인 축제의 경제성 효과가 추정되나 자리가탈 및 사전교육이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됨

23

김제 지평선축제

(1) 개요

■ 기 간 : 2017년 9월 20일(수) ~ 9월 24일(일) / 5일간

■ 장 소 : 김제시 일원(벽골제 중심)

■ 주 최 : 김제시

■ 주 관 : 김제 지평선축제 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문화마당 :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 풍년기원 입석줄다리기, 야(夜)한 밤에 등
- 전통마당 : 웰컴투 조선, 신관사또전, 공예체험, 시골장터, 견고싶은 거리 등
- 먹을거리마당 : 지평선 시골 먹거리 장터 등
- 들녘마당 : 뉴 실크로드 센터, 글로벌 투게더, 단야낭자 인형극, 막걸리 페스티벌, 도롱이 워터터널, 새끼꼬기, 벼 수확체험, 등
- 생태마당 : 지평선 차이나 타운, 추억의 대나무 강태공, 아궁이 쌀밥짓기 체험 등
- 쌍룡마당 : 글로벌 스트리트, 민속놀이 마당, 참살이 쌀체험마당, 징계쟁이 빌리지 등
- 제방마당 : 글로벌 빌리지, 비거홍보관, 야한밤에 풍등 날리기 등
- 수상마당 : 저수지 수상체험, 벽골제 플라잉 보드, 지평선 황금열차 등
- 청소년 마당 : 청소년 팝 페스티벌, 지평선 전망대 등

(2) 총 평

■ 잘된 점

- 김제 지평선 축제의 공간적 범위가 종래에는 벽골제에 한정되었으나 점차 시내권으로 확대됨으로써 김제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라는 인식을 주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민간주도형 축제로 정착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대한민국 대표 축제에 걸맞게 축제기반시설 구축, 외국인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축제운영의 전문성 등이 돋보였으며 이러한 요소는 글로벌 축제로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함

- 지역문화의 전통을 살린 축제 콘텐츠가 많아(벽골제 전설 쌍룡놀이, 단야낭자 인형극, 지평선 시골 먹거리 장터, 아궁이 쌀밥짓기 체험 등)다른 축제와의 차별성이 강하고 외지 관광객들에게 방문욕구를 자극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개막식 행사에 내빈 소개가 많아 지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VIP접견실(벽천미술관)마련, 초청자 리셉션 등 전반적으로 의전행사의 비중이 높았음
- 벽골제 관광지는 축제장으로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나 평상시의 지속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특히 상설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보강과 숙박시설의 활성화, 농산물 판매 증대,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시행 등 다각적인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읍면동 음식부스의 음식 값이 비싸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으며, 미성년자 주류 판매 등 관리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골제 축조에 대한 전설을 바탕으로 한 쌍룡놀이나 단야낭자 인형극, 풍년기원 입석줄다리기, 민속놀이 마당, 참살이 쌀 체험마당 등 매년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여 재방문객들에게도 축제 콘텐츠에 대해 기대와 흥미,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음 ○ 스토리 두잉은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방식에서 한 발자국 나아가 축제의 각종 프로그램을 몸소 체험하며 축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스토리 두잉(Story Doing)’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김제 지평선 축제의 각종 콘텐츠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스토리 두잉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음 ○ 새끼꼬기, 벼 수확체험, 지평선 황금열차, 지평선 시골 먹거리 장터 등 각종 농경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나 어린이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와 농경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체험을 통해 농민들이 우리사회의 소중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 애호의 바탕이 되고 있음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축제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축제공간도 광역화 되고 있으나 프로그램 특성별로 테마존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축제규모의 대형화와 방문객 수의 증가로 인해 주차공간의 부족현상이 해마다 심각한 수준임. 따라서, 늘어나는 방문객 수에 걸맞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축제장과의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공간을 시내권으로 확대하여 김제시 전체에 축제분을 조성하고 민간인들의 축제참여기회가 늘어나고 있으나 축제장 분산에 따른 관광객들의 몰입도가 저하되어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공간 확대는 관련시민단체나 개인의 축제 참여 폭을 넓혀 결과적으로 시민주도형 축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지평선 축제가 개최된 이후 해마다 벽골제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어 김제시 관광의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발전함. 즉, 축제가 지역관광 활성화의 계기가 되고 있음 ○ 그러나 축제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조직구성 등 지속가능 운영체제 구축이 필요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제지평선 축제는 우리나라 농경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축제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개발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지평선 축제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가속화 되고 있던 이농현상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을 심어 줌

24

무주 반딧불축제

(1) 개요

- 기간 : 2017년 8월 26일(토) ~ 9월 3일(일) / 12일간
- 장소 : 무주군 일원
- 주최 : 무주군
- 주관 :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요행사
 - 체험 행사
 - 반딧불이 주제관, 뗏목체험, 꿈을 담은 반디별 찾기, 삼베짜기체험 등
 - 기획·전시 행사
 - 섯다리 전통혼례와 상여여행,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시화전 등
 - 연계 행사
 - 무주 투어버스 운행, 머루와인동굴 운영, 무주 반디극장, 사랑나눔장터, 해외자매도시 초청 행사 등 다수 프로그램
 - 야간 행사
 - 반딧불이 신비탐사, 반딧불이 주제공연, 반딧불이 번성기원 남대천 지신밟기, 안성낙화놀이, 반디 길놀이 및 읍면별 특색 퍼레이드, 반디소망풍등 날리기 등

(2) 총 평

■ 잘된 점

-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라는 주제(부제: “Green Light 21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로 환경생태체험행사, 향토문화행사, 공연행사, 전시행사, 부대행사, 상설/연계행사, 외국인 프로그램, 쉼터 편의시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9일간 진행함으로써 국내 대표 청정지역 무주군과 반딧불이를 알리고,

글로벌 축제로서의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음

- 본 무주 반딧불축제의 대표프로그램은 반딧불이를 알리고 직접 볼 수 있는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반딧불이 축제 주제관’을 비롯하여, 1박2일 생태탐험, 반디별 찾기 등으로 반딧불이와 자연, 환경 등을 중심으로 주제 집약적인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체험적·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잡아 관광객들의 오감을 자극하여 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하였음
- 6대 차별화 전략(마을로 가는 축제, 향토 농·특산물 특화거리 조성, 무주 남대천 일원 명소화, 무와 주의 사랑이야기, 무주인이 직접 만드는 축제, 반딧불이와 친구들)을 계획하여 타 축제들과 차별화된 축제를 기획·운영하였음
- 무주군내 지역적 역사문화적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향토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무풍면 현내리 기절놀이, 부남면 디딜방아 액막이놀이, 안성면 낙화놀이 등을 비롯한 전통도자기 너구리가마 불지피기 체험 등 프로그램을 통한 무주군의 역사문화를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우수하였음. 또한 프로그램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인상적이었고, 국내관광객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향토문화프로그램의 호응도 매우 좋았음
- 지난 해 지적사항이었던 송어잡기축제를 과감히 폐지(친환경축제 컨셉과 어울리지 않음)하고, 반딧불이의 먹이가 되는 다슬기를 놓아주는 행사로 대체하여 큰 호응을 얻음. 간이음식점(남남주전부리터), 어린이체험공간 확대 편성, 향토음식점 재구성, 야간프로그램 강화 등의 지적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글로벌축제로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히 엿보임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11개국 태권도 공연 행사의 경우에 프로그램별 안내 관광객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품새 및 국가별 공연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통해 관광객들의 이해도 제고가 필요함. 특히 태권도의 가치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스토리텔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 이번축제에서는 상당히 공간적인 효율성은 좋으나 전국지역축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사설음식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그리고 품바타령 등의 공연을 비롯하여 축제장 곳곳에 카드사 홍보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축제 개최 시 개선되어야 할 것을 판단됨
- 유료체험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았으며 가격대도 다소 높은 편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의 참여를 위해 프로그램별 지자체 등의 가격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 우선적으로 천막이나 안내판 등을 진도바다의 신비에 맞는 이미지통합전략의 실행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디지털화 한 주, 야간 안내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 함
- 홍보 전략으로서 보다 집중적으로 세분화 된 표적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특히 반

덧불이 축제는 각종 마스크를 통해 반덧불의 생태론적인 신비로움을 전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연현상에 대한 탐구학습지 겸 교육관광목적지로도 최적의 테마인 만큼, 홍보효과는 클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일상적으로라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테마형 생태관광자원이자 관광지목적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사생태지역이나 호주 등 해외생태관광지와 자매결연 등 동질적인 관점에서 내, 외국인을 유치하는 대응전략이 필요함

- 전통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던 남대천의 쇠다리의 경우 프로그램 진행시간 외 통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봄, 이것은 방문객의 동선 혼돈과 안전사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축제는 주 무대 프로그램 외 다양한 상설 및 연계프로그램 기획하여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연속적인 체험거리(볼거리 등)를 제공하였으며, 체험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과가 우수한 프로그램의 진행이 인상적이었음. 반덧불이 축제 주제관에서는 반덧불이를 비롯한 살아있는 곤충들에 대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였고, 최북미술관김환태문학관, 태권도 홍보관 및 태권도 VR체험, 남대천 뗏목, 무빙보트 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성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하였음 ○ 다양한 야간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남대천에서 진행된 안성 낙화놀이와 반디소망 풍등 날리기는 관광객들에게 이색 체험을 제공하고자 하였음. 또한 축제장 곳곳의 LED 조명을 이용한 볼거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주무대 행사, 버스킹 등)이 진행되었고, 사랑의 다리 야간포차도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음 ○ 행사장 곳곳에 다양한 조형물 및 포토 존(축제 시행 수개월 전부터 축제추진위와 주민들이 직접 가꾸고 돌본 조형물의 배치, 일회성이나 간이 조형물이 아닌 형태로서 친환경축제의 표상을 한층 높여주는 형태임)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무주 반덧불축제를 기념하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여 인상적이었음. 특히 솔방울 이용한 다양한 반덧불이 조형물은 친환경축제와의 연관성을 잘 보여준 조형물이었음 ○ 본 축제의 경우 원활한 행사의 진행과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주군 자원봉사센터와 무주반덧불축제제전위원회에서 약 200여명의 자원봉사를 모집하였고, 행사준비기간 중 3차례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 행사장 곳곳에 쉼터와 안내소를 설치함으로써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휠체어·유모차 무료대여소 및 수유실, 미아보호소를 비롯한 휴대폰 충전기 등의 설치는 어린아이를 동반한 관광객들을 비롯한 젊은 층의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축제가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기획 면에서 질적으로 상당히 발전한 것으로 평가 됨. 단, 축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언어로 된 전달체계의 정립이 필요함. 마을로 가는 축제로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소득창출을 기대했으나 다소 미비하여 다소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축제가 개막식과 폐막식을 비롯한 일부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어 보다 균형 있고 선택적인 축제콘텐츠 기획 시에 합리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기획·운영을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음. 이것이 지역주민참여프로그램의 독창적인 개발과 운영활성화로 이어지면서 무주반딧불축제가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지역 주민 역시 주인정신으로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지역사랑이 배가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매우 좋은 인상을 주고 있음 ○ 일정별 프로그램 중 남대천 ‘전통 섯다리 공연’의 경우 군민들이 직접 전통 섯다리를 재연하여, 섯다리 체험이 가능하였고, 또한 그 위에서 펼쳐진 공연(신혼행렬, 전통 상여 행렬 등)은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무주축제의 정통성과 지역의 정체성을 충분히 표현하는 감동적인 무대를 연출하고 있음. 특히 전통 섯다리의 경우 미국 CNN 방송에서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곳 50선에 남대천 섯다리가 선정됨으로써 운영프로그램의 가치를 배가시키고 있음 ○ 무주군 6개 읍면에서 각 지역별 특산물(품)을 전시 판매함으로써 무주군 대표 특산물(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음. 또한 지역자체 내에서 자발적으로 특산물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축제의 본 취지인 흥을 돋구는 축제분위기 제고에 일조를 하고 있음. 또한 지역의 특산물 판매장별로 지역주민들의 품목별 친절한 설명과 무주청정 특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열성적으로 홍보하는 장면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 지역별 다양한 단체(청년회, 부녀회, 개선회 등)가 운영한 무주 향토음식관 운영과 거리 장터들, 전년대비 넓은 공간을 확보한 간식 판매점(남남주전부리터) 운영은 무주군의 대표음식을 비롯한 먹거리를 홍보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음 ○ 본 축제의 가장 강점은 진행측과 관광객이 상호 유대감과 소통이 타 축제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단, 관광객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퍼포먼스로 디테일한 요소의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또한 수많은 반딧불이 가운데에 무주를 상징하는 반딧불을 발굴하고 이미지 통합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으며, 태권도와 무주축제를 연계시켜 세계인들을 수월히 무주에 방문하도록 하는 국제화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화장실의 간판대나 안내인형의 아이디어가 매우 좋으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단, 내부시설의 편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객들을 위한 휴대폰 및 노트북 충전소를 증설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객들을 위한 디지털부분의 운영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무주 축제의 강점은 추진주체인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의 일사 분란한 협조가 눈에 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따라 무주지역민의 참여가 매우 높고 지역사회가 스스로 축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지역내발형 모범축제 사례로 평가됨. 무엇보다 지역에서의 기반조성이 튼튼함으로 인해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반딧불축제와 동화되고 있으며 태권도와 연계된 외국인 참여가 많아 향후 국제적인 축제로 승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어 관련 있는 친지나 다양한 지인들을 축제에 직접 참여시키고 관광객으로 유도하는 점이 높이 평가됨 ○ 본 축제에서 반딧불이의 신비체험과 함께 가장 차별화되는 낙화놀이도 더욱 확대되고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야간행사의 강화전략이 성공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반딧별 지정 선포식(2017.8.22.)을 통해 여름철 대삼각별인 1등성 데네부(백조자리 꼬리)를 운문산 반딧별이, 직녀성(거문고자리)를 애반딧별이, 견우별(독수리자리)을 늦반딧별로 지정하였고, 온가족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바닥에 누워 별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반딧별을 찾아보고 꿈을 담은 엽서 작성 및 우체통을 통해 내년에 엽서를 받아볼 수 있는 이러한 체험행사는 조그만 보완하면 축제전체를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임 ○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의 경우 원활한 행사의 진행과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주군 자원봉사센터와 무주반딧불축제제천위원회에서 약 2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고, 행사준비기간 중 3차례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호응을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곳곳에 쉼터와 안내소를 설치함으로써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휠체어유모차 무료대여소 및 수유실, 미아보호소를 비롯한 휴대폰 충전기 등의 설치는 어린아이를 동반한 관람객들을 비롯한 젊은 층의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관람객의 현시적인 만족을 끌어냄으로써 향후 재방문이 확실시되는 내실 있는 축제로 더욱 발전 할 것으로 평가됨 ○ 축제 속의 작은 축제를 기획하여 한 개의 축제를 참여하여 여러 축제를 방문한 효과를 주었는데, 그중 무주 남대천 물 축제의 경우 사랑의 다리를 중심으로 물과 함께 다양한 퍼포먼스(난타, DJ공연 등)와 수상자전거, 에어풀장을 비롯한 다양한 부대프로그램(페이스페인팅, 타투, 비눗방울 만들기, 물총만들기 등)을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만족도를 줄 뿐 아니라 재미와 환상의 체험을 동시에 주고 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축제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프로그램(외국인 전용 관광안내소 운영, 주한외국대사 초청, 국제 자매결연단체 초청, 외국인 관광객 투어 운영 등)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실제로 프로그램별 외국인 관광객의 참여가 상당히 많음. 더욱이 곳곳에 안내소를 배치하고 외국어 리플릿을 비롯한 외국어가 가능한 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세계적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 본 축제는 전반적으로 생태관광의 모범적인 콘텐츠와 운영의 모를 살리고 있어 무주를 일상적인 자연생태학습의 성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특히 축제장의 동선이 전반적으로 각 테마 별로 출입과 통제가 용이하면서도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재미있는 축제로 승화시키고 있음. 축제프로그램들도 상당한 객관성을 가지면서 몇 년간 축적된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차별화 된 관광객 참여형 축제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됨. 특히 무주군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제반 입지 조건이 양호하지 않음에도 외국인 방문객들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축제의 국제화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됨 ○ 이번 축제는 예년과 달리 주차장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통노선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상당히 많은 차량들을 비교적 용이하게 통제되고 있음. 따라서 약간의 주차안내원들의 고객대응성이 제고된다면 가장 우수한 교통사례로 평가됨.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 다양한 국가에서 방문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임. 차제에 이러한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적, 취미, 방문목적, 재방문 의사 등 시장세분화를 통한 실질적인 국제관광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경우, 무주축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인바운드형 축제로서 국가수지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축제로 평가됨. 단, 무주축제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개발을 통한 스마트관광의 실현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으로 이 부문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본 무주축제는 생태관광으로서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된 브랜드 강화 전략이 눈에 띈다. 더욱이 이것이 디지털화 되어 실시간에 전 세계인들이 무주반딧축제의 우수성과 지역상품의 가치들이 세계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그 가치성을 공유할 때, 무주는 축제를 통해 조기에 세계적인 관광목적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유튜브, 페이스북 및 각종 SNS매체를 통하여 축제기간이외에 년 중 무주군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축제기간 1개월 전으로부터 전 세계인에게 무주축제를 알릴 경우 방문효과가 극대화 할 것으로 보임 ○ 무주축제를 인접지역의 각종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상호 방문하는 매커니즘을 형성하고 있어 주목됨. 향후 더욱 보완하여 전국의 생태관광지와 축제를 네트워킹하고 시스템화 하여 무주반딧불축제를 생태관광의 메카로 활용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이 필요함

25

순창 장류축제

(1) 개요

■ 기간 : 2017년 10월 20일(금) ~ 10월 22일(일) / 3일간

■ 장소 :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 주최 : 순창군

■ 주관 :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공연 프로그램 : 순창생활문화예술동호회공연, 순창5대명창 추모공연, 순창농요금과들 소리 공연, 순창오케스트라 공연 등
- 체험 프로그램 : 우리가족 떡볶이 만들기, 장류상설 체험장 운영, 반짝반짝 메주 만들기, 자전거로 고추장 만들기 등
- 참여 프로그램 :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2017인분 고추장떡볶이 오픈 파티, 장류 주먹밥 만들기, 고추장 매운맛 대회, 삼부자 소원항아리, 장류마을 줌비야 놀자 등

(2) 총 평

■ 잘된 점

- 킬러콘텐츠로 제시한 대동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았고 축제의 주제에 부합한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별 주제와 운영공간의 배치적정, 고추장의 유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됨
- 관광객 방문도 많았지만 지역민의 참여와 관심도가 높았으며 지역민이 직접 기획 운영한 프로그램이 많아 향후에도 지속발전 가능성이 높은 축제라고 평가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 속의 박람회(순창 세계소스박람회) 실시는 행사의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장류축제장과 박람회장 간 이격 공간을 줄여서 접근성을 강화하고 상호 프로그램을 보완한다면 더 좋은 축제가 될 것으로 보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p>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킬러 콘텐츠로 제시한 프로그램들의 완성도를 높였고, 운영 장소도 고추장 민속마을 내부 공간을 활용한 점은 순창만이 가지는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기획이었다고 평가됨 ○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은 남녀노소 내외국인 구분없이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였고 행렬단에 참여한 개개인의 분장과 연출수준도 매우 높아진 것으로 평가됨 ○ “2017인분 순창고추장 떡볶이 오픈 파티”는 운영장소와 내용이 이전 축제와는 달리 내외빈 위주의 행사에서 관광객 참여행사로 탈바꿈 되었으며, 붉은 옷을 입은 관광객들이 민속마을 거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이루어진 떡볶이 파티는 인상적이었음 ○ “고추장락 퍼레이드”는 금년에 처음 시도한 프로그램으로 순창 청소년 500여명이 북과 색색의 깃발을 들고 축제장 일원을 돌며 축제 분위기를 흥이 넘치도록 한껏 고조시켰으며 젊은이들의 참여를 확대시켰음 ○ “축제장에서 마을로 가는 여행” 프로그램은 순창내 마을들이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온라인과 현장 예약을 통하여 소단위 관광객을 모집하여 마을투어를 진행하였음.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프로그램으로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를 차별되게 구성하였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참가자의 만족도가 높았음 ○ “우리가족 떡볶이 만들기”, “반짝반짝 메주만들기”, “자전거 타고 고추장 만들기” 등의 상설 체험프로그램은 기획 의도는 좋았으나 체험 완성 시간이 30분가량 소요되어 더 많은 관광객 참여를 위해서는 체험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세부 프로그램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관광객 편의를 위해 사전예약 신청제를 운영하여 사전 예약자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등 관리면에서도 심혈을 기울인 점도 높이 평가됨 ○ 순창장류축제에서 가장 특징적인 프로그램으로 귀농귀촌동아리 부스였음.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물에 대한 정보를 재미있게 설명하는 모습에 귀농귀촌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나서 의미있는 프로그램이었음
<p>2) 축제의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이 장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고추장 민속마을이라는 특이점이 좋은 볼거리였고 축제의 좋은 무대가 되었음 ○ 이번 순창장류축제는 세계소스박람회와 함께 진행함으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소스박람회장과 순창장류축제장 사이에 주차장을 배치함으로 두 곳을 단절시키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특별히 박람회장을 찾아가는 방문객 이외에는 축제장에만 머무는 경향이 있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상의 어쩔 수 배치였다면 축제장이나 박람회장 내에 추가적으로 상호 안내문이나 동선 유도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후에도 장류축제 속의 박람회를 운영한다면 주 무대의 위치를 행사장 중간지점에 배치하여 관람객들이 민속마을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순창장류축제를 찾는 방문객을 위하여 순창읍에서 축제장까지 무료택시 운행과 축제장 내 관광용 전기차도 운행하는 등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이 교통 불편이 없이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함 ○ 아쉬운 점은 무료인 관계로 택시를 타기위해 대기하는 방문객의 줄이 너무 길었음. 택시와 셔틀버스를 함께 운행하여 노약자나 어린이 동반 가족 등을 우선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고 일반인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생각됨 ○ 축제장인 고추장민속마을과 장류박물관, 옹기체험관 등을 활용하여 축제장을 곳곳에 테마를 설정하여 부스를 설치하는 등 축제장을 풍성하게 배치한 흔적들이 보이나 부스 자체가 조금은 단출한 경우가 있어 실제 부스를 찾는 방문객들이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를 들어 팸플릿에서 ‘떡볶이의 거리’ 안내를 보고 실제 찾아가면 부스 두동만이 있고 진행요원이나 안내문구 등은 존재하지 않아 떡볶이 거리로 인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대만큼의 만족도 제고가 쉽지 않았음 ○ 관광객 안전을 위해 음식부스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경찰서 119구급대, 한전 등 비상 유관기관을 상시 배치하였고 외국인 편의를 위해 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배려를 위한 휠체어 비치, 수유실 운영, 미아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였으며 별도의 장소에 흡연실 배치도 적절하였음 ○ 축제장 구성 중 민속마을 상단 골목에 배치된 “떡볶이 거리”는 기획의도와는 달리 순창고추장으로 떡볶이를 만드는 체험객 보다는 단순 구매형식의 관광객이 대다수였던 점은 향후 보완되어야 함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음식문화에서 중요한 소재로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소스를 개발 제공한다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음식테마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해 장류축제 장소인 고추장민속마을을 장류개발 투자선도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순창군에서도 사업추진을 위해 인근 부지 42만㎡를 매입 완료 단계에 있어 향후 축제 인프라 구축과 축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창군의 이러한 육성외지에 다양하고 심도 있는 장르 콘텐츠를 보완한다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일간 기간 동안 읍면배치 부스와 각종 체험부스에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였고 민속마을 내에서 운영된 대표적 대동 프로그램에도 2천명 이상의 관광객이 대거 참여하는 등성과도 좋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야간에도 민속마을 골목, 골목에 쭈뼌을 배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였고 EDM 불빛쇼와 순창음악회가 운영한 음악 공연 등을 기획함으로써 축제만이 아닌 순창지역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 시기적으로 축제장 인근 강천산이 단풍철로 접어들어 관광객유입도 용이하였고 순창군 외부 방문객들의 장르, 농특산물 구입 등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주변 숙박, 음식점 등의 간접적인 경제효과도 높은 축제였다고 평가됨 ○ 이 축제장은 개방형 행사장으로 방문객 수나 경제효과를 모두 수치화 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5개소의 방문객 집계장소를 기준에 맞게 운영하였고 축제 평가부스에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별도의 수치자료가 보고 될 것으로 보임

26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1) 개요

■ 기 간 : 2017년 9월 22일(금) ~ 9월 24일(일) / 3일간

■ 장 소 :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 주 최 : 완주군

■ 주 관 : 와일드푸드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와일드나라

- 와일드체험 : 맨손으로 물고기잡기, 족대체험, 물고기병체험, 메뚜기잡기, 화덕체험, 와일드요리체험관
- 와일드음식체험 : 감자삼국, 계란껍질밥, 대파미꾸라지구이, 밀떡구이, 화덕꼬치구이 등
- 와일드이색음식 : 개구리·메뚜기구이, 돼지코꼬치, 타조알후라이, 거저리빼빼로, 달팽이구이, 고소애피자, 귀뚜라미볶음, 말벌주, 꿀벌애벌레부침
- 글로벌와일드푸드 : 세계6개국 와일드푸드체험, 뉴질랜드 와일드푸드축제 갤러리
- 와일드쿠킹쇼, 와일드놀이터

○ 로컬푸드나라

- 마을음식, 농특산물판매장, 문화체험

○ 부대행사 : Black Box 와일드요리경연대회, 도전! 와일드맨을 찾아라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와일드푸드'라는 축제의 핵심 주제를 반영하고 있는데, 축제장의 자연생태적인 지형지물을 잘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배치의 결과로 보여짐
- 대표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지속적이며 역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참여자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었음

- 유명연예인 참여를 최소화하고 지역 내 공연자원을 활용 예산절감을 통해 축제 본연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음
- 올해의 와일드푸드를 선정하여 개막식 퍼포먼스로 추진, 와일드푸드에 대한 궁금성과 화제성을 부여하였음
- 뉴질랜드 와일드푸드축제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글로벌축제로의 시도를 하였음
- 지역청년을 온라인홍보, 야간프로그램, 감초단, 요리체험관 등 축제에 다양하게 참여시켜 새로운 기획운영을 도모하였음
- 전년도 평가결과 문제점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음
- 셔틀버스 운영 및 교통체계가 질서 있게 운영되었으며, 노점상(잡상인)이 전혀 없고, 지속적인 청소로 청결한 축제장이 축제기간 내내 유지되는 등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이 우수하였음
- 관내 대학교 외식산업조리과와 협업하여 음식분야 컨설팅을 통해 연중 음식에 대해 준비하였고, 축제기간 음식분야에 대한 이용객 설문을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고립된 축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의 고민이 필요해 보임
- 불을 사용하는 화덕체험장에서의 안전관리가 필요함. 많은 수의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운영자들의 사용법 등 사전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축제장의 환경과 기반시설은 공원을 활용하여 우수한 반년 방문객의 접근성에 있어서 많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함
- ‘와일드 블랙박스 요리대회’는 축제의 주제를 잘 살릴 요리대회로 보여 지나, 대중성에 있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 축제추진위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유료프로그램 수익, 상품판매 수익 등이 축제추진위원회로 환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축제 재정 자립도를 높여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임
- 유료체험 확대, 축제기념품 개발 등을 통하여 자립 노력을 하고 있으나, 향후 더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인기 프로그램과 비인기 프로그램과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원활한 수용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보임

- 행사장내 셔틀버스 타는 동선에 방문객의 햇빛 차단 편의를 위해 설치된 텐트의 높이가 낮아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음
- 먹거리 부스에서는 냅킨 대신 화장지 두루마리를 걸어 사용하게 하고 있었으며, 음식 축제 위상에 맞지 않아 보이므로 향후 먹거리 부스에 대한 전반적인 세심한 개선이 요구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일드푸드’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자연먹거리, 건강먹거리를 주제로 기획한 축제로, 실제로 야생성·자연성·건강함 등을 표방한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함 ○ ‘와일드푸드축제’는 지역의 로컬푸드를 활용한 역동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색적이고 차별화된 독특한 먹거리축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였다고 보여짐 ○ 감자삼gut, 계란껍질밥, 개구리·메뚜기구이, 밀떡구이체험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가공하지 않은 야생성을 접목한 ‘와일드푸드’를 지향하고 있는 점은 축제주제에 적합한 프로그램 기획으로 평가됨 ○ 대표프로그램 ‘천렵 3종+화덕 3종’ 체험은 축제기간 동안 시간대별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으며, 참여하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높아 보였음 ○ 대형으로 조성된 화덕체험장은 잡은 물고기를 직접 구울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었고, 운영에 있어서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었음 ○ 타 축제에서도 물고기잡기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나, 축제장내 핵심공간인 자연하천을 체험장으로 조성하여 와일드푸드축제만의 규모에 맞게 이루어진 점, 물고기손질·화덕체험이 윈스톱으로 진행되도록 동선 구성된 점 등은 와일드푸드 축제만의 노하우로 보여짐 ○ 마을과 함께하는 1박2일 프로그램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좋은 예로 완주군 지역의 농촌체험관광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됨 ○ 와일드푸드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독특하고 이색적인 먹거리를 체험화한 것으로 이것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에 의해 개발되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었음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 진입도로가 좁으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혼잡함이 없었음 ○ 고산자연휴양림의 자연적인 지형지물을 활용한 경관조성 및 축제프로그램 운영은 인위적이지 않아 ‘와일드’에 적절하였다고 보여짐 ○ 음식부스를 대형텐트로 설치하여 위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요리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사진을 안내판에 함께 부착하여 관광객들에게는 믿음과 신뢰를 주민들에게는 책임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점은 훌륭함 ○ 행사장 곳곳에 대형 안내판 및 배치도 설치, 화장실 앞 가림막설치, 주요지점별 바다 대형 안내스티커 부착, 흡연부스 설치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세심하게 준비하였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주제와 관련된 물고기, 곤충, 솟대 등 다양한 조형물들이 인위적, 획일적이지 않고 예술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축제의 분위기를 좋게 하였음 ○ 지역(전북권)이외에 충청권, 전라권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반면 문화관광축제로서 수도권 홍보 부족하였음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일드푸드축제는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 지며, 축제장안의 거의 모든 부스에서 외부운영자 찾아 볼 수 없었음 ○ 청년들의 축제참여를 높이기 위해 축제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시키고,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여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축제담당자, 운영주민, 자원봉사자 등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음 ○ 유료체험 확대, 축제기념품 개발 등을 통하여 자립 노력을 하고 있으나, 향후 더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로 가는 1박2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축제장뿐만 아니라 인근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야간프로그램인 ‘와일드의 법칙’을 처음으로 운영하는 등 체류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 완주군 주요관광지인 삼례문화예술촌, 대한민국술테마 박물관을 축제기간 무료로 운영하였음 ○ 인근지역 주요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축제장 간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동일기간에 개최되고 있는 ‘김제지평선축제’ ‘장수사과랑한우랑축제’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종합안내소에서 함께 안내하는 등 인근지역 관광활성화 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27

고창 모양성제

(1) 개요

■ 기 간 : 2017년 10월 25일(수) ~ 10월 29일(일) / 5일간

■ 장 소 : 모양성 및 시가지 일원

■ 주 최 : (사)고창 모양성 보존회

■ 주 관 : (사)고창 모양성 보존회

■ 주요행사

○ 공식행사

- 개막 출정 퍼레이드, 답성놀이 재연, 강강술래 시연, 개막식, 고을기 올림행사, 개막 퍼포먼스, 모양성 여는 마당, 불꽃놀이 등

○ 전통의식 재연행사

- 원님부임 행차, 수문장 교대식, 교열 의식, 순라군 활동, 경점 시보의식, 성황제, 전통혼례식 등

○ 문화공연

- 퓨전 마당극, 국악 한마당, 팔도택견 명인전, 공군의장대 시범, 전통무예 시범, 청소년락 페스티벌, 태권도 시범 등

○ 체험행사

- 한복체험, 양반체험, 전통 고전머리 체험, 경찰기마대/CSI 과학수사 체험, 영어체험, 모양성 승람도 놀이 등

○ 전시기획

- 경로 효잔치, 모양성 그리기, 전국 모양성 사진 공모전, 상설 거리공연 등

(2) 총 평

■ 잘된 점

- 고창 모양성제는 조선시대 외침을 막기 위해 당시 전라도와 제주도 19개현의 주민들이 축성에 참여한 모양성과 관련된 풍습을 주제로 기획된 축제로 주제가 명확하고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와 강강술래는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돋보였으며 단순한 참여의 수준을 넘어 축제를 진정으로 즐기는 군민의 축제로 승화시키고 있음
- 고창 모양성제는 민간조직인 (사)고창 모양성 보존회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한 축제로 현재까지도 보존회 주도로 축제의 기획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휴식공간 조성이나 무료 차 제공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서비스 제공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임
- 두 바퀴로 달리는 에코투어나 두발로 걷는 역사문화탐방 등의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축제의 공간적 영역을 고창군 전체로 확대하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음력 9월 9일인 군민의 날을 포함하여 축제를 개최하고 군민의 날 행사를 우선하여 축제일정이 결정됨에 따라 모양성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나 강강술래 경연대회 등이 방문객이 많은 주말이 아닌 주중에 개최되는 경우가 발생함 → 축제를 군민의 날과 분리하여 개최하거나 축제를 우선하여 프로그램 일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특정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보건소 부스를 관람객의 주동선상에 배치하는 등 공간배치 및 활용에 문제점을 드러냄 → 축제장 공간활용 및 부스 배치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방문객의 수요가 많은 시설을 주동선상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차별화된 볼거리에 비해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임 → 방문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양성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에는 고창군민 이외에도 전북 14개 시군 주민 40여명이 참여하여 모양성 축성 시 타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살리는 동시에 축제를 고창만의 축제가 아닌 전북으로 확대하고 있음 - 단 축제에 모양성 축성에 참여한 모든 지역의 주민이 참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답성놀이에 모양성 축성에 기여한 모든 지역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강강술래 경연대회는 고창의 5개 단위농협 팀과 1개의 외부팀이 참여하여 방문객에게 흥겨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경연대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1~2개월 정도의 기간은 경연대회 참가자들 간의 유대감 향상에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답성놀이는 안전상의 문제로 주간에 실시한 답성놀이에 비해 주민 참가자 수가 현저히 적었으며 성곽의 강한 조명에 답성놀이 참가자의 청사초롱의 불빛이 묻혀 기대한 만큼의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함 → 야간 답성놀이에 일반방문객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이벤트적 요소를 강화하고 특히 청사초롱의 불빛이 부각될 수 있도록 야간 답성놀이 시 성곽조명의 조도를 조절하여야 함 ○ 공연이나 경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잔디광장(주무대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메인스크린이 그 당시 행해지고 있는 공연이나 경연과는 상관없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강강술래나 고창농악 등 잔디광장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나 설명 등을 해당 공연이나 경연에 맞추어 메인스크린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번에 처음 도입된 두바퀴로 달리는 에코투어나 두발로 걷는 역사문화 탐방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축제의 공간적 범위를 모양성에서 고창군 전체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으며 향후 이러한 프로그램을 좀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상설체험 프로그램 중 사격체험의 경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참가자가 참여하나 참가자의 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m 이내의 매우 짧은 거리의 표적지에 사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큰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음 → 참가자 수준에 따라 난이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며 표적지를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총알의 색으로는 내가 쏜 총알이 표적지의 어느 부분을 맞추었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총알의 색깔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함 ○ 사격 등 일부 상설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무료/유료로 이원화하여 유료 프로그램의 체험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 곳곳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무료로 차를 제공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행사장의 청결관리도 매우 잘 이루어짐 ○ 축제안내소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안내원을 배치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외국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외국어 안내책자나 축제 리플렛은 제공하지 않음 → 최소한 영어로 된 리플렛은 제작하여 외국인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모양성 내 체험공간이 매우 협소한 가운데 줄다리기 등의 체험공간을 앞쪽에 배치하여 관람객의 병목현상이 발생함 → 체험부스 및 체험공간의 재배치를 통해 좀 더 쾌적한 체험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p>2) 축제의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부스를 공간 활용도가 가장 높은 성문 앞 축제장 중심부에 배치하였으나 보건소 부스는 지역주민 위주로 방문이 이루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3시경에 폐장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축제장 방문객의 주동선상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 → 공간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일반인 방문객의 답성률이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경품 추첨을 일요일에 실시하기 때문에 일요일 이외의 방문객에게는 큰 의미가 없음 → 추첨을 축제 마지막 날 한차례 실시하는 것에서 매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공식적인 답성률이에 일반인 방문객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추가적인 이벤트도 필요함 ○ 체험부스의 운영시간이 제각각임 → 체험부스 운영시간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며 공식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10시 이전에도 많은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기 때문에 최소한 30분 전에는 체험부스를 개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식적인 주차장은 한군데였으며 주차장 만차 시 체계적인 주차안내를 받을 수 없었음 → 축제장 인근 보건소나 초등학교 등 주차가 가능한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주차계획의 수립과 주차요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축제장 주차장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지점에 신호등은 없고 축제장을 빠져나가는 차량은 많아 교통 혼잡이 발생함 → 주요지점에는 교통경찰관이나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교통안전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무대정리 등에 따라 예정된 시각에 시작하지 못함 → 전후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일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수문장 교대식의 경우 리플렛에 보다 명확하게 행사시간을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문장 교대식에 대한 설명과 안내방송이 메인무대의 음향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 행사장 내로 차량이 빈번하게 출입하여 방문객의 보행에 방해가 됨 → 방문객이 많은 시간에는 원천적으로 차량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함 ○ 집계장소 중 세계전통문화거리 방면 집계소는 이중 집계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고창군립미술관 앞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축제장 내 떡장수 등 일부 잡상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p>3) 축제의 발전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 모양성제는 민간단체인 (사)고창 모양성 보존회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한 축제로 보존회 주도로 축제가 기획되고 운영되고 있음 - 단 보존회의 축제 기획·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필요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성놀이나 강강술래 등 주민이 주역이 되는 프로그램의 특성 상 고창 모양성제에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히 참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진정으로 즐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 ○ 고창 군민의 날인 음력 9월 9일이 포함되는 주에 고창 모양성제가 개최됨에 따라 매년 축제 일자가 바뀌게 되며 특히 군민의 날이 주말과 겹칠 경우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만드는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나 강강술래 경연 등은 축제 방문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중에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함 → 향후 고창 모양성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고창 군민의 날과 분리하여 축제를 개최하거나 또는 군민의 날 행사에 우선해서 축제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함 ○ 고창의 대표 먹거리인 장어를 보존회에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직접 판매하여 방문객들에게 고창의 대표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일부 음식판매부스의 경우 새치기 등 무질서 행위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제지 등은 이루어지지 않음 → 무질서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함 ○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버스 당 일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음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바퀴로 달리는 에코투어는 고인돌 유적지와 선운사 등 지역의 역사문화유적을 연계한 프로그램이며 두발로 걷는 역사문화 탐방은 고인돌 유적지와 운곡습지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연계상품을 넘어 축제 프로그램 자체를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축제의 파급효과를 고창군 전체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함 ○ 축제기간 축제장과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관광지 요금을 할인하는 등 축제장 방문객의 주요 관광지 방문을 유도함

28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1) 개요

■ 기간 : 2017년 4월 26일(수) ~ 4월 29일(토) / 4일간

■ 장소 :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

■ 주최 : 진도군

■ 주관 : 진도군 관광진흥협의회

■ 주요행사

- 신비의 바닷길체험 및 영등살 놀이
- 신비의 바닷길체험 및 영등살 놀이 뽕할머니 소망띠 잇기
- 신비의 땅을 올려라(불놀이 퍼레이드)
- 뽕할머니 제례
- 회동무대 공연
- 남대국민 토크쇼
- 뽕할머니 가족코스프레마임
- 외국인 K-POP노래자랑
- 응답하라 '모세의 기적'
- 울금 천년비누만들기(신규프로그램) 등

(2) 총 평

■ 잘된 점

- 이번 축제의 두드러진 점은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며 화합하고 동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로 성공을 거둔 축제로 평가 됨.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형 모세의 기적이라는 신기성과 동질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그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이러한 자연자원의 축제 콘텐츠 차별화로 인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유인력이 비교우위적인 경쟁력 있는 축제로 평가 됨

- 작년에 비해 안전요원들이 증가하였고 안전대책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이며 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 받아온 해안의 바위 돌에 대하여 안전대책과 함께 새로운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스트플랜이 실행되고 있어 향후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이 기대됨
- 다소 축제장의 동선과 주변여건으로 인하여 지저분하게 느껴졌던 제반환경들에 대한 청결도가 매우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며 각종 축제장의 청결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축제의 본질은 관광객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임. 실제로 거창한 외형보다는 이러한 디테일한 요소들이 보다 중요함. 축제의 이벤트행사도 신규프로그램을 더하여 디테일하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행사장의 지루함을 해결함
- 공무원이나 지역민들이 축제에 임하는 자세는 어느 축제 보다 긍정적이고 단합이 잘 되는 것으로 평가 됨. 자치단체장의 축제육성에 대한 의지가 높고 지역들이 페레이드 행사 가운데에 스스로 북을 치고 춤을 추며 국내외 관광객들과 어울리는 모습들은 세계적인 아일랜드의 퍼레이드 행사와 버금가는 흥겨운 축제로 평가됨. 보다 세부적인 국제성을 가미한다면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할 가능성이 보임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행사장 내에서 진행 중인 행사와 교통차량이 통제가 잘 안됨.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에 통행하지 않아도 되는 행사차량들이 오히려 행사에 방해되고 있어, 시정이 요구 됨. 가능하면 행사장 안에는 차량의 전면통제가 필요하며 필요시에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도록 선별조치가 필요함
- 도심의 생활권에서 진도축제의 열기를 인지하기 어려움. 해외의 성공한 축제는 이미 1개월 전부터 모든 숙박시설의 예약이 끝나며, 이미 그때부터 축제는 시작되고 있음. 진도 신비의 축제는 원칙적으로 1년 가운데에 단 며칠의 자연 신비를 체험하는 축제인 만큼, 이를 보완하여, 지역민, 지역예술문화인, 진도출향민 등이 주체가 되어 전국의 관광객들을 1개월 전 부터 진도에 모아서 사전축제를 만끽하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함. 궁극적으로 축제의 성공은 지역의 열기와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 행사현장의 천막이나 안내체계가 다소 평범함. 따라서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참신하고 보다 역동적이고 참신한 안내체계의 개선이 필요 함. 우선적으로 천막이나 안내판 들을 진도바다의 신비에 맞는 이미지통합전략의 실행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디지털화한 주, 야간 안내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함
- 국내홍보의 경우 연중 실행해야 하며, 언론을 통해 진도바닷길의 신비로움에 대한 특집보도나 전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연현상에 대한 탐구학습지 겸 교육관광목적지로 평소에 방문할 수 있는 테마형 관광지로 변모시킬 필요 있음. 해외의 경우, 진도신비의 길 체험과 유사한 지역의 자매결연 및 종교적 차원에서 동질적인 관점에서 외국인을 유치하는 대응전략도 필요함

- 진도바다의 신비는 단지 국내의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의 자산이라는 차원에서 국제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축제 임. 다만 현재의 축제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너무나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예산확보 및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됨. 이것은 군 자체의 예산확보 노력도 중요하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면적인 예산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축제의 특성은 기획사 없이 순수하게 공무원들에 의해 39회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고효율 저비용의 구조를 실천한 축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9년 동안 한과가 일관되게 진행한 관계로 데이터의 축적이 용이하였고 점진적으로 콘텐츠가 피드백 됨으로써 축제의 기획안이 체계적으로 발전해온 것으로 평가됨. 특히 이벤트행사의 다양성과 세부 프로그램의 구성성과 업무분장 효과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소망따뜻하기를 필두로 하여 굿놀이, 칼라폴진도 등과 진도 무형문화재 공연, 진도 아리랑 경연 대회, 국악 공연, 진돗개 공연 등과 어울려 진도의 전통적인 문화와 융화되어 상당히 조화로운 우수한 기획으로 평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바닷길 체험행사와 연계된 보다 폭발적인 킬러콘텐츠의 가미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단순한 진도길 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이 매우 좋음. 즉, 최우수축제에 걸맞게 글로벌 축제 지향에 맞추어서 세계 각국 국기를 제작해 해안도로변에 설치하였으며, 300여 명이 참여하는 북놀이 퍼레이드를 펼쳐 외국인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축제 분위기를 만듦으로서 축제의 차별화를 지향하고 있음 ○ 보령축제와 함께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축제로 알려진 본 축제는 외국인 한마당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직접 축제에 주체적인 입장에서 참여하게 하는 참신한 축제로 평가되며 전반적으로 외국인들과 내국인 관광객들이 바닷길에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동참함으로써 국제적인 축제로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외국인 한마당에서 자신들끼리 파티 형식으로 즐기는 것은 지나치게 분리되고 이질감이 드는 요소임으로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리도록 하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콘텐츠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본 축제기획의 강점은 무엇보다 신비의 바닷길과 조화하여 진도의 전통문화와 예술적인 가치성을 구현하여 진도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음. 여느 축제에서는 볼 수 없는 진도만의 가락을 느낄 수 있는 전통예술의 제공은 관광객 들에게 흥겨움과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하는 신명을 주는 요소임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에서 전해내려 오는 지역특색의 소재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잘 연결시키면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음 - 단,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콘텐츠 내용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집중도와 흡인력이 다소 약함. 예를 들어, “뽕할머니 이야기” 같은 경우, 이야기에 등장하는 핵심인물들로 분장한 배우들이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과 함께 어울리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연출하고, 관광객들이 이야기 속에 몰입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는 타 지역과 달리 우수한 전문적인 문화예술공연팀들이 많아, 이들을 축제운영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상당한 예산 절감의 효과를 누리고 있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음. 특히 그동안 축적된 운영노하우를 통해 문화관광과 뿐 아니라 군 전체의 유관들과의 협업체계가 잘되고 있어 축제의 시너지효과가 배가되고 있음. 또한 교육기관들도 적극 협조하여 학생들의 지원봉사가 수월히 진행되고 있고 학생들에게도 지역사랑과 진도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언급한 바와 같이 축제의 기획·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것이 오히려 지역주민참여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지역 주민 역시 주인정신으로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지역사랑이 배가되고 있음 ○ 축제 홍보의 경우 예산 한계로 인하여 공무원과 지역민들이 팀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 젊은이 들을 활용하여 유튜브나 SNS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단, 축제기간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축제 전후에 전방위홍보가 부족함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 한 것으로 평가됨 ○ 진도특산품판매, 먹거리 장터 등이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다만 너무 상업적인 측면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경계해야 할 요소임. 특히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경영은 다소 축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외부 상인들의 경우 적절한 영업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축제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을 수 있는 방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본 축제는 일관되게 국내인과 외국인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적인 배분을 적절히 하고 있어 향후 축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놀이공간과 언어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 특히 외국인을 위한 씨름공연이나 전통민속공연과 경연대회 등은 오히려 내국인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단, 축제장의 동선이 길어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축제장을 둘러보기에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고 탑승차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대비하여 전기차 운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p>3) 축제의 발전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축제기간 이외에도 발생하는 바닷길 현상을 활용한 각종교양 및 역사, 문화 종교프로그램 등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년 중에 몇 번에 걸쳐 산발되게 발생하는 바닷길 현상도 대대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수시로 축제기간 외에 발생하는 바닷길 자연현상을 기념하기 위한 스토리와 차별적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오히려 본 축제의 동반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진도 관광 중 바닷길 현상을 경험할 경우, 가족과의 행복, 연인과의 사랑 등이 이루어진다는 스토리를 발굴하고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사계절 방문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축제에도 지나치게 신비의 바닷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가족이나 연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지 않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연인들이 축제기간이나 년 중 추억을 남길 만한 스토리 확보를 통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진도관광명소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진도의 전통 예술을 중심으로 축제 프로그램이 편성된 것은 진도의 이미지 부각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좀 더 다양한 음악과 예술 장르를 포함시키면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전통행사의 재미와 스토리가 배가 될 수 있는 참신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실행될 필요가 있음
<p>4) 축제의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 동선의 출입과 통제가 매우 용이한 관계로 상당한 객관성을 가지면서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주지하다시피 진도군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제반 입지조건이 양호하지 않음에도 외국인 방문객들이 계속 증가 한다는 것은 축제의 국제화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며 인바운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 따라서 차제에 방문한 외국인의 국적, 취미, 방문목적, 재방문 의사 등 시장세분화를 통한 실질적인 관광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경우 축제를 통한 한국인바운드 활성화에 매우 높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평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진도와 진도바닷길축제에 에 내제된 신기한 자연현상과 전설 등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평가됨 ○ 특히 본 축제가 디지털화 되어 실시간에 전 세계인들에게 전달되고 진도의 가치를 공유할 때, 진도는 조기에 국제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함. 유튜브, 페이스북 및 각종 SNS매체를 통하여 축제기간이외에 년 중 진도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축제기간을 1개월 전에 봄을 조성할 경우, 상당한 관광발전의 파급효과를 배가시켜줄 것으로 봄 ○ 진도 바닷길 축제를 인접 목포, 장흥, 영암, 강진지역의 문화관광축제와 연계하여 인접축제기간에 방문한 관광객들을 진도에서 관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지역 간의 상생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

29

강진 청자축제

(1) 개요

■ 기간 : 2017년 7월 29일(토) ~ 8월 4일(금) / 7일간

■ 장소 :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 박물관 일원

■ 주최 : 강진군

■ 주관 : 강진군 향토축제 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체험, 놀이 행사

- 이열치열 화목불가마 체험, 고려청자깨기체험, 강진점토팩체험, 물레성형하기, 청자조각하기 체험, 타임머신 청자우체통 운영 등

○ 기획행사

- 관광객과 함께하는 점토 밟기, 청자야 ! 반갑다 !, 화목가마요출 및 즉석경매, 명품청자 전시, 판매, 한중도자기 교류전, 청자제작과정 시연 등

○ 전시행사

- 고려청자 재현사업 40주년 기념 특별전, 대형 청자등 전시, 제17회 고려청자 특별전, 대형청자 조형물 전시 등

○ 부대행사

- 사랑의 러브레터 메시지 달기, 청자골 맛의 1번지 운영, 명품청자판매관 이벤트존 운영, 강진문화유적 투어, 청자골 캠핑촌 운영, 청자와 한지의 만남 등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개막식 행사를 화목가마 불지피기-청자마임 길놀이-주무대 주제공연 등의 순으로 고려청자 탄생 스토리를 입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관광객들이 고려청자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었고, 축제의 정체성을 제고시킬 수 있었음

- 축제기간 중 청자관련 상품을 30% DC해서 판매함으로써 고가, 고급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고려청자를 대중화함은 물론 청자상품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축제장에 설치된 대형 돔 형식의 식당인 푸드존을 위생적이고 질서 있게 통합운영 함으로써 남도 맛의 장점을 관광객들에게 잘 인식시켜 연계 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였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한동안 가을에 개최되던 강진 청자축제를 휴가철 관광객 유치와 방학을 이용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름에 개최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무더위 일수가 길어지고 기온이 상승하여 사실상 야외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 축제가 개최됨으로써 주간 프로그램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종전처럼 가을에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축장 내에 구성되어 있는 메인 공연장은 규모가 크고 수용인원도 많은데 비해 그 활용도가 매우 낮으므로 유휴시간대에는 쉽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번 축제에서 많은 체험관련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고, 일부 프로그램은 이용객이 많지 않았으나 물레성형 체험장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더위에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매년 프로그램별 선호도를 조사하여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체험장 규모를 늘려 수용인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의 체험프로그램은 강진청자축제에서만 체험할 수 있어(태토밟기 체험, 점토팩 체험, 불가마체험)청자축제의 정체성 확보는 물론 관광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음 ○ 이번 축제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화목가마와 청자 장인조형물을 축제장 중심에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청자축제에 대한 사실감과 프로그램에 대한 진정성을 높일 수 있었음 ○ 2017 청자축제에서는 체험형 프로그램은 비교적 많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놀이형 프로그램은 많지 않았음. 최근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은 체험형 콘텐츠보다 놀이형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는 놀이형 콘텐츠를 점차적으로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음 ○ 고려청자재현 40주년 특별전이나 고려청자 학술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은 내용이 충실한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축제에서 실시한 강진문화유적지와 장흥 물축제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축제를 통한 양 지역 간의 상생전략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함. 또한, 강진청자축제와 장흥물축제, 고흥우주항공축제가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한 것 또한 지자체간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축제관련자들이 입는 유니폼은 축제관련자들에게 축제의 일체감, 축제에 대한 자긍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유니폼을 청자색으로 잘 디자인하여 관련자들이 착용하고 관광객들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개량할 필요가 있음 ○ 2017강진 청자축제 개막식에서는 의전행사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축제정체성과 무관한 인기가수 초청공연을 하지 않는 등 효율적 축제경영을 위한 노력이 돋보임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진청자축제는 축제장내에 청자박물관 등 인프라가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으므로 관광매력성이 포함된 축제콘텐츠만 꾸준히 보강된다면 축제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축제의 발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려청자 도예인은 물론, 지역문화예술인, 고려청자판매 상인, 강진군민의 참여폭 더욱 확대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청자축제는 고려청자 판매전과는 기본적으로 다름. 축제는 재미, 몰입, 흥미, 탈일상 중심의 종합 지역 문화 행사이므로 현재의 고려청자 판매지향의 축제성격을 과감히 변화시켜야 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자축제장이 강진읍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축제기간 중 강진읍내에서는 축제분위기를 크게 느끼지 못함.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축제참여 유도를 위해서라도 강진시내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렇게 함으로써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음 ○ 강진청자 축제는 지역주민들에게 강진을 “남도답사 1번지, 남도 맛 1번지”에 대한 자긍심 가지게 하고 있으며, 출향인사 들의 축제장 방문의 정례화는 축제가 애향심의 발로가 되고 있음

30

담양 대나무축제

(1) 개요

■ 기 간 : 2017년 5월 2일(화) ~ 5월 7일(일) / 6일간

■ 장 소 : 죽녹원, 전남도립대학교 일원

■ 주 최 : 담양군

■ 주 관 : (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운(運) : 대숲 향기속으로 명품숯실 휴 체험, 죽신제, 담양 별빛여행 등
- 수(水) : 댛 고을 수상체험, 담양천년 소원배-소원패 달기, 대나무 뿔목타기, 대나무카누타기, 대소쿠리 물고기 잡기, 대나무 뿔목 만들기 등
- 대(大)·통(通) : 댛 고을 문화체험 대나무 환경퍼레이드, 추억의 죽물시장 재현, 운수대통 술 담그기, 추억의 영화 상영, 대나무 화분 만들기 등

(2) 총 평

■ 잘된 점

- 담양대나무축제는 죽녹원 대나무의 기운과 관방천의 기운이 크게 통한다는 의미를 찾아 한자성어 운수대통의 주제어와 함께 공간을 설정 하여 운(죽녹원): 숲 체험, 수(관방천): 수상체험, 대통(주행사장): 공연과 체험장으로 구성하여 대나무 축제로서의 공간을 특화 시켰음
- 웰빙과 힐링을 추구하는 현대인들, 가족 및 친구 단위로 많이 움직이는 관광객의 특성 등을 살펴 볼 때 담양대나무축제는 이에 잘 부합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었다. 주제 관련 체험 콘텐츠가 많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날을 포함한 황금 연휴기간에 축제가 개최 되어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발길과 호응이 아주 높음을 알 수 있었음
- 지역의 특산물 대나무를 소재로 한 다양한 시설과 조형물에 활용함으로써 타 지역 및 타 축제와 차별성이 확연히 부각되고 있으며, 담양대나무축제의 지속적 개최를 통하여 담양의 푸르른 자연의 도시 이미지 상승과 함께 유명 관광지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대나무를 소재로 하는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은 아이들 방문객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대나무 숲을 산책할 수 있다는 것은 어른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힐링의 기회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담양대나무축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며 일탈의 신명을 줄 수 있는 축제성 콘텐츠 측면에서 볼 때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음
- 축제에서의 퍼레이드는 역동성을 줄 수 있으며 시민과 관광객이 다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고 있지만, 대나무 환경 퍼레이드는 지역 학생과 읍면 단위별 가장 행렬로서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관광객의 참여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읍면 단위별 행정구역상 참여 형태로 재미와 창의성을 보여 주기보다 특산물홍보에 치중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었다. 또한 일탈의 재미를 주는 퍼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운영 시간을 밤에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대나무축제가 갖는 이미지는 자연, 휴식, 편안함, 힐링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축제는 프로그램에 의한 축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하지만 담양대나무축제 행사장은 전반적으로는 쾌적함을 줘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죽녹원과 축제 메인 행사장 사이의 차량 도로를 축제 기간 중 차없는 도로로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담양대나무축제가 최우수축제를 넘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 운영과 안내 서비스에 있어서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 축제 홈페이지에서의 프로그램 안내와 운영, 축제 안내 체계와 종합안내소운영 등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보임
- 무형문화재 명인들이 보여주는 대나무 공예 시연관의 운영을 단순히 시연 하는 것을 넘어 이야기와 체험이 있는 관람객과 함께하는 대나무 명인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한다 면 더욱 의미가 있고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녹원과 관방제림 일원에서는 관광해설을 통한 명품숲길 체험, 대나무 생태체험 탐구학습 병행 등은 대나무의 환경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음 ○ 대나무를 소재로 하는 다양한 대나무 연 만들기, 대나무 활체험, 대나무 화분만들기, 대나무 어린이 놀이터, 대소쿠리 물고기잡기 등은 축제 주제를 명확하게 하였음 ○ 문화산업전의 대나무 관련 공예 작품, IT를 적용한 스마트디스플레이 등을 통하여 대나무의 다양한 아름다움과 산업적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나무 환경 퍼레이드는 지역 학생 및 읍면별 참여로 주민이 함께하는 긍정적 측면을 볼 수 있으나, 축제 길러 콘텐츠로서 관광객이 참여하고 함께하기에는 콘텐츠 내용과 수준이 아직 부족하였음 ○ 축제장 주무대 및 그늘막, 대나무 부스, 전사.체험.판매 시설, 곤충 조형물 등, 축제장 주요 시설 및 조형에 대나무를 활용하여 축제 주제성 및 지역성을 강화하였음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X 광주송정역에서 축제장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였으며, 관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내부순환 셔틀버스를 2대 운영하였음 ○ 관방천을 잘 활용하여 대나무카누체험, 대나무뗏목타기, 자전거 등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체험을 즐길 수 있게 하였음 ○ 소망배에 '소망을 담은 죽페걸기' 는 관광객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으며, 곳곳에 놓여 있는 대나무 벤치, 대나무 쓰레기통, 대나무 앞으로 만든 주무대는 주제를 충분히 각인시키고 있었음 ○ 운수대통 소망술 담그기 체험은 대통에 소주를 담그고 보관했다가 1년 후에 다시 축제장에서 찾아가는 행사로서 체험료도 6천원으로 저렴하며 내년 축제에 다시 방문을 유도함 ○ 대나무 문화산업전 한 쪽에는 대나무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 놓았으며, 체험하는 동안 부모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음 ○ 대소쿠리 물고기 잡기는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탈의실 시설 환경 개선이 필요해 보임 ○ 대나무 뗏목타기, 카누체험 등 수상레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요원을 배치함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서 축제 관련 현수막 및 배너제작을 협찬하여 시내 거리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였음 ○ 지역주민 중심의 축제 실무위원회 구성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이 진행되었음 ○ 축제장 주요 판매 부스는 담양군 상인들에게 우선 배려했으며, 외부상인들은 축제장 내 부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판매부스를 대나무로 제작하여 특성화하였음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은한 음악의 모닥불 콘서트, 환상적인 레이저 경관 및 명사와 함께 하는 담양별빛여행' 등은 축제의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가는데 기여하였으며, 축제 야간 프로그램을 통하여 담양에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고자 하였음 ○ 행사장의 규모가 넓고 유입장소도 많아 방문객을 집계하는데 어려움과 있으며 중복 체크 우려됨

31

정남진 장흥물축제

(1) 개요

■ 기 간 : 2017년 7월 28일(금) ~ 8월 3일(목) / 7일간

■ 장 소 : 장흥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 주 최 : 장흥군

■ 주 관 : 장흥물축제 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특별 프로그램
 - 장흥 워터 樂플파티, 별밤수다쟁이, 버닝 세러데이, 물축제 10주년 기념 주제 전시관
- 수상 프로그램
 - 수중 씨름대회, 수중 이어달리기, 물동이 이고 달리기, 수상체험 기구타기
- 주제 프로그램
 - 살수대첩 거리퍼레이드, 지상 최대의 물싸움, 맨손 물고기 잡기, 수중 줄다리기
- 연계 프로그램
 - 편백숲 우드랜드-우드 힐링 페스티벌, 정남진 천문과학관
 - 태양 및 별자리 관측, 정남진 물과학관-체험프로그램 등

(2) 총 평

■ 잘된 점

-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지역의 젓줄기 탐진강을 이용하는 축제로서 '23℃ 정남진 장흥으로 발길을 돌려라'라는 주제로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전국 하계 피서객의 이목과 발길을 잡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물축제 기간 중 매일 오후 2시에 펼쳐지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에는 단순한 놀이에 집중 하는 것이 아니라 장흥이 동학혁명의 중심지였던 점을 활용하여 관군과 농민을 주 최 측과 관광객 팀으로 이분화 하여 청색과 백색 티로 구분 지으면서 역사적 사건을 되새기면서 놀이와 교훈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역사 문화콘텐츠로 잘 활용하고 있음

- 물축제 무대를 중앙로까지 확장해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고, 군민과 관광객이 한 데 어울려 물싸움을 벌이며 시가지를 행진하는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를 통하여 지역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민의 축제 관심과 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
- 살수대첩 퍼레이드 구간인 중앙로 중간 곳곳에 급수시설을 설치해 물을 채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했으며, 상인들도 물호스를 들고 나타나 참가자들과 함께 즐김
- 축제 행사의 시작을 기존의 형식적 절차 대신, 참가자들이 모두 어우러지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으로 대신함으로써 보여주는 축제에서 노는 축제로 전환하였으며, 장흥 워터樂 풀파티 등 야간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물축제가 체류형 축제로 발전하고 젊은 층의 지역 내 유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탐진강에서 이루어지는 수상 뱃놀이 요금으로 축적된 요금을 국제기구인 Unicef나 사회봉사단체에 성금으로 꾸준히 제공해오고 있다는 점은 관광객들에게도 매우 인상 깊은 이미지를 제공해주고 있음
- 수자원공사와의 협력으로 장흥댐의 심층수 방류에 따른 탐진강의 수량 확보 및 수온조절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거리퍼레이드, 물싸움 등을 위한 물 공급이 상수도시설, 소화전, 주민지원 등을 통해 원활하게 이루어졌음
- 강을 이용한 축제로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으로 행사장 안전을 위해 육상/수상, 주/야간을 구분하여 안전요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또한 각 행사 시작시 사회자의 안전유의 사항 멘트는 참가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줌으로써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탐진강 청소와 환경정리를 위해 환경담당 부스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는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물축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군수와 군의회 의원, 사회단체장들이 교통봉사 요원으로 나서는 등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어 축제 발전을 향한 장흥군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탐진강을 기점으로 관광객들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길게 그늘막을 설치하였으며, 관광객들에게 제공해주는 부채에 전체 축제 일정과 구간별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관광객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세밀하게 제시해주는 등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음
- 주변 지역인 전남 강진 지역이 “청자”를 주제로 축제를 개최하면서 “불”을 다룬다는 점에 착안하여 양 지역이 서로 축제 기간을 하루 먼저 혹은 늦게 시작을 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물”과 “불”로 이루어지는 축제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지역 간 서로 상생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였으며, 인근 강진청자축제와의 공동홍보, 포럼, 셔틀버스 운행 등은 전남 남부지역 연계관광을 촉진, 인접 축제간의 상생효과를 일으켰다고 생각됨
- 축제 기간에 장흥물축제의 명성을 찾아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많이 방문하였으며, 이들을 포함한 관광객들의 SNS를 통해 번져나간 자발적인 포스팅과 실시간 생중계 등으로 포털사이트 지역축제 검색어에서 상위에 링크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살수대첩”이라고 하는 골목 물총싸움에 담겨 있는 역사적 의미(동학혁명의 뜻을 기리고 선조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알리고자 하는)를 담고 있음에도 적절하게 관광객들에게 그러한 의미를 안내하고 홍보하는 안내문이 제공되어있지 않아서 관광객들은 그런 의미나 취지를 전혀 모르고 놀이에만 집중하는 단점이 있음
- 국도 23호선 확장공사로 인해 주무대가 장흥교 인근으로 이동함에 따라 주 무대에서 다소 떨어진 썬샤인 브릿지와 수변공원 이용객이 감소한 부분이 있으며, 공사로 인해 기존 야간조명이 철거됨에 따라 야간에 주무대에서 썬샤인브릿지 / 풍물시장으로 이동하는 동선, 토요일시장에서 수변공원 방향으로 넘어오는 징검다리 등은 보행안전이 미 확보되었음
- 입장권 구매시 제공되는 상품권이 올해는 주제전시장 특산물판매장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되었고, 대다수의 관광객들이 시장주변에서 음식과 특산품 등을 구매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군청인근 상가는 다소 소외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야간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라 상당수의 젊은 층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종료 후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정보가 부족함
- 탐진강 주변이 영역이 넓고 긴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이 축제 전체 구간을 탐방할 수 있는 이동 시설은 제시되고 있지 않음
- 축제 주변, 군청, 인근 초등학교 등과 같이 다양한 범위의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주변 지역의 좁은 도로 상에서 차량을 통제만하고, 적극적으로 여유로운 지역으로 유도하는 적극성이 부족하여 좁은 도로 상에서 차량 정체가 다소 심한 현상이 지속됨. 주차관리요원의 행사장내 주차장 숙지, 요원간의 주차가능대수 정보교환 등은 개선이 필요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 정남진 장흥으로 발길을 돌려라’라는 주제를 통하여 축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였음 ○ 지상 최대의 물싸움에 장흥의 동학혁명 역사를 반영함으로써 통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콘텐츠로 잘 활용하였음 ○ 도심 공간을 활용한 살수대접 거리 퍼레이드를 통하여 지역민의 축제 참여와 도심 상권 활성화를 꾀하였음 ○ 축제 행사의 시작을 기존의 의례 절차가 아닌 퍼포먼스로 대체하여 즐거움을 주었음 ○ 축제 수익금의 일부를 국제기구 및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축제의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해 가고 있었음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하여 수자원공사와의 긴밀하게 협력하였음 ○ 관광객들에게 쉼터 제공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도모하였음 ○ 축제의 특성상 안전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행사장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 ○ 일부 도로 공사로 인해 동선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보행 안전이 미 확보되었음 ○ 노약자 등을 위한 행사장 탐방 시설이 미흡하여 아쉬운 점으로 나타남 ○ 주차관리 및 안내에 체계화 마련과 정보 공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를 비롯한 사회단체장들이 봉사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었음 ○ 중앙로 상인들도 물 호스를 들고 나와 행진 구간 중간 물 급수 시설에 물을 공급 해주며 물놀이에 적극 동참하였음 ○ 축제 담당 공무원의 장기 근무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축제발전 및 경영의 노하우를 축적 시켜 나가고 있음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형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야간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음 ○ 강진청자축제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 간 상생의지 및 축제간의 상생효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 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직 파급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주요 포털사이트 지역 축제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였음

32

보성 다향대축제

(1) 개요

■ 기 간 : 2017년 5월 3일(수) ~ 5월 7일(일) / 5일간

■ 장 소 :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및 차밭 일원

■ 주 최 : 보성차생산자조합

■ 주 관 :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공식프로그램 : 개막퍼레이드, 식전공연(이봉근의 Road), 개막식(한중일 들차회), 개막 달빛걷기, 폐막행사
- 의례프로그램 : 충무공 이순신 오국다례제, 2017 다신제
- 특별프로그램 : 한강달빛차회, 한국명차선정대회, 보성달빛차회
- 기획프로그램 : 한중일 다례시연&명인다담, 한중일 차문화교류전, 보성너른차자리, 그린티아트마켓&푸드코트, 제6회 티아트페스티벌
- 차문화체험 프로그램 : 차잎다기, 녹차밭 라디오방송국, 차 만들기체험 등
- 기타 : 전시/경연, 보성문화마켓, 문화마실 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 등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
 - 내빈소개·축사·환영사 생략 등의 개막행사 간소화, 대형텐트 철거를 통해 공간 쾌적함 강화, 족욕파고라·빛동산·빛터널 등 야간 경관조명 강화, 청사초롱 등 야간 축제장 분위기 조성 등을 추진함
- 적극적인 국내외 관광객 유치 노력
 - 다양한 언론 홍보를 통해 외국인 유치 및 수도권 지역 여행사 및 코레일과 연계한 모객 노력(외국인 팸투어단 120여명, 코레일 관광객 1,500여명)

- 특히 4.29(토)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한강달빛차회’를 개최하여 서울 및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노력함(찾자리 1,000석 규모)
- 녹차를 좋아하는 관광객 위주로 오기 때문에 축제의 전문성이란 측면과 거리가 멀다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자리를 함께 함
- 지역브랜드와 축제 컨셉의 일치성 보유
 - 행정안전부 평가 지역브랜드 1위인 보성-녹차를 활용한 축제로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지역 산업의 약 30% 가량을 차지하는 녹차산업을 활용한 축제로서 문화관광 축제 의도와 일치함
- 축제의 전문성 강화 노력
 - 총감독제 도입을 통해 축제를 총괄하도록 하고 지역 대학교수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축제를 추진함
- 지역 내 교통체계 극복을 위한 노력
 - 보성군의 경우 축제 기간 중 지방 소도시들의 약점 중에 하나인 지역 내 교통체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5분 간격의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 공간의 스토리 발굴 필요
 - 우수한 축제 컨셉에 비해 축제 스토리 미흡하고 단순나열식 시설 및 체험 위주로 되어 있어, 축제 공간의 흥미 한계가 있음
- 보성 도심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 축제 행사장과 도심이 약 8km 정도 떨어져 있어, 지역으로의 관광 파급효과가 미흡한 실정. 현재 숙박시설 이외에는 영향이 미흡함
 - 또한, 보성 관광자원의 경우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축제 방문객들을 위한 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임
 - 인근에 있는 개인기업 사설 녹차 발과 협업을 하면 좋을 것이라 판단되기에 차기년도엔 협업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함

- 주차 및 편의시설 미흡
 - 많은 방문객으로 인한 차량 주차 문제 해결이 미흡함. 현재 셔틀버스를 활용하고 있으나 인근 도로변에 차량 주차로 인한 문제 발생 우려. 또한, 녹차밭과 공원이라는 공간의 한계로 인해 화장실, 휴게시설 등이 부족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호소함
- 축제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필요
 - 축제장 중앙에 무대를 설치함으로써 메인 행사공연은 원활히 진행되나 종일 음악소리 등이 크게 들려 감성적인 녹차 축제의 분위기를 다소 해침. 중앙무대의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역사성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성다향대축제는 천년 녹차도시답게 43년의 역사를 지닌 축제의 지속성 보유 ○ 지역브랜드와 축제 컨셉의 일치성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평가 지역브랜드 1위인 보성-녹차를 활용한 축제로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지역 산업의 약 30% 가량을 차지하는 녹차산업을 활용한 축제로서 문화관광 축제 의도와 일치 ○ 축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빈소개·축사·환영사 생략 등의 개막행사 간소화, 대형텐트 철거를 통해 공간 쾌적함 강화, 족욕파고라·빛동산·빛터널 등 야간 경관조명 강화, 청사초롱 등 야간 축제장 분위기 조성 등 추진 ○ 축제 공간의 스토리 발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축제 컨셉에 비해 축제 스토리 미흡하고 단순나열식 시설 및 체험 위주로 되어 있어, 축제 공간의 흥미 한계 ○ 축제의 전문성 강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감독제 도입을 통해 축제를 총괄하도록 하고 지역 대학교수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축제 추진 ○ 축제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 중앙에 무대를 설치함으로써 메인 행사공연은 원활히 진행되나 종일 음악소리 등이 크게 들려 감성적인 녹차 축제의 분위기를 다소 해침. 중앙무대의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 및 편의시설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방문객으로 인한 차량 주차 문제 해결이 미흡함. 현재 셔틀버스를 활용하고 있으나 인근 도로변에 차량 주차로 인한 문제 발생 우려. 또한, 녹차밭과 공원이 라는 공간의 한계로 인해 화장실, 휴게시설 등이 부족하여 관광객의 불편 호소 ○ 지역 내 교통체계 극복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성군의 경우 축제 기간 중 지방 소도시들의 약점 중에 하나인 지역 내 교통체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5분 간격의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 제공 ○ 차량 통제를 통해 방문객 안전도 및 축제 쾌적성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과 달리 제2주차장에서 하차하여 주무대까지 도보로 이동 유도. 5분 간격의 셔틀버스가 주무대 근처까지 운행 ○ 적극적인 국내외 관광객 유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과 다른 점 중의 하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는 것.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홍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론 홍보를 통해 외국인 유치 노력 - 아울러, 수도권 지역 여행사 및 코레일과 연계한 적극적인 축제방문객 모객 노력 (외국인 팸투어단 120여명, 코레일 관광객 1,500여명) - 특히 4.29(토)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한강달빛차회’를 개최하여 서울 및 수도권 관광객 유치 노력(찾자리 1,000석 규모) ※ 특히, 중국, 일본의 축제 참가 유치 : 한중일 차문화교류전 개최를 통해 중국, 일본의 차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글로벌 위상 제고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성군청 전사적 지원 및 지역 다윈의 적극적인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와 관련하여 관광진흥과 뿐만 아니라 전사적 차원에서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지역 다수의 다윈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축제 활성화에 기여 ○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축제운영편람’ 제작/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진행요원들을 위해 축제 관련 내용, 안내서비스, 셔틀버스, 안전대책, 우천 대책, 프로그램, 유관기관, 행사지원기관, 인근 업소 등 상세한 운영 편람을 제작하여 사전 배포 후 진행에 활용토록 함 ○ 공간 확대를 위해 인접 민간이 운영하는 녹차밭과 협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도가 매우 높은 대한다원과 봉중산다원이 축제장과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미흡으로 인해 축제시 상호 연계하지 못하고 있음(현재 산책로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 - 현재 공간 및 프로그램의 틀을 벗어나 2018년부터는 차문화공원 양쪽에 인접해 있는 대한다원, 봉중산다원과 연계함으로써 축제 공간의 확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

평가항목	평가내용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성 도심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행사장과 도심이 약 8km 정도 떨어져 있어, 지역으로의 관광 파급효과가 미흡한 실정. 현재 숙박시설 이외에는 영향이 미흡 - 또한, 보성 관광자원의 경우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축제 방문객들을 위한 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

33

영암 왕인문화축제

(1) 개요

■ 기간 : 2017년 4월 6일(목) ~ 4월 9일(일) / 4일간

■ 장소 : 영암군 왕인박사 유적지, 상대포 역사공원 등

■ 주최 : 영암군

■ 주관 :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대표행사 : 왕인박사 일본가요! 퍼레이드
- 기획행사 : 천자문·경전 성독대회, 영암한자능력검정시험, 외국인 미션레이스 「헬로 왕인」, 왕인박사 춘향제 등
- 공연행사 : 도포제(祭) 줄다리기, 삼호강강술래, 갈곡들소리, 낭만 벚꽃 버스킹, 윤도현 밴드 빅콘서트,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삼호난타공연 등
- 체험행사 :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왕인의 길」 체험, 왕인 History Wall, 트릭아트 「왕인愛 포토여행」, 천자문 퍼즐놀이방, 천자문쓰기 등
- 연계행사 : 구림마을 벚꽃열차투어, 영암도기박물관 기획 및 체험전, 도갑사 템플스테이, 구림마을 한옥박람회 등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의 정체성이 비교적 명확히 나타나고 있으며, 재미와 탈일상적 활동성을 보장하고자 전년도 대비 신규 프로그램을 대폭 도입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하였음. 자칫 재미가 반감될 수 있는 인물 중심의 역사축제에 역사적·문화적·오락적 요소를 골고루 도입하여 교육과 재미를 동시에 해결해 보려는 의도가 엿보임
- 주제프로그램 가운데 뮤지컬 공연의 완성도가 높았고, 왕인박사의 도일 행렬 퍼레이드

에 대형 에어아바타 및 퓨전 타악기 퍼포먼스를 배치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모두 신명나게 즐길 수 있게 하였음

- 주무대는 접근성이 우수하고 왕인박사의 자취가 남아있는 역사적 장소로써 아름다운 벚꽃 길, 울창한 수목 그리고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월출산 국립공원이 지척에 있을 정도로 물리적 환경이 우수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이 장소임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전시관의 왕인박사 관련 간행물과 자료, 한시 경연대회 입상작 등 소중한 자료를 축제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전국 천자문·경전 성독대회와 함께 한시백일장, 과거 시험, 휘호쓰기, 한자쓰기 대회를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동시에 개최한다면 축제의 정체성과 재미적 요소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시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나타났음.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하는 왕인의 길 걷기 체험은 왕인의 자취를 자세히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좋았음. 그러나 햇빛이 따가운 한낮에 진행으로써 참여자들이 지치고 해설사의 설명에 몰입하기 어려웠음
- 또한 관광객들이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 뮤지컬 공연과 도포제 줄다리기가 진행되어 역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였음. 어느 축제에 비하여 외국인 방문객이 많았으나 정작 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안내시설이 부족하였고, 관광객들이 참여하여 도포제 줄다리를 진행해 줄 안내 요원이 배치되지 못하여 재미를 반감시켰음
- 대표 프로그램의 주요 참여자들 가운데 일부는 고증되지 않은 신발과 복장을 착용하였고, 수레와 같은 동원한 소품에서도 어떠한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음. 비중 있는 야간 프로그램이 부재한 실정을 감안하여 뮤지컬 공연의 횟수를 늘려 야간에도 공연할 것을 제안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기획의 명확성과 주제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인문화축제는 1,600년 전 백제시대 일본왕의 초청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며 아스카 문화를 꽃피운 왕인박사의 위업을 기리고자 기획한 축제임 - 본 축제는 대표 프로그램인 왕인박사 일본가요! 프레이드, 그리고 천자문·경전 성독대회, 왕인애 어드벤처 랠리, 왕인의 길 체험(문화관광해설사 동반), 천자문 체험 등의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통하여 왕인이라는 역사적 인물과 그 행적을 교육적이면서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p>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랜 축제의 역사가 말해 주듯이 축제의 정체성이 비교적 명확히 나타나고 있음. 프로그램은 역사적·문화적·오락적 요소를 골고루 도입하여 교육과 재미를 추구해 보려는 의도가 잘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프로그램은 왕인박사라는 인물과 그의 행적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판단됨 - 반면에 전시관의 왕인박사 관련 간행물과 자료, 한시 경연대회 입상작 등 소중한 자료를 축제에 활용하지 못한 점이 아쉽게 나타났음. 아울러 참가자가 적고 다소 무거운 천자문·경전 성독대회를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개량한 한시백일장, 과거시험, 휘호쓰기, 한자쓰기 대회를 동시 개최하여 축제의 정체성과 재미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것을 제안함. 기타, 전년도에 비하여 문화공연 관련 26개의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하였고, 놀이체험 관련 27개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프로그램이 주제 및 소재와 거리가 있어 보임 - 향후 축제의 성공뿐만 아니라 왕인박사유적지, 상대포 역사공원, 도기박물관 등이 위치한 축제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설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축제를 통한 지역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p>○ 대표 프로그램의 차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프로그램인 「왕인박사 일본가오!」 퍼레이드는 뮤지컬 공연을 시작으로 900여명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왕인박사의 행렬단, 대형 에어아바타, 퓨전 타악기 공연단, 무용단 등이 왕인박사의 도일 행적을 신명나고 창의적으로 연출함으로써 축제의 소재와 주제를 잘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본격적 행렬에 앞서 영암군 내 11개 읍면의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대형 에어아바타 및 사물놀이패의 공연은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100명의 전문배우를 활용한 뮤지컬 공연은 왕인박사의 일대기 소개에서 벗어나 우수한 백제문화를 전수하는 내용을 재미나게 공연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몰입을 유도할 수 있었음 - 퍼레이드와 관련하여 대형 에어아바타와 퓨전 타악기 퍼포먼스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축제에 참여한 외국인 및 일반 관광객이 1,000명이 퍼레이드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모두 신명나게 즐기므로써 축제의 분위기는 절정에 도달하였음 <p>○ 지역 특색문화 소재 활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인박사라는 인물은 본 축제만이 가진 유일한 소재라 할 수 있으나 이를 토대로 연출한 퍼레이드는 국내의 역사문화 축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으므로 차별적이지 못함 - 그러나 축제는 야외활동이 좋은 계절적 요소 및 주무대에 만발한 아름다운 벚꽃과 더불어 수많은 상춘객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다만, 일본의 아스카 문화를 꽃피운 주인공이 왕인박사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일본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찾아 볼 수 없거나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이지 못한 점이 아쉽게 판단됨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역사성 및 남도 지방의 농요에서 조차 사례가 드문 모찌기 소리를 원형 그대로 재현한 「갈곡들소리」와 풍수지리설에 유래한 명당을 지키기 위하여 천신에게 제사를 지낸 후 편을 갈라 줄다리기 경연을 통하여 풍흉을 점친 「도포제(祭) 줄다리기」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재현한 프로그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음 - 몇 가지 아쉬운 점은 관광객들이 활동하기에 다소 이른 오전 11시경 관광객 참여 줄다리가 시작되었다는 점, 그리고 줄다리기 방법이나 편 가르기 등을 지도할 가이드가 없어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 현장운영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축제운영을 위한 물리적 환경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주무대인 왕인박사유적지까지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보조무대인 구림마을과 상대포 역사공원이 주무대와 지근거리에 위치하여 관광객들을 위한 동선 구성이 매우 편리하였음 - 특히, 주무대는 왕인박사의 자취가 남아있는 역사적 장소로써 아름다운 벚꽃 길, 울창한 수목 그리고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월출산 국립공원이 가까워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거리를 제공하였음. 게다가 부스의 배치가 체계적이고, 위험 및 혐오시설은 귀여운 캐릭터 현수막으로 안내하는 등 축제장의 환경관리도 세심하게 고려하였음 - 우수한 접근성은 한편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관광객의 증가와 주차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보임. 주최 측은 한옥건축박람회와 벚꽃 관람객 등이 쇄도할 것을 예상하고 셔틀버스, 임시주차장, 일방통행 등으로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장 진입로의 일부 골목은 차량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주차문제가 심각하였음 - 처음부터 주차차량을 임시주차장으로 유도하고 이와 더불어 일방통행 구역을 확대 하였다면 관광객들의 접근이 더욱 용이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방문객의 증가에 대비하여 추가적 주차공간의 확보 및 주차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인적 현장운영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대와 보조무대 곳곳에 배치된 안내 및 안전 요원은 전반적으로 친절하고 적절하게 활동하였음. 퍼레이드 경로상에 다수의 교통안내 요원이 배치되어 행렬의 흐름이 원활하였으나 주차관리는 다소 미흡하였음 -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도 몇 가지 사소한 문제가 발견됨, 즉, 왕인박사의 환송 퍼포먼스가 끝나기도 전에 상대포 맞은편의 읍면행렬이 일찍 자리를 이탈하는 바람에 관광객들은 왕인박사 일행이 나누는 이별의 여운을 오래 간직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됨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포제 줄다리기 공연 후 안내요원 또는 지도요원의 부재로 관광객들이 참여할 타이밍을 놓치거나 참여과정이 매끄럽게 정리되지 못하였던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음 ○ 축제 홍보 등 관광객 유치활동의 적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명동과 광주 충장로 등지의 홍보 캠페인을 비롯하여 서울 지하철의 홍보영상 등 축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전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외지관광객 비율과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경우가 각각 88%와 96% 이상일 정도로 홍보와 관광객 유치활동이 활발함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축제의 전국적 인지도는 높지 않으므로 광주와 전남을 벗어난 원거리 방문객 유치를 위해서 꾸준히 홍보할 필요가 있음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 뿌리내림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도포제 줄다리기와 갈곡들소리 등 일부 기획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행과정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함 ○ 축제 추진주체의 체계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는 자치단체나 대행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담조직(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의 주도아래 운영되고 있음. 1997년에 설립된 전담조직은 그 동안 축제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전문성을 축적한 것으로 보여지며, 군의 축제담당자도 최근 3년 동안 장기근무하면서 축제발전에 전력하고 있음 - 이러한 축제 추진주체가 가진 조직적 특성은 자치단체장이 교체되더라도 축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추진위원회는 일본의 자매도시(히라카타시 등) 방문단을 초청하여 축제를 문화교류 및 유대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향후 축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하여 양 도시간의 실질적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구체적 성과를 창출해야 함 ○ 올해 제20회를 맞이한 축제는 총 84종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음. 전년 대비 26종의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 가운데 왕인애 어드벤처 랠리,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왕인의 길 체험, 왕인 History Wall 등 왕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행사로서 구림마을 벚꽃열차투어, 구림마을 한옥스테이, 도감사 텀플스테이, 기찬영암 관광투어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벚꽃길(4km)에 전등을 설치함으로써 야간투어도 가능하게 하였음 - 이러한 다종 다양한 축제프로그램은 왕인박사유적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100리 벚꽃 길과 더불어 역대 최다 인파가 몰려 교통 혼잡에도 불구하고 상춘객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음 - 향후 축제조직위원회와 영암군은 축제의 성공에서 더 나아가 축제브랜드의 구축 및 축제공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34

문경 찻사발축제

(1) 개요

- 기간 : 2017년 4월 29일(토) ~ 5월 7일(일) / 9일간
- 장소 : 문경새재 야외 공연장,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문경읍 온천지구, 점촌문화의 거리
- 주최 : 문경시
- 주관 : 문경시 축제조직위원회, 문경전통찻사발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대표프로그램
 - 사기장의 하루체험, 망각의 찻집
 - 특별행사
 - 시가장과의 대화, 문경전통 발물레 경진대회, 찻사발 방송국, 아름다운 찻자리 한마당, 전국가루차 투다 대회, 한중일 다례시연 등 11개
 - 기획전시
 - 중국자매도시초청전, 문경전통도예명장전, 문경도자기기획전, 문경전통 도자기 명품전 등 8개
 - 체험전시
 - 찻사발 전시, 찻사발 그림그리기, 새재가마골, 다례체험, 찻사발 페이스 페인팅, 발물레 빨리 돌리기, 찻사발 어드벤처, 한복체험, 흙속의 진주찾기 등 16개
 - 알찬행사
 - 찻사발 봄바람에 날리다2, 야간프로그램, 차인의 날, 축제사진콘테스트 등 8개
 - 공연행사
 - 주무대공연 : 상설해학극, 지역예술단체 공연 등 4개
 - 거리공연 : 버스킹 공연, 망태아저씨 등 3개

(2) 총 평

■ 잘된 점

-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의 가장 좋은 점은 전통 장작가마를 사용하는 도예인들이 직접 참가하는 축제로서 관주도의 축제가 여러 찻사발 장인들과 함께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축제장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문경 찻사발 축제는 다른 축제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찻사발 생산이 문경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축제는 문경새재 야외공연장과 오픈세트장 일대에서 열리고 있어 다른 축제와는 달리 축제의 주제와 장소가 어느 정도 일치성을 보이고 있는 점은 다른 축제에 비해 좋은 점임
- 축제 주제별 체험별 축제장 세팅이나 코끼리 열차 등을 활용한 접근성 확보 노력, 그리고 주차장 요원이나 현장 진행요원의 훈련과 배치를 통한 축제운영의 효율성을 높은 점은 높이 평가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가 전통 장작가마 사용하는 도예인들과 함께하는 축제라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대부분 작품전시에 치우쳐 있음. 실제로 공간배치에 있어서도 작품전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물론 체험이 있기는 하나 많은 축제에서 보여 지는 의례적 체험이 대부분이고 대부분은 작품전시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쉬운 점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으나 축제라기보다는 도예작품 전시회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음
- 전시 도예품의 경우에도 상세한 설명이나 해설이 없는 것도 진정성을 알린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임. 특히 요즘에는 흔치 않은 전통 장작가마를 사용하는 문경전통찻사발의 가치나 제작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도예작가별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과 해설이 있다면 문경 전통 찻사발이 우리나라의 전통도예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전통 찻사발 축제라는 주제의 한계에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으나 문화관광축제로서 일반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이들을 참여와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체험프로그램의 콘텐츠 부족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대표프로그램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부족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고는 있으나 작품전시외에 방문객의 입장에서 강하게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함
- 향후 전시형 축제로 보여 지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전통찻사발이 가지는 진정성을 방문객에게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양보다는 체험성과 몰입성에 기반한 질적 체험프로그램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고민 필요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개최의 목적이 문경 전통 장작가마를 사용하는 도예인들이 참가하는 축제로서 문경전통찻사발축제를 통하여 지역도자 문화를 계승발전하고 도자문화브랜드를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있음 ○ 전체적으로 축제목적에 맞게 기획과 콘텐츠의 구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우리나라 대표축제라는 점에서 콘텐츠와 프로그램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및 개선 의견을 제시함 ○ 대표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나 방문객들은 이 축제의 대표프로그램은 전통찻사발 전시라고 생각될 만큼 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심성이 너무 강조되어 있음. 실제로 도예인이 참여하는 만큼 이들의 작품을 알리고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의 목적이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문경 찻사발의 의미를 알리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개선이 필요한 지점임 ○ 전시 및 판매 작품에 있어서 문경전통 찻사발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이 전혀 없어 전문가나 찻사발에 관심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특히 도예작가별로 작품이 어떻게 다르고 각 작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음. 따라서 해설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문경시는 도예인들이 참여하는 세계유일의 축제라고 하지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들만의 축제로 오해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축제장은 문경시내에서 떨어진 곳에서 위치하여 도예인들의 작업현장과는 유리되어 있으며, 도예인 중심의 축제라는 점에서 축제의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따라서 향후 축제계획에서는 도예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대표 프로그램인 사기장의 하루 체험과 망각의 찻집은 축제 주제와의 부합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이들 대표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도자관련 축제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놀이성과 몰입성이라는 점에서 대표성이 약한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참가인들의 규모나 장소의 규모를 늘리는 시도는 꾸준히 되고 있으나 프로그램 콘텐츠가 자체가 비교적 강력하지 않아 대표프로그램으로서 방문객의 마음속에 각인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몇몇 프로그램을 예년에 비해 강화했으나 유사축제와 차별화되고 축제방문객을 위한 특색 있는 참여체험 프로그램은 많지 않았음. 문경에서 전통 장작가마를 통해 작품을 생산해 내는 장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문객은 기대한다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p>2) 축제의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의 축제장 세팅은 다른 축제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문경지역의 전통찻사발의 전통성을 감안할 때 문경새재 야외공연장과 오픈 세트장은 방문객으로 하여금 진정성과 주제와의 일치성을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임 ○ 단, 축제장 환경구성에 있어 세트장을 활용한 측면에서는 인위적인 공간조성보다는 높게 평가되나 프로그램 중심보다는 전시 및 판매 중심으로 장이 구성되어 있어 찻사발 전시회같은 느낌이 나는 것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축제장의 공간특성상 긴 동선을 가지고 있으나 주제별 영역관리가 잘 이루어져 있으며 편의시설 등을 곳곳에 배치하여 방문객들의 축제관람을 배려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문경새재 박물관으로부터 오픈세트장까지 긴 동선을 감안하여 코끼리 열차를 활용하여 관광객의 이동편의를 돕고 있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됨 ○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한 행사 매뉴얼 숙지 및 자원봉사자 활용 등 자원봉사자 교육시스템 등 행사장내 운영 효율성은 높게 평가됨. 또한 자원봉사자 활용과 시민의 날을 활용한 지역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음 ○ 홍보전략은 매체별로 잘 구성 추진되었음. 특히 문경새재 아리랑 플래시몹을 활용한 대도시 홍보 등 찾아가는 홍보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SNS 홍보는 잘 진행되었음 ○ 외국인 편의시설, 외국어 안내, 전담여행사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외국인 관광객 대응체계는 비교적 잘 추진되었음
<p>3) 축제의 발전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는 전통 장작가마를 사용하는 도예인만들이 참여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관 주도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도예인과 함께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단, 도예인 참여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도예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수의 도예인 축제가 아닌 문경 도예인들이 다같이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문경찻사발 축제가 전통 장작가마를 사용하는 도예인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는 점에서 축제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있어야 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문경시는 재단설립을 통한 축제추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축제추진주체의 체계화 정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부 체험프로그램의 유료화와 전통 찻사발 판매를 통해 축제의 재정자립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하고 있는 것은 평가할 수 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는 축제장의 구성 특성상 비교적 정확한 방문객 집계 등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성과평가의 신뢰성이 높으며, 방문객 집계지침을 준수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무인측정기를 설치하여 방문객 집계를 시도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함 ○ 축제장의 특성상 문경시의 주요관광지인 문경새재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연계효과가 크며 축제개최로 인한 지역사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문경시내 축제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연계프로그램이 야간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 있어 향후에는 축제로 인한 효과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축제의 효과가 소수의 도예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35

봉화 은어축제

(1) 개요

■ 기 간 : 2017년 7월 29일(토) ~ 8월 5일(토) / 8일간

■ 장 소 : 봉화읍 체육공원/내성천일원

■ 주 최 : 봉화군

■ 주 관 : (사)봉화군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대표프로그램

- 전국반두잡이 어신선발대회, 봉화군민 맨손잡이 팀대항전

○ 체험행사

- 은어잡이(맨두·맨손), 야간은어잡이, 숯불구이체험, 은어물난장놀이터, 내성천 워터 위, 수박서리 및 삼굿구이체험, 모바일 은잡GO, 은어서식지생태체험, 내성천 ATV체험, 어린이 놀이동산, 수상놀이기구, 다슬기잡기체험

○ 참여행사

- 봉화인 한마당, 봉화군민 맨손잡이 팀 대항전, 은어야! 천체랑 놀자

○ 공연행사

- 개폐막공연, 문화예술공연, 부천시립예술단공연, 전국보디빌딩대회 및 뷰티코리아챌 피언십, 시장가요제 등

○ 전시행사

- 은어주제관, 은어토피어리 포토존, 트릭아트 포토존, 모래조각전시

○ 연계행사

- 가재마을체험, 가족건강걷기, 문화유적탐방 버스투어, 구시장야사정가정(치맥 페스티벌)

(2) 총 평

■ 잘된 점

- 테마 요소와 지역마케팅의 연관성 : 은어라는 테마를 통해 청정지역의 이미지로 지역 마케팅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 여겨짐
 - 은어는 청정1급수의 깨끗한 물에서만 잡히는 물고기라는 특징에서 봉화군의 환경이미지 상승에 영향을 끼침
 - 환경적 요소와 축제테마를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자연 공존형 축제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의미가 있음
- 체험에서 음식으로 이어지는 연계성 : 은어를 직접 잡아 조리해먹을 수 있는 기획을 통해 관광객의 재미 증가
 - 은어잡이와 숯불구이체험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구성은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갈 수 있음
 - 특히 은어잡이 형태를 반두잡이, 맨손체험 등의 방식을 다양하게 이름으로써 전 연령대에 걸쳐 즐길 수 있게 조성했다는 점은 강점으로 보임
 - 실제로 반두잡이의 경우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체험하는 모습이 다수 이루어짐이 보여 함께 즐기는 축제프로그램의 기획과 가장 적합한 부분으로 평가됨
 - 은어잡이 외 다슬기체험, 수박서리체험 등 먹거리와 연계하여 기획한 먹거리 체험프로그램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만족을 주는 역할을 수행함
- 가족 체험형 축제 및 장소입지의 적합성 : 축제의 주 무대인 내성천은 수심이 얕아 어린이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며, 축제장의 면적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즐기는데 무리가 없음
 - 축제장의 면적은 지난 축제와 비교할 시 더욱 확장되어 관광객들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조성됨
 - 주요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인 내성천은 가족단위의 관광객 특히 주 연령층인 아이들이 체험하는데 적합한 장소로 여겨짐
 - 내성천은 수심이 얕고 모래로 덮여 있어 비교적 안전한 장소로 보이며 관광객들이 활발한 활동을 체험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이 외에도 어린이 물놀이장, 수상놀이존, 물난장 놀이터 등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수 포진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음

- **군민 참여형 축제** : 축제를 기획하는 주체인 (사)봉화군축제위원회가 군민으로 구성됨과 더불어 군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진행은 군민 참여형 축제로 발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옴
 - 다슬기체험, 가재마을체험, 수박서리체험 등 군소재의 농가의 협조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기획되어 관광객들에게 제공
 - 이외 봉화군민 팀대항 맨손잡이 대회, 전국반두잡이 어신 선발 대회 등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 진행이 이루어짐
 - 기업의 스폰서가 부족한 상황에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축제기획 및 진행은 군민참여형 축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
- **은어관련 콘텐츠 개발 및 확대** : 작년과 비교할 시 은어 관련 콘텐츠가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개발되어 확대한 부분은 우수하다고 평가됨
 - VR을 활용한 ‘은어잡Go’는 내성천 수중에서 모바일 증강현실로 은어잡기 체험을 통해 실제 은어와 교환해주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어린연령층 및 가족단위의 관광객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주요함
 - 은어관련 기념품(셔츠, 모자, 물놀이용품)을 개발 및 판매함으로써 축제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여겨짐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장기투숙여행객 유입요소의 약세** : 야간 프로그램의 부족과 숙박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져 장기투숙여행객을 유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보임
 - 계절적 특성(여름철 축제), 시간적 특성(낮 프로그램 다수)에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이 중심이 된 반면 야간프로그램의 약세가 보임
 - 야간 은어잡이 프로그램이 있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체험객의 수는 낮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이루어지는 야간공연에 의해 관광객이 분산되는 현상을 보임
 - 내성천을 활용한 야간프로그램이나 야간 조명경관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있음
 - 8일간의 프로그램구성이 다양하지만 실제로 은어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일자별에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음
 - 실제로 공연행사 외 전시연계행사, 주제체험행사, 기타 및 참여행사는 8일간 동일하게 진행됨
 - 더불어 축제장과 접근성이 용이한 숙박시설의 부족함과 동시에 텐트촌 조성은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향후 관광객의 장기투숙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임

- 외국인 관광객을 대비한 준비 부족 :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시키기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며, 대처 또한 미약한 수준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준비현황은 크게 팜플렛(영문), 통역안내(영어, 중국어, 일본어 각 2명)배치로 나뉨
 - 축제기간 중 오히려 동남아국적의 관광객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을 위한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
 - 특히 통역사의 위치와 관련한 안내를 쉽게 찾아볼 수 없어 외국인관광객의 혼란을 야기하기도 함
 - 향후 축제에 참여하는 외국인관광객의 분석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축제 테마 정체성에 적합한 콘텐츠 기획이 필요 : 2016년 축제평가지적사항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축제 성격과 무관한 프로그램을 지양한다 했지만 실제 콘텐츠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프로그램 제목에 은어를 활용했지만 실제 콘텐츠내용은 은어와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이 존재함
 - 특히 체험존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보이며, 향후 은어라는 테마의 정체성에 부합한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진행되어야 함
 - 오히려 지역 농가의 체험홍보부스, 특산품을 밀접하게 연계함으로써 봉화군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방향의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공간 디자인과 시각적 요소 강화 : 모든 체험장의 디자인 및 시각적 요소의 수준이 동일하며 축제의 상징성 표현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공간마다 동일한 디자인이며 특히 은어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찾기 쉽지 않아 축제의 상징성을 약화시키는 분위기를 자아냄
 - 축제 테마인 은어를 상징화하는 디자인을 기본으로 공간디자인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향후 부스 혹은 공간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을 차별화함으로써 축제의 상징성 및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데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3) 항목별 평가

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과 깊은 계곡을 간직한 청정지역인 봉화군의 이미지와 청정1급수 깨끗한 물에서 잡히던 봉화 은어라는 테마를 통해 관광객에게 자연공존형 축제는라는 이미지는 전달하는데는 성공했다고 보여짐 ○ 예전에 가능했던 청정 봉화 내성천에서 이어져온 은어잡이 놀이를 현대적으로 축제적 체험콘텐츠인 은어잡이 체험을 통해 자연을 벗삼아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축제로 발전시키고 있어 성장가능성이 높은 축제로 보여짐 ○ 은어잡이라는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체험콘텐츠를 반디, 맨손잡이 등 다양한 체험요소로 해석해서 프로그램화 시켰으며 경연대회, 지역대항전 등 경쟁적 요소를 더하면서 재미를 배가시키고 있는 것은 축제의 체험속성적 특징을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은어잡이 형태를 다양하게 도입함으로써 전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시킨 것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체험할 수 있게 한 것은 함께 하는 축제로서 프로그램이 기획이 잘 이루어진 부분임 ○ 또한 작년과 비교할 때 은어 관련 콘텐츠 개발에 있어 모바일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간접적 은어잡기 체험을 유도하는 등 융합을 통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한 것은 돋보이는 아이디어임 ○ 은어라는 테마를 통해 청정지역의 이미지로 지역마케팅을 이루어냄으로써 축제의 주제와 장소성이 부합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지역브랜드 창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됨 ○ 단, 과거와 달리 축제와 무관한 프로그램을 많이 지양했지만 은어와 관련성이 없는 프로그램의 수를 줄이고 환경과 은어의 컨셉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에는 은어라는 환경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제의 명확성을 드러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가 수심이 낮은 내성천을 활용함으로써 어린아이가 충분히 즐길 수 있었고, 축제장의 면적을 전년도 축제와 달리 확장하여 방문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쾌적한 축제장을 구성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가족체험형 축제로서 공간의 선정과 공간구성이 높이 평가됨 ○ 단, 가족층 방문객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내성천변에 쉼터를 설치하고는 있으나 판매 및 체험시설과 인접하여 배치되어 혼잡스럽고 일부 방문객들이 점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편의시설 배치에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공간디자인의 상징화와 명료한 환경구성 측면에서 공간디자인적 측면에서 시각적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향후 은어를 상징화하는 디자인을 기본으로 공간디자인의 차별화와 부스 혹은 공간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먹거리장터 및 직영식당 은영 등 은어요리 개발 및 식당고급화를 시도한 점은 높이 평가되나 이용객이 한정되어 있어 음식공급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메뉴개발과 서비스인력 확충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어축제의 역사와 스토리를 담은 주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조잡해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한 행사 매뉴얼 숙지 및 자원봉사자 활용 등 자원봉사자 교육 시스템 등 행사장내 운영 효율성은 높게 평가됨. 또한 자원봉사자 활용과 군민의 날을 활용한 지역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음 ○ 매체별 홍보전략이 잘 구성되어 있음. 특히 대도시 조명 및 영상광고 등 찾아가는 홍보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네이버, SNS, 방송사, 비즈링 홍보는 잘 진행되었음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화군은 백두대간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대부분이 산악지역으로 청정환경과 자연 이외에 지역발전의 동인이 거의 없는 지역임에 불구하고 청정한 지역이미지를 활용하여 오래전부터 은어축제를 개발하여 어느 정도 인지도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특히 3년 연속 우수축제로 지정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축제 도시로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임 ○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은어축제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지역보다 지역주민 스스로 가 절실함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축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임.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축제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됨 ○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축제개선 노력을 통해 은어라는 테마를 지역브랜드화 시켰으며 축제를 넘어서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축제를 활용한 지역마케팅이 이루어진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함 ○ 축제주체인 (사)봉화군축제위원회가 군민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군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은 군민참여형 축제로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은어 반두잡이 체험, 은어 맨손잡이 체험, 은어 물장난 놀이터, 유료대여텐트촌 운영 등 재정자립화를 통해 축제경영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임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 집계에 있어서 현재의 방문객 집계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나 축제공간이 하천형으로서 공간진출입이 자유로운 점을 감안하여 향후 정확한 방문객 추계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축제자체의 방문객은 많을 것으로 보이나 가족단위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과 숙박관광 유도를 위해서는 야간 프로그램의 개발과 숙박시설 확충, 그리고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차기연도 축제 계획시 정식개장예정인 국립산림수목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6

포항 불빛축제

(1) 개요

■ 기간 : 2017년 7월 26일(수) ~ 7월 30일(일) / 5일간

■ 장소 : 영일대 해수욕장 및 형산강 체육공원 일원

■ 주최 : 포항시

■ 주관 : (재)포항문화재단, POSCO

■ 주요행사

○ 영일대해수욕장

- 개·폐막식, 불빛퍼레이드, Daily 뮤직불꽃쇼, 전야제, 불빛버스킹페스티벌, 개·폐막 주제공연, 불빛을쏘다, 불빛테마존, 팡팡물총대전, Let's 불빛 Party, Let's 물빛 Party, 불 드롭 파티, 황금물고기를 잡아라 등

○ 형산강체육공원

- 국제불꽃쇼, 해외자매우호도시 문화공연, 불금락페스티벌, Night 피맥 Party!, 팡팡! 열기구 체험

○ 시내 일원

- 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 포항국제불빛축제 기념 오픈 전국배드민턴대회, 포항불빛 미술대전

(2) 총평

■ 잘된 점

○ 축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

- 축제 관람객을 배려하기 위하여 내빈소개·축사·환영사 생략 등을 영상으로 처리하여 개막행사 간소화,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상가 및 가로등 불빛 개선 등을 추진함
- 무엇보다도 국가별 특색 있는 연화연출로 국제불꽃쇼 진행과 타 불꽃축제와 다른 콘텐츠 프로그램(예술 불꽃극, 현대미술, 거리극등 재연)을 추진함

- 산관민 축제 협력 체계 구축
 - 시청의 행정지원과 추진, 재단과 민간단체의 참여, 향토기업의 재정적 후원 등은 축제와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축제의 수범모델. 관청주도의 종래 축제 추진체계와 대별됨
-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 포항 시민축제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어 축제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안 받아 직접 축제에 반영함(선정된 아이디어는 시에서 별도의 비원을 지원해 축제에 참여하도록 유도)
 - 아울러, 포항시가 매년 자발적으로 포항의 행사 등에 참여할 '시민자원봉사단'을 모집하여 활용(무보수로 참여). 지원 비용 대신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여 평상시 포항 지정 상가에서 물건 구입 등이 가능함
- 축제의 전문성 강화 노력
 - 포항의 축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기구인 (재)포항문화재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지역 대학교수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축제를 추진함
- 올해 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이 좋았던 현대미술작품이나 축제 환경장식 등의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축제장의 질을 높이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 테마와 스토리의 연출 미흡
 - 누구에게나 관심이 있는 불빛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축제 전체의 테마와 스토리를 연출하는 데에는 한계. 2017년은 포항문화재단이 문화예술요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포항 관광자원 간의 연계성 미흡
 - 축제 장소가 영일대 해수욕장과 형산강 주변이다 보니, 포항에 분포되어 있는 관광자원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이를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미흡한 실정임
- 주간과 야간 프로그램의 격차
 - 포항불빛축제는 불빛을 활용한 야간 축제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간에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나, 관람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주간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함. 특히 연계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주간시간대의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장소가 이원화되어 있음. 주최 측은 주행사장이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밝히고 있으나 대표프로그램은 영일대해수욕장에서 4Km 떨어진 형산강 공원에서 개최됨. 대외용 홍보물에서 주행사장을 확인할 수 없어 지리에 낯선 관광객의 혼란 초래. 방문목적지로 설정할 주행사장 분명히 해야 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의 이미지인 ‘빛’을 활용한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의 용광로, 해맞이공원의 일출, 일원사상 등 불빛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 이미지인 ‘빛’을 활용한 축제로 기획 의도는 우수 ○ 축제 테마와 스토리의 연출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의 일월의 빛이라는 테마 하에 문화재단에서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람객들이 인지하기에는 다소 미흡함 - 그러나 다양한 문화예술과의 접목을 시도한 것은 매우 바람직함 ○ 대표 프로그램인 ‘불꽃쇼’의 화제성 보유. 그러나 참가국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선호하는 불꽃쇼를 축제일정 중 매일 볼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참가하는 국가가 3-4개국이라 국제적 축제라고 하기에는 다소 미흡 ○ 축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관람객을 배려하기 위하여 내빈소개·축사·환영사 생략 등을 영상으로 처리하여 개막행사 간소화,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상가 및 가로등 불빛 개선 등 추진 ○ 젊은 층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은 젊은 연령대의 비율이 높은 도시로, 실제 축제 방문객 중 젊은 연령대의 비율이 높음(20-30대 대상의 전략적 홍보 및 프로그램진행과 참여관광객의 호응과 증가). 이를 위해 버스킹, 공연, 경연대회 등 다양한 젊은 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 ○ 축제 기간 중 별도의 포스코 야경 활용 프로그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에서 바라보는 포스코 야간 경관이 매우 볼거리임. 이에 축제 기간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야간경관(조명 활용)을 활용한 이벤트 발굴 필요 - 축제기간 중 8시 이후 정각에 펼쳐지는 조명 쇼 등 ○ 축제 분위기 조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주변 외에는 축제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운 실정, 포항역이나 주변 교통 초입지역에서부터 축제 분위기가 나타나도록 방안 강구 필요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공간의 차량 통제를 통해 관광객 편의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일대 해수욕장은 포항시의 대표적인 관광객 및 지역주민 집객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차량이 혼잡함 - 이를 위해 행사장 주도로의 차량을 전면 통제함으로써 관광객 편의 도모,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보임 - 축제장소의 이원화로 콘텐츠의 집중력과 관광객 집결, 예산의 효율화 등의 문제 소재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장소의 통일 필요 ○ 축제의 전문성 강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의 축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기구인 (재)포항문화재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지역 대학교수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축제 추진 ○ 주간과 야간 프로그램의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불빛축제는 불빛을 활용한 야간 축제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간에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나, 관람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주간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함. 특히 연계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주간시간대의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연고 기업의 축제 후원에 따른 협력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가 매년 상당규모의 축제 후원을 하고 있음(형산강에서 개최되는 국제불꽃쇼의 비용) - 연고 기업이 후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국제불꽃쇼가 포스코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포항시의 개입과 의견 개진이 미흡할 수 있어, 상호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쓰레기 등 행사장의 쾌적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의 지적사항 중의 하나인 쓰레기로 인한 청결성 문제였으나 지역 청결캠페인 등을 통해 축제 기간 중 쓰레기 및 청결 문제가 많이 개선됨. 다만 이동식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다소 부족함 ○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축제와 달리 관광객들의 정보 편의성을 위해 PC버전 외에 모바일 디자인도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 ○ 행사장 안전성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일대 해수욕장이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되어 있고, 행사 부수 중 음식/주류 판매 장소가 있어, 야간 음주로 인한 관리운영 및 안전성 강화가 필요함 - 가족 관광객과 젊은이들이 많은 만큼 안전요원들의 적절한 배치와 경찰과의 협조도 필요할 듯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p>3) 축제의 발전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 시민축제기획단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 시민축제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어 축제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안 받아 직접 축제에 반영 - 선정된 아이디어는 시에서 별도의 비원을 지원해 축제에 참여하도록 유도 ○ 시민자원봉사단 자발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포항시가 매년 자발적으로 포항의 행사 등에 참여할 ‘시민자원봉사단’를 모집하여 활용(무보수로 참여) - 지원 비용 대신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여 평상시 포항 지정 상가에서 물건 구입 등 가능 ○ 축제의 수익모델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예산을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축제 수익모델이 매우 미흡함 - 불빛이라는 소재는 다양한 상품 발굴이 가능한 소재라고 판단되며 실제 해외의 경우 빛을 활용한 상품이 다수 개발되어 있음 ○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변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후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관광객 참여가 저조했던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제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유관기관 협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축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임
<p>4) 축제의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 관광자원 간의 연계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장소가 영일대 해수욕장과 형산강 주변이다 보니, 포항에 분포되어 있는 관광자원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이를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미흡한 실정 ○ 홍보마케팅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 불빛 축제에 대한 국민들 특히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에게 인식이 부족한 실정. 이에 적극적인 축제 홍보가 필요할 듯함 ○ 축제의 지역 확산 및 지속적인 지역 소득창출을 위한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축제 기간 중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축제 참여자들이 포항시 전역으로 분산되어 전체 지역 경제에 효과를 나타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

37

고령 대가야체험축제

(1) 개요

- 기 간 : 2017년 4월 6일(목) ~ 4월 9일(일) / 4일간
- 장 소 : 대가야박물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문화누리 광장 및 관내 일원
- 주 최 : 고령군
- 주 관 : (사)고령군관광협의회
- 주요행사
 - 주제행사
 - 퍼레이드 ‘대가야 건국신화’, 역사재현극 ‘대가야, 건국의 시대’
 - 스토리텔링 행사
 - 대가야 건국 보물찾기, 정견모주 퍼즐 맞추기
 - 체험프로그램
 - 가얏고존 : 울림통 제작체험, 열두 줄의 현과 안죽 제작체험, 대가야 미니 가야금 제작체험, 가야금 연주체험
 - 용 사 존 : 무기제작체험(대가야 칼 만들기, 대가야 활 만들기, 대가야 갑옷 및 투구 만들기), 무예체험, 역사체험게임, 용사선발대회
 - 토 기 존 : 토기제작체험, 토기무늬체험, 장작가마 소성체험
 - 생 활 존 : 움집제작체험, 바비큐체험, 저울추 무게 달기체험, 복식체험, 흙구슬놀이
 - 철 기 존 : 대장간 체험 및 철기 관람, 순장체험
 - 예 술 존 : 금동관 제작 체험, 장신구 제작 체험, 귀면화 제작 체험, 페이스페인팅체험, 암각화 그리기 체험, 탁본체험, 판박이체험
 - 농촌/전통문화체험
 - 딸기수확체험, 녹색테마생태관체험, 녹색농촌마을체험, 가족사랑 딸기이벤트, 딸기수확

- 연계행사
 - 가얏고 음악제, 제17회 대가야왕릉제, 고령가왕선발대회, 제38회 악성우륵추모제, 상가활성화 시장축제, 제9회 매운당 이조년 선생 추모 전국 백일장, 뮤지컬 ‘가얏고’ 공연
- 부대행사
 - 대가야박물관 기획특별전, 대가야 고상가옥생활체험, 마당극 ‘금산재아리랑’ 공연, 인형극 ‘호랑이부인과 대가야사포’ 공연, 스토리텔링 경연대회, 지역 농 특산물 전시판매

(2) 총 평

■ 잘된 점

- 역사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통해 대가야 역사 문화를 주제로 한 역사문화축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함
- 역사체험프로그램 전체를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에 집약시키고 프로그램의 주제나 성격에 따라 프로그램을 군집화하여 운영함으로써 방문객들의 축제참여나 축제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함
- 대가야 관련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지인 대가야 역사 테마관광지, 대가야박물관 일원을 축제공간으로 활용하여 축제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유리한 장소성을 확보함
- 축제의 파급효과를 공간적으로 시가중심지까지 확대하기 위한 음식점 부스의 재 배치 등 축제 공간의 확장과 재구성을 시도함
- 민간 관광전문조직인 고령군관광협의회가 축제의 기획 및 운영을 주관함에 따라 민간 중심의 축제추진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축제의 상시적인 추진체계와 전문성을 확보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대가야의 역사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재구성을 통해 대표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축제에서 대가야박물관,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등 기존 역사문화시설이나 지산동고분군과 같은 역사문화유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대가야박물관의 경우 축제기간 중 대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대가야 테마의 특별전 등을 개최하여 주제전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음
- 축제와 연계하여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에 조성된 시네마관, 고대가옥촌, 대가야유물

체험관, 가마터체험관 등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의 상설프로그램으로 대가야 역사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체험프로그램이 축제프로그램으로 연계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축제공간의 확장에 대응하여 축제공간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축제 동선에 대한 설계가 요구됨
- 대구경북지역 방문객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방문객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을 목표로 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노력이 필요함
- 축제의 시공간적 파급효과 증대를 위해 야간시간 대에는 청년층 등으로 목표시장을 달리고 축제의 메인무대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읍내로 이동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기획의 명확성과 주제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대가야체험축제는 대가야의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차별화된 체험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대가야 중심지로서 고령군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2017 고령대가야체험축제는 대가야 시대의 특징적인 역사문화적 요소인 건국설화, 토기, 철기, 무기류, 의식주, 순장문화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역사체험프로그램을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하고 있어 축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성공하고 있음 ○ 대표 프로그램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역사체험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대표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규모, 참여인원 등을 고려할 때 축제의 주제성을 반영하고, 축제의 대표이미지를 형성하며, 대다수 방문객들의 축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표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에는 한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됨 - 2017 고령대가야체험축제에서는 대가야 건국신화를 소재로 한 퍼레이드를 대표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홍보하였으나 퍼레이드의 구성이나 연출, 규모 측면에서 대표 프로그램으로서의 경쟁력 및 파급력을 갖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축제방문객들에게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효율적이고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체험 콘텐츠의 발굴이나 기존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재구성을 통해 대표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대표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하여 체험축제라는 기존 축제구조를 벗어나 대가야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체험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 전시프로그램, 이벤트프로그램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총체적인 역사문화축제로서의 발전방향을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색문화 소재 활용성 - 2012년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앞 연못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수상무대에서 실경뮤지컬로 초연된 뮤지컬 ‘가얏고’는 대가야의 예술을 대표하는 우륵과 가야금에 대한 이야기를 전통음악과 현대적 뮤지컬 어법의 조화 속에 담아낸 작품으로서 고령대 가야체험축제를 대표하는 공연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임 - 올해 축제의 경우 문화누리 공연장에서 개최됨에 따라 관람인원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축제를 대표하는 주제공연프로그램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경뮤지컬로의 재전환 등 공연형식의 변화가 요구됨 - 대가야를 상징하는 역사문화유적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지산동고분군을 축제장으로 편입하여 대가야고분군 트레킹 프로그램 등 대가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주야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 현장운영 우수성 - 축제장과 메인 주차장, 축제장과 시가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축제장까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함 - 고령군의 대표적인 대가야 역사문화관광지인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와 대가야박물관 일원을 축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대가야체험축제의 주제체험을 강화하는 장소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7 고령대가야체험축제에서는 행사장을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대가야박물관 앞광장, 문화누리 일대 등 3개 지역으로 확장하고 대가야역사테마 관광지는 대가야 역사체험 존, 대가야박물관 앞 광장은 농산물 판매와 농촌체험공간, 문화누리 일대는 공연장과 먹거리촌으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축제공간의 기능을 재조정함 - 축제공간의 확장에 따라 축제동선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간간의 연계성이나 축제공간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축제 동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방문객들의 축제참여가 일부 공간에 한정되는 문제점을 낳은 것으로 판단됨 - 축제의 파급효과를 공간적으로 읍내까지 확대하기 위한 음식점부스 등의 재배치 등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따른 일부 불만과 불편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불편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역사체험존의 경우 건국존, 가얏고존, 용사존, 토기존, 생활존, 예술존, 철기존, 문화존으로 구분하여 기능적으로 유사한 체험프로그램들을 군집화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방문객들의 축제참여와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인적 현장운영 우수성 - 축제장에 배치된 일부 안내요원과 진행요원이 축제장소의 배치나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축제참여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축제장 운영메뉴얼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체험부스의 경우 제대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 부스에 대한 강화된 관리가 필요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내 일부 음식점에서 가격 대비 부실한 음식물 제공이나 불친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인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어린이나 젊은 세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좀 더 다양한 메뉴 개발도 필요함 ○ 축제 홍보 등 관광객 유치 활동의 적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언론홍보 외에 축제홈페이지 운영, 웹진제작, 축제 웹툰 및 포스트 제작, SNS 홍보, 대구지역 블로그 마케팅 등 온라인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기본적인 축제홈페이지의 정보가 빈약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축제방문객의 80%가 대구경북권 거주자로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권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요구되며,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축제홍보와 인센티브 관광노력이 요구됨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 뿌리내림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400여명의 지역주민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등 지역주민의 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수준이 매우 높았음 - 대부분의 공연프로그램이 지역문화단체 주도로 기획·진행되어 비용의 절감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수준 제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대표 공연프로그램인 뮤지컬 '가얏고'의 경우 전문적인 배우들에 의한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출연진의 일부를 지역주민 중에서 선발하여 공연의 지역적 의미를 제고하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할 부분임 ○ 축제 추진주체의 체계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고령대가야체험축제는 고령군이 '2017 올해의 관광도시'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설립된 고령군 관광협의회가 처음으로 축제의 기획과 운영을 맡아 민간주도로 추진됨 - 고령군 관광협의회는 고령군 관광 및 축제홍보, 마케팅 지원업무와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을 수행하는 민간 주도의 관광전문조직으로서 향후 축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파급효과를 확대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자립 및 자생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부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입장료 징수, 체험프로그램의 유료화 확대 등 축제재정의 자립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분석 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문기관에 축제평가와 방문객집계를 위탁하여 성과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노력함 - 전반적으로 방문객집계지침을 준수하여 방문객 실측이 이루어졌으나 총 방문객 수의 산출과정이 보다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에 의해 산출된 총 방문객 수와 지역언론에 보도된 방문객 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 보다 객관적인 방문객 집계가 요구됨

평가항목	평가내용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도 - 고령군의 핵심적인 관광목적인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와 대가야박물관 일원에서 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축제와 연계된 지역관광은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공연 중심의 단일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축제장에서의 야간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야간시간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 - 축제의 시공간적 파급효과 증대를 위해 야간시간 대에는 청년층 등으로 목표시장을 달리하고 축제의 메인무대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읍내로 이동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38

산청 한방약초축제

(1) 개요

■ 기 간 : 2017년 9월 15일(금) ~ 9월 24일(일) / 10일간

■ 장 소 : 동의보감촌 일원

■ 주 최 : 산청군

■ 주 관 : 산청한방약초축제 위원회

■ 주요행사

- 동의보감관 : 산청헤민서, 주제영상관, 한의약힐링파크(약초 및 약선음식) 등
- 향노화&아토피체험관 : 아토피치유의 특별한 만남
- 한방힐링존 : 기체험장, 한방약초테마공원, 약초향기터널, 목화정원 등
- 체험 : 약초체험, 한방촌거리(대장간, 한의원, 식당, 주막) 등
- 공연 : 개막식, 개막축하공연, 제전행사, 마당극 등
- 경연 : 허준 골든벨, 향노화실버합창대회, 동의 보감 사생대회 등
- 장터 : 산엔청 청정골장터(약초 및 농특산물 판매장태), 한방향토음식장터 등

(2) 총 평

■ 잘된 점

- 산청 한방약초 축제는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개최하였던 공간에서 축제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동의보감관, 산청한의학박물관, 산청약초관 등 고정시설물이 잘 구비되어 있어 이들을 활용하여 주제관련 다양한 콘텐츠의 프로그램이 가능함
 - 동의보감관 : 동의보감 의서 전시, 주제영상 상영, 헤민서 무료진료 행사(사상체질 및 스트레스 진단, 침, 뜸 등)
 - 한의학박물관 : 박물관 10주년 특별전(나라가 구하고 의원이 살리다), 한의학이야기, 건식족욕체험 등
- 축제장내에 다양한 숙박 및 식당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관광활동의 편의성 제고 및 고정 숙박관광객 확보

- 호텔, 콘도,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의 다양한 숙박시설이 축제장 내에 입지하고 있고, 호텔 레스토랑, 전문 향토식당 등의 입지는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체류관광의 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음
- 또한 많은 숙박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고정적인 체류형 축제가 가능함
-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돋보였음
 - 특히 학생 자원봉사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상대적으로 다른 축제장의 학생 자원봉사자들보다 우수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하지 않고 맡은 일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전문적인 축제 해설이 부족하였음
 - 한방이나 약초의 경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님으로 축제 방문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는데, 동의보감관이나 한의학 박물관등에 전시된 다양한 내용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적 물적 해설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만일 인적 자원의 도움이 있었다면 축제 방문객들의 한방약초 축제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만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동의보감 의서나 각종 한방 의약관련 자료들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깊이있는 축제의 이해를 통한 차별화된 축제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방 및 약초 관련 체험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체험 장소의 확대
 - 대표적인 체험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헤민서 진료 프로그램은 대기하는 관광객이 많았고, 기다리기 불편한 관광객들은 체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음. 족욕의 경우도 온열기를 이용한 건식 족욕과 약품을 이용한 습식 족욕이 있었으나 온열기기의 한계와 약품(하루 100개)의 한계로 관광객들의 충분한 체험에는 한계가 있었음
 - 또한 헤민서의 경우 동의보감관내에 입지하여 축제의 주제프로그램이라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한계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었음. 온열기를 이용한 건식 족욕 공간도 관광객들이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곳에서 진행하였다고 판단됨
 - 향후 이들 프로그램은 축제장의 중심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체험하고 축제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축제장내 고정 상업시설들의 관광객 수용태세 정비 미흡

- 고정 상업시설들의 입지로 인해 축제기간 동안 설치되는 식당가 부스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상업시설을 찾는 축제 방문객들이 많았으나 친절 및 서비스 상태, 상품의 위생 상태는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지역 내 상가시설과의 밀접한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기획의도가 분명하고 콘텐츠의 주제 관련성이 높으나 운영의 아쉬움이 있음. - 산청군의 입지가 청정 지리산과 연관이 깊어 약초의 고장임과 동시에 명의원 허준, 유이태 선생들이 활동했던 역사성 및 정통성을 활용하여 축제를 기획함으로써 축제 기획의도가 분명함 - 축제의 콘텐츠가 동의보감관, 향노화&아토피 체험관, 한의학박물관, 산청약초관 등에서 진행됨으로서 축제 주제 관련성이 높음 - 특히 2017년 축제의 주제는 ‘향노화&아토피’로써 그 주제관을 주제관련 행사로 강화시켜 진행함으로써 아토피 관련 기업들의 참여와 지지가 높았음 ○ 그러나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설무대 및 마당극장, 축제 광장 등의 축제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축제의 주제와 관련성이 낮은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축제 운영의 경제성 및 효율성에 아쉬움이 있었음 - 특설무대 : 국악, 밴드, 불교 문화제, 벨리댄스, 향노화실버합창대회, 성인가요콘서트 등 - 마당극장 : 약초골 효자전, 오작교 아리랑, 이순신 등 ○ 대표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있으나 대중화의 부족 - 대표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헤민서 한방 무료 진료, 약초를 이용한 족욕체험, 약선음식 체험 등이 시설 및 공간, 재료의 한계로 많은 축제 방문객들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었음 - 향후 대표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축제 발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초’의 특성을 이용한 축제장 분위기 조성을 통한 축제 정체성 확보 - 축제장 내부뿐만 아니라 축제 방문객의 이동 동선을 따라 약초 주머니를 설치하여 축제장 곳곳에서 약초 향기를 맡을 수 있어서 약초 축제장의 분위기가 강화되었음. - 일반적으로 축제는 공개된 공간에서 진행됨으로써 ‘향기’를 통한 축제장 분위기 조성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산청의 경우 약초 향기를 통한 축제의 정체성 확보는 우수한 축제장 운영으로 판단됨 ○ 축제장 규모에 따른 다양한 교통수단 검토 필요 - 축제장의 규모가 넓고 많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걸어서 이동하면서 체험해야 함으로써 이용의 한계가 있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p>2) 축제의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산악지형으로 인해 경사 및 고도의 차이는 방문객들이 축제장 전체를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현재는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주차장, 정문게이트, 한방기 체험장까지 이동하나 향후 무궤도 열차 및 다양한 이동시설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교통수단이 단순한 이동수단 뿐만 아니라 축제장의 놀이시설 기능까지 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고, 적정 가격의 유료로 운행한다면 축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돋보였음 -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많은 반면, 참여 학생들은 자원봉사 점수를 따기 위한 수단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제 자원봉사 활동의 기능 및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산청 축제장에서 만난 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인사 및 방문객 맞이 활동이 우수하여서 돋보였음 - 그러나 지역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축제 개최 이전에 축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p>3) 축제의 발전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청군의 약초를 활용한 축제 발전 가능성이 높음. - 산청군의 특성상 1,000여종의 자생 약초와 많은 지역민들이 약초재배를 통한 소득 증대 효과를 보고 있어 지역민들의 축제에 대한 공감대 및 긍정적 인식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발적 참여도 기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초 관련 먹거리 장터 확대 및 향토음식 개발 필요함 - 현재 고정식당이 주로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시설의 한계 및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많은 축제 방문객들이 산청의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 - 시설 및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관광객 맞이 환대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에 한계가 있음 - 축제 기간내에 임시 부스 설치로 제공되는 향토음식점은 규모가 작고 타 축제와 차별화되고 다양한 지역의 향토음식 제공에 한계가 있었음. - 한방 가족호텔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메뉴도 향후 지역성이 높은 다양한 음식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추진주체의 체계화 노력이 돋보임 - 2016년까지 지자체 장이 위원장을 맡아 축제를 진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민간에서 위원장을 하고 있고 향후 법인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자립화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높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분석의 객관성 확보는 아쉬움 - 총 10일간의 축제 기간 내 방문객 집계를 하고 있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을 준수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 축제장의 특성상 2곳에서 집계하고 있었으나 한 곳은 집계원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음 - 정문 집계원의 경우 총 10일의 방문객 집계를 하고 있었으나 마지막 제출할 방문객 수는 추산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음 - 즉, 축제기간 중 2번의 주말이 있었는데 첫 번째 주중, 주말 방문객이 더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전 제출된 계획서에는 두 번째 주중, 주말 방문객수를 중심으로 한다고 한 점은 성과 분석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방문객 집계 뿐만 아니라 축제의 성과분석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하여 향후 축제 준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 야간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축제 방문객 만족도 제고 - 산청 축제장은 다양한 숙박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음. 호텔, 자연휴양림, 콘도, 야영장 등 - 이 숙박시설들의 숙박객들을 대상으로 한 야간 프로그램의 제공은 축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제고시켜 향후 재방문 및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한 구전의 효과가 높아 축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산청 축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야간 프로그램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9

통영 한산대첩축제

(1) 개요

■ 기 간 : 2017년 8월 11일(금) ~ 8월 15일(화) / 5일간

■ 장 소 : 문화마당 및 한산대첩광장, 당포항, 이순신공원 등

■ 주 최 : 통영시

■ 주 관 : (재) 한산대첩기념사업회

■ 주요행사

○ 이순신장군 행렬 및 군점(軍點)

- 이순신장군 행렬은 초대 삼도수군통제사였던 이순신장군의 행차모습을 재현한 퍼레이드로써 조선수군의 복장, 깃발, 무기 등을 갖춘 해군 군악대와 취타대가 시가지를 지나 한산대첩 광장까지 행진
- 군점은 삼도수군통제사의 휘하에 있는 경상·전라·충청 수군들이 매년 봄과 가을 통영 앞바다에 집결하여 군사점호를 취하던 수조(水操) 의전행사를 재현한 프로그램으로써 이순신장군 행렬이 끝날 무렵, 한산해전 출정식 및 한산대첩 재현에 앞서 사전 행사로 진행하였음. 본 축제는 군점 수조를 올바르게 재현하는 것이 축제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요건으로 인식하고 ‘통제영 군점 재현’을 학술행사의 주제로 삼았음

○ 한산해전 출정식 및 한산대첩 재현

- 한산해전 출정식은 425년 전 한산해전의 발진항이었던 산양읍 당포항에서 이순신장군의 출전 모습 및 역사적 의미를 재현한 프로그램. 출정식에서는 거북선 2척을 비롯하여 40여척의 배가 당포항을 출발하여 한산대첩의 주무대인 한산도 앞바다(이순신공원)까지 열을 지어 출정하는 해상 퍼레이드를 연출. 이 출정식은 주무대인 문화마당에서 ‘거북선 출정식’의 형식으로 매일 개최하였음
- 한산대첩 재현 프로그램은 세계 4대 해전의 하나인 한산대첩의 학익진을 재현한 축제의 하이라이트로써 어선 100여척을 조선수군 50여척과 왜군 50여척으로 나누어 실제로 한산도 앞바다의 치열했던 전투 장면을 장엄하고 실감나게 연출

○ 공중 한산해전

- 한산대첩기념사업회가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공중 불꽃극 공중 한산해전은 한산해전

의 치열한 전투장면을 한여름 밤 바다 공중의 거북선과 지상의 판옥선에서 각종 퍼포먼스와 불꽃 시그널로 표현한 총3장으로 구성된 특별 프로그램

- 왜군 좀비와 싸워라! 및 황금 거북선을 찾아라
 - 왜군 좀비 복장을 한 스탭과 시민, 관광객들이 벌이는 물총싸움으로 흥겨운 음악과 함께 즐기는 특별 프로그램의 하나로써 조선수군의 노고와 한산대첩 승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제장의 무더위 퇴치를 위한 마련
 - 축제기간 중 통영시 전역에서 3만원 이상 지출한 후 받은 영수증으로 황금거북선 경품 추첨(금 10돈)에 응모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의도한 특별프로그램의 하나
- 기타, 국가무형문화재 민속공연
 - 통영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온 통영승전무, 남해안별신굿, 통영오광대 등의 국가 무형문화재 공연프로그램이며, 특히 통영승전무는 이순신장군의 승전에서 유래

(2) 총 평

■ 잘된 점

- 충무공의 구국정신과 위대한 한산대첩의 승전을 기리고 이를 역사교육의 기회로 활용해 온 통영한산대첩축제는 대표프로그램의 차별성과 역사적인 장소성을 실감하게 재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축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이순신의 여름 바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56회 통영한산대첩축제는 그 동안의 관성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을 높을 평가할 수 있음
- 첫째, 한산대첩 재현 행사를 제외하고 특별히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던 지금까지의 축제와 달리 공중 한산해전과 같은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하였음. 공중 한산해전은 왜군과 조선수군의 치열한 공방전을 허공에서 불꽃 시그널과 다양한 퍼포먼스로 펼쳐는 등 마치 태양의 서커스와 같은 판타지를 연출함으로써 한여름 밤 문화마당을 가득 메운 관광객들의 탄성과 환호를 자아내게 하였음
- 둘째, 그 동안 축제가 고수해 온 역사성의 재현에 더하여 재미와 이벤트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웃음과 참여를 유도하였음. 예컨대, 대표프로그램의 하나인 거북선 출정식과 왜군 좀비와 싸워라 등은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역사문화축제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음. 이처럼 재미와 이벤트적 요소를 가미한 프로그램의 보완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축제의 소재인 거북선을 한산해전 출정식과 공중 한산해전 등 개별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등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음

- 셋째, 한산대첩 재현 등 대표프로그램에 선택과 집중하면 된다는 인상에서 벗어나 관광객 배려에도 큰 관심을 보여주었음. 한더위를 피할 수 있는 차양막을 간간이 설치하였고, 살수(撒水) 부스를 배치하여 잠시나마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축제의 주무대 주변 상가의 협조아래 주차 및 차량 통제가 원활하여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메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순신공원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거나 우천에 대비하여 비옷을 준비하였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가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축제공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듯함. 즉,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통영시와 한산대첩기념사업회의 주도적인 역할은 크게 부각되는 반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노력이 보이지 않음. 대규모 어선을 동원하고 주민들의 지원이 요구되는 한산대첩 재현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다른 대표 혹은 주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지역주민들이 함께 고민함으로써 축제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
- 역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군점 및 거북선 출정식 등의 완성도가 다소 낮아 보임. 전반적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유발한 것은 좌·우수영 두 교관의 익살스러운 연기에 기인한 것일 뿐 프로그램의 구성이 짜임새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조로웠으며, 심지어 격군들이 고증되지 않은 복장과 신발을 착용함으로써 진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웠음. 아울러 한산해전 출정식이라는 프로그램에 부응할 수 있도록 2척의 거북선을 제대로 활용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운영이 필요함. 특별 볼꽃극인 한산 공중해전의 각 장별(제1장 한산도가, 제2장 필사즉생, 제3장 승전) 공연 내용에 대한 설명의 부재로 극의 전개내용, 연기자들의 복장 및 퍼포먼스, 판옥선의 삼죽오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음
- 전반적으로 축제의 운영이 우수하고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남. 예컨대, 전년도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네 명의 기관장의 반복적 축사라든가 한산해전 출정식이 거행되는 당포항 무대앞 차량통제가 안되어 관광객들이 다소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관람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기타, 계획과 달리 이순신품장이 운영되지 않은 점, 열기구 체험의 운영이 미숙한 점, 숙원사업으로 마련한 한산대첩광장의 활용도가 예상외로 낮은 점 등도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함. 무엇보다 진정한 축제는 지역주민의 주도아래 진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생업 공간일지라도 당포항의 축제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민관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음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기획의 명확성과 주제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축제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구국정신과 위대한 한산대첩의 승전을 소재로 역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호국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통영의 이미지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획한 것임. 이 축제는 이순신장군 행렬, 거북선 출정식 및 한산대첩 재현 등 대표 프로그램에 선택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면서도 이순신장군 및 한산대첩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행사 및 특별행사, 기획공연, 전시·체험·참여마당을 통하여 교육적이면서 재미있게 기획하였음 - 오랜 축제의 역사에서 보듯이 축제의 정체성이 아주 명확히 표현되고 있음. 프로그램은 역사적·문화적·오락적 요소를 골고루 가미하여 교육과 재미를 동시에 추구해 보려는 의도가 잘 나타나고 있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축제의 주제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순신장군의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무대인 문화마당에는 이순신장군이 보이지 않음 ○ 대표 프로그램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이순신장군의 행차모습을 재현한 퍼레이드, 통제영 휘하 수군들의 군사점호, 그리고 한산해전의 출전에 앞서 수군들이 거행한 출정식 및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선과의 격전을 재현한 한산대첩을 들 수 있음. 이들 프로그램은 한산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역사적인 공간에서 장엄하고 웅장하게 재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 교육적이면서도 재미있게 연출함으로써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음. 따라서 본 축제는 다른 어떤 축제에서도 쉽사리 모방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 현장운영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다수 프로그램은 주무대인 문화마당과 한산대첩 광장에서 진행되지만, 일부 개별 프로그램은 당포항, 이순신공원, 충렬사, 세병관, 제송당 등 통영시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음. 이로 볼 때 통영시 전역이 축제장이라 할 정도로 공간활용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게다가 체험마당, 참여마당, 먹거리장터 등 프로그램의 성격을 고려하여 동선을 계획하고 부스 배치를 달리 구획함으로써 관람객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집중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음 - 이처럼 축제가 통영시 전역으로 분산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주무대를 중심으로 혼잡도와 주차난이 꽤 심각함. 이는 축제의 일정이 하계휴가 시즌과 겹침으로써 통영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이 주무대와 중앙전통시장을 방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혼잡도를 완화하고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차량증가로 인한 혼잡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조치로 문화마당 앞을 폐쇄하여 보행자 전용으로 하거나 중앙전통시장에서 SC제일은행 방향으로 일방통행을 고려할 것을 추천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p>2) 축제의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현장운영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대가 해안가에 위치하여 방문객의 안전, 특히 야간 안전이 매우 중요시됨. 전년에 비하여 안전요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 자율적 차량 2부제 실시, 주차안내와 야간 교통지도를 포함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안내활동이 괄목할 정도로 개선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운영에 있어서 두 가지 간과한 사실이 보임. 첫째로 한산해전 출정식이 거행되는 당포항의 협소한 주차공간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였음. 이는 근본적 대책이 없는 한 고질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한 가지 대안으로 삼덕위탁공관장 측의 협조를 받아 출정식이 거행되는 2시간 동안이라도 관광객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 둘째로 한산대첩의 재현을 관람하는 이순신공원의 공간적 특성을 세심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도 현장운영이 미숙한 사례에 해당함. 이 무대는 산비탈을 그대로 활용한 계단식 형태로써 맨 아래쪽 평지에서 진행되는 사전 행사는 무대의 제일 위쪽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음. 심지어 리허설 중간 이순신 장군의 진격명령에도 무대 위쪽에서는 무슨 영문인지 전혀 모를 정도임 -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행사가 진행되기 전에 주최 측이 배열해 놓은 좌석을 가능한 아래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모든 방문객들은 무질서한 상태로 축제를 관람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주최 측은 작년의 지적대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였으나, 위치 선정의 미숙으로 인하여 여전히 무대 위쪽에서는 스크린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기타, 축제장 주요 지점의 프로그램 소개를 위한 대형 안내판이 매우 유용하였으며, 거북선을 당포항으로 이동시켜 출전 대기시키고 공중 한산해전시 불을 내뿜는 등 전년에 비하여 거북선의 활용도를 크게 높였음. 특히 한산대첩광장에는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 유도를 위한 X-배너를 설치함으로써 관람객의 편의성을 높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홍보 등 관광객 유치 활동의 적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영은 바다와 섬, 미륵산 케이블카와 루지, 중앙 및 서호 전통시장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사전 홍보가 우수하여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전년 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특별히 많이 방문하였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도내 외국인 유학생 단체 및 어린이 야구단을 유치하여 이들을 특별히 배려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 뿌리 내림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기획에서 보았듯이 통영은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고 걸출한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술의 도시라 할 수 있음. 더욱이 통영은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친절함 서비스로 무장한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음. 이러한 기반조건을 발판으로 한산대첩축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으로 판단됨 - 지역주민들은 역사 및 문화의 도시라는 자부심에 더하여 한산대첩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축제인데 대하여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최 측은 100여척의 어선으로 학익진을 재현할 때 보여준 지역어민들의 땀과 열정을 다른 프로그램에도 보여 준다면 한산대첩축제는 우리나라 최고의 축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축제 추진주체의 체계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영시는 축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현재의 추진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시출연의 재단법인 조직으로서 축제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총감독제를 도입할 계획에 있음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산대첩축제는 축제를 통하여 역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호국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통영의 이미지를 정착시키려는 의도가 잘 실현되고 있음 - 게다가 선택과 집중에 의거하여 개발한 축제의 킬러콘텐츠는 차별적이고 재미가 있으며, 이것이 통영의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결합되어 가족 단위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추측됨. 야간에 진행된 한산 공중해전 뿐만 아니라 시민대동제, 호국 평화음악회, 통영밤바다 음악회는 통영을 찾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여름 밤바다의 낭만을 만끽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음 - 위와 같은 요인들이 통영 전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의 거제, 남해 등의 관광활성화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봄

40

밀양 아리랑대축제

(1) 개요

■ 기 간 : 2017년 5월 18일(목) ~ 5월 21일(일) / 4일간

■ 장 소 : 영남루 및 밀양강변

■ 주 최 : 밀양시

■ 주 관 : (재)밀양문화재단

■ 주요행사

- 전통문화 7종(경남 무형문화재축제 외 6종)와 문화예술20(실경 멀티미디어쇼 ‘밀양강 오딧세이’ 외 19종, 전시체험 5종(밀양아리랑 역사탐방 외 4종), 부대행사 4종(주제관 외 3종)

(2) 총 평

■ 잘된 점

-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자원인 아리랑을 주제로 기획된 행사로서 밀양 아리랑을 중심으로 전국의 아리랑을 결집한 행사로 대한민국의 아리랑 행사로 승화시켰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인 ‘아리랑’을 주제로 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였음
- 16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거리퍼레이드와 밀양강오딧세이 등은 축제성공요소 중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 참여가 돋보인 축제임
- 밀양문화재단 등 축제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축제조직의 안정화를 꾀하였음
- 지난 축제의 평가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의 보완을 통해 축제의 질적 향상을 이루었으며 문화관광축제 진입을 위한 10년 계획과 단계별 이행전략을 세운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함
- 주제관을 운영하고 축제 고유성에 부합하는 콘텐츠들을 개발 배치하여 운영하는 등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 전반적으로 도심에 축제장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대별 적절한 차량의 통제를 통하여 축제장에 접근함에 있어 혼잡함이 없었음

- 축제장의 장소를 밀양강변을 사용함으로써 다소 장소정체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었으나, 영남루를 실경 오딧세이의 배경으로 활용함으로써 슬기롭게 극복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대표프로그램이 ‘밀양강 오딧세이’는 참여형 공연이라 지역민이 참여 한다고 하나 관광객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인바 관광객 참여형 대표프로그램에 대한 발굴 노력이 필요하며 공연의 대중성확보와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임
- 주제관의 운영을 통해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으나 향후 축제에서는 주제관의 콘텐츠를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아리랑 주제 프로그램강화 및 아리랑콘텐츠의 보완이 필요함
- 밀양강위 부교 설치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가 미흡하였음
- ‘밀양아리랑가요제’는 관객 호응도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축제 정체성에 맞도록 형식과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밀양강을 활용하는 축제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축제의 일탈성 욕구를 충족하는 모색도 필요할 것임
-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이 공연 및 경연 등 이 중심이라 축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다소 미흡함
-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적절한 서비스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친절하나 전문적이지 못한 한계를 나타냄
- 밀양아리랑 대축제는 자립 및 자생가능성의 노력이 요구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기획의 명확성과 주제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자원인 아리랑을 주제로 기획된 행사로서 밀양 아리랑을 중심으로 전국의 아리랑 (진도, 정선, 밀양)을 결집한 행사로 대한민국의 아리랑 행사로 승화시켰고 우리나라 3대 아리랑인 밀양아리랑을 중심 아리랑콘텐츠를 발굴하여 축제에 적용하고 있음 - 지역에서 이어오던 밀양문화제를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켰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아리랑’을 주제로 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였음 - 연계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역사탐방과 스템프 투어의 실행적 문화관광축제의 방향성에 부합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 MAP-C(Miryang Arirang Puzzle Challenge)을 기획 / 운영하고 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p>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프로그램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프로그램이 ‘밀양강 오딧세이’라는 실경공연인데 지역민이 참여 한다고 하나 관광객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인바 관광객 참여형 대표프로그램에 대한 발굴 노력이 필요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열식 전개로 한 탓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길어서 관객은 자칫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공연의 완성도를 높여야 함 - 밀양아리랑 대축제 의 주제관의 운영을 통해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고 차후 축제에서는 주제관의 콘텐츠를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전시 홍보 체험존의 대부분은 축제 주제와 관련성 없이 단순한 체험위주로 구성됨. 아리랑 배워보기 등 주제와 관련된 체험을 늘리고, 단순 체험의 경우도 소재를 아리랑과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예를 들어 머그컵 만들기 체험도 아리랑 머그컵 만들기 체험으로 체험의 소재를 아리랑으로 하는 노력해야할 것이며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다양성이 미비함으로 이는 아리랑 대축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지역 특색문화 소재 활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읍·면·동이 참여하는 거리퍼레이드를 통해 축제의 의미를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되새기는 기회를 만들었으며 퍼레이드의 컨셉은 지역의 역사적 인물(김종직선생, 사명대사, 아랑)들을 소재로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여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학술대회와 경창대회들을 통해 밀양아리랑의 전승보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음 - 향교서원스테이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좋은 예임 -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이 공연 및 경연 등 일방향 소통수단을 사용하여, 축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다소 미흡함
<p>2) 축제의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 현장운영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도심에 축제장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대별 적절한 차량의 통제를 통하여 축제장에 접근함에 있어 혼잡함이 없었음 - 축제장의 장소를 밀양강변을 사용함으로써 다소 장소정체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었으나, 영남루를 실경 오딧세이의 배경으로 활용함으로써 슬기롭게 극복함 - 동선 구성은 밀양강변을 따라 일자로 무대를 배치하고, 강변로를 따라 푸드트럭을 배치하여 동선상의 큰 문제는 없었음. 다만, 행사차량이 축제장의 보행도로로 진입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문제가 제기됨 - 행사장을 영남루, 송림 및 밀양강변 등 기존의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였고 전사홍보·체험존도 각각의 기획을 두고(날 좀 보소Zone, 함께하소 Zone, 쉬어 보소 Zone, 놀아 보소 Zone) 그 특성을 살려 운영하는 것도 좋은 공간구성이었음 - 행사장 전체안내도를 곳곳에 배치하고, 화장실을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랩핑하되 표지판을 뚜렷이 보이게 하여 찾기는 쉽도록 하는 등 공간 구성에 보인 노력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음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부근과 주무대 부근의 행사장 전체안내도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간이 화장실의 수와 쿨존과 휴게공간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인적 현장운영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요원은 수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음. 다만, 진행요원 중 많은 부분을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적절한 서비스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친절하나 전문적이지 못한 한계를 나타냄 ○ 축제 홍보 등 관광객 유치활동의 적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홍보의 경우 지역내 홍보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지역외 홍보는 다소 부진함 - 밀양역 광장에 축제 안내 부스를 만들어 무료커피서비스와 더불어 축제홍보 및 축제장까지의 교통안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었음 - 다만, 지역 외 홍보는 경상권과 전국으로 구분하여 이에 필요한 홍보전략이 이루어져야 하나, 특별한 활동을 찾아보기 어려움 -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외부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였고 특히 온라인 생중계는 축제의 관심도를 높였음 - 외국인방문객을 전담할 인력과 안내지원이 아쉬웠고 축제 운영지원인력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통일된 복장 등 축제 방문객들의 인지가 쉬운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 할 필요 있음 - 축제 자원봉사체계를 구축하고 축제전문성의 강화가 필요함 - 축제방문객 수용태세 부문에서 숙박부분은 시 홈페이지 및 축제홍보물 등에 숙박시설을 단순히 나열하는 형태로 제공되는바 다양한 숙박시설(일반 숙박시설, 고급 숙박시설, 외국인용 숙박시설, 민박 등) 형태로 분류하고 안내하는 것도 필요함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사회에 뿌리 내림 정도 및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예산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실경 오딧세이를 제작함에 따라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줌. 다만, 이러한 공연이 축제의 프로그램으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공연과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서 공연이지역의 문화 발전을 가져오는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밀양의 대표적 무형문화자산인 밀양아리랑을 소재로 전통의 계승과 현대적 재창조를 축제로 승화해내어 문화관광콘텐츠로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육성 의지 역시 강하고, 밀양문화재단 등 축제 전담 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축제의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어 전망이 매우 밝다고 판단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딧세이의 소재를 밀양출신의 영웅으로 하고, 시민배우들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러한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데는 부족함 - 향후 축제에서 공연된 프로그램을 축소하여 상설공연화 하거나, 상설공연장에서 시도된 프로그램을 축제프로그램으로 확장하는 노력을 한다면, 지역문화인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의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립 및 자생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양아리랑 대축제는 아직 뚜렷한 자립 및 자생가능성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음. 향후 이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분석의 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측정에 필요한 계수요원을 배치하고 있었으나, 일부 계수장소의 경우 축제장과 축제장 외각의 화장실 사이에 배치함에 따라 화장실을 왕복하는 사람들이 중복하여 측정되는 문제점을 나타냄. 아울러 영남루와 축제장사이의 계수의 경우도 축제장에 들어 왔다가, 영남루를 갔다 돌아오는 관람객들의 경우 중복 측정의 우려가 나타남 ○ 인근지역 관광활성화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팸플릿을 통하여 대축제 경유관광코스를 홍보하고 있었음. 아울러 축제장에서는 축제장과 행사장 인근 주요 관광지를 활용한 스탬프 투어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됨

41

제주 들불축제

(1) 개요

- 기간 : 2017년 3월 2일(목) ~ 3월 5일(일) / 4일간
- 장소 : 제주시 일원(주행사장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
- 주최 : 제주시
- 주관 :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
- 주요행사

- 오름불농기, '희망달집'만들기 경연대회, 집줄농기 경연대회, 녁동베기 경연대회, 들돌 들기 경연대회, 사랑의 햇불 대행진, 대형 달집 점화, 들불 불씨 채화 제례 및 퍼레이드, 들불불씨 봉송행사, 오름 레이저쇼, 축제발전방안을 위한 포럼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의 소재가 차별성이 높고 모방가능성이 낮을 뿐 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도 부합함. 또한, 소재와 부합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의 구성으로 인하여 축제의 정체성을 높이고 있음. 특히, 메인 프로그램인 '오름 불 농기'의 경우 국제적인 축제로 성공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
- 축제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지역민의 참여가 있었고, 아울러 지역민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단위별로 작은 잔치와 같이 어울림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동체 의식 형성이라는 축제 본래의 취지를 강화하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장의 입구부분의 상업시설의 혼재로 적절한 체험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일부 시설을 이동배치하고, 입구부분에 축제장임을 알리는 공간을 만들어 입장부분에서 축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메인 프로그램인 '오름 불 농기'의 행사의 경우, 주 관람석중 하나인 봉화대에서 관람할 때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몽골텐트)로 인하여 몰입을 방해함. 오름 불 농기 행사가 좀

더 장엄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철거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축제가 가지는 가치에 비하여 국제화에 대한 노력이 미흡함. 축제가 글로벌 축제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인식하에 이에 부합하는 적절한 홍보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3)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축제와 차별화된 핵심콘텐츠 "불" 제주의 지리적 특성(오름)을 살린 제주만의 공간 활용과 불을 연계한 콘텐츠는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높은 잠재적 가치가 있음 ○ 프로그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다움”에 잘 어울리는 콘셉트와 프로그램 구성함. 제주의 지역성을 담아낸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음원, 시각적효과, 놀이)을 잘 구성함 ○ 소재로서 ‘불’의 다양한 활용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을 축제의 소재로 활용함에 있어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단순한 행사로 운영하는 아쉬움이 있음. 축제 소재로서 불은 들불농기 뿐만 아니라 채화 및 봉송, 유지 과정 모두 프로그램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의미부여가 부족하고 다양한 활용이 부족함 - 예를 들어, 삼성혈 채화프로그램의 의미와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계설명이 부족하고, 축제기간 동안 불씨의 관리 또한 중요한 볼거리가 될 수 있음에 반해, 이를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데 미흡하였고 나아가 불씨를 꺼트리는 일이 발생함 ○ 구복과 방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월대보름 불을 놓는 풍습에서 시작된 축제의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기를 조정하고 목축문화와 연계한 점은 우수하나, 단발성 축제가 아닌 제주만의 지속가능한 고유자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불과 관련된 제주설화와 의미 있는 체험을 이끌 스토리자원의 접목이 필요함. 또한, 축제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는, 들불축제가 가지고 있는 구복과 방애에 대한 요소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축제의 글로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가치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볼 때 들불축제는 글로벌 축제로서 성장할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 이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의 모색이 요구됨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의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에 불을 놓는 감동을 극대화 하기위한 공간의 재배치가 필요함. 특히, 주무대 관람석 외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몰려있는 성화대 언덕에서 관람 시 시야를 방해하는 구조물(몽골텐트)이 있어 관람객의 몰입을 방해함.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커뮤니티 공간의 축제 소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텐트를 동별로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이 축제기간동안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유도한 점은 매우 바람직 함. 다만, 몽골텐트의 공간의 배치에 있어 현재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스트리트형 공간배치 보다는 원형 혹은 궁정형으로 하여, 원형의 안쪽마당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를 진행할 경우 또 다른 축제의 볼거리가 될 것으로 판단됨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축제의 운영은 체계적으로 진행됨. 특히, 축제 소재인 ‘불’의 특성상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관련기관과 협조 하에 체계적으로 진행됨. 아울러 일반 운영관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잘 관리되고 있었음 - 다만, 축제장 내에 행사차량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노출됨. 차량 진입 시 차량이동에 따른 안전 요원 배치와 더불어, 차량동선과 도보동선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의 강화가 요구됨 - 또한, 종료 후 귀가차량들이 일시에 한 방향으로 몰려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함. 우회도로 안내 및 유도가 없었고, 우회도로 이용시 내비게이션에도 나타나지 않아 길을 잃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안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 내의 종합안내소 운영 및 안내시스템이 다소 미흡함. 특히 국제관광지로서의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안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또한, 전체적으로 안내소 근무자의 대응이 미흡하여 상황에 따른 안내 메뉴얼 및 사전교육이 필요함. 행사장 내의 안내표지판도 개선이 필요함. 특히, 오름옆 등산로 초입에 마련된 종합안내판의 내용구성 및 부착상태가 불량하여 개선이 요구됨 ○ 축제장 입구동선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장으로 진입구간이 상업시설을 거쳐서 축제장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이루고 있어 축제장 진입구간에서 경험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입장과정에서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에 대한 적절한 이동, 진입구간에 랜드마크 조성 및 SNS 소통 방식에 대응한 포토 포인트 형성 등의 노력이 필요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2) 축제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운영기간 중 일부 부스의 경우 조기에 철수 하거나, 일부 체험부스의 경우 담당자가 부재하여 체험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 특히, 축제 마지막 날의 경우 메인 행사가 전날 종료하여 일찍부터 파장분위기를 형성하며, 마지막 날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의 불만의 원인으로 작용함. 축제행사 기간을 이틀로 줄이거나, 마지막 날은 주민들만을 위한 뒷풀이 행사시간으로 운영 및 명확한 종료시간의 안내 등 불만족요소를 줄이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아울러 축제체험의 경우 체험 부스의 수적인 증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체적인 체험의 수는 줄이고 주제와 관련 있는 체험에 대한 운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함 ○ 축제홍보 등 관광객 유치활동의 적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대상 홍보는 적절하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미흡함. 축제장에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였으나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았고 축제방문을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음. 글로벌 축제로 성공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전략이 요구됨
3) 축제의 발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기획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참여가 매우 적극적임. 특히, 마을단위로 축제기간 동안 몽골텐트에 상주하며 축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축제의 많은 부분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있었음. 축제장에서 제공되는 음식도 제주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음식으로 구성됨 ○ 축제 추진주체의 체계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부서는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이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 제주시에 의존하여 축제가 진행되어, 민간주도형 축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4) 축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분석의 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 집계지침에 따라 방문객 수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노력함. 계수지점도 중복 측정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었음 ○ 인근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름 불 놓기 등 축제의 주요프로그램이 야간에 진행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숙박관광객의 증가로 연계됨. 다만, 야간에 비해 주간행사가 없어 주간 관람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의 저하를 가져옴에 따라, 축제시간의 조정(오후로 한정) 등이 요구됨

2017 문화관광축제 >>>

V

축제별 이미지



K o r e a C u l t u r e & T o u r i s m I n s t i t u t e

1

2017 대표축제

< 화천 산천어축제 >



[산천어 낚시]



[산천어 맨손 잡기]

< 김제 지평선축제 >



[김제의 유산 날아라 정평구]



[지평선 판타지쇼]

< 문경 찻사발축제 >



[찻사발 그림 그리기]



[국악공연]

2

2017 최우수축제

〈 이천 쌀문화축제 〉



[추억의 테마거리]



[추억의 별밤캠핑]

〈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



[재즈 공연]



[재즈 공연]

〈 무주 반딧불축제 〉



[무주안성 낙화놀이]



[반딧불 길놀이단 퍼레이드]

〈 강진 청자축제 〉



[청자상감체험]



[잉어 등 물고기 먹이주기 체험]

〈 담양 대나무축제 〉



[대나무 카누 체험]



[대소쿠리 물고기 잡기]

〈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



[문화교류공연 “남도풍류”]



[신비의 바닷길 체험]

〈 산청 한방약초축제 〉



[힐링 마당극 공연]



[숲속 힐링 족욕 체험]

3

2017 우수축제

〈 추억의 7080총장축제 〉



[거리퍼레이드]



[야간공연]

〈 안성 남사당바우덕이축제 〉



[전통놀이 체험]



[남사당 놀이]

〈 평창 효석문화제 〉



[이효석문화관]



[메밀꽃 자연포토존]

〈 원주 다이내믹댄싱카니발 〉



[다이내믹 키덜트존]



[프린지 페스티벌]

〈 강경 젓갈축제 〉



[젓갈 시식체험]



[김장체험]

〈 부여 서동연꽃축제 〉



[부여서동연꽃축제 사진전]



[야간 프로그램]

〈 정남진 장흥물축제 〉



[지상 최대의 물싸움]



[민물고기 잡기 체험]

〈 봉화 은어축제 〉



[삼gut구이 체험]



[은어 맨손 잡기]

〈 통영 한산대첩축제 〉



[해양경찰 1005함 함정공개 및 체험]



[이순신장군 어록 붓글씨 쓰기]

〈 제주 들불축제 〉



[오름불꽃]



[집줄 넣기]

4 2017 유망축제

< 서울 한성백제문화제 >



[근초고왕 어가행렬]



[한성백제문화체험]

< 부산 광안리어빙축제 >



[어방그물끄기]



[싱싱할어장터]

< 대구 약령시한방축제 >



[한방족욕체험]



[200가지 한약재 전시관]

〈 인천 펜타포트 축제 〉



[서드 스테이지]



[드림 스테이지]

〈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



[문중 “역사인물” 입장 퍼레이드]



[사랑해 효 세죽식]

〈 울산 용기축제 〉



[용기가마 소원장작 넣기]



[용기장난촌]

〈 수원 화성문화제 〉



[친림과거시험 무과재현]



[깃발체험]

〈 시흥 갯골축제 〉



[갯벌체험]



[물고기잡기체험]

〈 춘천 국제마임축제 〉



[아수라장]



[물 난장]

〈 정선 아리랑제 〉



[명석아리랑]



[아리랑 경창 · 경연]

〈 강릉 커피축제 〉



[강릉커피 무료시음]



[바리스타 퍼포먼스]

〈 괴산 고추축제 〉



[황금고추를 찾아라]



[고추달린 물고기를 잡아라]

〈 서산 해미읍성축제 〉



[저산팔음 길쌈놀이]



[모시 패션쇼]

〈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



[와일드 놀이터]



[리틀와푸족체험]

〈 고창 모양성제 〉



[답성놀이 체험]



[강강술래 재연]

〈 순창 장류축제 〉



[고추장떡볶이 만들기 오픈 파티]



[순창고추장 비빔밥 만들기]

〈 보성 다향대축제 〉



[차잎 따기 체험]



[수제 차 만들기 체험]

〈 영암 왕인문화축제 〉



[도포제 줄다리기]



[왕인공예체험]

〈 포항 국제불빛축제 〉



[데일리 뮤직 불꽃쇼]



[영일만 물총 대전]

〈 고령 대가야체험축제 〉



[역사 재현극]



[대가야 활 만들기 체험]

〈 밀양 아리랑대축제 〉



[역사맞이 대통합 거리 퍼레이드]



[소망기원 등 달기]

2017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
- | | |
|-----------------------|--|
| ◆ 기획 | 금 기 형 (관광정책국장)
홍 성 운 (국내관광진흥과 과장)
표 광 중 (국내관광진흥과 서기관)
조 영 미 (국내관광진흥과 주무관) |
| ◆ 설문조사결과 종합 | 김 재 호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박 주 현 (인하공업전문대학 연구원) |
| ◆ 2017년 전문가
현장평가위원 | 강 준 수 (안양대 교수)
구 문 모 (한라대 교수)
김 병 철 (강원발전연구원)
김 재 걸 (한국관광학회 이사)
김 재 호 (인하공전 교수)
김 주 호 (배재대 교수)
김 태 영 (경남발전연구원)
민 양 기 (충청대 교수)
박 정 배 (청운대 교수)
변 우 희 (경주대 교수)
변 정 우 (경희대 교수)
심 원 섭 (목포대 교수)
원 도 연 (원광대 교수)
윤 주 (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
이 덕 순 (원광보건대 교수)
이 병 민 (건국대 교수)
이 상 호 (부산대 교수)
이 석 호 (방통대 교수)
이 선 철 (감자꽃스튜디오)
이 우 상 (한국국제대 교수)
이 인 재 (가천대 교수)
이 종 원 (여행작가협회 회장)
이 진 교 (안동대 교수)
전 영 철 (상지영서대 교수)
지 진 호 (건양대 교수)
최 동 희 (광주대 교수)
최 영 기 (전주대 교수)
추 미 경 ((사)문화다움상임이사) |

발 행 : 2018년 10월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http://www.mcst.go.kr>

국내관광진흥과 [TEL : 044)203-2854]

ISBN : 978-89-7820-886-4